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7호 2022.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중국의 역사 정책과 동북아 역사문제 1 - 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

- 김현숙 |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 - 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7
조원진 | 중국의 최근 고조선·부여사 연구 현황과 평가 49
권순홍 | 최근 중국학계 고구려사 연구(2018~2021)의 몇 가지 변화 91
위기야 |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현황과 전망 125

논문

- 이정빈 | 3세기 후반 신미제국의 서진 교섭과 장화(張華) 161
배노찬 | 당-신라 능묘비 형태의 비교연구 201
윤은숙 | 루안판의 『북원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요 서술의 특이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261
김희만 | 『연경재전집』의 지리류(地理類)와 한국고대 영토 인식 293
이행선 | 한국 핵 피폭자운동의 선구자 박수복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343

자료소개

- 김영숙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전시 일본의 프로파간다』 자료의 가치와 한계 387

서평

- 백종오 |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박선미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1)의 서평 407
안정준 | 7~8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구도와 그 변화 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古代東アジア國際關係の變化と再編—』
(植田喜兵成智 著, 山川出版社, 2022) 443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China's Policy on History and Northeast Asian Historical Issues, Vol.1: Evaluation of Twenty Years of Northeast Project and Tasks Ahead

- Kim Hyunsook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Korean-China Historical Conflict: Going Beyond the Northeast Project(東北工程) to the Future 7
- Cho Wonchin ■ Study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China's Recent Research on Old Joseon and Buyeo History 49
- Kwon Soonhong ■ Some Changes in the Recent(2018~2021) Research of Goguryeo History in Chinese Academia 91
- Wee Kaya ■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Baekje History Research in Chinese Academic Circles 125

Articles

- Lee Jeongbin ■ Negotiations between Shimmijeguk and Xi-Jin in the Late Third Century and Zhang Hua 161
- Bae Nochan ■ A Comparative Study on Form of Royal and Elite's Tombstone in Tang and Silla 201
- Yoon Eunsook ■ Critical Study of Luan Fan's *History of Northern Yuan*: Focused on the Peculiarities and Issues of the Main Descriptions 261
- Kim Heuiman ■ A Study on Geography Genre(地理類) in View of *The Complex Works of Yeongyeongjae*(『研經齋全集』) and Recognition of Korean Ancient Territory 293
- Lee Haengseon ■ Pioneer of the Nuclear Victims Movement, Park Soo-bok, and South Korean Atomic Bomb Victims 343

Introduction to Documents

- Gim Youngsuk ■ Japan's Propaganda during the Asia-Pacific War in Photographs and War Pictures 387

Book Review

- Baek Jongoh ■ A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Wanfabozi Site in Tonghua, a Novel Innovation 407
- An Jeongjun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st Asia in the 7th and 8th Centuries and a New Perspective on the Factors of Change 443



특집

중국의 역사 정책과 동북아 역사문제 1
- 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

— 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김현숙 |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동북공정의 마무리와 평가
- III. 동북공정 이후, 그리고 현재의 상황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2022년은 중국에서 진행된 이른바 동북공정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¹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과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 3성 사회과학원에서 합작하여, 2002년 2월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실시한 연구사업이다. 원래는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라는 긴 이름인데, 줄여서 동북공정이라고 한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 민족, 강역, 변경문제 등 이 지역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연구한 사업이다.

이미 연구기한이 끝난 사업을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짚어보는 이유는 프로젝트 기간이 끝났지만 관련 사업과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이후 관련 상황을 ‘포스트동북공정’이라 부르고 있다.² 또 2007년 이후 생산되는 중국의 한국사 관련 역사연구물들이 동북공정 당시 제시되었던 역사인식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공정식 역사인식’³이라 부르기도 한다.

* 투고: 2022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10일, 게재 확정: 2022년 8월 16일

- 1 이 논문은 2022년 6월 17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중국의 역사정책과 동북아역사문제-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에서의 기조발표문을 수정, 정리한 글이다.
- 2 윤휘탁, 2009,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정호섭, 2013, 「중국의 POST 東北工程과 고구려사 관련 동향 분석」, 『韓國史學報』 제51호.
- 3 2002년부터 5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이란 용어를 2007년 이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더 나아가 역사 분야가 아닌 드라마나 문화를 둘러싼 한중갈등에 대해서도 모두 동북공정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이란 용어 사용문제에 대해 김현숙, 2012, 「2007년 이후 한·중 언론의 동

동북공정은 한중 역사학계뿐 아니라 두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동북3성 지역, 즉 만주지역 연구는 동북공정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더 나아가 한중 두 나라의 서로에 대한 인식도 이를 계기로 크게 달라졌다. 2012년에 한중의 언론 보도에 동북공정이란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국과의 역사, 정치, 외교, 경제무역, 기타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등 전반적인 면에서 한중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모두 동북공정을 거론하고 있다.⁴ 즉 우리나라에서 동북공정은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에만 해당되거나 역사 분야에 국한된 용어가 아닌, 중국 관련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용어가 되었다.⁵

사실 ‘공정’이란 사업, 프로젝트란 의미의 중국어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김치공정이니, 한복공정이니 하는 용어가 그러하다. 동북공정이 국내에 처음 알려질 때 중국 용어를 우리 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공정’이란 보통명사가 뭔가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특별한 단어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점들은 결국 동북공정이 역사영역을 넘어 한중 간의 경제교류나 문화교류, 정치적 우호협력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로는 동북공정과 정치현실 문제를 직결시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거나, 국가의 외교정책 문제를 비판하는 식으로 비약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역사 분야 사안일 경우, 충분한 근거 없이 바로 동북공정과 연결지어 역사왜곡 또는 역사침탈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중국 관련 분야에서 일어

북공정 관련 보도양상,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119~120쪽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김현숙, 2016,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호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 이름은 ‘동북공정’, 2007년 이후 연구물들에 보이는 중국의 자민족중심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동북공정식 인식’ 혹은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으로 구분해서 칭했다. 즉,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사용한 용어였다.

4 김현숙, 2012, 위의 글.

5 김현숙, 2012, 위의 글, 125쪽.

나는 갈등을 모두 동북공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칫 개별 사안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고 실체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결국 중국에서 동북공정 사업을 종료했다라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이를 포스트동북공정이라고 한다면 포스트동북공정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금년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는 동북공정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당시 사회과학원 안의 작은 연구소에 불과했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몇몇 연구원과 동북3성 지역의 지방학자들이 계획한 프로젝트가 이토록 오랫동안 두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그들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한중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선 동북공정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으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보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동북공정의 마무리와 평가

동북공정은 동북3성 지역의 역사와 동북변강정책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로⁶ 연구, 당안정리, 번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했고, 모두 110개 과제를 선정했다. 동북공정에서의 역사연구는 현재의 중국 영토에 속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의 과거사는 모두 중국사에 속한다고 보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이

6 임기환은 동북공정을 고구려사, 발해사, 고조선사 및 이와 연관된 기타 역사문제를 포함하는 동북역사공정과 중국의 동북변강연구, 소수민족정책, 주변국가(북한, 한국, 러시아 등)에 대한 전략적 측면이 포함된 동북변강정책·전략공정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기환, 2012, 「동북공정과 그 이후, 동향과 평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24~26쪽.

는 현재 상황을 과거 역사에 대입하는 영토 중심 사관이기 때문에 역사를 현재에 맞게 왜곡할 소지가 많은 이론이다.

동북공정은 국내에 알려질 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혹은 고구려사 빼앗기 사업으로 알려져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사실 입학과정과 연구결과물들을 보아도 동북공정 실시 초기에는 분명 고구려사 귀속문제가 가장 주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고구려사 문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었다.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의하면 동북3성 지역을 무대로 했던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등이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한국고대사가 모두 중국사에 귀속된다. 이것은 한국고대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고 역사의 실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한중 간 역사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은 사업 초기에 공모와 과제 선정 과정을 주도했지만 2003년 이후에는 기본적인 지도만 하고, 동북3성 지역에서 연구기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연구기관을 확대 개편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린성에서는 지린성 사회과학원, 당안관, 조선반도관계연구소, 지린대학, 베이화대학(北華大學) 고적연구소, 연변대학 중조한일관계사연구소, 민족연구소,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 조선한국학연구중심, 중한교육비교연구중심, 민족과 강역 연구중심, 동북변강민족연구소, 창춘사범학원 동북아연구소, 지린성 민족연구소,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랴오닝성에서는 랴오닝성사회과학원, 당안관, 랴오닝대학, 선양 동아문화연구중심, 랴오닝성 동북변강역사와 현상 연구중심, 다롄대학 동북변강연구중심이 참여했다. 그리고 헤이룽장성에서는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당안관, 헤이룽장대학의 만어연구소, 중국북부변강 민족역사문화연구소, 헤이룽장민족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3성 가운데 고구려와 발해 유적이 가장 많은 지린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07년 이후에는 지린성사회과학원과 지린대학, 창춘대학, 연변대학, 동북사범대학이 관련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곳에 재직 중이거나 수학하고 있는 소장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동북공정을 학술적으로 확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동북사지(東北史地)』라는 잡지였다. 이 잡지사의 사장은 중국 공산당 길림성 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인 쟡푸유(張福有)였다. 그는 동북공정 실시 이후 고구려 유적 관련 글을 왕성하게 발표했다. 이 잡지사는 『학문(學問)』이란 학술잡지를 개명한 것으로, 2004년 8월에 지린성이 신설한 지린성 고구려연구중심에서 운영했다. 『동북사지』는 2004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나왔다.⁷

동북공정은 연구비를 나눠주고 연구를 진행하게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수합해 출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일이 끝났다는 것이지, 그와 관련된 제반 일들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 관련 연구사업은 종료가 없다. 진시황제의 분서갱유(焚書坑儒)에도 불구하고 유교 관련 서적을 완전히 없애거나 유학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번 세상에 나온 역사서는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이후에도 동북공정 관련 문제는 계속 발생했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厲聲)은 2008년 8월 1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UBC국제학술대회에서 동북공정 선정과제의 결과물이 90%가량 수집되어 곧 출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처음 계획과 달리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물 출판을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다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수준미달인 결과물은 출판이 보류되었다. 일부는 홍콩이나 다른 지역 출판사에서 자비로 출판하기도 했고, 과제명을 달리하여 출간하기도 했다.

2009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창춘에서 ‘동북변강역사어문화학술연토회(東北邊疆歷史與文化學術研討會)’가 개최되었다. 2008년 12월 26, 27일, 길림성 연길시에서 열린 ‘동북역사와 문화 학술교류회’에서 이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회의는 중국사회과학원과 지린성사회과학원이 주관하고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이 협찬했다. 60여 명의 학자가

7 박승범, 2022, 「『동북사지』를 중심으로 본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고구려·고리연구소 엮음, 『한중수교30년 역사침탈20년 동북공정 백서』, 맑은 나라, 731쪽.

참가하여 고구려사 관련 논문 13편, 발해 관련 논문 5편, 중원왕조와 변강민족 정권 간의 관계에 대한 글 등 40여 편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들을 모아 같은 해 12월에 『동북변강역사어문화연구(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를 발간했다.⁸

회의내용을 종합, 정리한 글을 황송진(黃松筠)과 양위수(楊雨舒)가 작성했다. 황송진은 회의의 발표내용을 주제별로 3개로 나눠 간단히 정리했다. 첫 번째 주제인 <개혁개방 이후 동북변강역사와 문화연구 평가>에서는 리성·류쯔민(劉子敏)·짱푸유 등이 그동안의 사업 결과에 대한 총평과 각 분야별 평가를 했다. 이들은 110개 항목의 연구과제를 기획하여, 고대 중국변강이론·동북민족사·중조관계사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고, 역사유적 조사와 고구려사 연구에서의 성과를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인 <고구려·발해 쟁점문제 연구>에서는 웨이춘청(魏存成), 양진(楊軍), 마오웨이(苗威) 등이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웨이춘청의 글이 주목된다. 그는 “중국에서 볼 때 고구려는 당시 중국 동북지구에서 기원한 오래된 민족이므로 고구려정권은 중국 역사상 변방정권이고, 한반도의 역사에서 볼 때 고구려는 한반도 민족을 이룬 중요한 기원 중의 하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고구려정권과 중국 중앙왕조의 번속 체제 관계를 실제에 맞게 기술하는 것이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⁹ 세 번째 주제인 <민족사와 변강이론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는 대대로 논쟁이 되어왔던 중국 역대 강역의 획정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자오용춘(趙永春)은 “오늘날 중국강역이 포함하는 민족을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의 여러 민족의 역사와 강역을 소급해야 한다”고 했다.¹⁰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역사상의 강역문제를 나눌 때 당연히 앞에서부터 뒤로 가야 한다며,

8 邢正 主編, 2009, 『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9 魏存成은 「高句麗의興亡及其歷史地位」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발표된 글을 모아 출판한 『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邢正 主編, 2009)에는 이 논문이 실리지 않았다.

10 趙永春, 2009, 「關於中國歷史疆域理論界定的再思考」, 『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강역문제는 바로 국가주권문제로서 중국왕조사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중국 고대강역의 확장과 축소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¹¹

양위슈는 ① 동북변강민족의 귀속문제, ② 중국 역대변강과 동북강역의 확정, ③ 변강민족정권과 중앙왕조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④ 중국 역대 왕조의 동북변강 경략의 득실, ⑤ 동북지방사의 분기 및 각 단계의 사회성 격에 관하여, ⑥ 동북지역문화의 명칭에 관하여, ⑦ 고구려와 발해사 연구에 관하여, ⑧ 간도문제와 두만강 중한 국경조약의 8개 부분으로 나눠 발표내용을 소개하고, 동북변강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¹² 그는 동북변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인재 양성과 과학발전관 고수, 주요 이론 문제 연구 강화 및 미시연구와 거시연구의 유기적인 결합을 요청했다.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관념을 새롭게 갱신하고 학제적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다원화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 변강의 역사와 문화 연구는 중국 변경연구의 전반적인 상황 아래 고찰해야 하고, 동북 변경의 주요 이론문제에 관한 연구도 중국 변경이라는 큰 배경 아래서 전개되어야 하며, 기타 변경지구와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북 통사는 물론이고 단대사(斷代史), 전문 분야사(分野史)에도 아주 큰 연구 공간이 있다며, 동북 역사·문화학의 건설은 중국 동북학 건설의 하나의 방향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동북 문화사·동북 문명사·동북아 문화사 및 동북아 문화교류사 부문의 연구를 적극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학계의 관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되, 이 과정에서 구동존이(求同存異)를 견지하며 상호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 변경의 역사를 연구할 때 많은 민감한 문제를 적

11 黃松筠, 2009, 「“2009年東北邊疆歷史與文化學術研討會”綜述」, 『中國邊疆史地研究』 2009-4.

12 楊雨舒, 2009, 「2009年東北邊疆歷史與文化學術研討會綜述」, 『東北史地』, 2009-06.

절히 처리해야 한다며, 역사적 문제를 현실화해서는 안 되고, 학술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¹³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한다는 구동준이와 역사적 문제를 현실화해서는 안 되고, 학술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은 한중학술회의 진행 과정에서 중국 측이 시종일관 거론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동북공정의 연구 내용 자체가 현실문제이자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문구 그대로 받아들여이기도 어렵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역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계의 기본입장이다.

여하튼 이 회의는 2007년 동 사업의 종료 후 처음 실시된 대규모 학술회의로 동북공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연구사업의 원칙과 임무를 명확히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동북공정의 결산 회의로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빙정(郢正)은 동북공정의 추진 결과, 고구려사를 비롯한 동북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¹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한 상당수의 학자는 프로젝트로서의 동북공정은 종료되었어도 동북공정에서 나온 주장과 역사인식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 우리나라에서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 많이 수정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2022년에 나온 『동북공정백서(東北工程白書)』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를 빼앗겼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역사독립운동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¹⁵

13 양위슈의 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고구리·고리연구소 엮음, 2022, 앞의 책, 471~481쪽 참조 바람.

14 郢正 主編, 2009, 앞의 책, 서문에서 “‘동북공정’은 2007년에 결속되었는데 5년간 질적으로 훌륭한 학술성과를 거두었으며, ‘동북공정’을 통해서 인재 배양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고, 대부분의 중견 학자들이 동북공정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했다. ‘동북공정’의 결과는 동북변강 역사와 문화 연구의 사업에 대해 새로운 시발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평했다.

15 고구리·고리연구소 엮음, 2022, 앞의 책.

2007년 이후 연구상황을 통해 동북공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본적으로 동북공정 실시 초기에 내세웠던 주장을 보완, 심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학계의 한국사 연구에서는 선언과 주장이 앞서고, 편향성이 강한 사료를 채택하여 정해진 이론에 억지로 끼어 맞추는 식의 논문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차분히 논증하고 분석한 글이 많이 나오고 있다. 둘째, 연구자의 지역적 외연이 넓어졌고 신진연구자 숫자도 늘어났다.¹⁶ 셋째, 광범위한 자료집성과 번역사업으로 연구 기반이 확립되었다. 중국에서는 이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연구성과를 거의 보지 않았고, 『삼국사기』 등의 한국 사서를 참고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비판과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연구물 번역 사업을 통해 한국과 일본, 구미지역의 연구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동북공정 계획 단계에서부터 목표로 했던 동북지역 역사에 관한 대중서들도 출판되었다. 즉, 동북공정을 계기로 고구려사를 비롯한 동북3성 지역사에 대한 연구기반 확립, 연구물의 양적 팽창과 질적 수준 향상, 신진연구자 확대, 신진연구자 양성시스템 정비, 중국의 일반 대중들과 학생들에게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 확산이라는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한편 동북공정과 궤를 같이하여 출발한 동북진흥전략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노후화된 공업기지인 동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발전이 뒤진 편이었다. 중국에서 동북공정과 동북진흥전략을 구상하여 진행한 배경에는 낙후된 이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다. 역사문제와 경제발전을 묶어 함께 진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진행된 사

16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고구려 연구물들을 분석해본 결과, ① 학술적으로 동북공정식 인식을 보완, 심화해가는 단계, ②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 전공자의 수적 증가, ③ 연구자 배출 및 분포 지역의 중국 전역 확산, ④ 관련 연구비 지원 지속, ⑤ 관련 연구기관 증가, ⑥ 대학과 기관, 대학과 대학 간 밀접한 연계로 신진연구자 양성에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사실 등을 확인한 바 있다. 김현숙, 2016, 앞의 글; 김현숙 외, 2017,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분석과 비판 2007~2015-』, 역사공간 참조.

업 가운데 역사유적지 정비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이 가장 주목된다. 고구려 유적지의 정비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는 고구려 유적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환론헌시(桓仁市)와 지안시(集安市) 지역을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했다. 여기에 국내의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안시의 경우 고구려 유적지의 관광사업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를 모델로 닝안시(寧安市), 둔화시(敦化市), 허룽시(和龍市)의 발해 유적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백두산 일대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이루어졌다. 관광지 조성과 관광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도로의 증설과 정비가 따르게 되고 지역의 도시화도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지안시와 환론헌시의 변모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동북3성 지역에 박물관을 많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동북공정을 통해 정리한 동북사 인식에 따라 박물관의 패널을 작성하고 유물 전시를 하고 있다. 각 지역 박물관은 지역민들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지 역할을 한다.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박물관 패널과 전시는 동북지역이 선사시대부터 줄곧 중국에 속하는 곳이었고, 그곳의 역사는 중국사라는 것을 주입하는 좋은 교육자료가 되고 있다. 박물관은 역사를 통한 국민교육 및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자국의 역사인식 전파, 그리고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¹⁷

그런데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관광객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외국 관광객은 거의 출입을 못하게 되면서 발전일로에 있던 동북지역 관광사업이 일시적으로 정체단계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고구려, 발해 유적지와 백두산 일대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또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고구려, 발해 유적 발굴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유적지들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관람객들이 찾아오게 되면 한중 간에 역사갈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17 김현숙, 2021a,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고구려발해연구』 71.

III. 동북공정 이후, 그리고 현재의 상황

앞에서 보았듯이 2002년에 시작한 동북공정이 5년간 진행되었고, 2009년에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5년짜리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중국의 자국중심적 사관에 의거한 한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동북공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중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역사 관련 사업은 계속되었다. 동북공정 사업을 주관하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은 2014년 10월 중국변강연구소로 승격되었다.¹⁸ 그리고 2019년 1월 중국사회과학원은 고고연구소, 고대사연구소, 근대사연구소, 세계역사연구소, 역사이론연구소, 중국변강연구소 등 역사 관련 6개 연구소를 아우르는 중국역사연구원을 출범시켰다. 동북지역 역사연구 사업은 표면적으로 볼 때 동북3성 지역 사회과학원과 대학, 연구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중국변강연구소 연구원이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방향 제시와 지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지역 관련 연구사업의 연구비는 2009년 학술회의에서 우인(武寅)이 제시했던 것처럼 동북3성 사회과학원에서 발주하는 연구비와 국가사회과학기금, 교육부기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¹⁹

그런데 최근 중국학자들의 한국사 연구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 나온 한국사 관련 연구물을 보면, 고구려 역사 관련 연구가 수적으로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신 심화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구려·발해 유적 발굴보고가 많아졌다. 그런 가운데 고조선, 부여 관련 논문이 전보다 많아졌고, 가야, 백제, 신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18 중국변강연구소에는 동북과 북부변강연구실(東北與北部邊疆研究室), 서북변강연구실(西北邊疆研究室), 서남변강과 해강연구실(西南與海疆研究室), 강역이론연구실(疆域理論研究室) 등 4개의 연구실이 있다.

19 武寅, 2009, 「繼往開來, 迎接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新高潮」, 『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5쪽.

고려, 조선 시대 관련 연구물이 눈에 띄어 증가하고 있다.²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 중심의 한중관계사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연구에서 중고시기 동북아의 국제관계를 ‘조공체제를 통해 확립된 중반관계’로, 명청시기 조공체제를 ‘명청왕조가 주도하는 화이준비 등급의 사회질서를 위한 제도적 설계’로 파악하여, 이른바 ‘번속국’과 ‘각기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는 ‘천하대동’의 세계질서로 파악하는 등 조공체제와 중반질서로 전근대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다.²¹ 또 당-신라의 관계를 ‘안정적인 중반교류’ 관계로 파악하고,²² 발해의 건당사 파견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발해국 지위를 유지했다’고 해석하며,²³ 조선 세종의 ‘기해동정’으로 조선이 명조의 책봉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번국’으로 올라섰다고 보는 등²⁴ 중국 중심으로 한중관계를 해석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다. 즉,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한중관계를 모두 중반관계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임진왜란을 중국 중심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역사, 문화, 언어, 예술 분야 등 전방위

20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반기별 중국의 한국사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 나온 『중국의 한국사 연구동향』 제21호부터 2021년 하반기에 나온 제28호에 정리된 중국의 한국사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파악한 내용이다.

21 孫文政, 2021, 「金與高麗宗藩關係演變的歷史學考察」, 『東疆學刊』 2021-03; 向勇, 2021, 「明清租貢體制下的文化交流與實物往來」,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21-05.

22 拜根興, 2021, 「唐朝與新羅道教文化交流的再探索」, 『唐史論叢』 2021-02.

23 沈一民, 2021, 「現存文獻所見大欽茂時期渤海國大唐使次數考」, 『中國邊疆學』 2021-01.

24 馬云超, 2021, 「“己亥東征”與15世紀前期的東亞外交博弈-以朝鮮王朝初期的對外政策爲中心」, 『江海學刊』, 2021-05.

25 孫衛國, 2021, 『再造蕃邦之師萬曆抗倭援助明軍壯士群體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徐丹, 2021, 「萬曆朝鮮戰爭中的福兵與中朝交流-以游擊將軍許國威爲中心」, 『當代韓國』 2021-02; 張子昂, 2021, 「朝鮮王朝後期水軍中的“戚法”運用情況」, 『西部學刊』 2021-12; 蔡藝·趙劍平·張銀行, 2021,

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역대 왕조들의 중국에 대한 종속성을 부각시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개별 연구논문이나 저서 외에 주목되는 점은 동북지역 관련 연구자들의 개별연구와 별도로 대규모 집대성 사업이 진행되어 결과물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길림지역 역사와 문화를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획하고, 부속 연구소, 성내 각 대학 연구자 100여 명이 참여하여 2013년 8월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길림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吉林歷史與文化研究叢書)』(길림인민출판사)가 2015년 11월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모두 17권이 출간되었다.²⁶ 통사류 3권, 국경개발사 2권, 고구려사, 발해사 각 1권, 인물 및 유적안내서 4권, 간도 관련 책 1권, 동북항일연군 관련 항일사 연구서 2권, 근대 길림과 일본관계사 2권, 송화강 유역 생태환경 변천사 1권 등이다.

동북지역의 고대 종족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다. 『한원(翰苑)』 소인(所引) 『고려기(高麗記)』,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연구에 주력했고, 동북공정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장웨이공(姜維公) 창춘사범대학 교수가 주편하여 2014년에 나온 『중국동북민족사(中國東北民族史)』 상·중·하에서는 고대 중국 동북지역의 종족집단을 크게 동호계와 숙신계로 구분했다.²⁷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의 종족적 근간을 이루었던 예맥족은 동호계 집단과 숙신계의 상호융합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²⁸ 부여, 고구려는 동호·숙신계와 구분되는 예맥계였다고 보는 것은 중국 정사 및 진위푸(金毓黻)의 『동북통사(東北通史)』에서도 같은 입장이고, 중국학계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져왔다. 그런데 동북공정 이래 고구려의 종족 기원에 대해 은상족(殷商族), 고이족(高夷族), 염제족(炎帝族) 등 여러 설이 나왔다. 최근에는 이들과 예맥족, 한족(漢族), 한족(韓

「中國武術古籍東傳與朝鮮漢文武籍的編纂」, 『體育學研究』 2021-04.

26 馬克·劉信君 總主編, 2015, 『吉林歷史與文化研究叢書』,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7 姜維公 主編, 2014, 『中國東北民族史』(上·中·下),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8 姜維公 主編, 2014, 위의 책(상권), 13쪽.

族)이 결합된 다민족이었다고 보는 설이 다수설로 되었는데,²⁹ 이 책에서는 그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또 2015년에 『부여역사연구문헌회편(夫餘歷史研究文獻彙編)』(흑룡강인민출판사) 6권을 출판했다.³⁰ 이 책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진행된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를 문헌 연구와 고고학 연구 두 분야로 나누어 총 257편의 글을 묶어냈다. 문헌 연구에서는 충설·민족기원·예맥연구·강역과 왕성·정치와 대외관계·부여문화연구·종합의 총 7개 항목에 따라 164편의 논문을, 고고학 연구에서는 유관고고문화총설(有關考古文化綜述)·시탄산문화(西團山文化)·칭화문화(慶華文化)·동탄산문화(東團山文化)의 총 4개 항목에 93편의 논문과 발굴보고서를 실었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부여사 관련 대부분의 연구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중국의 부여사 연구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³¹ 중국학계에서는 부여사가 자국의 지방 역사라는 관점을 시종일관 견지해오고 있다. 동북공정 개시 이후 그 논조는 더욱 강화되어 부여를 “건국 이래 기원후 494년 물길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대략 600년간 줄곧 중원왕조에 예속되어 있었던 중원왕조 통할하의 지방민족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³² 부여 관련 문헌기록을 시기별로 편년하고 주제별·사서별·금석문별로 종합 정리한 총서를 출간한 것은 부여사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시각과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동북고대민족역사편년총서(東北古代民族歷史編年叢書)』가 출간되었다. 2016년 3월에 『부여역사편년』,³³ 『고구려역사편년』,³⁴

29 孫進己, 1992, 『東北各民族文化交流史』, 瀋陽: 遼寧春鳳文藝出版社; 楊保隆, 1998, 「高句麗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1998-4; 楊軍, 2002, 「高句麗族屬溯源」, 『社會科學戰線』2002-2.

30 劉信君 主編, 2015, 『夫餘歷史研究文獻彙編』1~6,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31 이승호, 2020, 「부여사연구의 흐름과 이해」,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 63쪽.

32 李治亭 主編, 2003, 『東北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33 鄭麗娜 編著, 2016, 『夫餘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백제역사편년』³⁵이 나왔고, 2017년 3월에 『발해역사편년』³⁶과 『거란역사편년』³⁷이 출간되었다. 총5권의 편년총서는 부여·고구려·백제·발해·거란 관련 중국, 한국, 일본 사료를 집성한 다음, 연대기로 정리, 편집한 사료집이다. 편년의 기준은 중국사서로서 중원왕조의 연호(서기 병기)에 따라 각종 사서의 사료를 발췌하여 나열했다. 중국사서, 묘지를 비롯한 금석문, 『삼국사기』를 비롯한 한국사서, 『일본서기』를 비롯한 일본사서를 총망라했다. 편년총서는 문헌연구의 심화를 위한 토대연구로서 그동안 중국학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를 통해 사료 이용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료적 가치를 낮게 보고 아예 언급도 하지 않던 『삼국사기』를 비롯한 한국 사료를 종합 정리한 것을 보면 향후 한국사 연구에 이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편년총서의 주편은 장웨이공이다. 그는 편년총서의 서문에 동북공정의 경험으로 이 총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편년총서의 각 권 표지에는 ‘국가사회과학기금 중점항목 성과’라고 명기해놓았다. 중국의 국가사회과학기금³⁸은 그동안 인문학 분야에 연구비를 많이 배분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역사 분야 연구비를 이전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 동북공정 종료 이후에도 중국이 동북지역 역사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북지역 역사서 출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19년 12월에 발간된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東北古代方國屬國史研究叢書)』다. 이 연구총서는

34 姜維東 編著, 2016, 『高句麗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35 趙智濱 編著, 2016, 『百濟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36 劉海洋·趙振海 編著, 2017, 『渤海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37 黃爲放 編著, 2017, 『契丹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38 중국의 국가사회과학기금은 1991년에 설립되었고 전국철학사회과학규획[공작]판 공실에서 관할한다.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항목은 ① 응용대책 연구, ② 중대 기초 이론 연구, ③ 학제적 연구의 세 유형이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중국의 정책에 따라 역사와 고고학, 문화 부문 연구비가 많이 증액되었다.

중국이 동북공정 이래 진행해온 만주지역 역사 정리사업의 현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총서는 2010년에 중국 국가사회과학기금의 중대항목으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그해 4월 27일에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7월에 제1차 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다음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8년에 걸쳐 집필한 후 2018년 9월에 원고 수합을 완료했다. 총서 편찬사업의 총고문은 인민대학교의 저명한 청사 연구자로서 청사공정을 이끌어온 다이이(戴逸)다. 고문으로는 마다정, 리성, 린윈(林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구사업의 주임은 방정이며, 부주임은 리즈팅(李治亭)·푸바이천(付百臣)·샤오한밍(邵汉明)·류신진(劉信君)이다. 각권의 집필은 ①『기씨조선사(箕氏朝鮮史)』, ②『위씨조선사(卫氏朝鮮史)』는 마오웨이(苗威), ③『고죽·동호·영지·도하사(孤竹·东胡·令支·屠何史)』는 리더산(李德山)·리루(李路), ④『부여사(夫餘史)』는 류신진·등슈핑(邓树平), ⑤『전연사(前燕史)』는 자오희메이(赵红梅), ⑥『후연사(后燕史)』는 티엔리쿤(田立坤), ⑦『북연사(北燕史)』는 상용치(尚永琪), ⑧『발해사(渤海史)』는 웨이귀쥙(魏国忠)·양위슈(杨雨舒), ⑨『거란사(契丹史)』는 우위페이(武玉环), ⑩『동단사(东丹史)』는 두싱지(都兴智), ⑪『금사(金史)』는 청니나(程妮娜), ⑫『동하사(东夏史)』는 장씨우송(蒋秀松)·장롱(蒋戎), ⑬『북원사(北元史)』는 란판(栾凡), ⑭『후금사(后金史)』는 황송진(黄松筠)이 맡았다. 고문과 집필진들이 대부분 동북공정의 주역이거나 과제를 수행한 인물들이다.

편찬 참여자 가운데 고문들은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인물이 주를 이루지만, 집필진은 모두 동북지역 인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지린성사회과학원과 지린대학, 그리고 동북사범대 소속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다. 하지만 중국사회과학기금 심사를 통과하여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주류 학계와 국가 단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된다. 이는 동북지역사를 총 집대성한 이 총서가 현 중국 역사정책의 틀 안에서 정리된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동북사 인식이라고 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서는 원래 『동북고대방국속국총론』이란 제목 아래 ①『기씨조선·위씨조

선』, ② 『고죽』[부(附)영지·도하], ③ 『부여』, ④ 『고구려』, ⑤ 『전연』, ⑥ 『후연』, ⑦ 『북연』, ⑧ 『발해』, ⑨ 『거란』, ⑩ 『동단』, ⑪ 『금』, ⑫ 『동하』, ⑬ 『북원』, ⑭ 『후금』의 역사와 총론을 합쳐 15권으로 출판하되, 각권의 분량은 평균 30만 글자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즉, 총서의 집필 대상으로 삼은 고대 동북의 나라는 고죽, 영지, 도하, 기자조선, 위만조선, 부여, 고구려, 전연, 후연, 북연, 발해, 거란, 동단, 금, 동하, 몽골, 북원, 후금 등 18개국이었다.

그러나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나누어 두 권으로 만들었고, 고죽국사와 이에 부록된 형태로 영지와 도하사를 서술하려 했는데 동호까지 넣어 『고죽·동호·영지·도하사』란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리고 총론과 고구려사가 빠진 채 출간되었다. 동북공정 이후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구려사가 출판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2004년에 한중이 맺은 구두양해 조항과 한국의 민감한 반응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지, 원고의 완성도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총론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고구려사 역시 저술은 마친 상태이고 조만간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어는 총서의 체제를 “전통과 당대의 다른 체례(體例)를 하나로 통합한 고금(古今)의 종합체”라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기전체 서술방식을 취했으나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正史) 편찬 방식을 채용하면서도 변통(變通)했다”고 서언에 밝힌 것처럼 정통 기전체와 형식상 차이가 있다.³⁹ 정통 기전체와 달리 동북지역에서 명멸했던 정권의 흥망 시말을 다룬 통사(通史), 방국·속국의 정치·경제·관직·행정·민족·문화·풍속을 다룬 전지(典志), 중요 인물을 다룬 전기(傳記), 학계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룬 고이(考異: 역사 고증)로 편목을 구성했다. 기전체를 채택하여 동북지역 왕조사를 서술했지만 융통성 있게 운용한 것이다.⁴⁰

39 기전체는 역사서의 편목을 본기(本紀), 지(志), 표(表), 열전(列傳)으로 구성하여 전 왕조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으로, 이전 왕조사를 기전체사서로 편찬한다는 것은 전 왕조의 정통성과 주권, 민, 역사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0 기전체의 변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고대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나라

총서에서는 “중국 역사상 동북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며, “유사 이래 동북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 강역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 몽골이 독립국가가 되었고, 러시아가 흑룡강 이북과 우수리강 동쪽의 중국 동북 영토를 분할점령하고 있지만, 동북은 자고 이래 중국의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이 총서를 “동북 열토에 헌정한다”고 기술했다. 총서의 출판배경과 목적에 대해 총 주편인 빙정은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 1차 회의에서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고 주변국의 역사, 민족과 강역 방면의 논쟁을 처리하며 국제학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총서는 중국의 현재 영토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지역과 지역민의 과거사는 모두 중국사라고 하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중국 동북지역에 있었던 방국과 속국의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주변국의 역사, 민족, 강역 방면의 논쟁이란 동북공정 실시 이후 이 지역 역사를 두고 한국과 첨예하게 학술 논쟁을 벌인 것을 말한다. 이는 동북공정 이후 한국학계에서 중국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의 허구와 모순점을 비판한 데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학계의 주장을 총서 형태로 집대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학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한국학계를 위시한 외국학계를 대상으로 중국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이 총서편찬의 목적임을 천명한 것이다.

총서에서는 방국, 속국, 할거정권(割據政權), 대치성정권(對峙性政權), 지방정권이란 용어를 주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다. 방국은 기원전 20세기 이후 고국(古國)에서 발전한 부족 이상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체를 가리킨다. 속국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분포했던 정치경계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진(秦) 이후 중원왕조와 책봉조공관계를 맺었던 부속국이나 번속국을 칭

들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정통 기전체를 그대로 적용해 서술하면 중원 왕조와 별개의 독립국 왕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다른 체제를 택하면 정사의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용어다. 총서에서는 기씨조선, 위씨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동단 등을 속국이라 보았다. 할거정권은 전국(全國) 정권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정치체를 가리킨다. 대치성 정권은 대립정권, 즉 중화일체 구조 안에서 중원왕조와 대립한 정치체로 요, 금, 몽골 등을 가리키는 용어다. 지방정권은 중앙정부에 속한 지역임을 강조하는 단어다.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라는 제목에 이미 나타나 있듯이, 이 프로젝트에서는 고죽국부터 복원까지 개별 통사로 서술한 요동지역 소재 정치체의 성격을 중국 고대 동북의 지방정권, 혹은 민족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동지역사를 주체적·독립적인 역사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중국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사로 간주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실 동북, 동북사, 동북민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다 전통성과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 요동, 만주 등이 있는데도 동북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도 이미 이 총서의 출판목적이 드러난다.

그것은 각권의 내용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 책들에서는 시종일관 요동, 즉 만주의 역사를 이른바 소국 성립 이후 복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의 지방사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 여러 나라가 성립하고 존재했을 당시 중원 왕조와의 정치적 관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전체를 중앙에 종속되어 있던 속국 혹은 지방정권이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몰역사적인 인식이다.

이 총서의 의미에 대해 빙정은 “우리나라 지방사 연구의 홍편거저(鴻篇巨著)”라 했다.⁴¹ 이 총서는 만주지역에서 명멸한 여러 나라의 역사를 최초로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서는 중국학계의 그간의 연구성과와 문헌자료, 고고학 자료를 모두 모아 지역사를 종합 정리함으로써 이 지역이 자고 이래 중국 영토였고, 이 지역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입증

41 이 총서의 의미에 대해 빙정이 이 과제가 선정된 2010년 7월 7일자 『광명일보(光明日報)』에서 이렇게 밝혔다.

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국외 연구자들에게는 중국 동북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과 연구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여사』의 경우, 중국학계의 다양한 견해와 방대한 연구 흐름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난립하고 있는 중국학계 부여사 연구의 현 단계를 점검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 『전연사』나 『북연사』의 경우, 전연과 북연의 역사만 다룬 유일한 전문연구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총서를 발간한 목적이나 연구 방식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총서 발간목적 자체가 학문적인 면보다 정책적인 면이 더 강하다. 참여자나 프로젝트 시작 시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총서는 동북공정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곧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과거사를 그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 역사를 연구하는 만큼 현재 관점에서 과거사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때 과거사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데 중국학계의 서술에서는 그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총서도 마찬가지다.

총서에서는 동북지역 나라들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나라 이후 동북에 출현한 지방정권, 민족정권은 중원왕조의 속국이라고 소개하며 동북 지방정권과 민족정권을 중원과 대다수 방국·속국 관계로 규정하고,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동단국은 속국, 혹은 한(漢)의 일부 지역을 할거한 지방정권으로 파악했고, 요·금·몽골에 대해서는 모두 중화민족으로 융합되었음을 전제로 서술했다. 지방정권이란 개념을 확정하고 역사상으로 존재했던 동북의 모든 정치체를 그 범주 안에 귀속시켰다.

총서 가운데 『기씨조선사』에서는 연변지역이 조선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고 보면서 연변 역사는 만주족 선인의 역사이고 중화민족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부여사』에서는 부여가 한대(漢代)로부터 진대(晉代)에 걸쳐 중원왕조의 번속체제 내에 위치했던 중국 동북지방의 중요한 지방민족정권이었고, 중화민족의 한 구성 부분으로 융합되었다고 했다. 『발해사』에서는 발해가 고도의 자

치와 자주적 외교로 독립국의 인상이 있지만, 당 현종의 발해군왕 책봉 이후에는 당의 변봉국이 되었고, 흘한주도독부는 당의 속주, 즉 지방정권이라고 했다.

이때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특히 주의하여 서술했는데, 그 예로 『거란사』에서 고려가 요의 〈속국표〉에 있는 속국이었다고 하면서도 같이 들어 있던 일본국(日本國)은 제외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금사』에서는 고려를 신속국(臣屬國)이라 표현했고, 『북원사』에서도 고려는 국체만 유지했을 뿐 실상은 원에 예속된 지방 권력기구에 불과했다고 서술했다. 고조선부터 고구려·발해·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임을 의식하면서 시종일관 증원왕조의 속국, 혹은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총서에서는 각 족속(族屬)과 한민족(韓民族) 간의 관련성을 축소 왜곡하고 단절시키는데 무엇보다 힘을 많이 기울였다. 예컨대 『기씨조선사』에서는 단군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기자조선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한대 이후 사서에만 기자가 나오는 것에 대한 사료검증과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학계에서는 기자가 기원전 10세기 전후의 인물인데, 기자동래설은 한대 이후 기록에만 등장하므로 기자동래설은 한대 역사가의 관념상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료분석이나 논리적 반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만으로 가상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기자조선의 기원집단으로 당시 대동강 유역에 양이(良夷)가 존재했다고 하지만 그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부여사』에서는 부여와 예맥족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부여는 ‘이예지향(夷穢之鄉)’이라는 기록이나 ‘예왕지인(濊王之印)’이 출토된 사실 등에 대해 명확한 반론을 펴지 않았다. 또 부여와 고구려, 부여와 백제, 고구려와 백제가 예맥족으로서 관계를 맺었고, 고구려와 백제가 모두 부여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의식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발해사』에서는 발해 건국의 주체민족을 말갈로 보면서, 왜 그런 발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거란사』에서는 발해 유민과 고려는 혈연상의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그 유민이 고려로 들어올 때 고려에서 동족임을 이유로 받아들인

사실을 서술하지 않았다. 즉, 정해진 결론과 상반된 면을 보여주는 사료와 관련 연구성고가 많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저자 본인의 기본 논지에 맞는 사료만 취사선택하여 정리했다. 총서의 각권은 정해진 결론에 따라 관련 자료들과 연구성고를 취사선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모두 중화민족대가정의 역사가 자고 이래 계속 진행되어왔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 총서가 계획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다원일체의 중화대가정을 강조하면서 동북지역의 이른바 방국과 속국들의 중심이 한족이고, 지역 문화는 선진 한족 문화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씨조선사』에서 단군신화가 증원신화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하고, 기자가 한반도로 가서 원시상태에 있었던 현지민을 예의로 교화시켰다고 강조한 것, 『위씨조선사』에서 진한(辰韓)을 진(秦)의 망명객이 세웠다고 하고 낙랑군 설치로 인해 한반도가 경제·문화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한 것 등은 모두 그 지역 역사와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부정하고 한족(漢族)과 한족문화의 영향력만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적다민족국가론과 다원일체설과는 상반되는 한족 우위, 한족중심의 차별적 인식의 표방이다. 또 고조선, 부여, 발해, 고려가 중국의 변속국이었다고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영역을 축소시켜 서술하고 있다. 『기씨조선사』에서 비파형 동검문화는 고조선과 관련이 없으며, 고조선의 강역은 시종일관 청천강 이남이라고 본 것, 『위씨조선사』에서 고조선과 한의 경계인 패수를 청천강으로 본 것, 『금사』에서 윤관의 북벌 지역인 갈라전(曷懶甸)을 함흥 부근으로만 본 것 등이 그 예다.

그런 한편 최근 들어 한중 두 나라 사이에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었다. 단오, 농악, 김치, 한복, 삼계탕, 삼겹살 등의 기원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른바 문화원조 논란이 그것이다. 동북공정 진행 시기에도 두 나라 언론과 국민들 네티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지만 폭발적이지는 않았다. 이때는 그간의 역사 상식을 뒤엎으려고 하고 우리 역사를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느낀 한국 국민들의 격렬한 분노에 일반 중국인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애국주의 입

장에서 중국 역사학계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네티즌들이 개별적으로 불만을 표하면서 한국 네티즌들과 댓글로 공방을 주고받는 정도였다. 중국 정부에서도 네티즌들의 지나친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대국굴기와 G2 진입이라는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의 젊은 네티즌들은 중국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거친 반응을 보이며 중국 여론을 조성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화원조를 둘러싼 논쟁도 모두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간주하면서 ‘한복에 김치까지?’라는 심정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고,⁴² 중국에서는 ‘동아시아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발원한 것인데 한국에서 또 우리 것 타령이냐?’고 맞대응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동북공정 문제 때와 달리 갈등과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⁴³ 오히려 적절히 활용하면서 여론의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네티즌들은 험한 댓글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진핑 집권 이후 정책방향과 맥락이 닿아 있다. 시진핑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중화문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42 「중국 시녀 옷이 한복? 이제 한복까지 뺏어가려고 드릉드릉함」, 『중앙일보』, 2020.10.23.

43 중국에서는 구두양해 5개 항을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관련 문구를 넣지 않고 있다. 동북공정에 적극 참여했던 경태화 등은 학문연구에 또다시 금구(禁句)가 생겼다고 불만을 표했다(耿鐵華, 2009, 「改革開放三十年高句麗研究成果統計與說明」, 『東北史地』 2009-2, 48쪽). 중국학자들은 과거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따라 고구려사에 관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거론하지 못했다고 한다. 동북공정을 계기로 물꼬가 트였는데, 한중 구두양해협약에 따라 또 학문에 금구가 생겼다고 불만을 표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구두양해 이후 지방에 고구려사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지방정부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유적지의 패널에서 직접적으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란 구절을 삭제하고, ‘고구려는 고대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 민족정권’이라 서술하게 되었다. 또 구두양해 발표 후 중국학자들에게 참여하게 할 등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나 발언을 억제하도록 조정했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험한활동도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널리 현창하고,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중국적 표준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화대전을 편찬하고⁴⁴ 중화문명탐원공정을 더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⁴⁵ 등도 그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정치문명, 경제문명, 정치문명, 생태문명 등 주요 영역에서 문명대국을 지향하여 종합 문명대국을 건설하고자 한다.⁴⁶ 중국인들이 자국의 역사·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그것이 애국심으로 발현하여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승화하길 원하고 있는 것

44 한인희, 2015, 「중국의 《中華大典》발간의 역사적 의미」, 『동북아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

45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치우스(求是)』의 2022년 5월 29일자 ‘시진핑 총서기, 중화문명 탐원공정의 심화에 대해 상세 설명(習近平總書記詳述深化中華文明探源工程)’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탐원공정 심화를 위한 제39차 집체학 습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상고사의 기원을 탐구하는 이 프로젝트를 한층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2018년에 종결되었다고 한 중화문명탐원공정을 더 확대하라는 것이다. 시진핑은 학자들의 추가 연구를 주문하는 한편, 지금까지 도출된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화문명을 진승하기 위한 농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화문명 탐원공정의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선전하며, 대중 특히 청소년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중화문명을 더 잘 이해하고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며, 중국인의 진취성·기개·잠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세계인들이 중국을 재평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계를 향해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우며 존경할 만한 중국의 이미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46 『中国青年报』, 2022년 6월 14일자 기사 ‘中国特色社会主义的基本精神’에서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내걸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国梦)의 실현을 목표로 잡으면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사업이 창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본정신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의 상호결합, 중국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현실과의 상호결합 등을 들 수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본정신에 함축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물질문명, 정신문명, 정치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문명정신으로, 인류문명에 독특한 공헌을 하고 있고, ② 중화문화의 우수한 보배이자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인 집단정신은 규율적인 정신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서구의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③ 공평정의를 사회주의의 내재적인 가치이자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고, ④ 중국공산당은 국민들과 더불어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⑤ 사회주의 가치체계 내부의 정신적인 품격인 평화정신은 국내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인류문명 공동체 건설의 제창과 같이 대외적으로도 구현되고 있다”고 정리했다(https://theory.gmw.cn/2022-06/14/content_35808965.htm).

이다.⁴⁷

2017년 10월에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두 개의 100년 분투’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즉,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명문화함으로써 중국 민족주의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⁴⁸ 눈에 띄는 점은 문화 발전 전략으로, 후진타오 시대의 3개 자신감(중국적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에 더해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제시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찬란한 전통 문화와 중국 공산당이 지도해온 혁명 문화의 융합, 전통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를 결합한 가치관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한다”는 시진핑의 보고가 당장에 올려짐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론이 새로운 민족이론으로 확정되었다. 중화민족다원일체론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체화를 추구했지만, 중화민족공동체론에서는 공동체론을 강조하면서 일체화를 더 강조한다. 그리고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더 강화하면서 옛날부터 한족과 소수

47 시진핑은 “애국주의는 민족정신의 핵심이자 중화민족의 단결분투, 자강불식의 정신적 유대라고 강조”하며, “애국주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선양하려면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기지의 건설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①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견인하는 사상정치 과목의 핵심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하고, ② 애국주의 교육이 사회실천과 융합되도록 사회실천의 핵심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③ 젊은 학생들이 시공의 한계를 넘어서서 디지털 방식을 통해 애국주의 정신함양과 애국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간에도 핵심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기지의 건설을 강화하자(加强新时代爱国主义教育阵地建设)」, 『人民日报』, 2022.6.7. (https://theory.gmw.cn/2022-06/07/content_35792267.htm).

48 안치영, 2018,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보고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동향과 전망』 102.

민족이 일체였음을 강조하며 내부통합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사에서 한족과 이종족 왕조의 분열과 화합은 중화민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족이 여러 민족을 통합하여 문화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중화민족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본다.

현재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이미 중화민족공동체가 형성되어왔다는 설을 설명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고대문명 및 민족원천연구센터(中国古代文明与国家起源研究中心) 주임인 왕젠중(王震中)은 최근 “집단 공동체인 민족과 정치실체인 국가는 서로 구별이 되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성도 맺고 있다”며, “중화민족의 형성 과정에서는 진한(秦漢) 이후의 군현제(郡县制)를 기본체제로 삼는 ‘대통일’의 국가형태 구조와 중화민족공동체의 관계가 바로 국가적 동질감과 민족단합의 ‘양면을 가진 일체(一体)의 관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화민족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원(多元)과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일체(一体)가 결합된 ‘다원일체(多元一体)’ 혹은 ‘다원일체(多源一体)’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진한 이후의 군현제를 기본체제로 삼는 ‘대통일’의 국가형태 구조는 통일 다민족 국가의 구조를 지니면서 한족(汉族)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근대에 출현한 ‘중화민족’이라는 용어는 항일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외세에 대항하는 중화민족의 자각의식을 통해 한층 더 심화되었고, 역사적으로 국가통일의 장기적인 안정은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제고해왔는데, 국가적 동질감과 민족적 동질감은 양면을 가진 일체(一体)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⁴⁹

이처럼 오늘날 중국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애국주의 경향이 전에 없이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이므로 문화 원류 논쟁은 물론이고 역사 귀속문제도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시진핑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

49 光明网, 「中国古代“大一统”国家形态结构与中华民族共同体」, 『光明日报』, 2022.6.27. (https://news.gmw.cn/2022-06/27/content_35838165.htm).

“한국은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했다는 전언이 잘못된 소문이거나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가볍게 한 말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진핑의 기본적인 역사인식이라면 지금이 동북공정 시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국가주도의 정치이념 교육의 강화,⁵⁰ 12.5계획과 13.5계획에서 보이는 역사연구 강화와 각 지역 박물관을 통한 애국주의 교육 실현, 역사 대중화, 역사자료의 디지털화작업 강화 등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중국 내부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과 연계된 역사왜곡 문제다. 이는 학자들 간의 논의가 아니라 양국 일반인들의 역사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2018년 3월 문화부와 국가관광국을 통합하여 문화관광부(文化和旅遊部)로 개편하고, 문화산업을 관광과 결합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급 여행 관광지구(旅遊景區), 국가급 여행 레저 지구(旅遊度假區) 관리 정책·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역사 자원과 결합한 관광 벨트·루트 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2020년 헤이룽장성 국가급·성급 여행 관광지구의 평가와 지린성 레저지구가 공표되었다.⁵¹ 두 성에서는 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했다. 헤이룽장성 야보리 스키 여행 레저지구(亚布力滑雪旅游度假区) → 무단장(牡丹江) 징퍼호(鏡泊湖) 여행관광지구 → 창바이산(백두산) 레저지구 → 지린(吉林) 등을 벨트로 묶는 상품이 그 예다. 이때 관광상품의 콘텐츠로 자연경관, 레저, 휴식, 역사 유적과 박물관 답사 등을 연계하여 다

50 吳炳守,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歷史: 中外歷史綱要』과목의 개설배경과 이데올로기-」, 『歷史教育』 156, 221쪽.

51 2020년 헤이룽장성 성급 및 여행 레저 지구평가 결과 공표(‘2020年黑龍江省省級旅遊度假區評定結果公示’, 헤이룽장성 문화관광청, 2020.10.21.) 2020년 지린성 성급 및 이상 여행 레저지구(‘2020年吉林省省級及以上旅遊度假區’, 지린성 문화관광청, 2020.10.29.).

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발해 상경용천부 유적과 지안의 고구려세계유산을 내세웠다.

이로 보아 향후에도 고구려·발해 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백두산 여행 역시 주요한 관광상품이다. 이 지역들이 관광지로 각광받게 되면 당연히 그곳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역사를 국내외 정치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전략적 대책의 일부이자 관광산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중 간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IV. 맺음말

최근 중국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중화민족공동체론이다.⁵² 이에 따르면 진한 시대부터 중화민족공동체가 형성되어왔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바탕에 군현제의 실사가 있다고 본다. 그런 시각에서 고구려 역시 중화민족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 고구려가 현도군치 안에서 건국했다고 보기 때문이다.⁵³ 그러나 고구려는 현도군치에서 건국한 것이 아니라 현도군을 축출한 후 건국했으므로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에서는 동북공정 시기에 제기했던 입장을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구려사를 넘어 고조선, 부여, 신라, 백제, 고려, 조선사에까지 자국 중심의 자의적인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사 연구심화, 신진연구자 양성, 시민과 학

52 『环球时报』2022년 7월 11일자에 실린 马戎의 사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더 한층 견고히 하자(进一步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m4OQJJOjGZ>) 참조.

53 2021년 12월에 개관한 심양시박물관에서 현도군의 위상을 강조하는 전시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정황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제3국인들에게 바른 한국사관 전파 등 그동안 계속해 온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이 외에 어떤 것을 더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한 과제들을 정리해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사 전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사대계, 한국통사, 한국사개설서를 많이 편찬할 필요가 있다.⁵⁴ 한국사의 정의를 정립한 위에서 한국사의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흐름과 계통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해야 한다. 한국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주어야 한다. 즉, 우리 역사의 출발점과 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흐름을 되짚어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각자 개별 전공 연구에만 집중하면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한국사의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정작 역사연구의 이유와 목적을 방기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일반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취업이나 학점취득의 수단으로서만 한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뿐 역사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낄 수 없게 한다. 어쩌면 전보다 판이 더 커진 이른바 유사사학이 역사학계를 더 가열차게 공격하게 된 것도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역사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재 한국사학계는 나라 안팎의 역사왜곡으로부터 한국사의 독립성과 정통성, 역사주권을 지키면서 역사의 실제상을 규명해나가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외부와 소통하며 역사로부터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의 근거를 찾으면서 동시에 내부의 공격에도 응답하며 설득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한국사연

54 2022년 6월 17일에 개최된 <중국의 역사정책과 동북아역사문제-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에서 이 글을 발표한 직후, 한국역사연구회(편찬위원장 하일식 연세대 교수)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시민의 한국사』 1·2(2022, 돌베개)가 출판되었다. 1997년에 나온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노태돈 외, 1997, 창작과비평사)도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국통사로서 의미가 큰 책들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 전체를 총 집대성하는 한국사대계 등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

구자, 나아가 역사학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시대 자체가 역사학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둘째, 우리도 한국사에 맞는 역사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역사사술에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기본으로 수많은 이론을 동원한다. 중화민족 공동체론, 다원일체론, 번속론, 속국론, 종변론 등 여러 이론을 만들어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서구 이론이 아닌 중국식 사회주의에 맞는 이론을 개발하고 그것에 따라 중국사를 구성하고자 한다.

동북공정이 실시되면서 한국학계를 비롯한 외국학계에서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등을 역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많이 제기했다. 그러나 역사왜곡이다, 자민족 중심의 자의적인 역사해석이다, 논리적 모순이 있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더라도 중국학계로서는 헌법에 명기된 이 이론을 포기할 수 없다. 부족한 점이 확인되면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역사상의 강역’을 거론함으로써 청대 가장 강성했던 시기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중국사의 범위를 정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한 것이 그 좋은 예다.⁵⁵

전근대 시기 중국과 외국의 관계에 대해 종변론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설사 이론이 맞지 않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적용한다. 학문 후속세대들은 그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위에서 다음 연구를 진행해나간다. 이것이 중국 역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는 분명 그들 자신이 거론했던 ‘세계가 인정하면서 중국에 맞는 이론’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선언적 주장을 논리나 이론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든 자의성 강한 이론이다. 세계 역사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 논리성, 타당성, 과학성을 갖춘 이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는 어찌되었든 현재의 요구를 위해 역사학자로서 복무를 다하고 있다.

55 趙永春, 2002, 「關於中國歷史上疆域問題的幾點認識」, 『中國邊疆史地研究』 2002-3.

한국학계의 경우 이런 노력이라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 시기 구분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이후, 서양의 기성품 이론을 가져와 이리저리 적용해본 것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사에 딱 맞으면서 세계도 인정하는 역사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하다못해 ‘우리 민족’이란 개념이라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오해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란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근대 시기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중국학계나 일본학계, 서구학계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지 말고, 우리 역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과 용어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동북3성의 역사도, 만주 역사도 아닌 북방의 역사를 한국사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리고 독립운동 근거지로서의 역사는 당연히 연구를 더 심화해야 한다. 여기에 부여, 북옥저, 숙신, 읍루, 물길, 말갈을 비롯하여 거란(요), 여진(금), 몽골(원), 청 관련 역사 및 조선족 역사, 그리고 그 지역의 현대사까지도 모두 한국사적 시각에서 정리하고, 백두산을 비롯하여 지역의 지리, 문화, 생태환경 등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역사대화기구로서 ‘한중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사 공동연구, 한중 공동 역사서 편찬, 공동역사교재 제작, 공동역사교육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시기 안에, 그리고 쉽게 될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리고 계속 제안해야 한다. 역사는 과거규명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다. 한중의 역사 갈등이 두 나라 간 다른 현안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현실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에는 한중의 공동변역, 공동발전, 공생의 길로 가기 위해 과거사를 연구하고 거기서 미래로 가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연구하여 이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고, 역사갈등의 계승을 막기 위해 공동교재를 가지고 역사교육을 함께 하는 노

력을 하자고 중국에 계속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제안 자체가 선도이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역사화해를 위한 인적교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중국 각 지역의 대학 및 기관과 상시적인 학술문화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한중 양국 청소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혐오 정서를 줄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 연구물의 제3국어로의 번역 및 번역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등을 비롯하여 역사화해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사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 이 외에도 많다.

끝으로 제언을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연구프로젝트 이름인 동북공정이란 명칭을 원래의 개념대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제언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년 이후 중국에서는 동북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 지역에 존재했던 왕조들의 역사를 중국사의 입장에서 총 정리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일부 결과물들은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동북공정의 입항과제였던 해외자료 번역 사업의 결과물들이 집대성되었고, 훈춘일대 당안관 등 방대한 자료 수집과 정리 작업도 완수했다.

동북공정 초기 단계에 고구려사에 치중함으로써 한중 간 역사갈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결국 5년간의 연구사업은 종료되었다. 그리고 동북공정의 후속작업으로 개별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동북지역 역사의 정리와 자료총괄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런 후속 연구들을 관통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동북공정에서 선언하고 주장했던 내용을 다듬고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학 분야는 물론이고 중국과 갈등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동북공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 참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은퇴하거나 기관의 수장이 되어 연구작업에서 이미 떠나버렸다. 지금은 그들이 던져놓은 선언들을 그 후속세대가 그대로 수용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북공정 결과물에 대

한 평가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자평이 아닌 중국 전체 학계와 외국학계에서의 평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동북공정에 대응한 한국학계의 연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갈등 문제는 이미 동북공정의 차원을 넘어섰다. 주제로 한국고대사를 넘어 중세와 근현대 시기 등 한 중 두 나라의 역사 전체 및 문화 분야로 확대되었다. 논쟁참여자도 중국 전 지역의 역사학자, 정치학자, 문화학자 등 거의 전 지역,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시간, 지역, 분야 면에서 한정적인 프로젝트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 패권주의적 역사관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옮겨갔는데 지금도 동북공정이란 용어로 규탄을 계속하면 확장된 검토 대상의 일부분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의 검토 대상은 이미 동북공정이란 단지를 빠져나가 중횡무진 누비고 있다. 상대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다. 동북공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5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이제 사학사의 영역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동북공정이란 용어 자체를 사학사의 분석 대상으로 보내버릴 것을 제안한다. 사족이지만 동북공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자의적인 역사 만들기, 패권주의적 역사관, 신중화주의적 역사인식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단지 끝난 프로젝트 이름을 계속 사용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구려연구회, 2008,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여유당.
- 고구리·고리연구소 엮음, 2022, 『한중수교30년 역사침탈20년 동북공정백서』, 맑은나라.
- 김현숙 외, 2017,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역사공간.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박원길·우실하·구해우, 2013, 『한국·중국·일본과 몽골』, 소나무.
- 박장배 외, 2014, 『중국의 변경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姜維公 主編, 2014, 『中國東北民族史』(上·中·下),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姜維東 編著, 2016, 『高句麗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 都興智, 2019, 『東丹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柰凡, 2019, 『北元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馬克·劉信君 總主編, 2015, 『吉林歷史與文化研究叢書』,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苗威, 2019a, 『箕氏朝鮮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_____, 2019b, 『卫氏朝鮮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武玉环, 2019, 『契丹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邴正 主編, 2009, 『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尚永琪, 2019, 『北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孫衛國, 2021, 『再造蕃邦之師萬曆抗倭援助明軍壯士群體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孫進己, 1992, 『東北各民族文化交流史』, 瀋陽: 遼寧春風文藝出版社.
- 魏国忠·杨雨舒, 2019, 『渤海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劉信君 主編, 2015, 『夫餘歷史研究文獻彙編』 1~6,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劉信君·邓树平, 2019, 『夫餘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劉海洋·趙振海, 編著, 2017, 『渤海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 李德山·李路, 2019, 『孤竹·东胡·令支·屠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治亭 主編, 2003, 『東北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蔣秀松·蔣戎, 2019, 『東夏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田立坤, 2019, 『后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程妮娜 編著, 2016, 『夫餘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程妮娜, 2019, 『金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趙智濱 編著, 2016, 『百濟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趙紅梅, 2019, 『前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黃松筠, 2019, 『后金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黃爲放 編著, 2017, 『契丹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논문

김현숙, 2007,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대구사학』 89.
 _____, 2012, 「2007년 이후 한·중 언론의 동북공정 관련 보도양상」,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_____, 2016,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호.
 _____, 2021a,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고구려발해연구』 71.
 _____, 2021b, 「총론」, 『최근 출간된 중국의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 분석 학술회의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박승범, 2022, 「『동북사지』를 중심으로 본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고구리·고리연구소 역음, 『한중수교30년 역사침탈20년 동북공정 백서』, 맑은나라.
 안치영, 2018,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보고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동향과 전망』 102.
 吳炳守,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歷史: 中外歷史綱要』 과목의 개설배경과 이데올로기-」, 『歷史教育』 156.
 윤휘탁, 2009,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이석현 외, 2010, 『중국 변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이승호, 2020, 「부여사연구의 흐름과 이해」,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임기환, 2012, 「동북공정과 그 이후, 동향과 평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 정호섭, 2013, 「중국의 POST 東北工程과 고구려사 관련 동향 분석」, 『韓國史學報』 제51호.
- 한인희, 2015, 「중국의 《中華大典》 발간의 역사적 의미」, 『동북아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耿鐵華, 2009, 「改革開放三十年高句麗研究成果統計與說明」, 『東北史地』 2009-2.
- 孔亨·毛大龍, 2019, 「论中华民族共同体的基本内涵」, 『社会主义研究』 2019-6.
- 馬云超, 2021, 「“己亥東征”與15世紀前期的東亞外交博弈-以朝鮮王朝初期的對外政策爲中心」, 『江海學刊』 2021-05.
- 武寅, 2009, 「繼往開來,迎接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新高潮」, 『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拜根興, 2021, 「唐朝與新羅道教文化交流的再探索」, 『唐史論叢』 2021-02.
- 徐丹, 2021, 「萬曆朝鮮戰爭中的福兵與中朝交流-以游擊將軍許國威爲中心」, 『當代韓國』 2021-02.
- 孫文政, 2021, 「金與高麗宗藩關係演變的歷史學考察」, 『東疆學刊』 2021-03.
- 沈一民, 2021, 「現存文獻所見大欽茂時期渤海國犬唐使次數考」, 『中國邊疆學』 2021-01.
- 楊軍, 2002, 「高句麗族屬溯源」, 『社會科學戰線』 2002-2.
- 楊保隆, 1998, 「高句驪族源與高句驪人流向」, 『民族研究』 1998-4.
- 楊雨舒, 2009, 「2009年東北邊疆歷史與文化學術研討會綜述」, 『東北史地』 2009-06.
- 張子昂, 2021, 「朝鮮王朝後期水軍中的“戚法”運用情況」, 『西部學刊』 2021-12.
- 趙永春, 2002, 「關於中國歷史上疆域問題的幾點認識」, 『中國邊疆史地研究』 2002-3.
- _____, 2009, 「關於中國歷史疆域理論界定的再思考」, 『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蔡藝·趙劍平·張銀行, 2021, 「中國武術古籍東傳與朝鮮漢文武籍的編纂」, 『體育學研究』 2021-04.
- 向勇, 2021, 「明清租貢體制下的文化交流與實物往來」,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21-05.

黃松筠, 2009, 「“2009年東北邊疆歷史與文化學術研討會”綜述」, 『中國邊疆史地研究』 2009-4.

기타

동북아역사재단, 2022, 『중국의 역사정책과 동북아역사문제-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

- 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

김현숙

최근 중국의 한국사 연구를 보면 고구려 역사에 대한 심화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구려·발해 유적 발굴보고와 고조선·부여 논문이 전보다 많아졌고, 가야·백제·신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고려·조선 시대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한중관계를 모두 종번관계(宗藩關係)로 정리하는 등 중국 중심의 한중관계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만주지역 고대 민족과 왕조사를 총정리하는 대형 출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북공정에서 야기된 한중 갈등은 문화원조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중국의 자민족중심주의와 애국주의 경향이 전에 없이 강화되었다. 중국에서는 역사를 국내외 정치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전략적 대책의 일부이자 관광산업의 소재로 활용한다. 고구려·발해 유적지와 백두산 관광산업이 활발해지면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중 간 역사문화논쟁과 갈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사 연구심화, 신진연구자 양성, 국내외 교육과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사의 출발점과 시공간적 범위와

흐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사대계 등을 편찬해야 한다. 또 한국사에 맞는 역사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북방지역의 역사를 한국사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역사화해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면서 역사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중 역사대화기구로서 ‘한중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한중 공동 역사서와 역사교재 제작, 공동역사교육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주제어: 동북공정, 고구려, 종번관계, 애국주의, 문화원조 논쟁

ABSTRACT

Current Status and Tasks of Korean-China Historical Conflict: Going Beyond the Northeast Project(東北工程) to the Future

Kim Hyunsook

In recent Chinese studies of Korean history, an in-depth study of the history of Koguryo is being conducted. Reports on the excavation of the ruins of Koguryo and Balhae and thesis on Gojoseon and Buyeo increased. Interest in Gaya, Baekje, and Silla is increasing, and research in the Koryo and Joseon dynasties is rapidly increasing. All pre-modern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organized into sect relations(宗藩關係). In addition, a large-scale publication project that summarizes the history of Manchuria is underway.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caused by the Northeast Project spread to the cultural aid debate. China's patriotic tendencies intensified. In China, history is used as a national policy to solve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realities. If the tourism industry in Koguryo·Balhae and Mt. Baekdu becomes active, interest in local history will increase, and historical and cultural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intensify.

To respond to this, we must compile a history of Korean history tha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organizes the temporal and spatial scope and flow of Korean history, along with in-depth research on Korean history, nurturing young researchers, and domestic and foreign education and publicity. A historical theory suitable for Korean history should also be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history of the northern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history. In order to protect historical sovereignty while promot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joint development, the Korea-China Joint History Research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s a historical dialogue organiz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duce joint history books and textbook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provide joint history education.

Keywords: Northeast Project, Koguryo, Species Relations, Patriotism, Cultural Aid Controversy

중국의 최근 고조선·부여사 연구 현황과 평가

조원진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중국학계의 고조선사 연구 현황과 평가
- III. 중국학계의 부여사 연구 현황과 평가
- IV. 향후 대응 방안
- V. 맺음말



I. 머리말

2022년은 중국에서 동북공정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동북공정은 2002년에 시작되어 2007년 2월 종료되었지만 중국의 자국 중심주의적 역사관에 의한 ‘동북공정식 역사인식’¹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사 왜곡으로 알려졌지만 그 내용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 부여사 등 한국고대 북방사를 모두 중국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조선은 상(商)나라 기자(箕子)가 세운 기자조선[箕子朝鮮, 혹은 기씨조선(箕氏朝鮮)]과 한(漢)나라의 제후국인 연(燕)나라 위만이 세운 위만조선[衛滿朝鮮, 혹은 위씨조선(衛氏朝鮮)]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부여 역시 중원왕조의 지방민족정권이었던 입장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첫 국가였던 고조선사와 고구려·백제의 뿌리로 인식되던 부여사마저 중국사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은 한국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나아가 기자의 첫 봉건지를 한반도 남부의 진국(辰國)으로 이해하는 인식까지 나오면서 향후에는 한반도 북부지역만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지역의 고대 국가들에 대한 왜곡도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동북변강역사와 동북 민족관계학 연구의 인력이 대거 배출되었고, 동북3성의 대학과 연구소 등에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다수 설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학과체계가 체계적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동북변강과 관련된 역사연구를 위한 인적 기반과 학술기구를 통해 동북공정 이후에도 동북

* 투고: 2022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9일, 게재 확정: 2022년 8월 16일

1 동북공정은 분명히 2007년 종료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은 동북공정, 이후 나오는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으로 구분하여 칭할 수 있다(김현숙, 2017, 「동북공정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2007~2105』, 역사공간, 23~24쪽). 이러한 용어에 대한 한계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일단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추후 더 적합한 용어 사용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공정에서 제기한 연구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² 중국학계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고조선사와 부여사의 경우 동북공정 이후에 더 활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고조선사와 부여사의 경우 고구려사에 비해 사료도 적다는 점에서 고고학자료에 대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중국학계에서 주도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위탁프로젝트로 진행된 ‘동북고대방국속 국사연구총서(東北古代方國屬國史研究叢書)’ 15권이 나왔다. ‘동북고대방국속 국사연구총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를 시대별, 각 왕조별로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기씨조선사(箕氏朝鮮史)』, 『위씨조선사(衛氏朝鮮史)』, 『부여사(夫餘史)』 등 한국의 고대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이들 국가가 시종일관 중원 왕조의 속국 혹은 지방정권이라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 책 외에도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에서는 고조선사·부여사와 관련된 단행본과 학위논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고조선의 경우 단군,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주제로 단행본이 나오고 있는 것은 관련 연구가 세분화되어 증대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부여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0권의 단행본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고구려사의 경우 2007~2019년 중국학계의 관련 단행본이 33권, 박사학위논문이 23편이 나왔다는 분석³과 비교하면 적어 보이지만 고조선·부여사의 연구인력을 감안하면 적은 편이 아니다.

한국학계에서 단군 관련 단독 단행본을 낸 연구자는 2명(김성환, 윤명철), 부여사도 2명(송호정, 이종수)에 불과하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단행본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고조선사와 부여사의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학계에서 단군 관련 역사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1명(김성환), 부여사는 2명(이종수, 이승호) 고조선은 8명(송호정, 김종서, 박선미, 박준형, 오현수, 김남중,

2 임기환, 2012, 「동북공정과 그 이후, 동향과 평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27쪽.

3 조영광, 2020, 「중국학계의 동북공정기 고구려사 연구 동향」,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111~113쪽.

이후석, 조원진)에 불과하다.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사⁴와 부여사⁵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학계에서도 정리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2007년 2월 이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중국학계의 고조선·부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국학계의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

II. 중국학계의 고조선사 연구 현황과 평가

1. 단행본 연구 현황

2007년 이후 중국학계는 고조선사·부여사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중국학계의 연구를 크게 단행본과 논문(학위논문, 학술논문)으로 절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2007년 이후 출간된 고조선과 관련된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
- 4 서영대, 2012, 「중국학계의 단군 연구와 그 비판」, 『단군학연구』 27; 조우연, 2012, 「중국학계의 ‘箕子朝鮮’ 연구와 그 비판에 대한 검토」, 『고조선단군학』 26; 조법중, 2017, 「2000년대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단군, 기자조선 연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54; 조법중, 2018, 「중국 학계의 단군·기자 연구, 2000년대 이후 국가별 쟁점과 전망」, 『고조선사 연구동향』, 동북아역사재단; 박선미, 2020, 「동북공정 전후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와 그 문제점」,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조원진, 2021c, 「최근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연구 동향 검토」, 『韓國史學報』 85.
 - 5 박준형, 2012b,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부여·예맥 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이종수, 2016, 「중국의 최근 부여사 연구현황과 동향」, 『동북아역사논총』 51; 이승호, 2020a, 「부여사 연구의 흐름과 이해」,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이승호, 2020b, 「2000년대 후 부여사 연구 동향과 ‘POST’ 동북공정」, 『동양학』 80.

黃斌·劉厚生, 2007, 『箕氏朝鮮史話』,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張哲俊, 2013, 『韓國壇君神話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苗威, 2019a, 『箕氏朝鮮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苗威, 2019b, 『衛氏朝鮮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년 이전에는 기자조선이 요서에서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옮겨왔다는 ‘이동설’ 관점에서 기자조선을 연구한 장박천(張博泉)의 『기자여조선논집(箕子與朝鮮論集)』(1994)과 묘위(苗威)가 고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한 『고조선연구(古朝鮮研究)』(2006)가 나온 바 있다. 이후에는 주제가 세분화되어 단군,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주제로 단행본이 나왔으며 기자조선과 관련된 대중서도 나왔다.

『기씨조선사화(箕氏朝鮮史話)』는 대중서 성격의 단행본으로 ‘동북민족여강역연구총서(東北民族與疆域研究叢書)’의 일부로 간행된 것이다. 기자와 관련된 한국·중국문헌의 기록과 평양의 기자릉 등 주요 자료와 주제들을 정리했다. 기자의 첫 봉건지 위치에 대해서는 이동설에 초점을 맞추며 요녕 객좌현 북동촌의 기후방정 등을 소개했다. 또한 요동지역 및 한반도의 고인돌과 비파형동검이 기자조선과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단군에 대해서는 단군릉과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서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고 했다. 기자가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단군으로 대표되는 토착세력은 큰 반발 없이 남쪽으로 이주했다고 보면서, 이후 연나라의 침입으로 요동지역과 한반도 북부 대부분의 영역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단군과 관련해서는 장철준(張哲俊)의 저서가 있다. 장철준의 『한국단군신화연구(韓國壇君神話研究)』는 중국학계의 본격적인 단군신화 연구서이다. 이 책은 단군신화의 요소를 분석하여 단군신화의 성립시기를 추정했다. 천부인은 왕권의 신물(信物) 내지 빙증(憑證)으로 부인에는 관제(官制) 계통, 도교 계통, 불교 계통이 있다고 보았다. 단군신화의 천부인은 불교 계통으로 불교 부인의 왕권 탄생 기능을 언급한 것은 신라의 원측(圓測, 613~696)이라고 했다. 또한 의

술에서 썩과 마늘을 함께 사용한 것은 갈홍(葛弘, 284~364)의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군신화는 신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후대적 요소가 많이 첨가되었으며 그 성립 시기는 7세기 이후라고 주장한다.⁶ 이러한 연구는 단군신화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보다는 문헌으로 정리되면서 첨가된 후대 용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단군에 대해 이전 연구보다 훨씬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묘위의 『기씨조선사』는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연구가 집대성된 책이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고조선 건립 이전 대동강 유역의 초기 거주민으로 양이(良夷)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 무왕 즉위 2년 기자는 해로를 통해 한반도 남부에 이르러 진국(辰國)을 세웠으며 이후 기자의 나라는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해서 양이와 융합하여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고쳤다고 한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서주 말~춘추 초에 나왔다고 추정했다. 또한 조선과 증원왕조의 관계에 대해 이미 기자가 한반도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이 상나라의 해외 속지였다고 본다. 그리고 기자가 한반도 남부에서 진국을 세운 후 기자가 무왕을 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기자는 다시 주 천자에게 조근하며 신하의 예를 다했다고 보았다. 기씨조선은 주나라의 후국이었으며 이후 조선은 연·진에 속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씨조선의 통치는 한대에 이르러 위만에 의해 끝났다고 한다.

묘위의 『위씨조선사』는 위만이 한나라의 제후국인 연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위만조선의 멸망은 위만조선이 외신으로서의 직분을 저버렸기 때문에 한무제가 멸망시켰다고 보고 있다. 위만조선은 한의 위씨 가족인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만이(蠻夷)로 구성된 국가라고 한다. 강역은 북쪽으로 마천령과 천천강, 남쪽은 한강과 남한강, 서쪽은 황해, 동쪽은 동해로 주장하며 진번은 한반도의 토착민으로 조선 남쪽의 한강이북으로 비정한다. 이 책은 위만조선의 강역이 초기에는 기씨조선의 강역을 이어받았다가 한과의 외신 관계 수립 후 수천리로 확대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패수를 청천강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청천강이

6 서영대, 2012, 앞의 글, 172~173쪽.

남 영역은 수천 리가 될 수 없어 모순을 보인다.

모위는 두 권의 고조선 연구서를 펴냈지만 주요 논지는 『고조선연구』(2006)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고조선의 개념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기이편을 소개하며 이 용어는 기자조선, 위씨조선, 단군조선을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고조선은 왕검조선을 가리키며 기자조선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한국학계가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군신화를 중국계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건국신화로 고조선을 한국사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2. 주제별 연구와 평가

1) 단군

중국학계에서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표된 단군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 譚紅梅, 2007, 「《檀君神話》中的圖騰崇拜」, 『科學大眾』2.
- 葉舒憲, 2007, 「秦文化源流新探－熊圖騰與中原通古斯人假說」, 『學術月刊』39-6.
- 王英英, 2007, 「韓國哲學與中國楚文化的歷史淵源」,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4-3.
- 鄭成宏, 2007 「檀君神話成事實－韓國修改歷史教科書」, 『世界知識』11.
- 孫衛國, 2008, 「傳說、歷史與認同:檀君朝鮮與箕子朝鮮歷史之塑造與演變」, 『復旦學報(社會科學版)』5.
- 楊樸, 2008a, 「中華民族八千年熊圖騰崇拜原型模式的重構」,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4.
- 楊樸, 2008b, 「中華祖先圖騰神話之謎的破解」, 『中國比較文學』2.
- 王國彪, 2008, 「朝鮮漢詩中的民族傳說始祖檀君」,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6.
- 吳文善, 2008, 「檀君神話新解」, 『內蒙古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2.
- 曹春茹, 2008, 「朝鮮漢文作家柳夢寅詩文的民族文化意識」, 『語文學刊』11.
- 鄭殿輝, 2009, 「民族神話還是民族神化－以《太王四神記》爲例評韓國神話題材劇」, 『電影文學』

- 車海鋒, 2009a, 「樸相福, 朝鮮民族與滿一通古斯諸民族神話傳說中神熊的象徵意義」, 『東方學術論壇』1, 韓國學術情報.
- 車海鋒, 2009b, 「朝鮮民族與滿一通古斯諸民族神話傳說中的意象, 母題比較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 鞏春亭, 2010, 「“檀君神話”看韓國先民的淳樸思想」, 『學理論』27.
- 楊萬娟, 2010, 「檀君神話之我見」, 『韓國研究』(第十輯).
- 葉舒憲, 2010, 「熊圖騰與東北亞史前神話」, 『北方論叢』6.
- 王國彪, 2010, 「朝鮮漢詩中的民族傳說始祖檀君」,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10(6).
- 王慶雲, 2010, 「談檀君神話與“熊圖騰崇拜”」, 『湘潮(下半年)』9.
- 李瑞行, 2010, 「對檀君神話的宗教哲學性理解」, 『韓國研究』(第十一輯).
- 金寬雄, 2011, 「古朝鮮의 檀君神話와 東夷文化의 關聯性」, 『淵民學志』15.
- 張哲俊, 2011a, 「檀君神話中的艾草及其形成的時間」, 『民族文學研究』4.
- 張哲俊, 2011b, 「韓國檀君神話中的三個天符印」, 『西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6.
- 樸文華, 2011, 「春香傳的二重審美結構與中國文學, 思想之聯關研究」,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 孫德彪, 2012, 「朝鮮民族神話中的熊形象與中國文化的關聯」,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金霞, 2012, 「韓國《檀君神話》文化解析」, 『牡丹江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
- 張哲俊, 2012, 「檀君神話中蒜的意義」,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
- 劉豔, 2013, 「檀君神話中的儒家政治思想理念」, 『科技信息』2.
- 林大根, 2013, 「論韓國“檀君神話”的倫理意識」, 『外國文學研究』6.
- 金春蓮, 2014, 「《檀君神話》蘊含的朝鮮民族文化」, 『邊疆經濟與文化』2.
- 邁克爾·塞斯·孫宏哲, 2014, 「朝鮮的神話, 記憶與再創造—檀君神話案例研究」, 『韓國學論文集』2014.
- 王元周, 2014, 「檀箕認識與朝鮮半島的國史建構」, 『韓國學論文集』2013.
- 陳洪涓, 2014, 「黃帝神話和檀君神話的神話觀比較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孫惠欣·陳雅飛, 2016, 「論禹神話與檀君神話中的熊崇拜」,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4.
- 史苑珍, 2018, 「論檀君神話中的天人關係」, 『文存閣刊』16.
- 劉竺岩·郭震宇, 2019, 「朝鮮神話的淵源學淺探—以《檀君神話》《高麗開國神話》為例」, 『內蒙古電大專刊』2.
- 張濤, 2019, 「檀君神話中“三七日”的象徵意義探析」, 『韓國語教學與研究』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의 단군 연구는 어느 주제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역사학계만이 아니라 신화학, 민속학, 정치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과도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단군신화의 곰토텐(섭서헌; 왕경운; 양박)과 여러 토텐(오문선) 및 토텐설 비판(왕경운), 쑥(장철준, 2011a), 마늘(장철준, 2012), 천부인(장철준, 2011b), 37일의 의미(장도), 도교 신선사상(왕경운), 유교정치사상(유엽) 등이 검토되었다. 후대 인식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문집의 단군 관련 시문 정리(왕국표, 조춘여)와 단군조선·기자조선 인식 변화(손위국)나 현대 한국인에 반영된 사상(공춘정, 왕금하)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중국학계가 중점으로 다루는 주제는 단군신화의 형성 시기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단군신화에 담긴 후대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단군신화의 후대창안설을 주장한다. 그리고 단군신화와 황제신화(양박; 진홍연), 하우씨(夏禹氏) 신화(손해훈·진아비), 만주-통구스족 신화(차해봉)와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특히 단군신화를 만주-통구스족 신화 중에서 가장 오랜 원형으로 이해하면서 황제신화와의 영향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본 연구도 있었다(김관용). 이러한 연구는 다른 중국학자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곰토텐과 관련해서 섭서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가 관련 주제로 펴낸 『웅도등(熊圖騰)』⁷은 곰토텐을 고증하면서 단군신화도 언급했다. 이 책에서는 중국민족의 시조인 황제집단은 곰 토텐집단이며 중국민족은 오랜 기간 곰토텐 문화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곰토텐은 주변으로도 전해졌으며 단군신화는 웅모생인(熊母生人) 신화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⁸ 중국의 단군 연구는 문화 계통에 대해서 북방민족설, 이어지계설(彝語支系說), 초국설(楚國說), 소호후예설(少昊後裔說), 황제후손설(黃帝後孫說)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단군신화와 유사하거나 통하는 중국 소수민족의 신화를 많이 발굴함으로써 비교 연구를 촉진하고 자료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황제 계통으로 보면서 결국

7 葉舒憲, 2007, 『熊圖騰-中華祖先神話探源』, 上海: 上海錦繡文章出版社.

8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김선자, 2009, 「홍산문화의 황제 영역설에 대한 비판: 곰신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단군도 황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⁹

또한 삼위산(三危山)은 돈황에 있기 때문에 단군신화의 발생지를 감숙성 둔황 막고굴(甘肅省 敦煌 莫古窟) 부근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남영진). 하지만 삼위는 궁홀이나 아사달처럼 토박이말을 한자로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⁰

중국학계의 연구는 단군신화에 나타난 신화 요소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군의 역사성 및 단군조선의 부정이라는 동북공정 시기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단군신화의 신화 요소를 연구하여 단군신화의 형성 시기를 검토하는 연구는 이미 근대에 일본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¹¹ 당시 일본학자들은 주로 단군신화에 보이는 불교적 혹은 도교적 요소에 주목했다. 중국학계의 연구는 일본학자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후대적 요소를 지적하며 단군을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보거나 긍정하더라도 중국 신화와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단군의 역사성과 독자성을 부정하면서 위만조선 이전 조선의 실체를 기자조선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군신화는 일반 신화가 아닌 건국신화이며, 특히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기는 수조신화(獸祖神話) 요소가 보인다는 점에서 동물의 비중이 줄어든 다른 한국 건국신화보다 오랜 관념을 내포한다.¹² 그리고 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강했다는 천강신화(天降神話)도 한국 고대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단군신화는 고조선 당시부터 전해져왔을 것으로 이해되

9 서영대, 2012, 앞의 글, 174~175쪽.

10 최광식·박대재 역주, 2014, 『삼국유사』 1(기이), 고려대학교출판부, 38쪽.

11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今西龍, 1929, 「檀君考」, 『青邱說叢』 卷1.

12 서영대, 1994, 「단군자료 문헌자료 연구」, 『檀君: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75~76쪽.

고 있다.¹³

중국학계에서는 이 외에 한국의 역사교과서(2017)가 청동기 시작 연대를 기원전 2000~1500년으로 소급하고, 단군의 건국 연도를 기원전 2333년으로 단정한 사실에 대해 비판(정성평)하기도 했다.

2) 기자(기씨) 및 기자조선(기씨조선)

중국학계에서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표된 기자(기씨) 및 기자조선(기씨조선)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 苗威, 2008, 「箕氏朝鮮同周邊國, 族의關係」, 『東北史地』3.
徐堅, 2010, 「略左銅器群再分析:從器物學模式到行爲考古學取向」, 『考古與文物』4.
趙炳林, 2010, 「箕氏朝鮮及相關問題再考證」, 『黑龍江史志』3.
曹春茹, 2010, 「朝鮮古代漢詩中的箕子文化」, 『華夏文化』1.
葛英會 저, 이유표 역, 2012, 「箕子朝鮮과 周代燕賁」, 『고고학탐구』11.
閔素芬, 2012, 「箕子與箕子朝鮮」, 『滄桑』1.
俞紹宏, 2012, 「遼寧所出商周銅器銘文輯, 解」, 『大連大學學報』33(4).
韓國春·袁宏賓·李強華, 2013, 「箕子的文化地位及貢獻」, 『河北科技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12(3).
孫鐸銘, 2014, 「中朝史料中對朝鮮半島曆史起源記載的比較研究」, 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
張睿祥, 2014, 「“亞其器”與“箕子入朝”之事」, 『天水師範學院學報』34(1).
周德春, 2014, 「箕子的《洪範九疇》及文化地位」, 『蘭台世界』21.
孟莉, 2015, 「箕子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高明英, 2016, 「商周賁國研究」, 天津師範大 碩士學位論文.
王進鋒, 2016, 「商代有著怎樣的“國際交流”」, 『意林文彙』24.
趙凌煙, 2016, 「箕子朝鮮的考古學探索」, 西北大 碩士學位論文.
吳銳, 2017, 「漢武帝侵略朝鮮與箕子王朝之說的發生」, 『민족정체성·문화·소통』, 박이정.
馬小龍, 2018, 「《尚書》洪範九疇的文教精神初探」, 『北方文學』24.

13 서영대, 2010, 「근대 동아시아 3국의 신화적 국조 인식」, 『고조선단군학』 23, 204쪽; 김성환, 2022,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118쪽.

李月新, 2018, 「箕子八條之教與遼朝禮制淵源考論」,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5.
 馬驍英, 2019, 「箕子“八條之教”的理論內涵」, 『傳媒論壇』2(24).
 吳銳 著, 강길중 譯, 2019, 「기자조선과 동북아 역사」, 『동북아 민족문화의 재발견』,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楊博, 2020, 「略左器群與殷周興替時期東北邊域族群的銅禮器器用」, 『地域文化研究』4.
 李德山, 2020, 「論箕子東遷與華夏文化東傳」, 『黑河學院學報』11(6).
 侯曉秦, 2021, 「遼西地區商末周初青銅器綜合研究」, 遼寧師範大 碩士學位論文.

기자와 관련된 연구는 문헌에 기록된 기자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홍범구주(주덕춘; 마소용)와 범금팔조(이월신; 마효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기자가 홍범과 범금팔조를 지었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범금팔조를 처음 기록한 『한서』 지리지에는 기자의 조선 지역 교화를 소개하고 이어서 낙랑조선에 범금팔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범금팔조와 기자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삼국지』 예전에서는 범금팔조를 기자 자신이 작성하여 교화했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기자와는 무관하게 『삼국지』 찬자가 낙랑조선에 있던 범금팔조를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윤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홍범구주는 전국 시대에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⁴ 하지만 중국학계의 연구에서는 관련 사료의 세밀한 검토보다는 기자가 홍범과 범금팔조를 제정했다고 하는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는 한계가 있다.

기자와 기자조선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한국춘·원평빈·이강화; 왕진봉) 이를 통해 이미 상대부터 중원지역과 한반도의 교류가 있었으며 고대 한중 관계사에서 기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는 연나라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기자의 영지를 북경 동쪽 조수(潮水) 유역과 당대(唐代) 선주(鮮州)가 있던 지역으로 고증하면서 위만은 기자의 후예라는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갈영희 저, 이유표 역).

14 松本雅明, 1966, 「洪範篇の成立」, 『春秋戰國における尙書の展開』, 東京: 風間書房, 434~464쪽.

이 외에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연구에서 새로운 내용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주로 묘위, 이덕산 등 기존 연구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지를 다시 주장하거나 기자조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문화사, 교류사로서 의의를 평가하기도 했다.¹⁵ 대표적으로 이덕산은 기자가 동천하여 한반도에 기씨조선을 세우면서 한문화(漢文化)가 타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중화문화가 해외에 전파된 사례 중에서 한반도가 가장 깊이나 범위의 영향력이 크다면서 이는 기자가 개척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예에 의해 비교적 객관적인 시점에서 조선은 옛날부터 독립된 나라였으며 기자조선설은 한무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을 왜곡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는 연구가 나온 것은 주목된다. 그는 준왕의 성씨가 ‘기’라는 사료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후한서』에서 준왕을 기자의 40여대라고 하면서 기자조선 개념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기자와 관련된 기족 청동기와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기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기후방정 등 요서지역에 출토된 상·주 청동기는 기자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자조선 재평양설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기자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유물 자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서건; 유소평; 장예상; 양박). 기자와 관련된 석사학위논문도 몇 편 나왔다. 기자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맹리; 조종연), 상주 시기 기국 연구(고명영), 요서지역 상·주 청동기 연구(후효진) 등 다양한 주제에서 신진 연구자가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학계에서는 2010~2011년 11권으로 구성된 상대사(商代史) 총서를 펴내면서 기자와 기국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은본기》정보여상사인물징(殷本紀訂補與商史人物徵)』¹⁶은 『사기』 은본기를 중심으로 기자 등 상나라

15 조원진, 2021c, 앞의 글, 15~16쪽.

16 韓江蘇, 2010, 『《殷本紀》訂補與商史人物徵』,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33~236쪽.

인물에 대해 정리했고 『상대지리여방국(商代地理與方國)』¹⁷은 ‘기국(冀國)’이 은나라 북쪽에 있다가 서주 초에는 북경, 하북 동북~요녕서부 일대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은유여은감(殷遺與殷鑒)』¹⁸은 연 지역에 대량의 은유민이 이동했으며 북으로 기자조선 등 은유민의 나라가 있었다고 보았다.

3) 위만조선 및 기타

이 외에 중국학계에서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표된 위만조선 등 고조선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 江凌, 2007, 「古朝鮮의 瓷文化」, 『中外文化交流』3.
- 苗威, 2007, 「從考古發掘看延邊未曾歸屬過古朝鮮」, 『博物館研究』3.
- 朱燕, 2007, 「淺析“朝鮮”一詞的發音」, 『科教文彙(上旬刊)』7.
- 黃妍, 2007, 「朝鮮上古詩歌對《詩經》的接受及其影響」, 『延邊大學』6.
- 戴建兵, 2008, 「淺議中國與朝鮮的貨幣文化交流」, 『登州與海上絲綢之路—登州與海上絲綢之路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 苗威, 2008, 「試論古朝鮮與中原王朝的關係」, 『博物館研究』2.
- 李春梅, 2008, 「從中國傳入古朝鮮的重要書籍及其對本國的影響」, 『全國第十一屆中醫醫史文獻學術研討會論文集』.
- 朱晶, 2008, 「古朝鮮引入與改進火藥和火器的歷史研究」, 『東疆學刊』1.
- 楊軍, 2009, 「誰把黃河文明帶進古朝鮮」, 『東北之窗』11.
- 趙紅梅, 2010, 「西漢經略朝鮮半島北部政策嬗變」, 『社會科學戰線』3.
- 李春虎, 2013, 「朝鮮半島早期國家歷史新探」, 『中國朝鮮史研究會會刊—朝鮮·韓國歷史研究』第十五輯.
- 趙紅梅, 2013, 「漢四郡設置述評」, 『北方文物』4.
- 孫鐸銘, 2014a, 「中朝史料中對朝鮮半島歷史起源記載的比較研究」, 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
- 孫鐸銘, 2014b, 「中朝史料中對朝鮮半島歷史起源記載的比較研究」, 『內蒙古大學』10.

17 孫亞冰·林歡, 2010, 『商代地理與方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67~371쪽.

18 宮長為·徐義華, 2011, 『殷遺與殷鑒』,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49~154쪽.

- 楊瑤, 2014, 「遼陽博物館藏古朝鮮瓷器鑒賞」, 『東方收藏』4.
- 王綿厚, 2014, 「燕秦漢“遼東故塞”諸問題考論－從對《史記》一段文字的釋讀談起」, 『社會科學戰線』7.
- 李路, 2014, 「漢代東北邊疆民族文化與漢文化交流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苗威, 2015, 「漢武帝設置樂浪等四郡述考」, 『東北史地』4.
- 王天姿·王禹浪, 2016, 「西漢“南閩穢君”蒼海郡與臨穢縣考」, 『黑龍江民族叢刊』1.
- 李宗勳, 2016, 「近二十年來中外學界對古朝鮮的研究與課題」,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49(3).
- 苗威, 2017, 「“古朝鮮”的倫理考察」, 『安徽史學』6.
- 成璟瑯, 2017, 「韓國學術界古朝鮮研究的動向述論」, 『社會科學戰線』8.
- 魏國忠, 2017, 「漢蒼海郡治所的地理考察」, 『大連幹部學刊』33(9).
- 趙紅梅, 2017, 「蒼海郡考述」, 『社會科學戰線』8.
- 苗威·李新, 2018, 「西漢海伐衛氏朝鮮考論」, 『海交史研』2.
- 楊軍, 2018, 「濊人與蒼海郡考」, 『地域文化研究』4.
- 趙紅梅·王群, 2020, 「“詩書之路”：東北民族交融視域下遼西走廊文化內涵探尋－以先秦時期東北民族文化淵源與流變為中心」, 『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

이 시기 위만조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위만조선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위만조선-한의 전쟁과 한사군 설치(조흥매; 묘위; 묘위·이신)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위만조선이 한의 외신으로 한나라의 제후국이라는 사실이 중국학계 내에서는 큰 논란이 없는 문제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군, 기자 문제와 비교하여 위만조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요동고새 문제(왕면후) 등 고조선의 위치·영역 관련 연구도 있었지만 이 시기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고조선과 관련하여 위치 문제는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임에도 이러한 연구 경향은 뜻밖으로 보일 수도 있다. 더구나 중국 학계에서는 이전만 해도 기자조선의 최초 봉건지 문제를 두고 요서설과 평양설이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고조선의 영역을 시종일관 청천강 이남으로 보는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기자가 한반도 북부의 대동강 중하류 일대에서 기씨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요서를 지날 때 기기(箕器)를 남겼다고 보

기도 한다(조흥매·양군). 또한 묘위의 경우처럼 기자의 최초 봉건지를 한반도 남부의 진국으로 보고 이후 후손들이 대동강 유역으로 옮겼다고 보기도 해서 ‘이동설’ 관점의 연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묘위의 사례는 한반도 안에서 이동했다는 측면에서 요서-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이주했다는 기존의 ‘이동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하여 창해군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조흥매; 왕천자·왕우량; 위국충; 양군). 창해군 문제는 주로 위치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동해안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와 새롭게 요동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로 양분된다.

한편 진번의 위치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학계에서는 진번을 속신계와 연결시키며 진번 재복설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¹⁹ 그러나 한사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나오면서²⁰ 패수는 청천강이며 대동강 중하류 지역은 기씨조선의 본토로 이해되고 진번 위치에 대한 논의도 재남설로 정리되고 있다. 중국학계의 이러한 견해는 고조선의 영역을 시종일관 청천강 이남으로 보면서 변한현을 한반도 안쪽으로 비정하고 연·진장성도 한반도 안까지 미친다고 보고 있어 문제가 된다.²¹ 결국 고조선의 위치 문제는 한반도로 확정된 상황에서 다른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한국학계에서는 적어도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한 지역을 고조선과 관련된 지역으로 보면서 서쪽으로는 대릉하 유역도 포함시키는 연구가 많은 경향²²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19 孫進巳·幹志耿, 1984, 「漢真番郡考」 『黑龍江文物叢刊』 3, 52~55쪽; 張博泉, 1985, 「真番郡考」, 『北方文物』 4, 60~66쪽;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 趙紅梅, 2008, 『漢四郡研究』, 香港: 香港亞洲出版社, 59~74쪽.

21 조원진, 2021a, 「고대 진번의 변천 연구」, 『선사와 고대』 66, 154~156쪽.

22 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박준형, 2012a,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 108; 박선미, 2017, 「고조선의 歷史地理 비정에 대한 계보적 검토」, 『백산학보』 109; 조원진, 2021b, 「고조선 영역의 최대치와 최소치」, 『고조선단군학』 45.

또한 고조선과 관련하여 중국학계와 한국학계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사를 정리하기도 했다(성경당). 이것은 고조선과 관련된 연구성과가 그만큼 많아졌으며 한국학계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를 느낀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사 정리를 통해 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는 기자조선 연구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며, 은상문화의 영향을 강조하고, 고조선 역사의 귀속 문제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동북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는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세대의 연구인원이 나타났다(이중훈).

한편 고조선과 관련하여 동북지역 고고학자료에 대한 발굴보고서와 종합적인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북방초원고고학문화비교연구(北方草原考古學文化比較研究)』²³와 『중국동북지구하지전국시기적고고학문화연구(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²⁴는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 문화를 정리한 저서이다. 그리고 『중국동북지구석봉연구(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²⁵를 통해 동북지역 고인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조양 원대자(朝陽 袁臺子) 유적, 우가 타두(於家 砬頭) 유적, 심양(沈陽) 신락(新樂) 유적 등 주요 유적의 발굴보고서가 출간되었으며 신민(新民) 북외(北歲) 유적에서는 요서지역보다 이른 시기의 비파형동검이 출토되기도 했다.

중국학계는 고조선 재평양설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동북지역의 고고학 발굴성과를 고조선과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학계는 요령지역을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로 보는 견해가 많은 만큼 새로운 자료를 통해 향후 고조선과 관련하여 한층 심화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烏恩嶽斯圖, 2008, 『北方草原考古學文化比較研究: 青銅時代至早期匈奴時期』, 北京: 科學出版社.

24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25 華玉冰, 2011,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北京: 科學出版社(하문식 역, 2019, 『중국 동북지구 석봉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III. 중국학계의 부여사 연구 현황과 평가

1. 단행본 연구 현황

중국학계에서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간행된 부여사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董學增, 2007, 『夫餘王國論集(續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付百臣 主編, 2009, 『夫餘歷史知識』,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趙紅梅, 2009, 『夫餘與玄菟郡關係研究』, 香港: 香港亞洲出版社.
董學增, 2010, 『夫餘史跡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張博泉, 2011, 『夫餘與高句麗論集』,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楊軍, 2012, 『夫餘史研究』,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範恩實, 2013, 『夫餘興亡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劉信君 主編, 2015, 『夫餘歷史研究文獻彙編』1~6,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薑維公 主編·鄭麗娜 編, 2016, 『夫餘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劉信君·鄧樹平, 2019, 『夫餘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부여 관련 단행본은 2005년 ‘동북민족여강역연구총서’의 일부로 『부여국사화(夫餘國史話)』²⁶가 간행된바 있다. 이 책은 『기씨조선사화』와 마찬가지로 부여사가 중국 동북지역사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집필된 대중서이다.

2007년 이후 간행된 부여사 관련 단행본은 크게 자료집 성격의 도서와 연구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 시기에는 부여사와 관련된 자료집 성격의 책이 꾸준히 간행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부여왕국논집(속편)[夫餘王國論集(續編)]』과 『부여여고구려논집(夫餘與高句麗論集)』은 부여사에 대한 논문을 모은 것이다. 『부여왕국논집(속편)』은 2003년에 나온 『부여왕국논집(夫餘

26 黃斌·劉厚生, 2005, 『夫餘國史話』,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王國論集)』의 후속으로 부여 관련 논문 29편이 수록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부여사에 가장 관심을 가진 곳은 길림시 지방정부였다. 길림시 지방정부는 2002년에 지역사와 고고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길림시사 편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길림시 역사의 출발점인 부여사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동단산과 모아산 주변 발굴에 대한 발굴보고서 발간, 둘째, 그동안 이루어진 부여 관련 연구 논문집 편찬, 셋째, 서단산문화연구중심과 부여문화연구중심 건립 등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부여왕국논집』이 간행되고 여기에서 제외된 논문을 따로 모아 『부여왕국논집(속편)』이 나온 것이다.²⁷

부여사 논문집의 간행은 이후로도 이어졌는데 『부여역사연구문헌회편(夫餘歷史研究文獻彙編)』은 6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부여사 연구 논문 모음집이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부여와 관련된 연구성과를 문헌 연구와 고고학 연구로 나누어 펴낸 것이다. 수록된 논문은 총 257편으로 중국학계의 부여사 연구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동북고대민족역사편년총서(東北古代民族歷史編年叢書)’의 일환으로 간행된 『부여역사편년(夫餘歷史編年)』은 부여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시기별로 편년하여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성격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집 출간은 중국학계의 부여사 연구가 한층 심화되었음을 알려준다.

부여와 관련된 연구서를 보면 먼저 『부여사연구(夫餘史研究)』는 한국사료(『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 여러 부여에 대한 견해, 북부여와 동부여, 부여의 분열과 천도 시점, 동명전설, 북부여와 탁리국(挾離國) 강역, 동부여, 북부여의 사회 구조와 관제(官制) 및 경제, 북부여 유민의 동향과 발해 부여부 등을 다루었다. 저자는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에 비해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는 낮게 보았다. 부여는 연나라 이북에서 활동했으나 기원전 2세기 동명의 이순하에 동쪽의 예맥 거주지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우고 이후 북부여와 동부여로 갈라졌다고 보았다. 또한 부여 전성기 강역은 송눈평원과 길림합달령 대부

27 이종수, 2021, 『부여의 얼굴』, 동북아역사재단, 172~173쪽.

분을 포함한다고 이해했다.

『부여흥망사(夫餘興亡史)』는 부여의 국가기원, 부여와 한나라의 관계, 부여의 정치체제, 부여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부여의 출자를 서단산문화로 파악하여 서단산문화를 기반으로 중원의 연·진·한 문화가 유입되어 부여문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부여와 한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부여가 멸망한 후 유민의 향방에 대해서는 모용선비의 전언, 고구려, 물길 순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보았다. 이 책은 철저하게 중국의 다민족 통일국가론에 입각해 저술된 책으로 부여와 고구려에 끼친 중원의 영향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부여사 연구 동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⁸

『부여사』는 2019년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된 것이다. 다루는 주제는 권1 통사(通史)에서 부여의 건립, 발전과 강성, 부여와 중원왕조의 관계, 부여와 주변 세력의 관계, 부여의 쇠망을 다루었으며, 이 외에 지리, 경제, 전기 등을 정리하고 고이(考異)에서는 부여사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부여가 늦어도 서한 초기에 건국되었으며 본래 중국 상주 시기 구이(九夷)의 하나인 부유(夫婁)의 후예로 그 족단은 색리국(索離國)에서 나왔다고 한다. 부여와 예맥이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기존 견해와 다른 점이다. 이 외에 부여 전기와 후기의 왕성에 대해서는 각각 길림시(吉林市)와 요원(遼原) 용수산산성(龍首山山城)을 주목한다. 또한 이 책은 부여국 정권은 서한 시기부터 한(漢)의 관할하에 책봉을 받으며 관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부여와 현도군의 관계를 정리한 『부여여현도군관계연구(夫餘與玄菟郡關係研究)』에서도 확인된다.

28 이종수, 2016, 앞의 글, 249~253쪽.

2. 주제별 연구와 평가

1) 기원 및 왕성

중국학계에서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간행된 부여의 기원 및 왕성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 孫希偉·吳戰林, 2008, 「“夫餘國”의 傳說」, 『夫餘國』1.
董學增, 2009a, 「夫餘稱謂의 由來辨考」, 『遼寧省博物館館刊』4.
董學增, 2009b, 「橐離國東明逃亡穢地傳說與相關考古文化辯析」, 『東北史研究』2.
王旭, 2009, 「夫餘始祖東明」, 『東北史地』6.
李爽, 2009, 「夫餘民族의 起源與形成」, 『東北史志』6.
董學增, 2010, 「夫餘王國前期王城所在地及高句麗夫餘城考辨」, 『東北史研究』1.
董學增, 2010, 「白金寶文化與橐離文化族屬新探」, 『夫餘史跡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楊軍, 2010, 「夫餘始遷時間地點考」, 『黑龍江社會科學』1.
李東·戴春·李喜德, 2010, 「試論與夫餘相關의 古史中的 濊族與 貊族」, 『東北史地』4.
張士東, 2010, 「“夫餘”與“句麗”語義考釋」, 『東北師範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6.
張士東·楊軍, 2010, 「夫餘族名의 音與義」, 『黑龍江民族叢刊』6.
張福有·孫仁傑·遲勇, 2011, 「夫餘後期王城考兼說黃龍府」, 『東北史地』2.
李延鐵·于建華, 2010, 「從索離溝의 考古發現看古索離國의 地望」, 『北方文物』2.
趙欣, 2011, 「談古夫餘族與“夫餘”地名」, 『中國地名』10.
張碧波·莊鴻鴈, 2012, 「索離王國文明의 探討—從索離溝考古說起—」, 『北方文物』3.
黃震雲, 2012, 「夫餘和高句麗神話傳說與族源考」, 『徐州工程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3.
王禹浪, 2013, 「“索離”國及其夫餘의 初期王城」, 『黑龍江民族叢刊』1.
劉洪峰, 2013, 「高句麗與夫餘建國神話初探」, 『福建大學學報』6.
李路, 2014, 「漢代東北邊疆民族文化與漢文化交流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王雪梅, 2015, 「國內夫餘活動中心與王城研究」,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4.
王禹浪·王俊錚, 2015, 「夫餘族稱與王城研究綜述」, 『黑河學院學報』4.
張福有, 2015, 「夫餘後期王城在遼源」, 『東北史地』6.
朱德貴·齊丹丹, 2015, 「“夫餘”建國時間再探討」, 『民族論壇』12.
陳永國, 2015, 「淺談夫餘始祖東明王의 傳說」, 『東北史地』3.
王天姿·王禹浪, 2016, 「西漢“南閭穢君”, 蒼海郡與臨穢縣考」, 『黑龍江民族叢刊』1.
吳麗華·車玉姝, 2016, 「嫩江流域穢貊諸族의 源流與分布—以夫餘爲例—」, 『北方文物』4.
商佳琪·薛剛, 2017, 「夫餘始祖傳說」, 『北方文學』7.

王禹浪·王立國·翟少芳, 2019, 「拉林河流域的自然地理環境及其早期歷史文化」, 『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

王俊錚, 2019, 「兩漢時期夫餘王城地理位置及其文化研究」, 『黑龍江民族叢刊』4.

李明浩, 2021, 「古代文獻中的“濊貊”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먼저 부여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건국신화인 동명신화(왕욱; 유흥봉) 및 동명신화에 나오는 색리국 혹은 탁리국(동학중; 장벽과·장홍안; 왕우랑)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색리국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백금보(白金寶) 문화에 대한 발굴보고서²⁹가 발행되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부여의 전·후기왕성(동학중; 양군; 장복유·손인걸·지용; 왕우랑·왕준재; 왕설매)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색리구 유적의 발굴³⁰로 부여 초기왕성 경화성지설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연철·우건화). 현재 부여 전기왕성에 대해서는 길림시 동단산 평지성설이 유력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후기왕성의 경우 길림성(농안설, 요원설, 사평 일면성설, 유하 나통산산성설, 장춘 관성자고성설, 우수설)과 요령성(서풍성자산산성설, 창도 사면성설, 개원설)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³¹

이 외에 부여의 민족 기원과 배경 문화(이상; 오려화·거옥주; 왕우랑·왕립국·적소방) 및 부여 명칭의 유래에 대한 연구(동학중; 조훈)도 나왔다. 특히 명칭과 기원에 대해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었다. 부여(夫餘)의 ‘부(夫)’는 발(發, 潑, 拔), 맥(貊), 박(亳) 등의 글자와 음이 통하고, ‘여(餘)’는 해부루(解夫妻)의 예처럼 음

29 吉林大學考古學系·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張忠培 主編, 2009, 『肇源白金寶-嫩江河遊一處青銅時代遺址的揭示』, 北京: 科學出版社.

30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0, 「黑龍江賓縣索離溝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1.

31 이종수, 2021, 『부여의 얼굴』, 동북아역사재단, 132~156쪽.

이 ‘루(婁)’와 통하며, 또 색리국의 ‘리(離)’, 고구려(高句麗)의 ‘려(麗)’, 부여(夫餘)의 ‘여(餘)’, 북옥저[北沃沮, 치구루(置溝婁)]의 ‘루(婁)’와 음이 통하기 때문에 탁리, 고구려, 부여, 북옥저, 두루막은 모두 루의 족군으로 보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나아가 부여(夫餘)=부루(夫妻)는 맥인을 지칭한다고 한다(장사동·양군: 장사동). 이것은 부여를 예족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세본팔종(世本八種)』에 “오(吳)의 왕자가 부여(夫餘)를 씨(氏)로 삼았다(夫餘氏 吳王子夫概王奔楚 其子在國 以夫餘爲氏)”는 기록이 있어 부여의 기원을 오에서 찾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조흔). 그러나 부여지역에서 오국의 문화요소가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양자를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³²

부여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학계는 동명신화가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황제 신화나 은상·주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황진운). 또한 부여의 종족은 예맥족 혹은 예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다. 특히 예맥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이 나와 중국문헌 및 『삼국사기』의 예·맥 기사와 예·맥 사회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이명호). 한대 동북 지역 주민의 문화와 교류를 정리한 박사학위논문도 나왔다(이로). 그리고 예족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예족의 근거지는 길림시 일대에 있었으나 부여국이 건립되면서 예족은 남하하게 되었고 창해군의 위치는 지금의 요령 대련시 보란점이었다는 견해가 나왔다(왕천차·왕우량). 이 외에 부여와 예·맥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다(이동·대춘·이희덕).

한편 앞에서 살펴본 『부여흥망사』와 마찬가지로 부여의 기원에 대해 기존의 예맥계설을 부정하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중국동북민족사(中國東北民族史)』³³에서 부여족을 동호족(東胡族) 계통으로 분류했다. 동호족계 안에서 혼혈족군으로 부여와 고구려, 예맥 등을 포함시키면서 중국 동북 민족의 역사에서 예맥족(濊貊族)의 역사상을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확인되는

32 박준형, 2012b, 앞의 글, 235~236쪽.

33 薑維公 主編, 2014, 『中國東北民族史』上,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것이다.³⁴ 이것은 고조선·부여·고구려의 종족을 예맥족으로 이해하는 중국학계의 연구와는 다른 점이다.

현재 예맥족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고대 종족(주민)에 대한 연구는 중국 학계에서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중국 동북지역 종족에 대하여 우리 시각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대외관계

중국학계에서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간행된 부여의 대외관계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 趙紅梅, 2009a, 「夫餘與前燕慕容廆朝貢關係探微」, 『東北史地』6.
趙紅梅, 2009b, 「夫餘與玄菟郡關係考略」, 『滿族研究』2.
趙欣, 2009, 「夫餘與高句麗的關係探略」, 『東北史地』6.
趙紅梅, 2010a, 「夫餘與東漢王朝朝貢關係研究」, 『社會科學戰線』6.
趙紅梅, 2010b, 「玄菟郡經略夫餘探微」, 『北方文物』2.
李賀, 2011, 「夫餘移民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張芳·劉洪峰, 2011, 「夫餘對外關係史略」, 『黑龍江民族叢刊』3.
趙紅梅, 2011, 「慕容鮮卑的屈起與夫餘的滅亡—兼論夫餘滅國的慕容鮮卑因素—」, 『黑龍江社會科學』5.
劉洪峰, 2013a, 「高句麗與夫餘關係問題研究綜述」, 『黑河學刊』9.
劉洪峰, 2013b, 「高句麗與夫餘軍事關係探析」, 『白城師範學院學報』8.
劉佳·傅惟光, 2014, 「夫餘國和北方草原青銅文化」, 『理論觀察』10.
程妮娜, 2014, 「夫餘國與漢魏晉王朝的朝貢關係」, 『求是學刊』4.
張芳, 2018, 「《三國史記》所見帶素時代夫餘與高句麗關係考」,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2018.
代靜, 2019, 「漢晉時期夫餘與挹婁關係考」,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6.

부여의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고구려와의 관계(조훈; 유홍봉; 장방), 모용선비

34 이승호, 2020a, 앞의 글, 10쪽.

와의 관계(조흥매), 음루와의 관계(대정), 현도군 및 한·위·진 중원왕조와의 관계(조흥매; 정니나)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 외에 부여 이민(유민) 문제와 관련하여 고구려, 모용선비, 두루막, 백제, 물길, 중원으로의 시기별 이동을 파악한 연구(이하)가 있었다.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학자는 조흥매이다. 그는 2006년 현도군으로 박사학위³⁵를 받은 이후 한국 고대국가와 중원왕조·한군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부여의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도군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부여와 중원왕조의 관계를 ‘조공과 책봉, 군사 투쟁 관계’로 규정하는 연구(장방·유홍봉)도 확인되지만 소수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동북공정 이후 중국 학계에서 진행된 부여의 대외관계사 연구 흐름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조흥매의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부여와 중원세력과의 조공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여가 중원왕조에 종속된 지방정권이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고구려나 발해를 대상으로 주요 논리를 구축해왔던 동북공정의 연구 기조와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³⁶ 또한 이러한 연구는 한군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³⁷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학계에서는 그동안 한군현과 관련하여 주로 낙랑군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도군을 비롯하여 한군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학계의 고조선·부여사 연구는 대외관계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관련 자료의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대외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35 趙紅梅, 2006, 「玄菟郡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36 이승호, 2020b, 앞의 글, 11쪽.

37 趙紅梅, 2008, 앞의 책; 苗威, 2016, 『樂浪研究』,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王綿厚·朴文英, 2016, 『中國東北與東北亞古代交通史』,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3) 문화 및 부여사 일반

중국어계에서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간행된 문화 및 부여사 일반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 邵蔚風, 2008, 「吉林地區夫餘及相關墓葬型制研究」, 『博物館研究』1.
- 馬彥, 2009, 「夫餘의民俗」, 『東北史地』6.
- 張宏林, 2009, 「夫餘王國淺說」, 『東北史地』4.
- 華陽, 2009, 「從考古發現看夫餘의厚葬之風」, 『東北史地』6.
- 董學增, 2010a, 「夫餘文化遺存的發現, 基本面貌及命名之我見」, 『東北史地』4.
- 董學增, 2010b, 「夫餘王國의經濟形態」, 『遼寧省博物館館刊』5.
- 董學增, 2010c, 「漢代松花江中遊諸族의文化交流及夫餘文化遺存의基本內涵與特徵」, 『中國考古學會第十二次會論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 宋福娟, 2010, 「對夫餘史中其些問題의探討」, 『社會科學戰線』3.
- 楊軍, 2010a, 「東夫餘考」, 『史學集刊』4.
- 楊軍, 2010b, 「夫餘國和金縷玉衣一起消失」, 『東北之窗』1.
- 楊軍·寧勇, 2010, 「夫餘簡論」, 『東北史地』4.
- 範恩實, 2011, 「從柳樹老河深墓地看夫餘邑落人羣構成」, 『北方文物』1.
- 孫顯·許哲, 2011, 「夫餘陶器의特徵及其文化因素分析」, 『北方文物』1.
- 於麗群·賈素娟·韓安生, 2011, 「以東團山遺址出土陶器爲例試析漢文化對夫餘文化의影向」, 『東北史地』6.
- 劉洪峰, 2013a, 「高句麗與夫餘文化關係芻議」, 『吉林師範大學學報』5.
- 劉洪峰, 2013b, 「高句麗與夫餘政治經濟對比分析」, 『蘭台世界』10.
- 喬梁, 2014, 「慶華遺存試析」, 『北方文物』1.
- 劉佳·傅惟光, 2014, 「夫餘國과北方草原青銅文化」, 『理論觀察』10.
- 劉洪峰, 2014, 「《三國史記》夫餘史料解析」,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32(04).
- 張芳·劉洪峰, 2015, 「夫餘王葬用玉匣考」, 『學習與探索』7.
- 祝立業, 2015, 「簡析高句麗始祖傳說의建構與夫餘衰亡之關係」, 『東北史地』5.
- 劉洪峰·張芳, 2016, 「夫餘王尉仇台考略」, 『通化師範學院學報』5.
- 董學增, 2018, 「夫餘研究管見」, 『地域文化研究』4.
- 王綿厚·溫科學, 2019, 「關於北穢、東穢與北夫餘、東夫餘의再考察—長白山區系考古與民族要論之二—」, 『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6.
- 張芳, 2021a, 「夫餘王帶素考」, 『史志學刊』3.
- 張芳, 2021b, 「西漢新莽時期夫餘國紀事考—以《三國史記》中夫餘王“帶素”爲中心」, 『黑龍江民族叢刊』3.

관련된 연구로는 부여 역사·고고학 일반(송복연; 양군·영용; 동학중), 북부여 및 동부여 문제(양군; 왕면후·온과학), 한나라가 제공한 옥갑 문제(장방·유홍봉) 등이 있다. 또한 부여왕인 대소왕(장방, 2021a; 2021b)과 위구태(유홍봉·장방)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대소왕에 대한 연구가 2편 나왔는데 이를 통해 대소왕대의 시대적 배경과 대외관계 등이 검토되면서 강성했던 부여가 분열된 것은 대소왕 개인의 성격과 관련 있다고 평가했다.

부여 문화 관련 연구로는 부여 문화와 중원 문화의 관계(유가·부유광), 무덤(소울풍, 2008; 화양, 2009; 범은실), 토기(손호·허철; 범은실; 어려군·가소연·한안생), 경제(동학중; 유홍봉)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차구(西岔溝) 유적 발굴보고서³⁸가 발행되어 부여와의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공정 이후 부여의 고고학문화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토기이다. 전형적인 토기로는 호·관·두·완이 있다. 최근에는 토기의 제작방법과 장식도안이 모두 중원의 것과 같다는 점에서 부여문화 유물과 한문화 유물이 공존공생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어려군·가소연·한안생). 그러나 부여문화의 토기에 한문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여의 토기는 한문화뿐만 아니라 한서2기, 보산, 서단산만기, 형가점유형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손호·허철). 그럼에도 토기를 포함한 부여문화에서 한문화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부여의 한에 대한 종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³⁹ 이러한 중국학계의 왜곡된 고고학자료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발표되는 부여 관련 발굴 자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38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系邊疆考古研究中心 編, 2022, 『西豐西岔溝』, 北京: 文物出版社.

39 박준형, 2012b, 앞의 글, 242~244쪽.

IV. 향후 대응 방안

Ⅱ장과 Ⅲ장에서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학계의 고조선, 부여사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연구 외에 누락된 연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흐름은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조선이 기씨조선과 위씨조선을 의미하며 이들 국가를 모두 중원왕조에 종속된 나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군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상(은)나라의 기자가 기씨조선을 건국했으며 이후 한나라 제후국인 연에서 망명한 위만이 위만조선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부여 역시 그 기원과 문화성격에 대해 중원과 연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한대 이래 중원왕조에 시종일관 종속된 지방정권이었다고 본다.

고조선사·부여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중국학계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은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 더욱 심화되는 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동북공정 이후 단군과 부여사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위논문을 통해 신진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고조선의 개념과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본래 고조선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단군왕검이 세운 왕검조선을 가리키며 기자조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제왕운기』는 ‘전조선’(단군조선)에 이어 ‘후조선’(기자조선) 시대를 설정했다. 조선시대에는 『제왕운기』에 나타난 삼조선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기자는 명실상부한 후조선의 시조로 한국사에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근대시기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기자조선을 부정하게 되었다. 이에 고조선은 ‘고조선(단군조선)+위만조선’으로 인식⁴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자조선을 부정하면서 그 시기를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기도

40 이기백, 1988,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시민강좌』 2.

한다. 해씨조선,⁴¹ 한씨조선,⁴² 김조선,⁴³ 크치조선,⁴⁴ 예맥조선⁴⁵ 등이 그것이다. 북한학계의 경우에는 기자조선 대신 후조선을 주장한다.⁴⁶ 또한 기자조선은 역사적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조선설’로 부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문헌에 나타난 기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족 관련 갑골이나 청동기에 나타난 집단의 경우 ‘기자족(箕子族)이나 기족(箕族)’ 혹은 ‘기국(箕國, 箕國)’이라 하고 ‘기자조선’과는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만이 세운 조선의 경우 한국학계는 ‘위만조선’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기』 조선열전에는 ‘위’라는 성이 확인되지 않고 ‘만’이라고만 불렸다. 후한대가 되어야 ‘위만’으로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정말 ‘위’씨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⁴⁷ 따라서 ‘위만조선’이나 ‘위씨조선’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또한 조선이라는 같은 국호를 사용했다라도 지배층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준왕의 조선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만조선’ 대신 ‘만조선’⁴⁸ 혹은 ‘후조선’⁴⁹ 같은 다른 용어의 사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고조선·부여사 관련 기본자료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고조선과 부여는 모두 사료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문헌과 새롭게 발견되는 고고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 부여편』 1~4,⁵⁰ 『역주 고조선 사료집

41 최남선, 1929, 「朝鮮史의 箕子는 支那의 箕子が 아니다」, 『怪奇』 2.

42 이병도,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47~56쪽.

43 정인보, 1946,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57~62쪽.

44 안재홍, 1947, 『朝鮮上古史鑑』 上, 民友社, 1~59쪽.

45 김정배,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 出版部, 180~198쪽.

46 전대준·최인철, 2010,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4~54쪽.

47 서영수, 1996,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9, 91쪽.

48 박시형, 1963, 「만조선왕조에 관하여」, 『역사과학』 3.

49 서영수, 1996, 앞의 글, 91쪽.

50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19·2020·2021, 『한국고대사 자료집:

성(중국편, 국내편)』,⁵¹ 『역주 중국정사 동이전1: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⁵² 등의 관련 사료집이 출간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자료집에서 고조선사에 비해 부여사의 비중이 작은 것은 아쉽다. 이미 중국학계에서는 부여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집과 자료집이 나온 만큼 앞으로 부여사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자료집이 나오길 기대한다.

또한 기자 관련 문헌자료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기자 전승의 확산과 윤색 과정을 밝히고 갑골문·금문에 나타난 기족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자조선설의 허구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고조선 및 부여와 관련된 사료의 서지학적 검토와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원자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고조선·부여사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주제로 한군현과 주민 문제가 있다. 한군현과 관련하여 한국학계에서는 낙랑군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다른 군현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반면 중국학계에는 한군현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서나 현도군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이 나와 있다. 한국학계에서는 최근에야 고조선단군학회의 2022년 봄 학술대회인 “‘금기’의 영역 한사군 대해부”(2022.4.1.)에서 한사군 전체에 대한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향후에는 낙랑군 중심에서 벗어나 요동군까지 포함하여 중국군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의 주민집단과 종족에 대해 우리 시각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고대 주민은 예·맥·한으로 인식되어왔다. 한국학계는 예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예맥의 그 기원이나 위치, 계통 등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학계에서는 예맥과 중국의 친연성을 강조하고

고조선 부여편』 1~4, 동북아역사재단.

51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9, 『역주 고조선 사료집성(중국편, 국내편)』, 새문사.

52 동북아역사재단, 2020, 『역주 중국정사 동이전1: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있으며 예맥을 비롯한 동북지역 주민과 종족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도 예맥족 등 동북지역 고대 주민 집단과 종족 계통 등의 문제를 큰 틀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대중관계에 편중된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중원국가·고구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여의 대외관계 연구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대외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국외 학자들과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필요하다. 중국학계에서도 모두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예 등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자조선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들과의 공동연구나 학술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북한학계와의 공동 연구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단군릉 발굴 이후 남북학계의 인식 차이는 더 커졌지만 기자릉, 대령장성 등 중국학계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에 이용되고 있는 북한지역 유적에 대한 공동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의 충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중국학계의 왜곡된 역사관을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학자 중에서는 아직 고조선사나 부여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고조선 연구자인 동북사범대의 묘위의 경우 고조선·부여·고구려 등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지도하며 관련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중국학계에서는 고조선·부여 관련 대중서도 출간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부여사와 관련하여 『처음 읽는 부여사』,⁵³ 『부여의 얼굴』⁵⁴과 같은 대중서가 출간되어 학계의 연구성과를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만 단군·고조선과 관련된 대중서로는 2007년 발행된 『고조선 단군 부여』⁵⁵ 이후 출간된 책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연구서만이 아니라 대중서 및 유튜브 영

53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54 이종수, 2021, 앞의 책.

55 동북아역사재단, 2007, 『고조선 단군 부여』.

상을 통해 고조선·부여의 연구성과와 중국학계 연구의 문제점을 대중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사와 부여사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공정은 2007년 2월 종료되었지만 동북공정을 통해 연구인원 배출과 연구기관이 설립된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학계의 고조선·부여사 연구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조선이 기씨조선과 위씨조선을 의미하며 이들 국가를 모두 중원왕조에 종속된 나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군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상(은)나라의 기자가 기씨조선을 건국했으며 이후 한나라 제후국인 연에서 망명한 위만이 위만조선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부여 역시 그 기원과 문화성격에 대해 중원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현대 이래 중원왕조에 시종일관 종속된 지방정권이었다고 본다. 최근 중국학계는 이러한 시각에서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에 『기씨조선사』, 『위씨조선사』, 『부여사』를 포함하여 발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고조선의 개념과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본래 고조선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단군왕검이 세운 왕검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기』 조선열전에는 ‘위’라는 성이 확인되지 않고 ‘만’이라고만 불렸음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둘째, 고조선·부여사 관련 기본자료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고조선과 부여는 모두 사료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문헌과 새롭게 발견되는 고고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고조선·부여사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주제로 낙랑군 중심에서 벗어나 요동군까지 포함하여 중국군현

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의 주민집단과 종족에 대해 우리 시각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더 넓은 시각에서 고조선 및 부여사와 관련된 대외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국외 학자들과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북한학계와의 공동 연구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의 충원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중국학계의 왜곡된 역사관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행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9, 『역주 고조선 사료집성(중국편, 국내편)』, 새문사.

김정배,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 出版部.

동북아역사재단, 2007, 『고조선 단군 부여』.

—————, 2020, 『역주 중국정사 동이전1: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19·2020·2021,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 부여편』 1~4, 동북아역사재단.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안재홍, 1947, 『朝鮮上古史鑑』 上, 民友社.

이병도,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이종수, 2021, 『부여의 얼굴』, 동북아역사재단.

전대준·최인철, 2010,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정인보, 1946,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최광식·박대재 역주, 2014, 『삼국유사』 1(기이), 고려대학교출판부.

董維公主編, 2014, 『中國東北民族史』 上,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宮長為·徐義華, 2011, 『殷遺與殷鑒』,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吉林大學考古學系·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張忠培 主編, 2009, 『肇源白金寶-嫩江河遊一處青銅時代遺址的揭示-』, 北京: 科學出版社.

苗威, 2016, 『樂浪研究』,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孫亞冰·林歡, 2010, 『商代地理與方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葉舒憲, 2007, 『熊圖騰-中華祖先神話探源』, 上海: 上海錦繡文章出版社.

烏恩嶽斯圖, 2008, 『北方草原考古學文化比較研究: 青銅時代至早期匈奴時期』, 北京: 科學出版社.

王綿厚·朴文英, 2016, 『中國東北與東北亞古代交通史』,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系邊疆考古研究中心 編, 2022, 『西豐西岔溝』, 北京: 文物出版社.
-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 趙紅梅, 2008, 『漢四郡研究』, 香港: 香港亞洲出版社.
- 韓江蘇, 2010, 『《殷本紀》訂補與商史人物徵』,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華玉冰, 2011,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北京: 科學出版社(하문식 역, 2019, 『중국 동북지구 석봉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黃斌·劉厚生, 2005, 『夫餘國史話』,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논문

- 김신자, 2009, 「홍산문화의 황제 영역설에 대한 비판: 곰신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곰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 김성환, 2022,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 김현숙, 2017, 「동북공정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2007~2105』, 역사공간.
- 박신미, 2017, 「고조선의 歷史地理 비정에 대한 계보적 검토」, 『백산학보』 109.
- _____, 2020, 「동북공정 전후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와 그 문제점」,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박시형, 1963, 「만조선왕조에 관하여」, 『역사과학』 3.
- 박준형, 2012a,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 108.
- _____, 2012b,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부여·예맥 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 서영대, 1994, 「단군자료 문헌자료 연구」, 『檀君: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0, 「근대 동아시아 3국의 신화적 국조 인식」, 『고조선단군학』 23.
- _____, 2012, 「중국학계의 단군 연구와 그 비판」, 『단군학연구』 27.
- 서영수, 1996,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9.
- 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 이승호, 2020a, 「부여사 연구의 흐름과 이해」,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b, 「2000년대 후 부여사 연구 동향과 'POST 동북공정」, 『동양학』 80.

- 이기백, 1988,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시민강좌』 2.
- 이종수, 2016, 「중국의 최근 부여사 연구현황과 동향」, 『동북아역사논총』 51.
- 임기환, 2012, 「동북공정과 그 이후, 동향과 평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 조법중, 2017, 「2000년대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단군, 기자조선 연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54.
- _____, 2018, 「중국 학계의 단군·기자 연구, 2000년대 이후 국가별 쟁점과 전망」, 『고조선사 연구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조영광, 2020, 「중국학계의 동북공정기 고구려사 연구 동향」,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조우연, 2012, 「중국학계의 ‘箕子朝鮮’ 연구와 그 비판에 대한 검토」, 『고조선단군학』 26.
- 조원진, 2021a, 「고대 진번의 변천 연구」, 『선사와 고대』 66.
- _____, 2021b, 「고조선 영역의 최대치와 최소치」, 『고조선단군학』 45.
- _____, 2021c, 「최근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연구 동향 검토」, 『韓國史學報』 85.
- 최남선, 1929, 「朝鮮史의 箕子는 支那의 箕子가 아니다」, 『怪奇』 2.
- 孫進已·幹志耿, 1984, 「漢真番郡考」 『黑龍江文物叢刊』 3.
- 張博泉, 1985, 「真番郡考」 『北方文物』 4.
- 趙紅梅, 2006, 「玄菟郡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0, 「黑龍江賓縣索離溝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 1.
- 今西龍, 1929, 「檀君考」, 『青邱說叢』 卷1.
-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 松本雅明, 1966, 「洪範篇の成立」, 『春秋戰國における尙書の展開』, 東京: 風間書房.

중국의 최근 고조선·부여사 연구 현황과 평가

조원진

동북공정은 2007년 2월 종료되었지만 동북공정을 통해 연구인원 배출과 연구 기관이 설립된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학계의 고조선·부여사 연구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학계는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 15권을 발간하며 『기씨조선사』, 『위씨조선사』, 『부여사』를 통해 고조선·부여사를 정리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이들 국가가 시종일관 중원왕조의 속국 혹은 지방정권이라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 책 외에도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에서는 특히 단군과 부여사와 관련된 단행본과 논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조선이 기자조선[箕子朝鮮, 혹은 기씨조선(箕氏朝鮮)]과 위만조선[衛滿朝鮮, 혹은 위씨조선(衛氏朝鮮)]을 의미하며 이들 국가는 모두 중원왕조에 종속된 나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군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상나라의 기자가 기씨조선을 건국했으며 이후 한나라 제후국인 연에서 망명한 위만이 위씨조선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단군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후대적 요소를 통해 형성시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단군이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보거나 긍정하더라도 중국 신화와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기자 관련 연구는 기자조선을 인정하면서 그 위치를 평양지역으로 보는 입장에서 기존 연구를 다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자 관련 세부적인 주제를 다룬 석사학위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학계의 부여사 연구는 그 기원과 문화성격에 대해 중원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한대 이래 중원왕조에 시종일관 종속된 지방정권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소왕이나 위구태 등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중원왕조와의 조공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학계는 방대한 부여사 논문집과 자료집도 출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학계의 왜곡된 연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조선 및 부여사와 관련된 기본자료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학자들과의 활발한 학술교류와 연구인력의 충원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주제어: 중국학계, 고조선, 부여, 단군, 기자조선, 위만조선, 동북공정

ABSTRACT

Study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China's Recent Research on Old Joseon and Buyeo History

Cho Wonchin

Although the Dongbuk-project was finished in Feb., 2007,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more actively conduct research on the history of Old Joseon and Buyeo, based on the production of researchers and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ion, which were promoted by the Dongbuk-project.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have recently published 15 volumes of Dongbukgodaebangguksokguksayeonguchongseo(東北古代方國屬國史研究叢書)', and arranged the history of Old Joseon and Buyeo in 『Gissijoseonsa(箕氏朝鮮史)』, 『Wissijoseonsa(衛氏朝鮮史)』 and 『Buyeosa(夫餘史)』. They reflect the perspective that these countries were consistently dependencies or local governments of Yuan Dynasty.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have continuously published separate volumes and articles on the history of Dangun and Buyeo, after the

Dongbuk-project, except for such books.

The essential results of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research on Old Joseon indicate that Old Joseon means both Gijajoseon (Gissijoseon) and Wimanjoseon (Wissijoseon), and these countries were subordinated to the Jungwon dynasty.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therefore, reject the historicity of Dangun and argue that Gija from Shang Dynasty founded Gissijoseon and then, Wiman who fled from Yan Dynasty, a feudal state of Han Dynasty founded Wissijoseon. Research on Dangun primarily discusses the period of its foundation, by focusing on the next generation and stresses the similarity with the Chinese myths, though it assumes or affirms that Dangun was founded in the next generation. Research on Gija recognized Gija Joseon and assumed that it was located in Pyeongyang, but turns to the rearrangement of the existing stud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fact that master's theses on detailed themes about Gija have been published.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research on the history of Buyeo stresses its connection with the Jungwon, in terms of its origin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from the perspective that Buyeo was a local government which had been consistently subordinated to the Jungwon dynasty since Han Dynasty. In addition, there were studies on detailed themes such as King Daeso, King Wigutae, etc. Although foreign relations were also studi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tributary relation with Jungwon Dynasty is intensively highlighted. In particular,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publish a vast collection of theses on and the set of data about the history of Buyeosa.

In order to overcome such a limit of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distorted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depth research into the basic data about the history of Old Joseon and Buyeosa, by using various themes. Moreover, the government's support for active academic exchanges with foreign scholars and the recruitment of research personnel is urgently essential.

Keywords: Chinese academic circles, Old Joseon, Buyeo, Dangun, Kijajoseon, Wimanjoseon, DongBuk-project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근 중국학계 고구려사 연구(2018~2021)의 몇 가지 변화

권순홍 |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통계의 변화
- III. 세대의 교체
- IV. 연구의 심화
- V. 맺음말



I. 머리말

2003년 ‘동북공정’이 한국에 알려지자, 한국학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동북공정’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귀속시켰기 때문이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흥분도 한몫했다. 한국학계는 그 이면에 있는 현대 중국의 현실 정치·정책적 배경으로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지적하면서도¹ 특히, ‘동북공정’하의 고구려사 연구를 ‘왜곡’으로 규정하고 고구려 역사 ‘빼앗기’로 평가했다.² 이에 따라 다각도에서 ‘동북공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비판함과 동시에,³ 한편으로는 한·중

* 투고: 2022년 7월 13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7일, 게재 확정: 2022년 8월 16일

- 1 余昊奎, 2003,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外關係史 研究現況」, 『한국고대사연구』 31; 윤휘탁, 2003,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
- 2 송기호, 2003, 「중국의 한국고대사 빼앗기 공작」, 『역사비평』 65; 李仁哲, 2003,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과 한국의 대응전략」, 『白山學報』 67; 최광식,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살림; 李成制, 2004, 「中國의 東北工程과 高句麗史 歪曲」, 『軍史』 53; 서길수, 2005, 「중국의 역사왜곡 현상에 관한 사례 분석」, 『高句麗研究』 20.
- 3 신형식, 2003, 「中國의 ‘東北工程’의 虛實」, 『白山學報』 67; 최광식, 2004, 「‘東北工程’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 『한국고대사연구』 33; 朴京哲, 2004,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隋·唐 70年戰爭 認識의 批判的 檢討」, 『한국고대사연구』 33; 余昊奎, 2004, 「중국의 東北工程과 高句麗史 인식체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26; 기수연, 2004, 「中國 正史 속의 高句麗-중국의 고구려 귀속 논리에 대한 문헌사적 검토-」, 『단군학연구』 10; 이인철·김현숙·고광의·김일권,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김성한, 2004, 「中國學界의 隋·唐-高句麗 관계사 인식과 그 한계」,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 국사편찬위원회; 박장배, 2005, 「현대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사업의 등장 배경」, 『역사와 현실』 55; 이개석·이희옥·박장배·임상선·유용태, 2005,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임기환, 2006,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역사학계의 대응-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史林』 26; 李仁哲, 2006, 『中國의 高句麗 研究-연구동향·연구자·연구논저목록-』, 백산자료원; 조법중,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白山學報』 76; 박승범, 2007,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구려 유민 연구 검토」, 『高句麗研究』 29; 강선,

양국의 민족주의 과잉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민족주의적 국사 체계에 대해 반성하거나⁴ 이를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⁵

2007년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자, 한국학계는 5년간 축적된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비판했다.⁶ 이 과정에서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로서 번속이론(藩屬理論)을 포착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했다.⁷ 또 비록 공식적인 사업은 종결되었더라도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를 추적·분석하는 작업이 이어졌고,⁸ 한편으로 한국학계의 대응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⁹

-
- 2007, 「고구려와 북방민족의 관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한계의 견해」, 『高句麗研究』 29.
- 4 정두희, 2004, 「中國의 東北工程으로 제기된 韓國史學계의 몇 가지 문제」, 『歷史學報』 183; 임기환, 2006, 앞의 글.
- 5 이영호, 2004, 「고구려의 ‘역사’와 동북아의 ‘현실」, 『창작과 비평』 124.
- 6 서길수, 2007,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高句麗研究』 28; 이원배, 2008, 「中國의 高句麗 起源研究 考察」, 『史叢』 66; 김영천, 2008, 「中國 學界의 高句麗 對外關係 研究動向」, 『史叢』 66; 전호태, 2008, 「중국의 한국고대사 인식과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美術史學研究』 258; 정운용·김미경·김락기·강신, 2009, 『중국의 통일국가론으로 본 고구려사』, 동북아역사재단; 조인성·문은순·박순발·여호규·최종택, 2010,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 논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이석현 외, 2010,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 7 余昊奎, 2004, 앞의 글; 정병준, 2007, 「중화인민공화국의 藩屬理論과 고구려 귀속문제」, 『高句麗研究』 29; 이인철, 2009, 「고구려의 국가적 성격-지방정권론·속국론 및 번속국론·봉국론에 대한 재검토-」, 『세계 속의 한국사』, 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여호규, 2010, 「양군의 『고구려 민족 및 국가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논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조인성, 2010, 『고대중국고구려역사속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논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 8 尹輝鐸, 2008, 「포스트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歷史學報』 197; 최광식, 2008, 「동북공정 이후 중국 연구서에 보이는 고구려·발해 인식」, 『先史와 古代』 29; 김승일, 2010, 「동북공정 이후 중국 학계의 한국사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55.
- 9 尹輝鐸, 2008, 앞의 글; 김영심, 2011, 「남한 학계의 동북공정 대응논리에 대한 비

2012년 ‘동북공정’이 시작된 지 10년, 공식적으로 종결된 지 5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자 여전히 끝나지 않은 ‘동북공정’ 문제가 환기되었고,¹⁰ 10년간 축적된 중국학계의 연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¹¹ 특히, 연구기관의 증설, 연구자 수의 증가 등 중국 동북지역의 연구 기반 확충에 따른 연구성과의 집적이 두드러졌다. 번속이론의 심화를 바탕으로 한 ‘동북공정’식의 논리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 및 정치체제·제도사, 종교·습속·문화사 등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는 분석이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동향 분석에 관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동북공정’의 개념 문제이다. 기왕에도 ‘동북공정’을 학술 차원의 역사 빼앗기 프로젝트로만 이해하던 한국학계의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¹² 이에 따라 ‘동북공정’을 이른바 ‘역사공정’과 이념적·현실적·정치적 배경으로서의 ‘동북변강정책·전략공정’, 둘로 구분할 필요가 강조되었다.¹³ 또, 2007년 종료된 이후와 그 이전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종료된 이후를 ‘동북공정식 역사인식’¹⁴ 혹은 그 주체와 방향 등의 변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

판적 검토, 『역사문화연구』 39.

- 10 송기호, 2012, 「중국의 동북공정, 그 후」, 『韓國史論』 57; 임기환, 2012, 「동북공정과 그 이후, 동향과 평가」, 한국고대사학회 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 11 조영광, 2012, 「동북공정과 그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문헌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학회 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정인철, 2012,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발해 고고학 연구 및 조사동향」, 한국고대사학회 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정호섭, 2013, 「중국의 POST 東北工程과 고구려사 관련 동향 분석」, 『韓國史學報』 51.
- 12 尹輝鐸, 2008, 앞의 글.
- 13 임기환, 2012, 앞의 글.
- 14 김현숙, 2012, 「2007년 이후 한·중 언론의 동북공정 관련 보도양상」, 한국고대사학회 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김현숙은 해당 글에서 ‘동북공정’ 이후의 역사왜곡 문제를 ‘동북공정식 인식’ 혹은 ‘한중역사갈등 문제’로 부를 것을 제안했는데, 전자에 비해 후자는 용어의 포괄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 전자는 중국학계 중에서도 일부의 역사인식을 특정하는 반면, 후자는 그러한 인식을 포함하

하며 ‘포스트 동북공정’¹⁵으로 구분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른 하나는 확대된 연구 기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의 필요성이다. ‘동북공정’의 주요 성과가 게재되는 학술지의 동향을 비롯하여, 주요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개별 특성 및 상호 연관성 등을 밀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⁶ 이에 따라 고구려 관련 연구를 게재한 학술지와 고구려 관련 석·박사 학위를 배출한 연구기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각 기관과 소속 연구자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¹⁷ 지린대학(吉林大學)·동베이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통화사범학원(通化師範學院) 등의 대학과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研究所)·지린성사회과학원(吉林省社會科學院) 등의 기관이 긴밀히 연계되어, 신진 연구자 양성이 이루어졌고, 연구자의 양적 증가와 지역적 확산,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2017년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 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를 주제별로 분석하는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¹⁸

여, 한국의 학술적 대응, 한·중 간 학문 외적인 제반문제 등을 포괄한다. 또 전자는 대체로 고구려·발해 등 고대사 주제에 한정되지만, 후자는 그 이후 근현대까지 포함한 역사 전반을 포괄한다. 이후 그는 전자를 택하여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으로 고쳐 불렀다(김현숙, 2016,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단, 그는 용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이 용어가 오히려 한·중 역사갈등을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북공정’은 2002~2007년의 5년간 진행된 프로젝트명으로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사학사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을 제안했다(김현숙, 2022,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중국의 역사 정책과 동북아 역사문제-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이러한 김현숙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지만, 대안과 그에 관한 논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 글에서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15 尹輝鐸, 2008, 앞의 글; 정호섭, 2013, 앞의 글. 단, ‘Post’는 post-colonial(ism)과 post-modern(ism)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의 전·후를 분리하고, 전·후의 성격 변화에 주목하는 ‘脫’의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용어의 적확성이 의심된다.

16 임기환, 2012, 앞의 글; 여호규, 2012, 「중합토론-「동북공정과 그 이후, 동향과 평가」에 대한 토론-」, 한국고대사학회 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17 김현숙, 2016, 앞의 글.

이를 통해 ‘동북공정’과 그 이후 진행된 중국 고구려사 연구의 주요 연구자, 주제별 주요 논제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었고, 당시까지 ‘동북공정식’ 고구려사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우선, 여전한 한계로서 두 가지가 언급되었는데, 하나는 중국 중심의 일원적·일방적 세계관을 고수하며, 중원왕조에 대한 고구려의 종속성만 강조하거나,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지방정권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방식의 연구 방법을 택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일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연구 주제의 확장 및 소재의 다변화와 함께, 문헌사료 및 물질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단, 여기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 고대 중국 문헌에 밝은 연구자들이 투입됨에 따라 중국 사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이루어졌지만, 『삼국사기』·『삼국유사』·『일본서기』 등 외국 사료의 가치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오로지 중국 사료만 이용하는 자료의 편협성이다. 이러한 특징 분석과 평가는 최근까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¹⁹ 단, 고구려사 연구에 관한 중국의 최근 동향은 기왕과는 달리 평가될 만한 변화도 확인된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기왕의 동향 분석을 토대로 아직 분석되지 않은 비교적

-
- 18 안정준, 2016, 「중국 동북공정의 樂浪郡 인식」, 『인문학연구』 32; 曹泳光, 2017, 「포스트 동북공정, 중국의 고구려 국가형성 및 초기 정치체제 연구 동향」, 『한국학논총』 47; 정동민, 2017,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軍史』 102; 이승호, 2017, 「2007년 이후 중국의 고구려 종교·사상사 연구 동향」, 『高句麗渤海研究』 57; 이준성,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 동향」, 『先史와 古代』 53; 안정준, 2017, 「고구려 유민사」, 김현숙 외,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2007~2015』, 동북아역사재단; 이정민, 2017, 「고구려 문헌사료 및 사학사」, 김현숙 외,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2007~2015』, 동북아역사재단. 해당 공동연구팀의 성과는 저서(김현숙 외, 2017, 앞의 책)로 묶여서 출간되었다.
- 19 조영광, 2020, 「중국 학계의 동북공정기 고구려사 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한편, ‘동북공정’에 대응하며 축적된 한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은 이정민, 2020, 「한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 성과」,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최근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동북공정’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위와 같은 평가가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하겠다. 통계의 변화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특징과 최신의 연구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논의들이 중심이다.

II. 통계의 변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중국에서 나온 고구려사 관련 연구성과는 단행본 37권, 박사학위논문 27건, 석사학위논문 83건, 학술지 수록 논문이 656건이다.²⁰ 연구의 양적 증가는 누차 언급되었지만, <표 1>과 <그림 1>,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까지의 통계를 종합해보면 세 가지 현상이 포착된다.

첫째, 학술지 수록 논문의 경우, 2018년부터 4년간의 논문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현격히 감소했다. 이 기간 총 123편, 연평균 논문 수는 약 30.75편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의 연평균 논문 수 약 48.5편의 63% 정도 수준이다. 특히, 직전 4년(2014~2017)에는 총 231편, 연평균 논문 수 약 57.75편으로 거의 2배였다는 점에서 미루어보면,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관련 학술지 수록 논문은 급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COVID-19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둘째,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두 번의 변곡이 있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단행본과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평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발간·배출되고 있는 반면, 석사학위논문은 달랐다. ‘동북공정’ 직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2007년과 2008년을 논외로 한다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2009~

20 이 통계는 정호섭, 2013, 앞의 글; 김현숙, 2016, 앞의 글; 조영광, 2020, 앞의 글을 기초로 하여, 최근(2020~2021)의 성과를 더한 것이다. 분류 방식과 기준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 논저(2007~2021)

연도	단행본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수록 논문
2007	3	1	4	31
2008	10	3	12	41
2009	3	2	2	50
2010	3	1	2	43
2011	2	1	4	37
2012	2	2	8	43
2013	2	2	6	57
2014	2	2	6	55
2015	1	—	3	70
2016	1	3	3	45
2017	1	2	2	61
2018	—	4	7	38
2019	3	—	7	26
2020	4	3	9	29
2021	—	1	8	30
계	37	27	83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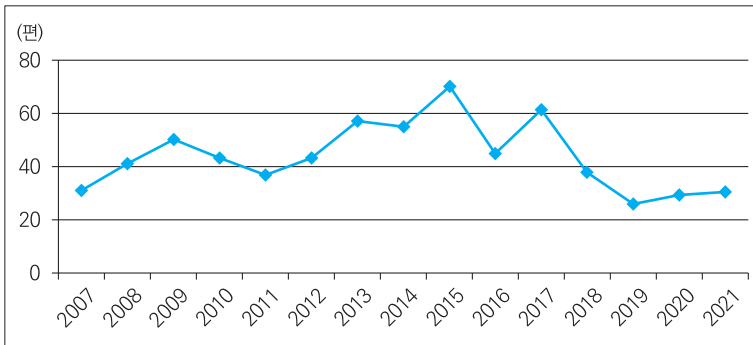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고구려사 관련 연도별 학술지 수록 논문 수(200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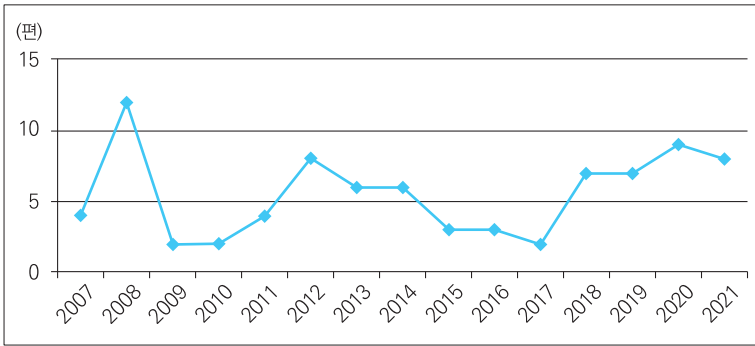


그림 2 중국의 고구려사 관련 연도별 석사학위논문 수(2007~2021)

2012년 4년간 증가하다가, 2013~2017년 5년간 감소했으며, 2018~2021년 4년간 다시 증가했다.

셋째, 양적 감소 추세가 5년의 터울을 두고 석사학위논문 수에 이어 학술지 수록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석사학위논문은 2013년부터 5년간 감소했는데, 학술지 수록 논문도 5년 뒤인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변곡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연구자 충원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결국 전체 연구자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이후의 연구 논문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필연일 수 있다. 석사학위논문 수는 학술지 수록 논문 수에 대한 일종의 선행지표인 셈이다. 만약 그렇다면, 2018년부터 4년간 다시 석사학위논문의 배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주목된다. 이를 선행지표로 본다면, 대략 2023년경부터는 학술지 수록 논문의 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단, 학술지의 등급화 및 심사의 엄격화 등 중국학계 내 연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학위 배출 기관의 통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된다.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석사학위를 배출한 기관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표 2>와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구려사 연구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3개 주요 대

〈표 2〉 중국 기관별 박사학위 취득자 인원(2007~2021)

대학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吉林大學		2	1	1	1	2				1	1					9
延邊大學	1							2		1		1				5
東北師範大學		1					2			1	1	2		1	1	9
長春師範大學												1		1		2
中央民族大學			1													1
哈爾濱師範大學														1		1
계	1	3	2	1	1	2	2	2	0	3	2	4	0	3	1	27

학으로 주목받아온 지린대학·둥베이사범대학·옌벤대학(延邊大學)은 여전히 석·박사 학위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한편, 2016년에 헤이룽장대학(黑龍江大學), 2018년에 츠펑학원(赤峰學院)에서 처음으로 석사학위가 배출된 이래, 2020년에 시베이민족대학(西北民族大學)·톈진사범대학(天津師範大學), 2021년에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黑龍江省社會科學院)·베이화대학(北華大學)·베이징무도학원(北京舞蹈學院) 등 기관 최초로 고구려 관련 학위가 배출된 사례가 최근에 급증했다. 이는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단, 2016년의 분석에서도 산시사범대학(陝西師範大學)·내이명구대학(內蒙古大學)·보하이대학(渤海大學)·장시사범대학(江西師範大學) 등 처음으로 석사학위를 배출한 사례를 통해, 고구려사 연구자 배출 지역과 기관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지만,²¹ 그 이후 해당 기관들에서 더 이상 학위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에 학위를 새롭게 배출한 기관들 역시 꾸준히 고구려사 연구자를 배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둘째, 반먼 창춘사범대학(長春師範大學)은 2018년 이래 박사학위 2건, 석사학위 3건을 배출하는 등 고구려사 관련 신진 연구자를 양성하는 중요 기관

21 김현숙, 2017, 앞의 글, 39~41쪽.

〈표 3〉 중국 기관별 석사학위 취득자 인원(2007~2021)

대학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吉林大學	1	6	1	1	1	1	1	1					2	1	1	17
延邊大學	1	2				1		2	1		2	3	2	1	1	16
東北師範大學	1	1			3	2	4		1	1		2	2	2		19
長春師範大學													1		2	3
渤海大學						1								1		2
瀋陽建築大學						1		2	1	1		1		2	1	9
福建師範大學		1				2		1								4
中央民族大學	1															1
吉林藝術學院		1														1
陝西師範大學		1														1
中國社會科學院			1													1
內蒙古大學				1												1
江西師範大學							1									1
黑龍江大學										1						1
赤峰學院												1				1
西北民族大學														1		1
天津師範大學														1		1
黑龍江省社科院															1	1
北華大學															1	1
北京舞蹈學院															1	1
계	4	12	2	2	4	8	6	6	3	3	2	7	7	9	8	83

으로 새롭게 급부상했다. 창춘사범대학은 장웨이공(姜維公)·장웨이둥(姜維東) 등 ‘동북공정’을 주도했던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어 이미 주목받아왔지만,²²

22 김현숙, 2016, 앞의 글, 37~38쪽.

2017년까지 석·박사 학위가 배출되지는 않았다. 이후의 학위 배출은 정춘잉(鄭春穎)이 박사지도교수로 부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특히, 정춘잉은 창춘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歷史文化學院)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소장을 맡아, 2018년부터 후술할 ‘고구려발해연구청년학자공작방(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을 주관하며, 현재 중국 내 고구려사 연구를 주도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셋째, 연변대학에서 배출된 신진 연구자 수가 2017년 이래 급증했다는 점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배출된 석사학위가 7건이었던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배출된 석사학위는 9건에 달한다. 과거 발해사 연구에 진력하던 연변대학은 김홍배(金洪培)·정경일(鄭京日)·김금자(金錦子)·조우연(趙宇然) 등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소장 연구자들이 자리 잡으며,²³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에서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한편 연변대학은 한국 관련 어학 및 연구성과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요하게 작용함으로써 중국내 영향력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 통계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베이사범대학·창춘사범대학·푸젠사범대학(福建師範大學) 등에서는 고구려 관련 주제를 중국사 전공에서 다루는 반면, 연변대학은 세계사 전공에서 다룬다. 이를 통해 연변대학과 다른 대학들 간의 시각 차이를 알 수 있다. 한편, 지린대학의 경우, 주로 고고학 전공에서 학위가 수여되었다.

또 최근 10년(2012~2021)간 박사를 지도한 교수는 박찬규(朴燦奎, 연변대학) 4명, 마오웨이(苗威, 동베이사범대학) 3명, 양권(楊軍, 창춘사범대학/지린대학)·왕페이신(王培新, 지린대학)·리더산(李德山, 동베이사범대학) 2명, 경테화(耿鐵華, 동베이사범대학)·웨이춘청(魏存成, 지린대학)·류샤오둥(劉曉東, 동베이사범대학)·정춘잉(창춘사범대학)·황윈허(黃雲鶴, 동베이사범대학) 1명씩이다. 최근 10년(2012~2021)간 석사를 지도한 교수 가운데 2명 이상 지도한 교수는 경

23 김현숙, 2017, 앞의 글, 37쪽.

테화(둥베이사범대학)·묘오웨이(둥베이사범대학) 4명, 량웨이시엔(梁韋弦, 푸젠 사범대학)·왕페이신(지린대학)·리더산(둥베이사범대학)·정경일(연변대학)·정춘잉(창춘사범대학) 3명, 김금자(연변대학)·박찬규(연변대학)·서일범(徐日範, 연변대학)·쑤리난(孫力楠, 둥베이사범대학)·송위빈(宋玉彬, 지린대학)·윤현철(尹鉉哲, 연변대학)·전옥(全瑩, 연변대학) 2명씩이다. 웨이춘칭·정테화 등 ‘동북공정’ 시기 고구려사 연구를 이끌었던 원로 연구자부터, 정춘잉·정경일 등 ‘동북공정’ 시기 혹은 그 이후에 연구자로 성장한 소장 연구자까지 여러 세대가 두루 신진 연구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배출된 석·박사 연구자들은 중국사회과학원과 지린성사회과학원 등 각급 사회과학원 혹은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高句麗研究院) 등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Ⅲ. 세대의 교체

최근 중국 내 고구려사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2018년에 시작 된 “고구려발해연구청년학자공작방”이다. 창춘사범대학의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가 주관하고,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가 협조하는 이 학술회의는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 내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연구하는 청년학자들이 모여 학술 토론을 벌이는 장이다. 2018년 11월에 제1회를 시작으로 2019년 10월과 2021년 5월에 각각 제2회와 제3회가 개최되었다. 주관자인 창춘사범대학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정춘잉과 협조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소장이자 동북변강연구실(東北邊疆研究室) 주임 판언쓰(範恩實)는 최근 고구려사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소장 연구자들로, 지린대학 고구려발해연구중심(高句麗渤海研究中心) 주임 왕쯔강(王志剛), 연변대학 고구려발해연구중심의 정경일 등과 함께 이 학술회의를 이끌고 있다. 1회와 2회에는 10여 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 30여 명이 참여했고, 각각 10편과 11편의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3회에는 30여 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 120여

명이 참여했고, 32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발표자의 소속기관을 보면, 동북3성의 주요 기관(중국사회과학원 포함)이 아닌 곳들이 눈에 띈다. 특히, 제1회에는 난카이대학(南開大學)·산시사범대학, 제2회에는 저장공상대학(浙江工商大學)·정저우대학(鄭州大學)·상하이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제3회에는 칭화대학(清華大學)·수도사범대학(首都師範大學)·란저우대학(蘭州大學)·상라오사범학원(上饒師範學院)·산둥대학(山東大學)·닝보재경학원(寧波財經學院) 등 점차 그 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주목된다. 종합 논평을 맡은 원로 연구자의 경우, 제1회에는 경테화와 청니나(程妮娜) 등 동북지역 연구자들이 맡았던 반면, 제2회에는 웨이춘칭 외,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의 왕샤오푸(王小甫), 제3회에는 웨이춘칭·경테화·쑹위빈 외에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學)의 리홍빈(李鴻賓), 베이징대학의 웨이정(韋正) 등이 참여했다. 참여 연구자의 소속기관을 통해 고구려·발해에 대한 관심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참여기관의 양적 확대와 지역적 확산뿐만 아니라, 해당 회의에서 진행된 다양한 논의도 주목된다. 기왕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과는 다른 관점의 고구려사 인식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한 주제 확장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 중심의 일원적·일방적 세계관이 아닌 동아시아 관점의 서술이 확인된다. 예컨대, 제1회 회의에서 발표된 「東北亞視角下的高句麗佛教初傳」의 경우,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던 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주목했다. 전진과 동진의 대결구도와 고구려와 백제의 대결구도라는 남북대립의 두 축을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교차하는 4국의 역학 관계를 정권에 구애받지 않는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교가 널리 전파된 것으로 이해했다.²⁴ 발표자 판보싱(潘博星)은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중

24 潘博星, 2018, 「東北亞視角下的高句麗佛教初傳」, 『第一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원왕조가 고구려에 불교를 ‘하사’한 것으로 이해했던 일본학계를 비판함과 동시에, 고구려의 불교수용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해했던 이기백 이래 한국학계의 해석 역시 불교를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중원왕조의 사례를 근거로 반박했다. 한·일학계의 연구성과들을 핵심 선행연구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각국의 역학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왕과는 다른 관점과 해석이었다.

또 제2회 회의에서 발표된 「6世紀末的東北亞情勢與高句麗對隋朝的戰爭」의 경우, 고구려와 수(隋)의 전쟁을 양국 간의 고립된 전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돌궐·고구려 등으로 대표되는 다원적 국제질서와 수로 상징되는 일원적 종번질서 간의 세계관 충돌로 해석했다.²⁵ 다원적 국제질서를 일원적 종번질서와 동격의 대립항으로 설정함으로써 후자를 상대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왕의 지방정권설뿐만 아니라, 고구려-수 전쟁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분열과 통일 간의 대립으로 해석하던 경향과도 다른 시각이다.

같은 회의에서 발표된 「東亞共同體視角下的高句麗問題」의 경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고구려 귀속문제에 집착해왔던 중국학계와 한국학계 양쪽에 대해, 근대적 민족개념을 고대사회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²⁶ 특히, 애국주의 정서를 학술연구에 투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를 귀속시키려는 시도의 비논리성과 고대인의 족류를 구분하고 그들을 현대인과 혈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의 비과학성 등을 비판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근대적 민족·국가의 구심력을 강조하던 기왕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과는 분명히 다른 관점이다. 발표자 창신(常馨)은 2021년에 상하이외국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 연구자이고, 앞선 발표자 장샤오저우(張曉舟)는 저장공상대학 소속의 신진 연구자로 고구려사 연구의 지역

25 張曉舟, 2019, 「6世紀末的東北亞情勢與高句麗對隋朝的戰爭」, 『第二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26 常馨, 2019, 「東亞共同體視角下的高句麗問題」, 『第二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적 확산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 새로운 연구방법이 시도되기도 했다. 예컨대, 2021년의 제3회 회의에서 발표된 「地理信息系統(GIS)在遼寧省高句麗山城考古調查中的應用」의 경우,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구려 산성의 각종 지리정보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²⁷ 특히, 산성에서의 가시권을 지도에 표시하거나 산성의 전체 면적 대비 실제 이용 가능 면적 등을 산출함으로써 산성의 군사방어 기능을 분석하는 작업은 앞으로 고구려 산성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도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방법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한·중 간 학술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또 같은 회의에서 발표된 「環境史視角下高句麗長壽王遷都平壤問題探析」의 경우, 장수왕대의 평양천도를 환경사의 관점에서 해석했다.²⁸ 구체적으로 평양천도 이전 집안지역의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 등이 장수왕의 천도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정이었다. 물론 근거자료로 활용한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 비판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이러한 생태사·환경사 연구의 실재는 그 필요와 당위만 지적해온 한국학계보다 앞서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 불과하지만,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중국학계의 고구려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이상 귀속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위와 같은 ‘고구려발해연구청년학자공작방’의 문제의식과 성과는 2014년에 리다룡(李大龍)이 제시했던 고구려사 연구의 향후 방향성과도 일맥 상통한다. 그는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새로

27 圖旭剛, 2021, 「地理信息系統(GIS)在遼寧省高句麗山城考古調查中的應用」, 『第三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28 馬業傑, 2021, 「環境史視角下高句麗長壽王遷都平壤問題探析」, 『第三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운 자료 발굴, 이론과 연구 방법의 적극적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²⁹ 그 구체적인 시도들이 이 학술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구려발해연구청년학자공작방’은 이상과 같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10년 남짓으로, 학계를 주도하는 소장 연구자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포함한 신진 연구자들이 고구려사 연구의 새로운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IV. 연구의 심화

위의 ‘고구려발해연구청년학자공작방’의 성과를 포함하여,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왕의 연구 경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기왕의 통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특히 두 가지 주요 주제에 관해서 이견이 확인되는데, 하나는 『삼국사기』의 활용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관계(중번/변속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2016년에 편찬된 『高句麗歷史編年』의 서문에서 드러나듯이,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의 핵심은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³⁰ 중국 사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록을 중번관계로 확대 해석하고, 고구려의 종속성과 귀속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변속이론의 구축을 강조한 리다롱이 『삼국사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³¹ 그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달리 말해, 고구려 귀속문제의 핵심쟁점은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해석문

29 李大龍, 2014, 「視角, 資料與方法-對深化高句麗研究的幾點認識」, 『東北史地』 2014-4.

30 姜維東, 2016, 『高句麗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한편 이 책의 서문에 기술된, 일본 식민주의 역사학이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그대로 믿었다는 해석은 명백한 오해이다.

31 李大龍, 2013, 『《三國史記·高句麗本紀》研究』,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제로 치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신뢰하며, 혹은 『삼국사기』 초기기록만 활용한 최근의 연구성과들은 기왕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송웨이(宋偉)의 동베이사범대학 박사학위논문 「《三國史記·高句麗本紀》史料輯論」은 리다룽 등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대체로 긍정한다.³² 이를테면, 광개토왕비·집안고구려비·모두루묘지 등의 당대 금석문 자료를 활용하여 『삼국사기』가 전하는 고구려의 왕대수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또, 고구려 국가형성과 관련하여, 『한서』와 『삼국지』, 『후한서』 등에 구려후추(句麗侯騶) 내지 도(騶) 등으로 전하는, 혹은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장군 연비(延丕)로 전하는 인물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송웨이는 『한서』 왕망전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그 인물은 고구려 장군 연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중국 사료보다 『삼국사기』 기록을 더 신뢰했다.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에서 ‘구려후추/도’의 사례가 고구려의 국가형성을 한 군현의 관찰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주요 근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또 리샹(李祥)은 「高句麗時代災異及災異觀研究」라는 글을 통해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재이 기사를 분석했다.³³ 결론적으로 고구려의 재이관은 중국의 천인감응설과 음양오행설의 영향 외에도 북방계통의 원시신앙 및 고구려 고유 토착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고구려만의 독특한 재이관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삼국사기』의 초기기록을 후대에 윤색된 신화 및 전설로 평가하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고구려본기 전체의 재이 기사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과 유형 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초기기록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한 셈이다.

주리에(祝立業)는 「高句麗族群形成與王國早期發展互動關係考察」이라

32 물론 그는 한대 이래로 수당대까지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宋偉, 2018, 「《三國史記·高句麗本紀》史料輯論」,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81쪽.

33 李祥, 2021, 「高句麗時代災異及災異觀研究」, 『綿陽師範學院學報』 40-12.

는 글에서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고구려 초기사를 재구성하기도 했다.³⁴ 『삼국지』에 전하는 ‘연노부분국주(涓奴部分國主)’ 등의 기사를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바탕으로 해석했는데, 계루부와 연노부의 이른바 ‘쌍핵’시대에서 계루부 ‘단핵’시대로의 전환을 『삼국사기』 대무신왕대 기록에 전하는 남부사자 추발소(南部使者 鄒勃素)의 비류부장(沸流部長) 축출기사로 설명했다. 중국 사료와 『삼국사기』 중 양자택일하지 않고, 양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한편, 고구려와 중원왕조를 둘러싼 국제질서에 관한 이해에서도 기왕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과는 다른 해석들이 포착된다. 이미 종래에도 고구려를 중원왕조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고구려를 중원왕조와 구분되는 외국으로 보는 해석도 있었다.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동아시아 세계론을 뒤늦게 주목하며³⁵ 4세기까지 소급 적용했던 것도 그 일환이었다.³⁶ 단, 이러한 관점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해석하고 중원왕조와 지방정권 혹은 중원왕조와 주변국의 관계를 일원적·일방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다.³⁷

반면, 최근에는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로 파악하던 기왕의 경향과는 다른, 중원왕조를 상대화시킨 다원적 국제질서 내지 천하관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장샤오저우의 「6世紀末の東北亞情勢與高句麗對隋朝的戰爭」도 그러한 맥락이었는데,³⁸ 그에 앞서 리슈양(李爽)은 「高

34 祝立業, 2018a, 「高句麗族群形成與王國早期發展互動關係考察」, 『地域文化研究』 2018-5.

35 홍승현, 2012, 「중국학계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국제관계사 서술」, 한국고대사학회 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389~399쪽.

36 蔡鳳林, 2019, 「試論4-7世紀的朝鮮半島與古代東亞國際政治」,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9-2.

37 이준성, 2017, 「고구려 대외관계사」, 김현숙 외,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2007~2015』, 동북아역사재단, 141~159쪽.

38 張曉舟, 2019, 앞의 글.

句麗與柔然關係研究」라는 글을 통해서 고구려와 유연의 관계를 검토했다.³⁹ 이 글에서 그는 중국과 주변의 관계를 일원적 종변관계가 아닌, 중원의 남북조에 대응하는 막북의 유연, 동이의 고구려로 묘사함으로써, 다원적 국제질서로 해석했다. 그가 그린 역학관계에 따라 연동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원왕조는 그 중 한 축을 담당할 뿐이었다.

또, 완샤오(萬曉)는 「權力轉移下崛起國對小國政策探因-以隋唐時期的吐谷渾與高句麗爲例」에서 중원왕조와 유목왕조를 국제질서의 두 개 축으로 보면서, 이른바 주변 소국들과의 관계를 고찰했다.⁴⁰ 그는 6~7세기의 수-돌궐 관계를 현재의 중-미 관계에 대응시키며, 각각 굴기국-패권국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국제질서상 권력의 재편 과정에서 주변 소국에 대한 관계 및 정책을 토욕혼과 고구려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현재의 국제관계에 대입해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여전히 중국 중심적이지만, 고구려 등을 국제질서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며, 일방적 종변관계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 중심의 일원적·일방적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한·일학계의 비판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펑리쥘(馮立君)은 「長安之東：唐代絲綢之路的延伸-從撒馬爾罕壁畫「鳥羽冠使者」說起」에서 중원과 초원, 서역, 동방 등을 각각의 지역세계로 규정하고, 그것을 포괄하는 ‘동부유라시아 세계’를 설정했다.⁴¹ 주지하듯, ‘동부유라시아’는 니시미자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비판 및 대안으로 일본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⁴² 최근 한국학계에서도 활발히 논의 중인 인식틀이다. ‘동부유라시아’론의 핵심은 중심-

39 李爽, 2018, 「高句麗與柔然關係研究」, 『地域文化研究』 2018-5.

40 萬曉, 2020, 「權力轉移下崛起國對小國政策探因-以隋唐時期的吐谷渾與高句麗爲例」, 『當代亞太』 2020-3.

41 馮立君, 2019, 「長安之東：唐代絲綢之路的延伸-從撒馬爾罕壁畫「鳥羽冠使者」說起」, 『唐都學刊』 2019-3.

42 일본의 ‘동부유라시아론’의 전개에 관해서는 최재영, 2021, 「일본의 ‘동부유라시아’ 연구의 전개와 방향」, 『中國古中世史研究』 61; 정동준, 2021, 「동부 유라시아론이란 무엇인가?」, 『고조선단군학』 46 참조.

주변이라는 이분법적·일원적·일방적 구조의 동아시아 세계론을 비판하고, 북방 유목사회 등 이른바 주변국 혹은 주변세력을 주체적인 존재로 평가하며, 다원적 세계로 재현하는 것이다.⁴³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의 변속이론과는 분명히 다른 관점이다.

단, 핑리전은 이 글에서 ‘동부유라시아’를 언급하면서도, 그 중심에 장안을 두고 장안에서 뻗어 나가는 실크로드를 마치 동부유라시아의 동맥처럼 묘사함으로써, ‘동부유라시아’론을 중국 중심으로 전유했다. 초원·서역·동방 등을 중국과 같은 역사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중국의 하위 지역세계로 국한시키고, 그들을 포괄하는 동부유라시아와 중국을 등치시키는, 또 다른 중변/변속 개념으로 해석된다. 중원/한(漢)과 중국을 구분하고, 중원/한·초원·서역·동방을 포괄하는 광의의 중국이었다.⁴⁴ 이러한 점에서 최근 중국학계가 말하는 다원적 질서/관계는 중국 내부를 다원적 중변관계로 재구조함으로써, 기왕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보완·극복하려는 시도로도 읽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는 근현대의 중국을 비서방적 대국으로 재구축하고, 이에 대응하는 ‘역사중국’을 동아시아/동부유라시아를 포괄하는 ‘문화제국’으로 복원함으로써, ‘대국적 전통’으로 고금의 ‘중국’을 연속시키려는 시진핑 시대 중

43 廣瀬憲雄, 2018, 『古代日本と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關係』, 東京: 勉誠出版, 13~15쪽.

44 이러한 인식은 南京大學 교수 童嶺의 다음과 같은 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경대학 중문과는 전통적으로 ‘중국고대문학사’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4학기 동안 강의해왔고 저는 魏晉南北朝·隋唐 시대를 맡았습니다. 강의 첫날이면 언제나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여러분이 수강하신 과목은 실로 이름과 실체가 부합하지 못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거란이나 여진·옛 돌궐의 글을 정리하거나 흉노나 선비족의 문자를 복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中國文學史’라는 이름을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漢文學史’를 이야기할 따름입니다.”(통령 저, 최혜미 역, 2015, 「(번역) 十六國 霸史文獻의 新發見과 新考證」, 『漢字漢文研究』 10, 146~147쪽) 여기에는 중국=漢+유목·수렵사회(흉노, 돌궐, 선비, 거란, 여진 등)라는 도식이 전제되어 있다. 방증 사례를 제시해준 이정빈 선생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국사 재구성의 일환일 수 있다.⁴⁵ ‘다중’·‘다원’·‘동부유라시아’의 중국식 전유인 셈이다.

요컨대, 최근의 고구려사 연구에서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 초기기록 문제와 국제관계(중번/번속 관계) 문제에 관해 다양한 이견이 제출됨에 따라 논의의 확장과 이해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기왕에는 『삼국사기』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중국 문헌만을 활용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특히, 『일본서기』를 활용하는 연구가 주목되는데 평야란(馮雅蘭)은 창춘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日本書紀》中高句麗史料的研究」를 통해 『일본서기』의 고구려 관련 기사들을 유형별로 분류·분석하면서 비록 누락과 오류가 많지만, 중국 문헌의 공백을 메우고 중국 사료의 부족을 보완하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했다.⁴⁶ 특히, 그는 『일본서기』에서 일본이 피조공국을 차칭하고, 고구려를 번속국으로 규정하며 고구려 사신이 ‘공헌’했다고 표현한 것은 실재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른바 ‘왜본위’의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⁴⁷ 쑤웨이란(孫煒冉) 역시 「《日本書紀》中遣使高句麗有關記載的政治動機」를 통해, 위와 같은 용어와 표현들을 자국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일본의 의도적 수사로 보았다.⁴⁸ 이러한 해석은 기록과 실재를 비판적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서기』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를 번속이론의 주요 사료에도 적용한다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5 吳炳守,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 『歷史教育』 156, 242~251쪽.

46 馮雅蘭, 2019, 「《日本書紀》中高句麗史料的研究」, 長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47 馮雅蘭, 2019, 위의 글, 32쪽.

48 孫煒冉, 2022, 「《日本書紀》中遣使高句麗有關記載的政治動機」, 『天中學刊』 37-2.

또 『일본서기』에 전하는 안원왕 사망 전후의 고구려 내부 정황 기록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평야란의 「高句麗安原王去世之際奪嗣之戰探析」,⁴⁹ 고을덕모지를 활용하여 고구려 중앙관제 및 지방제도를 검토한 왕련룡(王連龍)의 「唐代〈高乙德墓誌〉所見高句麗官制考」⁵⁰ 등은 자료의 편협성을 지적받았던 중국학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후자의 경우, 고을덕모지에 나오는 ‘집상사(執塲事)’와 ‘평대(評臺)’ 등 관명에 관한 기왕의 본인 해석⁵¹에 대해 한·중학계의 반박이 있다⁵² 재반박하며 본인의 논지를 강화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의 정사 및 유서 등의 문헌과 동시기의 금석문뿐만 아니라, 『삼국사기』·『고려사』 등 한국의 문헌과 광개토왕비 등 금석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한 가지 쟁점에 관한 오로지 학술적인 논쟁을 한·중의 여러 연구자가 교차하며 진행 중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새로운 개념과 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동부유라시아’론의 수용도 같은 맥락일 텐데 고구려의 ‘민족’구성에 관한 문제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확인된다. 2006년에 발간된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에서 양진(楊軍)은 예맥족·고조선계 및 부여계 유이민·한족(漢族) 등 다양한 종족이 고구려족을 구성했다고 보았다.⁵³ 이는 한족 주도의 고구려 ‘민족’ 융합을 설명하며,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희석시

49 馮雅蘭·鄭春穎, 2019, 「高句麗安原王去世之際奪嗣之戰探析」, 『長江叢刊』 2019-6.

50 王連龍, 2021, 「唐代〈高乙德墓誌〉所見高句麗官制考」, 『文史』 2021-1.

51 王連龍, 2015, 「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誌及相關問題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5-4.

52 葛繼勇, 2015,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79; 李成制, 2015,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분석」, 『中國古中世史研究』 38; 여호규, 2016,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百濟文化』 54; 정동준, 2016, 「高乙德 墓誌銘」, 『목간과 문자』 17.

53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김과 동시에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고구려 자체도 다종족국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었다.⁵⁴ 이러한 양권의 다원설은 주리에·판언쓰 등에 의해 계승되었는데,⁵⁵ 주목할 것은 그들이 양권의 다원설에 더하여, 어네스트 겔너·베네딕트 앤더슨·에릭 홉스봄 등의 nation 개념을 인정하고, 이와 구분되는 앤서니 스미스의 ethnic group 개념을 차용하여, 고구려를 이른바 ‘족군(族群)’ 혹은 ‘족군공동체(族群共同體)’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근대적 nation의 개념을 고대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⁵⁶에 대한 대응일 텐데 비록 nation은 근대적 개념이더라도 앤서니 스미스가 지적한 대로 공동조상에 대한 신화, 과거의 사건 혹은 인물에 대한 공동의 기억, 공유되는 문화 등을 조건으로 하는 ethnic group, 즉 ‘족군’은 이른바 전근대사회에도 이미 있었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민족형성의 시기를 고대에서 찾거나 단일민족 서사를 고수하기도 하는 한국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단, 옥저·동부여·북부여·한·예 등의 족군을 고구려의 변속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원왕조와 고구려의 종번관계에 대응시키고 일종의 누층적 종번관계를 설정하며 족군 혹은 족군공동체를 중화민족의 전사(前史)로 위치 짓는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서구학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함으로써, 논의를 보완·심화시키는 연구태도가 돋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과 일본 등 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정 주제에 관한 한국학계의 동향을 정리하는 연구도 많아진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최근의 연구성과들은 공히 일본과 북한, 특히 한국학계의 최신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서론에서 선행연구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

54 여호규, 2010, 앞의 글, 125~135쪽.

55 祝立業, 2018b, 「族群共同體形成視閥下的高句麗王國發展歷程考察」, 長春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範恩實, 2021, 「高句麗史上的外來族群問題研究」, 『史學集刊』 2021-05.

56 정운용, 2009, 「역사적 적용에 있어서 ‘다민족 통일국가론’의 허실」,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의 통일국가론으로 본 고구려사』, 동북아역사재단.

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논지 구축을 위해 활용하는 예가 많다. 정춘잉·왕페이펑(王飛峰)·자오준제(趙俊傑)·조우연 등 일본과 한국에서 유학한 연구자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는 점과 한국 연구성과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요 배경일 수 있다. 최근 CNKI가 한국의 연구성과를 원문으로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한·중 양국의 학술교류는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세 가지가 최근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에서 확인되는 큰 특징이다. 연구 논문의 절대 수는 양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며, 새로운 개념 및 외국학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도리어 연구는 질적으로 심화되었다고 평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동북공정’ 이래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정치적인 목적과 자의적인 해석, 특정 사료만 활용하거나 외국학계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편협성이 주로 지적되어왔다. 머리말에서 지적한 대로 직전의 동향 분석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최근의 동향은 조금 달리 평가된다. 『삼국사기』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학계의 동향파악과 성과반영도 적극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의적 해석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왕과는 다른 관점과 연구방법으로 다른 해석을 주도하는 연구자는 대체로 비교적 젊은 세대의 연구자이거나, 동북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전공분야를 공부했던 연구자이다. 연변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산시사범대학에 자리잡은 평리권이나,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저장공상대학에 자리잡은 장샤오저우 등의 예처럼 고구려사 연구의 지역적 확산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도 확인된다. 한편, IV장에서 검토한 연구성과 중 학위논문을 제외한 9편의 논문 가운데, 6편의 논문이 연구기금으로 수행되었고, 그중 4편은

국가사회과학기금이었다.

단, 이러한 변화의 배경 내지 동력이 단지 재정적 지원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족·국가 중심의 근대 역사학 비판,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보완·극복, 외국학계의 이론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종변/번속 개념의 재정의, 번속이론의 재구축에 따른 일종의 자신감이 엿보인다. 여기에는 앞서 완샤오의 표현처럼 중국의 굴기와 미-중 패권 갈등, 그리고 과거 수당제국 건설에 대응시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 이동을 전망 혹은 희망하는 중국의 현실 인식과 제국주의적 미래 계획이 내재한 것일 수 있다.

고구려사 연구의 양적 헤게모니는 이미 중국학계의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학계도 정치사·제도사·사회경제사·습속사·문화사 등 다양한 주제를 발굴 중이고, 오히려 환경사 등의 주제는 이미 한국학계보다 앞서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프로그램 활용, 인접학문의 개념 도입, 비교사적 접근 등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도 한국학계와 큰 차이가 없다. 결국 한국학계가 질적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의식에 의한 새로운 해석틀, 이론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동부유라시아론·해역아시아사 등이 제기되고, 중국에서 종변/번속 이론을 재구축하는 동안 한국학계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지 곱씹어볼 일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현숙 외, 2017,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2007~2015』,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이개석·이희옥·박장배·임상선·유용태, 2005,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 이석현 외, 2010,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 李仁哲, 2006, 『中國의 高句麗研究 - 연구동향·연구자·연구논저목록-』, 백산자료원.
- 이인철·김현숙·고광의·김일권,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정운용·김미경·김락기·강선, 2009, 『중국의 통일국가론으로 본 고구려사』, 동북아역사재단.
- 조인성·문은순·박순발·여호규·최종택, 2010,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논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 최광식,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살림.
- 한국고대사학회 편, 2012,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 姜維東, 2016, 『高句麗歷史編年』, 北京: 科學出版社.
-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大龍, 2013, 『《三國史記·高句麗本紀》研究』,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 廣瀨憲雄, 2018, 『古代日本と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關係』, 東京: 勉誠出版.

논문

- 葛繼勇, 2015,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79.

- 강선, 2007, 「고구려와 북방민족의 관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한계의 견해」, 『高句麗研究』 29.
- 기수연, 2004, 「中國 正史 속의 高句麗 - 중국의 고구려 귀속 논리에 대한 문헌사적 검토 -」, 『단군학연구』 10.
- 김성한, 2004, 「中國學界의 隋·唐 - 高句麗 관계사 인식과 그 한계」,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 국사편찬위원회.
- 김승일, 2010, 「동북공정 이후 중국 학계의 한국사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55.
- 김영심, 2011, 「남한 학계의 동북공정 대응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문화연구』 39.
- 김영천, 2008, 「中國 學界의 高句麗 對外關係 研究動向」, 『史叢』 66.
- 김현숙, 2016,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 _____, 2022,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 - 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중국의 역사 정책과 동북아 역사문제 - 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 朴京哲, 2004,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隋·唐 70年戰爭 認識의 批判的 檢討」, 『한국고대사연구』 33.
- 박승범, 2007,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구려 유민 연구 검토」, 『高句麗研究』 29.
- 박장배, 2005, 「현대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사업의 등장 배경」, 『역사와 현실』 55.
- 서길수, 2005, 「중국의 역사왜곡 현장에 관한 사례 분석」, 『高句麗研究』 20.
- _____, 2007,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高句麗研究』 28.
- 송기호, 2003, 「중국의 한국고대사 빼앗기 공작」, 『역사비평』 65.
- _____, 2012, 「중국의 동북공정, 그 후」, 『韓國史論』 57.
- 신형식, 2003, 「中國의 ‘東北工程’의 虛實」, 『白山學報』 67.
- 안정준, 2016, 「중국 동북공정의 樂浪郡 인식」, 『인문학연구』 32.
- 余昊奎, 2003,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外關係史 研究現況」, 『한국고대사연구』 31.
- _____, 2004, 「중국의 東北工程과 高句麗史 인식체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26.
- _____, 2016,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百濟文化』 54.
- 吳炳守,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 『歷史教育』 156.
- 윤휘탁, 2003,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

- _____, 2008, 「포스트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歷史學報』 197.
- 李成制, 2004, 「中國의 東北工程과 高句麗史 歪曲」, 『軍史』 53.
- _____, 2015,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분석」, 『中國古中世史研究』 38.
- 이승호, 2017, 「2007년 이후 중국의 고구려 종교·사상사 연구 동향」, 『高句麗渤海研究』 57.
- 이영호, 2004, 「고구려의 '역사'와 동북아의 '현실」, 『창작과 비평』 124.
- 이원배, 2008, 「中國의 高句麗 起源研究 考察」, 『史叢』 66.
- 李仁哲, 2003,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과 한국의 대응전략」, 『白山學報』 67.
- _____, 2009, 「고구려의 국가적 성격-지방정권론·속국론 및 번속국론·봉국론에 대한 재검토-」, 『세계 속의 한국사』, 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 이준성,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 동향」, 『先史와 古代』 53.
- 임기환, 2006,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역사학계의 대응-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史林』 26.
- 전호태, 2008, 「중국의 한국고대사 인식과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美術史學研究』 258.
- 정동민, 2017,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軍史』 102.
- 정동준, 2016, 「高乙德 墓誌銘」, 『목간과 문자』 17.
- _____, 2021, 「동부 유라시아론이란 무엇인가?」, 『고조선단군학』 46.
- 정두희, 2004, 「中國의 東北工程으로 제기된 韓國史學계의 몇 가지 문제」, 『歷史學報』 183.
- 정병준, 2007, 「중화인민공화국의 藩屬理論과 고구려 귀속문제」, 『高句麗研究』 29.
- 정호섭, 2013, 「중국의 POST 東北工程과 고구려사 관련 동향 분석」, 『韓國史學報』 51.
- 조법중,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白山學報』 76.
- 曹泳光, 2017, 「포스트 동북공정, 중국의 고구려 국가형성 및 초기 정치체제 연구 동향」, 『한국학논총』 47.
- 최광식, 2004, 「'東北工程'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 『한국고대사연구』 33.
- _____, 2008, 「동북공정 이후 중국 연구서에 보이는 고구려·발해 인식」, 『先史와 古代』 29.
- 최재영, 2021, 「일본의 '동부유라시아' 연구의 전개와 향방」, 『中國古中世史研究』 61.

- 통령 저, 최혜미 역, 2018, 「(번역) 十六國 霸史文獻의 新發見과 新考證」, 『漢字漢文 研究』 10.
- 圖旭剛, 2021, 「地理信息系統(GIS)在遼寧省高句麗山城考古調查中的應用」, 『第三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 馬業傑, 2021, 「環境史視角下高句麗長壽王遷都平壤問題探析」, 『第三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 萬曉, 2020, 「權力轉移下崛起國對小國政策探因-以隋唐時期的吐谷渾與高句麗為例」, 『當代亞太』 2020-3.
- 潘博星, 2018, 「東北亞視角下的高句麗佛教初傳」, 『第一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 範恩實, 2021, 「高句麗史上的外來族群問題研究」, 『史學集刊』 2021-05.
- 常馨, 2019, 「東亞共同體視角下的高句麗問題」, 『第二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 孫燦冉, 2022, 「《日本書紀》中遣使高句麗有關記載的政治動機」, 『天中學刊』 37-2.
- 宋偉, 2018, 「《三國史記·高句麗本紀》史料輯論」,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王連龍, 2015, 「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誌及相關問題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5-4.
- _____, 2021, 「唐代《高乙德墓誌》所見高句麗官製考」, 『文史』 2021-1.
- 李大龍, 2014, 「視角, 資料與方法-對深化高句麗研究的幾點認識」, 『東北史地』 2014-4.
- 李爽, 2018, 「高句麗與柔然關係研究」, 『地域文化研究』 2018-5.
- 李祥, 2021, 「高句麗時代災異及災異觀研究」, 『綿陽師範學院學報』 40-12.
- 張曉舟, 2019, 「6世紀末的東北亞情勢與高句麗對隋朝的戰爭」, 『第二屆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論文集』, 長春師範大學東北亞歷史文化研究所.
- 蔡鳳林, 2019, 「試論4-7世紀的朝鮮半島與古代東亞國際政治」,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9-2.
- 祝立業, 2018a, 「高句麗族群形成與王國早期發展互動關係考察」, 『地域文化研究』

2018-5.

_____, 2018b, 「族群共同體形成視閾下的高句麗王國發展歷程考察」, 長春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馮立君, 2019, 「長安之東: 唐代絲綢之路的延伸-從撒馬爾罕壁畫「鳥羽冠使者」說起」, 『唐都學刊』 2019-3.

馮雅蘭, 2019, 「《日本書紀》中高句麗史料的研究」, 長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馮雅蘭·鄭春穎, 2019, 「高句麗安原王去世之際奪嗣之戰探析」, 『長江叢刊』 2019-6.

최근 중국학계 고구려사 연구(2018~2021)의 몇 가지 변화

권순홍

이 글의 목적은 최근,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동북공정 종료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두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고구려를 중원왕조에 종속된 지방정권 내지 속국으로만 해석하려는 연구 목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사기』 등의 외국 사료와 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의 사료와 연구성과만 반영하는 연구 방법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달리 평가된다. 세 가지 특징이 확인되는데, 첫째,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여 고구려의 주체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둘째, 『삼국사기』 등 외국 사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한다. 셋째, 외국학계에서 제기된 개념과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고구려발해연구청년학자공작방(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 등 중국 내 신진 연구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여전히 그들의 연구는 중국 중심적이며, 오히려 관점의 다변화와 개념의 전유/재정의의를 통해 중변/변속 이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유의된다.

주제어: 동북공정, 고구려

ABSTRACT

Some Changes in the Recent(2018~2021) Research of Goguryeo History in Chinese Academia

Kwon Soonhong

This article aim sat analyzing and evaluating recent research trends of Goguryeo history in China, especially from 2018 to 2021. Previous research has pointed out that research on Goguryeo history in China has greatly increased in quantit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Northeast Project. However, there are still two limitations and problems. The first problem lies i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o interpret Goguryeo only as a local government or subordinate state of the dynasties in Zhongyuan(中原). The second problem is a research method that reflects only Chinese historical materials and research achievements except foreign historical materials such as *Samguk Sagi* and the research results of foreign academic circles. This article, however, evaluates recent research differently. Three characteristics are presented.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it actively presents problems in previous research and mentions identity of Goguryeo. Second, new research topics are explored by using various materials including foreign historical materials such as *Samguk Sagi*. Third, it presents new

perspectives by actively introducing concepts and research results raised in foreign academic circles.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recent changes are being led by young researchers in China, such as “高句麗渤海研究青年學者工作坊(Workshop of young researchers studying Goguryeo and Balhae)”. The point to be wary of here is that their research has been deepening the theory of Zhongfan(宗藩) and Fanshu(藩屬) through diversification of viewpoints, and appropriation and redefinition of concepts.

Keywords: the Northeast Project, Goguryeo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현황과 전망

위가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현황과 주요 논의
- III. 『백제역사편년』과 『백제·집사』 발간의 의미
- IV. 맺음말 - 향후 전망을 대신하여



I. 머리말

‘동북공정’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한국고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단어였다. 공식적인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7년 이후 중국에서 생성된 연구 성과를 분석할 때 역시 ‘동북공정’이 이해의 바탕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식 역사인식’¹ 또는 ‘POST 동북공정’이라는² 개념의 고안은 이러한 연구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고충이 따른 결과였다.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라는 공식 명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3성 [요령성(遼寧省)·길림성(吉林省)·흑룡강성(黑龍江省)] 지역의 역사·지리·민족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국가적 사업, 즉 해당 지역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실시한 사업이었다.³ 자연히 해당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의 영역은 중국

* 투고: 2022년 7월 14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8일, 게재 확정: 2022년 8월 16일

- 1 김현숙은 동북공정은 (2007년에) 종료된 프로젝트이므로 이후 나오는 중국의 자국 중심주의적 역사관에 의한 한국사 왜곡 문제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 혹은 ‘한·중 역사갈등 문제’ 또는 다른 적절한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 옳다는 문제의식 아래 편의상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현숙, 2017, 「동북공정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과 비판 2007~2015』, 역사공간, 23~24쪽.
- 2 2007년 이후 동북공정의 형태와 주도 기관이 바뀌었을 뿐 중국학계의 연구 기조는 오히려 강화되는 ‘POST 동북공정’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윤희탁, 2008,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정호섭, 2013, 「중국의 POST 東北工程과 고구려사 관련 동향 분석」, 『한국사학보』 51.
- 3 김현숙, 2017, 앞의 글, 22쪽.

동북지역의 시공간에서 역사적 실체가 확인되는 고조선·부여사와 고구려사, 그리고 발해사로 여겨졌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따라서 한국학계의 대응 또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으므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백제사의 경우는 동북공정의 한국고대사 왜곡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작업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동북공정이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속하는 모든 지역의 과거사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과거사는 모두 중국사”라고 보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역사인식 아래 과거를 해석한다는 점에서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백제사의 공간은 현재 중국의 영토 밖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북공정 사업에서 공개된 기초연구 과제 47개 가운데 백제사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는 과제는 없다.⁵

그렇다고 중국학계에서 백제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가장 최근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을 정리한 풍립군(馮立君)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기 초 나진옥(羅振玉)이 새로 출토된 부여용의 묘지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한 이래 2019년까지 300여 편에 달하는 백제사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⁶ 물론 동북공정 종료 이후 확인되는 것만도 700여 편에 이르는 고구려사 연구 성과와⁷ 비교할 때, 백제사 연구 성과가 양적으로 많지 않은 것은 사실

4 김현숙, 2017, 위의 글, 24~25쪽.

5 서길수의 정리에 따르면 동북공정의 기초연구 과제는 고조선 연구 1건, 고구려 연구 6건, 발해 연구 6건, 간도 및 한·중 국경문제 10건, 원·명·청·민국 시대 연구 10건, 국경이론 및 민족문제 연구 11건, 러시아에 대한 연구 주제 7건으로 파악된다. 서길수, 2008,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여유당, 17~28쪽.

6 馮立君, 2020, 「중국에서의 백제연구」, 『백제연구』 71; 馮立君, 2019b, 「中國學者的百濟史研究」, 『百濟·集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73~285쪽의 表3-1 中國學者百濟史研究論著一覽 참조.

7 조영광의 정리에 따르면 2007년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나온 고구려사 관련 연구 성과는 단행본 33권, 박사학위논문 23권, 석사학위논문 63권, 학술지 논문 597건으로 모두 합해 716건에 이른다. 조영광, 2020, 「중국학계의 동북공정기 고구려사 연구 동향」,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112~113쪽.

이다. 질적으로도 “중국학계에서 백제사는 여전히 취약하며 실제로 전문적이거나 체계화된 백제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거나,⁸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수준은 백제 유민 묘지명 관련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 외국의 연구 성과와 동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⁹ 평가가 있을 정도이므로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는¹⁰ 분석이 과언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도는 더 이상은 위에서 확인한 인식처럼 백제사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고대사 왜곡이라는 프레임 밖에 위치했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준다.¹¹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16년에 출간된 『백제역사편년(百濟歷史編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대강은 언론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 일반에 알려진 바 있지만,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출간된 『백제역사편년』과 『백제·집사(百濟·集史)』의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연구 성과가 중국학계의 자국 중심적 백제사 연구의 토대를 완비하고 향후 연구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작업임을 확인하려 한다.

8 馮立君, 2020, 앞의 글, 91쪽.

9 이동훈, 2018,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 『동북아역사논총』 60, 92쪽.

10 이동훈, 2018, 위의 글, 53쪽.

11 이성제는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펴낸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제』라는 논저의 서론격인 「동북공정 관련 연구 개요」에서 “백제사와 같이 동북공정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영역에까지 중국학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성제, 2020, 「동북공정 관련 연구 개요」,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3쪽.

II.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현황과 주요 논의

1. 연구 현황 검토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을 처음 분석한 것은 타이완(臺灣)의 학자인 한복지(韓復智)였으나, 당시까지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성과가 극히 적었던 관계로 한중관계사를 중심으로 중국학계의 한국 고대사 연구를 소개하는 데 그쳤다.¹²

연구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는 2007년 주유흥(周裕興)과 정리민(丁利民)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로부터 논문을 발표하는 2007년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백제학 연구 성과를 제1단계인 ‘개시기(중화인민공화국~1980년대)’와 제2단계인 ‘급속한 발전기(1992~2007)’으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총 71편의 논저를 소개하였다.¹³ 이 논문에서 그들은 중국의 백제학 연구는 학술적 기반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여러 학문 분야를 결합한 종합적 연구가 부족하며, 국제화 정도가 높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당시까지의 중국 백제학 연구가 장족의 진보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¹⁴

전영(全瑩)과 양로(楊璐)는 1949년부터 2016년까지의 백제학과 관련된 중국의 연구 성과를 백제학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시대적인 요소의 제한 때문에 침체기에 들어섰던 첫 단계(1949~1977),

12 韓復智, 1984, 「백제사연구의 회고와 전망-중화민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15. 이 논문에 소개된 논저 중 백제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5편인데, 馮立君의 정리에 따르면 韓復智의 정리 이전에 발표된 백제사 관련 논저는 12편이 확인된다(주 6 참조).

13 周裕興·丁利民, 2007, 「中國에서의 百濟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백제연구』 45.

14 周裕興·丁利民, 2007, 위의 글, 115~116쪽.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백제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이후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두 번째 단계(1978~2000), 수적·질적 발전을 이루어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한 세 번째 단계(2000~2016)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총 99편의 논저를 분석하였다.¹⁵ 이 논문에서 그들은 중국학자들의 백제학 연구가 전체적으로 부단히 발전하는 추세라고 평가하면서도 ‘백제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검토가 충분치 못하고 사료에 대한 정리도 미흡하며 전문적인 연구 인력의 부족은 물론 학과 간의 협력 연구도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의 수준이 높지 못하며 외국의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는 물론 외국 관련학자들과의 교류가 부족하여 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¹⁶

김금자(金錦子)는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중국학계가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거둔 성과를 정리·총결하는 논문에서 백제사 연구의 현황을 일부 다루었다.¹⁷ 그는 총 37편의 논저를 분석했는데, 당시까지의 백제사 연구 성과의 주요 논의를 (1) 백제 족속, 유민 및 고고학 연구, (2) 백제 대외관계사 연구로 분류하였다.

배근흥(拜根興)은 중국에서의 백제사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중국에서 출토된 백제인 묘지명을 중심으로 30여 편의 논문을 소개하였다.¹⁸ 그는 중국학계가 백제 유민 묘지명의 분석을 통해 기존 문헌 사료의 잘못을 정정할 수 있었음은 물론 새로운 해석을 통해 백제 역사와 고대 한중 관계사 및 백제 유민 연구의 시야를 넓혔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연구는 백제사 전반이 아니라 묘지명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한 성과라 하겠는데, 특정 주제가 아니라 논문이 발표된 잡지를 특정하여 중국의 백제사 연구 경향성을 분석

15 全瑩·楊璐, 2016, 「中國의 百濟學 研究에 대한 略考」, 『백제문화』 54.

16 全瑩·楊璐, 2016, 위의 글, 86쪽.

17 김금자, 2015, 「중국학계의 근년 한국고대사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96.

18 拜根興, 2014, 「중국학계 백제사 연구현황 및 과제-중국 출토 백제인 묘지명을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한 연구도 최근 제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박찬규는 『동북사지』에 수록된 논문에 한정하여 중국의 백제사 연구 경향성을 분석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논문에서 동북공정 논리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모습이 간취된다고 주장하였다.¹⁹

가장 최근까지 중국의 백제사 연구 현황을 망라적으로 정리한 연구 성과로는 이동훈과 풍립군(馮立君)의 정리를 들 수 있다. 이동훈은 2017년 11월까지 발표된 백제사 관련 논저 330여 편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²⁰ 그의 정리에 따르면 중국의 백제사 연구 논저는 1980~1989년 19편, 1990~1999년 75편, 2000~2009년 120편, 2010~2017년 119편이 발표되어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공정 이후 백제사 관련 연구가 급증했음을 수치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했다.²¹ 풍립군은 2013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백제사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1985년 이후 당시까지 발표된 한국학계와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성과를 ‘대외관계사’ 중심으로 소개한 바 있었는데,²² 이후 2019년까지 5년간의 연구 성과를 추가로 정리하여²³ 중국에서 출간된 최초의 백제사 전문 단행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집사』에 수록하였다.²⁴

이상에서 검토한 기존 연구에 필자가 확인한 2018년 이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경향을 정리한 것이 <표 1>과 <표 2>이다. 복수의

19 박찬규, 2022, 『『동북사지』 수록 삼한·백제·후삼국 관련 논문의 경향성』, 『동북공정 백서』, 맑은나라.

20 이동훈, 2018, 앞의 글.

21 이동훈, 2018, 위의 글, 56~57쪽.

22 馮立君, 2013, 「韓國與中國近30年百濟史研究述要」, 『朝鮮·韓國歷史研究』 15,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23 馮立君, 2019a, 「中國學界百濟史新近研究及其反思」, 『當代韓國』 2019-1.

24 馮立君, 2019b, 앞의 글. 그가 『百濟·集史』에서 표로 정리한 논저는 총 318편으로 이동훈의 정리 결과와 수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연구자가 선택한 분류 기준과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며, 확인해본 결과 풍립군(馮立君)의 정리에서 누락된 논문이 이동훈의 정리에는 수록되어 있었다.

〈표 1〉 2018년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논문(단행본 포함)

저자	연도	제목	간행물(기관)
戴衛紅	2018	出土材料所見百濟職官制度	社會科學戰線 2018-2
孫煒冉	2018	百濟武寧王史事考辨及其曆史評價	通化師範學院學報 2018-3
趙智濱	2018	百濟北伐高句麗與北齊文宣帝營州之行	地域文化研究 2018-2
李磊	2018	漢魏之際的遼東政局與百濟始國	社會科學戰線 2018-8
李宗勳·楊新亮	2018	百濟族源與麗濟交融過程之考察	清華大學學報 2018-6
楊璐	2018	從宮廷樂舞看隋唐與高句麗·百濟的文化交融	延邊大學(碩士)
王長印	2018	兩漢魏晉史料所見東北戰爭	東北師範大學(博士)
소결			7편
蔡鳳林	2019	試論4-7世紀的朝鮮半島與古代東亞國際政治	中央民族大學學報 2019-2
王志高·沈宏敏	2019	漢城時代百濟與中國東晉·南朝交流的三個問題	曉莊學院學報 2019-2
馮立君	2019	中國學界百濟史新近研究及其反思	當代韓國 2019-1
馮立君	2019	百濟集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馮立君	2019	漢唐時代與百濟曆史—研究內涵·曆史書寫與學術譜系	社會科學戰線 2019-10
範恩實	2019	唐熊津都督府統治制度研究	社會科學戰線 2019-10
劉瑤	2019	通過武寧王陵看百濟時期的中韓文化交流	文物鑒定與鑒賞 2019-16
李磊	2019	熊津百濟初創期的合法性訴求及其運作	韓國研究論叢 2019-1
劉雲霄	2019	專從百濟遺址中的中原陶瓷器看百濟與中原文化交融	延邊大學(碩士)
白瑜曦	2019	百濟蓮花紋瓦當研究	延邊大學(碩士)
소결			10편
李磊	2020	“韓”號的建構與解構—漢魏朝鮮半島上的權力競爭與族群聚散	學術月刊 2020-5

常樂	2020	魏燕戰爭後北魏與朝鮮半島王權間的關係考	東疆學刊 2020-2
王曰美	2020	儒學在朝鮮半島三國時期的傳播與本土化	國際漢學 2020-3
俞啟定	2020	古代朝鮮教育與中國教育的比較研究	清華大學教育研究 2020-4
陳豔君·劉自強	2020	論新羅與日本、百濟和唐的“政略婚”	齊齊哈爾大學學報 2020-9
劉一凡	2020	天龍山石窟及寺廟現存碑刻研究與保護	山西大學(碩士)
單敏	2020	百濟與南朝的政治關係與文化交流—以百濟大通寺為中心	陝西師範大學(碩士)
黃文鏞	2020	中國與朝鮮半島佛教及建築交流與影響探(10世紀之前)	清華大學(博士)
소결			8편
趙建洋	2021	劉宋的東北亞經營：元嘉二十八年厚封倭國考	學理論 2021-03
金洪培·楊凱	2021	帶方郡的盛衰及其對海東地區的影響	東北師大學報 2021-06
肖大平·莫道才	2021	《大唐平百濟國碑銘》的版本與流傳考	域外漢籍研究集刊 2021-01
王連龍·叢思飛	2021	唐代百濟太子扶餘豐女夫妻合葬墓誌考論	古典文獻研究 2021-4
李權洲	2021	百濟王系研究	長春師範大學(碩士)
文佳琦	2021	南北朝彌勒信仰在百濟的流布及影響研究	延邊大學(碩士)
王曉宇	2021	在唐百濟人的歸化研究—以王室及將士為中心	延邊大學(碩士)
張耀元	2021	五至七世紀朝鮮半島書法流變與特點	延邊大學(碩士)
소결			8편
馮立君	2022	唐與高句麗·百濟道教交流問題新探	唐史論叢 2022-01
孫煒冉	2022	大伴連狹手彥與百濟共破高句麗記事辨析	福建江夏學院學報 2022-1
李磊	2022	六世紀前期東亞的地緣格局與政治聯動	社會科學」2022-4
소결			3편

〈표 2〉 2022년 상반기까지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논문(단행본 포함) 주제 분류

분류	시기	1957~ 1999	2000~ 2017	2018~ 2021	비고
기원(귀속·종족)		5	11	2	진국(辰國)·삼한(三韓) 관련 논문 포함
국제관계(외교·전쟁·교역)		31	62	11	
문화교류		25	54	7	
무령왕릉		2	12	1	
고고(유물)			6	1	
자료(사서·목간)			9	1	『백제역사편년(百濟歷史編年)』(2016)을 자료 항목에 분류
군현통치		1	3	1	
멸망기		4	24	1	
유민		9	41	3	묘지명 관련 논문 포함
역사인식		1	5		
강역·요서경략		1	3		
습속		1	2		
정치·제도·사회·경제			5	5	
일본·임나			4		
연구사		1	5	3	『백제·집사』(2019)를 연구사 항목에 분류
기타		3			
합계		84	246	36	

* 왕립달(王立達)의 논문(王立達, 1957, 「新羅·高句麗·百濟“三國並立”時期內朝鮮經濟·文化的發展及其在溝通中日文化上所起的作用」, 『史學月刊』1957-7)을 기점으로 중국의 백제사 관련 연구 결과물을 정리

** 2017년 11월까지의 이동훈의 정리 결과에 의거하고, 이후의 연구 결과물은 이 글에서 새로 정리

주제를 다루는 논문도 있으므로 필자가 선정한 분류 기준이 해당 논문의 주제와 전적으로 일치할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강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나름의 분류 기준을 선정하였다.

우선 확인되는 점은 2000년 이후 연구의 양적 증가폭이 크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서 확인한 기존의 정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²⁵ 기존 연구사 정리 이후 확인한 논문의 수량을 보면 2018년에 7편, 2019년에 10편, 2020년에 8편, 2021년에 8편, 2022년 상반기에 3편의 논저가 제출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의 정리에 의거하면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백제사 연구 논저는 1년 평균 14편 남짓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²⁶ 2018년부터는 아직 상반기까지만 조사된 2022년을 제외하면 7~10편 남짓의 논저가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적 감소가 확인된다.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긴 어렵지만 고구려사의 경우도 2018년부터 양적 감소가 확인되는 점과²⁷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주제 선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제관계와 문화교류, 그리고 백제멸망기와 이어지는 유민 관련 연구 주제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2018년 이후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전에는 관심이 적었던 주제들에 대한 논문도 제출되고 있는데, 역사 인식과 정치·제도·사회·경제, 그리고 연구사 관련 논문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제도·사회·경제 관련 논문의 증가는 백제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연구사 관련 논문의 증가는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차후 연구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의 백제사 연구 경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²⁸ 한국 관련 사서 및 출토 목간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데, 2017년에 한국 목간의 현황을 망라하는 한편 한중일 학계의 목간 연구 성과 및 연구 단체의 활동까지

25 이동훈, 2018, 앞의 글, 56~57쪽.

26 이동훈, 2018, 위의 글, 57쪽.

27 조영광의 정리에 따르면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 논저 수는 2015년 73편, 2016년 52편, 2017년 66편에서 2018년 49편, 2019년 36편으로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조영광, 2020, 앞의 글, 113쪽.

28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정리한 단행본인 『한국목간연구(韓國木簡研究)』가²⁹ 출간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 주요 논의 주제 소개

최근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는 전부를 포괄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문헌사에 한정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백제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고, 둘째는 중국 중심 세계질서 안에서의 백제 대외관계사 이해이며, 셋째는 유민 묘지명 분석을 통한 백제 정치와 사회 및 유민의 활동에 대한 이해이다. 묘지명 연구의 경우 접근성 등의 제반 요건이 유리한 관계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학계가 국제적으로도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먼저 백제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모든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유공(姜維公)과 강유동(姜維東)은 졸본부여(卒本扶餘)기원설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백제의 고구려 기원설이 『삼국사기』에만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구려기원설을 부인했다. 그들은 중국 정사에 중원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여를 길림(吉林)에 위치한 부여가 아니라 환인(桓仁)에 위치한 졸본부여라고 주장하면서, 이 졸본부여가 남천하여 새로 건립한 국가가 백제라고 하였다. 서진 말기 모용씨와 고구려의 대립이 격화되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졸본부여가 대방군 지역으로 건너가 백제를 건국했다는 것이다.³⁰ 『삼국사기』의 백제 관련 기록은 물론 고구려의 건국 기록 또한 불신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견해라 하겠는데, 이 논문에서 북방에 남아 있던 졸본부여의 일부 세력이 요서를 경략한 세력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중국 정사를 적극적으로 해석

29 戴衛紅, 2017, 『韓國木簡研究』, 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30 姜維公·姜維東, 2007, 「高句麗百濟起源新論」, 『東北亞研究論叢』 2007-1.

하려는 태도가 『삼국사기』에 대한 불신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강유공 등이 백제의 시조를 위구태(尉仇台)라고 한 것에 반해 묘위(苗威)는 백제의 시조가 부여 혈통의 고구려 왕자인 온조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신뢰하였다.³¹ 한국학계의 통설과 큰 차이가 없는 고구려기원설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자민(劉子敏)은 백제와 고구려·부여의 관계를 부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백제 민족과 국가는 마한 영역에서 성장했으며 백제의 왕실이 부여씨를 차용한 것은 그들의 지위가 고구려 왕과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³² 백제가 마한인을 기초로 한 국가임을 대세론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지배층을 부여인과 고구려인이라고 하여 백제의 민족 구성과 기원을 다민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종훈(李宗勳)의 일련의 연구들이다.³³

기원전 1세기 맥족계 부여인의 이주과정을 고찰하여 백제의 기원을 비류부(沸流部)로 본 바 있었던 양군(楊軍)은³⁴ 최근에는 백제의 부여기원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백제 왕실과 통치계급은 부여에서 기원했지만, 백제의 피통치계급은 진번(眞蕃)에서 기원한 다수의 한인(韓人)이다. 처음 백제가 입국했던 지역인 대방고지(帶方故地)가 진번국(眞蕃國)의 고지(故地)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³⁵ 그의 견해는 백제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민족 기원을 다원적으로 이해하는 이종훈의 견해와 상통하지만 고구려 기원을 부정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31 苗威, 2011, 『高句麗移民研究』,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32 劉子敏, 2012, 「百濟起源與夫餘, 高句麗無關」, 『朝鮮·韓國歷史研究』 12.

33 李宗勳, 2012, 「百濟族源與麗濟交融過程之考察」 『樸文一教授80周年壽辰紀念史學論集』, 香港亞洲出版社; 李宗勳·楊新亮, 2018, 「百濟族源與麗濟交融過程之考察」, 『清華大學學報』 2018-6.

34 楊軍, 2001, 「從扶餘南下看百濟國族源」, 『北方民族』 2.

35 楊軍, 2017, 「百濟起源略考」, 『東疆學刊』 2017-10.

최근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부여기원설의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지빈(趙智濱)의 견해이다. 그는 백제의 기원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나름의 논거를 들어 논파한 이후 부여기원설을 주장했는데, 기존의 부여기원설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그에 따르면 백제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북부여 정권에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이후 옥저고지(沃沮故地)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후 4세기 중반이 되자 동예 지역을 거쳐 한강 유역의 대방고지로 이주하였다.³⁶ 후술하겠지만 그의 논문은 2016년에 그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백제역사편년』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었으며, 해당 서적의 편년안에 핵심 논거를 제공한다. 후술할 문제이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백제의 부여기원설은 백제사를 단순히 한국사의 영역이 아닌 중국사의 영역에 함께 속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된다. 향후 중국의 백제사 연구 성과에 그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백제의 대외관계사 관련 논저는 중국과 백제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경향의 연구가 많이 확인된다. 일찍이 주일량(周一良)이 백제와 중국 남조 동진과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했고, 최근 이퇴(李磊)는 백제의 ‘천하의식’은 남조 동진과 형식적으로 통일된 정치체계를 구축하고 하나의 문화 세계를 공유하는 것을 보여주며, 백제가 동진에 조공하는 것과 동진에서 그 관직을 책봉받는 것은 국제정세의 변동과 각국의 내정수요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백제가 남조의 천하 질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력의 성쇠를 일으켰다고 보는 견해이다.³⁷

“백제와 한당시기 중원왕조의 관계 연구는 오랫동안 고착되어 백제-남조 관계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³⁸ 비판이 나올 정도이지만 최근에는 백제가 남북

36 趙智濱, 2013, 「百濟起源及南遷帶方新考」, 『東北亞研究論叢』 2013-5.

37 李磊, 2014, 「百濟의 天下意識與東晉南朝의 天下秩序」, 『華東師範大學學報』 2014-2.

38 馮立君, 2020, 앞의 글, 102쪽.

조 모두와 교류한 것과 그 교류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분석하는 논저도 제출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춘영(於春英)과 한승(韓昇)의 연구이다. 먼저 우춘영은 백제와 남북조 사이의 책봉조공관계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각자의 목적이 달랐음을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백제와 남조의 관계는 백제의 경우 경제와 문화가 주된 목적이었고 남조의 경우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한편 백제는 북조에 정치·군사적 목적에서 조공하였다. 그는 책봉조공관계의 본질이 정치·군사적이나 또한 경제·문화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두 가지 사이의 변화는 조공국과 피조공국 두 국가의 정치관계·쌍방의 경제·문화 발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³⁹ 한편 한승은 백제와 남북조 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고찰하여 동아시아 세계에서 백제가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탐구하였다.⁴⁰

이 외에도 백제의 대외관계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웅의민(熊義民)은 4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동아시아 정치관계사를 다룬 논저에서 백제와 대방군의 관계, 고구려와 신라 및 왜의 관계, 요서 진출문제, 도성의 변천과 위치 비정, 남북조 수당제국과의 관계, 백제의 멸망과 백강전투 등 백제사 전반의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였다.⁴¹ 김금자(金錦子)는 5세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 한반도 삼국의 분쟁과 동북아의 정세를 다룬 논저에서 나제동맹, 여제동맹, 나당동맹과 백제·고구려·왜로 이어지는 동맹의 결성과정과 이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영향 등을 서술하였다.⁴²

최근에는 백제와 북방 유목민족과의 교섭을 다룬 연구 성과도 제출되어 주

39 於春英, 2010, 「百濟與南北朝朝貢關係研究」, 『東北史地』 2010-10.

40 韓昇, 2009, 「百濟與南朝의 文化交流及其在東亞의 意義」, 『東亞世界形成史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41 熊義民, 2002, 『公元四至七世紀東北亞政治關係史研究』, 暨南大學 博士學位論文.

42 金錦子, 2007, 『五至七世紀中葉朝鮮半島三國紛爭與東北亞政局』,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목을 끈다. 풍립군은 여러 언어 자료를 통해 단서를 수집하여 백제와 북방민족의 교류와 교통관계를 확인했다.⁴³ 특히 그는 토번문자로 된 문헌자료인 『북방약간국군지왕통서기(北方若幹國君之王統敘記)』에 ‘Mon-ba-beg-tse(蠻子百濟)’의 지리적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백제와 내륙 유라시아의 문화적 연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했는데, 해당 자료에 대한 한국학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민 묘지명 연구는 중국학계가 선도하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민 관련 자료는 난원경(難元慶), 부여씨부인(扶餘氏夫人), 부여용(扶餘隆), 예군(禰軍), 예식진(禰寔進), 예소사(禰素士), 예인수(禰仁秀), 진법사(陳法子), 흑치상지(黑齒常之), 흑치준(黑齒俊)의 묘지명과 물부순(勿部珣)의 공덕기(功德記), 그리고 부여씨(扶餘氏)의 조상감기(造像龕記)의 12개인데 중국 시기에 발견된 부여용과 흑치상지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배근흥(拜根興)의 정리를 통해 대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백제 유민 묘지명 연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유민 묘지명 연구에서 보이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유민(遺民)이란 용어를 이민(移民)이란 용어로 대체하는 경향이 확인된다는 점이다.⁴⁵ 유민보다는 이민이 좀 더 광범위한 범주로 묶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 설정에 한족 문화의 상대적 우월성과 중화 중심의 민족 융합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을⁴⁶ 염두에

43 馮立君, 2016, 「百濟與北族關係問題」, 『韓國研究論叢』 2016-2.

44 拜根興, 2014, 앞의 글.

45 이는 배근흥(拜根興)이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종합적으로 다룬 논저의 제목이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拜根興, 2012,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이고, 고구려 유민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자인 묘위(苗威)의 단행본 제목 또한 『高句麗移民研究』(苗威, 2011, 『高句麗移民研究』, 吉林:吉林大學出版社)인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46 안정준, 2017, 「고구려 유민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

두고 향후에도 지속될 중국의 백제 유민 묘지명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묘위(苗威)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온조와 비류의 남천도 ‘이민’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해당 저술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백제의 왕족이 줄분부여, 고구려국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민족의 원류라는 각도에서 볼 때 백제의 주된 원류가 부여 혹은 고구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왕족이 중국의 소수민족 부여의 이민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예가 백제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낮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온조 등이 한반도로 이주하여 백제국을 건국한 것은 고대 한중 관계에 있어 하나의 미담이며 한중 우호관계사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왕흔원(王欣媛)이 고구려의 ‘남천(南遷)’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에서 묘위(苗威)의 견해를 수용하여 온조와 비류의 ‘남천’을 ‘이민’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였다.⁴⁷ 이러한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백제 건국자에 대한 인식은 장을 바꾸어 확인할 백제사 연구의 지향으로서의 백제사 귀속 문제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여풍(扶餘豐)의 딸과 그 남편인 조인본(趙因本)의 합장 묘지명이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되었다.⁴⁸ 신자료 출토에 따른 연구의 활성화와 향후의 또 다른 자료 발견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자료에 대해서도 중화 중심 민족 융합이라는 맥락의 연구가 지속될 가능성에 주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 비판 2007~2015』, 역사공간, 118쪽.

47 王欣媛, 2018, 『高句麗“南進”研究』,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48 王連龍·叢思飛, 2021, 「唐代百濟太子扶餘豐夫妻合葬墓誌考論」, 『古典文獻研究』 24-2. 이 묘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장병진의 글(장병진, 2022, 「백제 부여풍 후손의 행적에 관한 새 자료-조인본, 부여씨 부부의 묘지명-」, 『역사와 현실』 123)이 참고된다.

III. 『백제역사편년』과 『백제·집사』 발간의 의미

1. 『백제역사편년』(2016): 사료 집성을 통한 백제사 연구의 이정표

이상 확인한 여러 연구에서 중국의 자국 중심 역사인식이 백제사 이해에 드러나는 것은 사실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동북공정’의 한국사 왜곡이 상징하는 역사 침탈로까지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백제역사편년』에서⁴⁹ 편저자 조지빈이 시도한 일련의 작업은 2001년 편찬된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활동한 지역은 우리나라 역대 왕조, 특히 서한 왕조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관할하던 지역이며, 고구려, 백제 또한 우리나라 변방의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이고,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번국에 대한 관리를 내외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나누어본다면, 고구려와 백제는 분명하게 내층에 속하는 번국”이라고 한⁵⁰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⁵¹

『백제역사편년』은 장춘사범대학(長春師範大學) 역사문화학원(歷史文化學院) 원장 겸 동북민족 역사와 문화 연구센터(東北民族歷史與文化研究中心) 주임을 맡고 있는 강유공(姜維公)이 주편을 담당하고, 백제사 전공자인 조지빈이

49 姜維公 主編, 趙智濱 編著, 2016, 『百濟歷史編年』,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50 마따정 외 저, 서길수 옮김, 2007, 『중국이 쓴 고구려 역사』, 여유당출판사, 578쪽.

51 『백제역사편년』에 대한 한국학계의 반응을 연구 논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동훈의 연구사 정리(이동훈, 2018, 앞의 글, 90~92쪽)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서에 대한 강한 비판은 오히려 언론 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북고대민족역사편년총서』를 분석한 박준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도별로 보기 쉽게 정리한 ‘...편년’은 앞으로 해당 사료를 읽고 참고하게 될 연구자나 독자에게 우리의 고구려, 부여, 백제의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처럼 인식되게 만들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中 역사서, ‘고구려 보장왕 19년’대신 ‘唐高宗 顯慶 5年’ 표기」, 『동아일보』, 2017.1.19.

편저한 책으로 2016년 6월 베이징(北京)의 과학출판사(科學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동북고대민족역사편년총서(東北古代民族歷史編年叢書)』 중 하나로 기획되었는데, 함께 출간된 총서는 『부여역사편년(夫餘歷史編年)』과 『고구려역사편년(高句麗歷史編年)』이었다. 총서는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백제의 관련 사료를 집성한 다음 연대기로 편집한 일종의 사료집이다. 하지만 연대의 기준이 중국 측 사서에 기반한 중원 왕조의 연호(서기를 병기함)라는 점에서 중국 중심의 한국고대사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편자인 강유공은 총서의 서문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 연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주된 비판점은 『삼국사기』의 역사적 지위를 높이고 중국 정사의 가치를 폄훼한 점에 있었다.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삼국사기』를 높이고 중국 정사의 가치를 폄훼했다는 인식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비판 의식 아래 동북역사문헌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삼국사기』는 믿을 만한 역사서가 아님을 확인했다는 것이 강유공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삼국사기』를 기초로 한 연구 결과는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그 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백제 역사를 새롭게 편년했다는 것이다.

『백제역사편년』의 편저자 조지빈은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백제사 전공자이기도⁵² 했지만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와 백제의 지명을 분석하면서 해당 지명들이 사실상 양국의 멸망 전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라의 병탄 이후 조정된 것이라고 하여⁵³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를 비판한 연구자라는 점에서 강유공이 서문에서 드러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자였다.

『백제역사편년』의 편년안에는 편저자인 조지빈 개인의 견해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책의 구성에서부터 의도가 엿보인다.

본편의 편년 앞에 배치된 연구논문 「백제기원문제탐토(百濟起源問題探討)」

52 이동훈, 2018, 앞의 글, 91쪽.

53 趙智濱, 2016, 「試論〈三國史記·地理誌〉中百濟和高句麗郡縣名的可信性」, 『博物館研究』 2016-2, 吉林省博物館學會.

〈표 3〉 『백제역사편년』의 목차와 편년안

목차	비고(편년안)
序	
前言	
凡例	
細則示例	
百濟起源問題探討	연구논문
第一章 百濟傳說時代及其起源의 相關史料	서기전 18년 ~ 서기 344년 (전설시대로 인식)
第二章 百濟在朝鮮半島重新立國初期의 相關史料	서기 345년 ~ 서기 475년
第三章 百濟在朝鮮半島立國中期의 相關史料	서기 476년 ~ 서기 554년
第四章 百濟在朝鮮半島立國後期의 相關史料	서기 555년 ~ 서기 658년
第五章 百濟滅亡前後和熊津都督府의 相關史料	서기 659년 ~ 서기 678년
附篇	非편년 자료
參考文獻	

는 백제의 기원에 대한 조지빈의 견해를 상술한 것으로 앞서 확인한 2013년의 논문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이 논문에서 그는 백제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사이 부여왕이었던 위구태(尉仇台)가 왕위계승권을 잃고 일반 귀족으로 전락한 후 그 세력 집단이 부여에서 분열되어 나와 옥저 지역에서 자립해 있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남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옥저 지역에 있던 시기 국명이 백제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옥저와의 음상사를 근거로 한다. 남하 경로는 동예 지역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이었고, 그 시점은 4세기 중엽이며 종착지는 한반도 중부 한강 유역에 위치해 있던 대방고지(帶方故地)였다.

이 연구논문은 『백제역사편년』의 토론(導論)인 동시에 편년의 기준안 역할을 한다. 그는 논문에서 백제가 고구려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게 하는 봉유(封裕)의 표문 내용[『진서(晉書)』 모용황재기(慕容皝載記)]과 백제가 부여를

공격했다는 기록[『자치통감(資治通鑑)』권 97, 진(晉) 목제(穆帝) 영화(永和) 2년 정월의 신빙성을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때의 백제를 옥저 지역에 위치한 세력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각각의 기사의 연대는 345년과 346년으로 편년되는데, 전설시대 이후 백제가 한반도에서 나라를 세운 이후의 사료를 모은 「第二章 百濟在朝鮮半島重新立國初期的相關史料」의 첫 기사로 배치되어 있다. 즉, 이 책의 편년안은 조지빈이 「백제기원문제탐토」에서 논증한 백제 개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역사시대로 인정할 수 있는 백제의 개국 기년을 345년으로 하고, 그 개국 지역을 옥저 지방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빈이 백제의 개국 지역을 옥저로 비정한 이유는 그곳이 부여의 관할 아래 있었으므로,⁵⁴ 그곳에서 부여의 귀족 위구태 세력이 자립하여 백제를 건국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자연히 백제의 건국 세력과 지역이 부여의 계통을 잇고 또 부여의 관할 아래 있었으므로 백제의 초기사는 곧 부여사의 연장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제 초기사를 부여사의 연장으로 결론짓는 그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백제사 이해로 이어진다. 먼저 백제의 초기사는 중국사에 속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학계의 입장에서 부여사가 중국사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기⁵⁵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역사 귀속은 백제가 한강 유역으로 남遷(南遷)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이 서기전 2세기부터 서기 4세기 중엽까지 중원왕조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또한 백제 멸망 이후 당이 웅진도독부를 세웠고, 672년 신라에 의해 웅진도독부가 무너진 이후에는 백제인들이 중국 내지로 이동해 살았기 때문

54 옥저 지역이 부여의 관할 아래 있었다고 보는 근거는 부여가 “(서진) 태강 6년(285)에 모용외의 습격을 받아 격파되어 (부여)왕 의려는 자살하고 그의 자제는 달이나 옥저 땅에서 (목숨을) 보전하였다”는 『진서』 부여전의 기사이다.

55 중국학계는 동북공정 개시 이전부터 이미 부여사를 확고하게 자국의 역사 체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준형의 글(박준형, 2012,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부여·예맥 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과 이승호의 글(이승호, 2020, 「부여사 연구의 흐름과 이해」,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이 참고된다.

에 백제사는 중국사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이고, 그 역사는 어느 정도는 중국사에도 속한다는 것이 논문의 결론이며, 자연히 『백제역사편년』의 사료 정리와 편년안을 통해 조지빈이 구축하고자 한 백제사의 귀속지점은 중국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사에도 속한다”는 언급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조지빈이 이상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면서도 “중국학계에서 백제 연구가 한국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히 틀리지 않다”라고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이다. “중국사에도 속한다”와 “백제 연구가 한국사의 범주에 속한다”란 언급을 나란히 두고 보면 일견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 문제 논쟁에서 제시되었던 ‘일사양용(一史兩用)론’이 연상된다. 『백제역사편년』, 나아가 『동북고대민족역사편년총서』에서 시도된 중국사 연호 중심의 편년안과 사료 배치의 일각의 우려처럼 “총서를 통해 한국사를 접하는 중국 일반인 및 학자들”이 “신라를 제외한 한국 주요 고대국가 모두가 중국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할⁵⁶ 소지가 충분하며, 실제로 『고구려역사편년』과도 체제를 달리하는⁵⁷ 『백제역사편년』의 구성은 후속 연구에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백제사 또한 고구려사와 마찬가지로 중국사의 일부라는 인식에 입각한 연구가 『백제역사편년』이 제시하는 방향성을 따라 앞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백제역사편년』의 백제사 이해는 “백제는 우리나라 고대의 변방 소수민족인 부여의 한 갈래가 남하하여 고구려를 세운 뒤, 다시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와, 지금의 한반도에 있었던 고대의 부족과 융합하여 한 왕조(漢王朝)가 변방 군(郡)에서 세운 정권이다. 백제는 건국 후 우리나라 역대 왕조와 밀접한 신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당 왕조에 의하여 멸망되었고, 우리나라 당 왕조의 관리 범위 안에 들어왔다”거나 “고구려와 백제가 활동한 지역은 우리나라 역대 왕조, 특히

56 「中, 고구려에 이어 백제까지 중국사에 편입했다」, 『동아일보』, 2017.9.13.

57 『高句麗歷史編年』에는 책 전체의 편년안을 규정하는 도론격의 논문이 실려 있지 않고, 범례의 역할을 하는 전언(前言) 뒤로 바로 연대별 사료 배치가 이어진다.

서한 왕조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관할하던 지역이며, 고구려, 백제 또한 우리나라 변방의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이라는⁵⁸ 과거의 주장과는 그 전개 방식과 귀결이 비슷하면서도 ‘일사양용론’을 연상시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어쩌면 이 미묘한 차이가 2022년 현재 한국학계가 다시금 중국의 백제사 연구를 주목하고 면밀하게 그 현황을 분석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는 동인(動因)일 수 있다. 아직은 막연하지만 한국학계와 중국학계의 한국 고대사 이해에서 확인되는 사실(史實) 인식의 간극을 줄이고, 사실(事實)에 접근한 역사상을 도출해 내기 위한 소통의 단서를 엿볼 수 있는 차이가 아닐까 여겨지기 때문이다.

2. 『백제·집사』(2019): 사료 집성을 통한 백제사 연구의 토대 구축과 수준 고양

『백제역사편년』이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면, 2019년 출간된 『백제·집사』는⁵⁹ 이제까지 중국학계에서 이루어진 백제사 연구를 집성하는 것과 함께 향후 연구를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향후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논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풍립군(馮立君)은 이 책에서 백제사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포괄해 정리하였다. 첫째, 백제사의 기본 면모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통사 서술의 시야가 아닌 전문 연구의 시야로 간명하고 신뢰할 만한 백제사 맥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둘째, 백제사 연구 자료를 해제 및 집록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고고성과를 계통적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백제사 관련 학술사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그 방법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각각 서로 다른 학자 집단을 구분하여, 여러 방면의 성과

58 마따정 외 저, 서길수 옮김, 2007, 앞의 책, 277~278쪽.

59 馮立君, 2019, 『百濟·集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표 4〉 『백제·집사』의 목차

序論	漢唐時代與百濟曆史
第一編 百濟史事摘要	一 百濟起源、王系與國號
	二 百濟核心區及文化遺產
	三 百濟與外部世界的關係
	四 百濟的滅亡及遺民動向
第二編 百濟史料提要	五 中國正史中的《百濟傳》
	六 《三國史記·百濟本紀》
	七 其他漢文典籍相關記載
	八 金石文與考古文物資料
第三編 百濟學史述要	九 中國學者的百濟史研究
	十 日本學者的百濟史研究
	十一 韓國學者的百濟史研究
	十二 百濟研究專刊論文總目
附錄	
後記	

및 그 기본 맥락을 정리하고 백제사에 관한 전문 논문의 총목록을 세밀하게 수집·편집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저술 취지는 이 책의 목차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이 책의 제1편은 백제의 역사 사건 개요를 정리한 부분으로 백제사 개설의 성격을 지닌다. 내용은 기원사(백제의 기원, 왕계 및 국호), 영역사(백제의 핵심 지역 및 문화유산), 대외관계사(백제와 외부 세계의 관계), 백제사의 종말(백제의 멸망 및 유민의 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밀한 논증보다는 큰 틀에서 백제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개설적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 기원의 경우 『백제역사편년』과 마찬가지로 부여기원설을 채택하고 있지만, 같은 맥락의 견해인지 서술이 상세하지 않아 잘 알 수 없는 것이 풍립군이 시도하고 있는

백제사 개설의 성격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제2편은 백제 사료를 집성한 부분으로 중국(중국 정사 백제전), 한국(삼국사기 백제 본기), 기타(기타 한문 전적의 관련 기록), 금석문과 고고자료로 구성되어, 『백제역사편년』이 하나의 편년 체계 안에서 각국 계통의 사료들을 함께 정리한 것과는 달리, 전통적인 사료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후술할 연구 논저 목록 집성과 마찬가지로 『백제·집사』가 향후 연구를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논저의 성격을 가짐을 잘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3편은 한·중·일 3국의 백제학사를 개관한 부분으로 책이 발간된 2019년 현재까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이루어진 백제사 연구를 망라해서 정리하고 그 논저 목록을 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앞서 중국에서의 백제사 연구를 정리한 글들에서 빠짐없이 지적되어오던 한국과 일본 등 외국 학계의 성과에 대한 이해는 물론 관심조차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⁶⁰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이면서 논저 편찬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은 연구사 정리는 물론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국에서 이루어진 백제사 관련 논저의 목록이 망라되어 있는 것과 함께 한국의 각 기관에서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 도록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3편 12장에는 한국의 백제사 전문 학술지인 『백제학보』(백제학회), 『백제문화』(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연구』(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마한·백제문화』(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의 2018년까지의 발간 정보(논문 목록과 저자 일람)가 각 발행기

60 배근흥(拜根興)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원인으로 동일 연구영역에 대한 외국과의 교류가 부족하여 연구자원을 낭비하고 학문적 견해와 관점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학자 이문기, 이도학은 1991년에 이미 흑치상지 묘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국내(중국) 학자들은 모르고 있었으며 이후에 진행된 흑치상지 묘지에 대한 논문에서도 이 연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拜根興, 2014, 앞의 글, 58쪽.

관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백제역사편년』이 후속 연구에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면 『백제·집사』는 이제까지 중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백제사 연구를 집성하는 것과 함께 향후 연구를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향후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논저로 여겨진다.

〈표 5〉 『백제·집사』 수록 백제사 연구 관련 정보

분류	비고
忠南大學百濟研究所“學術研究叢書”部分書目	발굴조사보고서
圓光大學馬韓·百濟文化研究所遺跡調查與發掘報告書書目	
韓國國立扶餘博物館百濟史相關書目	전시도록 & 발굴조사보고서
韓國漢城百濟博物館百濟史相關書目	전시도록 & 자료집
韓國國立公州博物館百濟史相關書目	전시도록 & 발굴조사보고서
忠清南道曆史文化研究院發掘調查報告	발굴조사보고서
中國學者百濟史研究論著一覽	논저 목록
戰後日本百濟史論文一覽	
戰後日本百濟史著作一覽	
周留城·百濟文化開發研究院曆史文庫書目	
忠清南道曆史文化研究院“百濟文化史大系研究叢書”書目	
忠清南道曆史文化研究院其他百濟相關資料	
忠南大學百濟研究所“百濟研究叢書”部分書目	
漢城百濟博物館“百濟學研究叢書”書目	
漢城百濟博物館“百濟史爭論”系列學術會議	
韓國曆年百濟研究博士學位論文總覽	
韓國學界百濟對外關係研究主要論文目錄	

IV. 맺음말 – 향후 전망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출간된 『백제역사편년』과 『백제·집사』의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한 것은 『백제역사편년』과 『백제·집사』가 중국학계의 자국 중심적 백제사 연구의 토대를 완비한 작업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백제사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사료의 내용 자체에 친착한 미시적 분석이 시도된 연구 성과가 다수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백제와 중국 왕조 사이에 오간 외교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고 사건의 경과를 상세하게 드러낸 연구 성과,⁶¹ 묘지명 분석을 통해 백제 멸망 당시의 백제 국내 사정과 당의 군사작전 및 백제원정에 참여한 당나라 장수의 행적을 추적한 연구 성과,⁶² 660년 백제 멸망과 663년 백강 전투 당시의 전황을 전투에 동원되었던 군대의 숫자, 선박의 규모, 무기체제, 항해기술 등을 분석한 연구 성과,⁶³ 당이 설치한 5도독부 37주 중 일부에 대한 위치비정을 시도한 연구 성과⁶⁴ 등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논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백제사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그 수준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즉,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는 분야가 점차 넓어지는 동시에 세밀한 부분까지 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저변의 확대가 『백제역사편년』과 『백제·집사』를 통해 완비된 백제사 연구의 토대 위에서

61 韓雪松, 2013, 「北魏外交文書試探」, 『史學集刊』 2013-1; 陸初禕, 2016, 『初唐前期外交文書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張思齊, 1996, 「論唐太宗唐高宗關於遼東的詩文」,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6-12.

62 拜根興, 2016, 「〈大唐平百濟國碑銘〉關聯問題新探」,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6-4.

63 熊義敏, 2002, 「唐初海軍初探」, 『史學月刊』 2002-11.

64 趙智濱, 2012, 「唐朝在百濟故地初設行政建置考略」, 『中國歷史地理論叢』 27-1.

학술적으로 좀 더 정비된 연구 성과의 제출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학계가 중국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백제사 연구 성과를 다시금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이루어질 연구 성과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薑維公 主編, 趙智濱 編著, 2016, 『百濟歷史編年』,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馮立君, 2019, 『百濟·集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논문

- 김급자, 2015, 「중국학계의 근년 한국고대사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96.
김현숙, 2017, 「동북공정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과 비판 2007~2015』, 역사공간.
마따정 외 저, 서길수 옮김, 2007, 『중국이 쓴 고구려 역사』, 여유당출판사.
박준형, 2012,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부여·예맥 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박찬규, 2022, 「『동북사지』 수록 삼한·백제·후삼국 관련 논문의 경향성」, 『동북공정 백서』, 맑은나라.
拜根興, 2014, 「중국학계 백제사 연구현황 및 과제-중국 출토 백제인 묘지명을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서길수, 2008,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여유당.
안정준, 2017, 「고구려 유민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과 비판 2007~2015』, 역사공간.
윤휘탁, 2008,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이동훈, 2018,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 『동북아역사논총』 60.
이성제, 2020, 「동북공정 관련 연구 개요」,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이승호, 2020, 「부여사 연구의 흐름과 이해」,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장병진, 2022, 「백제 부여풍 후손의 행적에 관한 새 자료-조인본, 부여씨 부부의 묘지 명-」, 『역사와 현실』 123.
- 全瑩·楊璐, 2016, 「中國의 百濟學 研究에 대한 略考」, 『백제문화』 54.
- 정호섭, 2013, 「중국의 POST 東北工程과 고구려사 관련 동향 분석」, 『한국사학보』 51.
- 조영광, 2020, 「중국학계의 동북공정기 고구려사 연구 동향」,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周裕興·丁利民, 2007, 「中國에서의 百濟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백제연구』 45.
- 馮立君, 2013, 「韓國與中國近30年百濟史研究述要」, 『朝鮮·韓國歷史研究』 15,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 _____, 2019a, 「中國學界百濟史新近研究及其反思」, 『當代韓國』 2019-1.
- _____, 2019b, 「中國學者的百濟史研究」, 『百濟·集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_____, 2020, 「중국에서의 백제연구」, 『백제연구』 71.
- 韓復智, 1984, 「백제사연구의 회고와 전망-중화민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15.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현황과 전망

위기아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역사 인식이 동북공정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때, 백제사의 공간은 현재의 중국 영토 밖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 ‘동북공정식 역사 인식’에 입각한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백제사 연구를 분석한 성과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학계는 동북공정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영역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의 백제사 연구를 다시 정리하고 분석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출간된 『백제역사편년(百濟歷史編年)』과 『백제·집사(百濟·集史)』의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 동향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의 백제사 연구 성과는 360여 편이며, 2000년 이후 연구의 양적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 선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제관계와 문화교류 및 유민 관련 연구 주제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역사인식과 정치·제도·경제 및 연구사 관련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최근 발간된 『백제역사편년』과 『백제·집사』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역사편년』은 후속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는 사료집인 동시에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백제·집사』는 이제까지 중국학계에서 이루어진 백제사 연구를 집성하는 것과 함께 향후 연구를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향후 중국에서의 백제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편찬의 목적이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백제사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사료의 내용 자체에 천착한 미시적 분석이 시도된 연구 성과가 다수 제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백제사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저변의 확대가 『백제역사편년』과 『백제·집사』를 통해 완비된 백제사 연구의 토대 위에서 학술적으로 좀 더 정비된 연구 성과의 제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계가 중국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백제사 연구 성과를 다시금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이루어질 연구 성과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주제어: 백제사, 중국의 백제사 연구, 동북공정, 중국의 한국고대사상, 사료 정리, 연구 동향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Baekje History Research in Chinese Academic Circles

Wee Kaya

Assuming that the historical perception based on the “unified multiethnic state theory” is the foundation of the Northeast Project, the space of Baekje history is located outside the current Chinese territory. This is the reason why there were not many achievements in analyzing Chinese research on Baekje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distortion of ancient Korean history based on the so-called “historical perception based on the Northeast Project”. However, Chinese academic circles have recently been expanding their interest in areas that were outside the scope of the Northeast Project. Now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and analyze Baekje history research in China that have been identified so far. This article aims to organize current research situation based on the existing trends on Baekje history research in Chinese academic circles, and examines it by reviewing the system and contents of recent publications, *Chronicles of Baekje History*(『百濟歷史編年』) and *Baekje · Collection of History*(『百濟·集史』).

Research results of Baekje history in China confirmed so far are over

360 pieces which show huge increase in quantity since 2000. A distinctive feature in the topic selection is that the research on international relations, cultural exchanges, and refugees takes significant proportion. Since the 2000s, th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historical perception, politics, system, economy, and research history has increased.

This article has confirmed the following facts by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recently published *Chronicles of Baekje History* and *Baekje·Collection of History*. *Chronicles of Baekje History* will serve as a collection of historical records that provides a foundation for subsequent research and a milestone that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Another fact is that *Baekje·Collection of History* aims to build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Baekje history in China by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along with compiling Baekje history research in Chinese academic circles.

Another characteristic of recent research is that there are many results that have attempted micro-analysis focusing only on the content of the historical material itself. This means that the basis of Baekje history research has been expanding in China. This expansion is expected to promote presenting more organized academic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foundation of Baekje history research completed by *Chronicles of Baekje History* and *Baekje·Collection of History*. This is the reason why Korean academic circles should not lose interest in future research achievements while reorganizing the research results of Baekje history in China.

Keywords: Baekje History, Baekje History Research in China, Northeast Project, Images of Ancient Korean History in China, Organizing Historical Records, research trends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세기 후반 신미제국의 서진 교섭과 장화(張華)

이정빈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 I. 머리말
- II. 282년 신미제국의 서진 교섭과 국제정세
- III. 장화의 포용적 태도와 신미제국의 실리적 교섭
- IV. 맺음말

I. 머리말

『진서』에 수록된 장화(張華, 232~300)의 열전에는 3세기 후반 동이 마한의 신미제국(新彌諸國)이 서진(西晉, 265~316)과 교섭하였다는 사실이 전한다. 일반적으로 신미제국은 지금의 전남 서남부 해안 지역에 분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¹ 이 중에서 신미국은 『일본서기』에 보이는 침미다례(沈彌多禮)와 밀접하며,² 『삼국사기』에 보이는 신라의 침명현(浸溟縣)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 편이다.³

일찍부터 신미제국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제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의 성장 및 마한·백제의 관계가 논의되었고,⁴ 동

* 투고: 2022년 7월 11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8일, 게재 확정: 2022년 8월 16일

** 이 글은 전라남도·해남군·(재)대한문화재연구원에서 주최한 학술회의 「해남 읍호리 고분군 속에 담겨진 전라도 마한」(2022.6.9.)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李丙燾·金載元, 1959,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358쪽. 이후 최근의 노중국, 201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216쪽; 윤용구, 2019, 「馬韓諸國의 位置再論-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45, 28쪽까지 통설적인 이해이다.
- 2 자세한 연구사는 김영심, 2013, 「문헌자료로 본 沈彌多禮의 위치」, 『백제학보』 9, 2~6쪽 참조.
- 3 李道學, 1995, 『백제고대국가연구』, 一志社, 349~351쪽; 李道學, 2013, 「榮山江流域 馬韓諸國의 推移와 百濟」, 『百濟文化』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14쪽; 강봉룡, 2010,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4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36, 14~16쪽; 강봉룡, 2018, 「해남 백포남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百濟學報』 26, 8~9쪽; 梁起錫, 2013, 「全南地域 馬韓社會와 百濟」, 『백제학보』 9, 5쪽. 다만 부정론 또한 적지 않다. 노중국, 2018, 앞의 책, 218쪽 및 주107 참조.
- 4 千寬宇, 1976, 『古朝鮮史·三韓史 研究』, 一潮閣, 342~343쪽;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國家形成과 支配制體의 變遷을 中心으로-』, 一潮閣, 118~120쪽; 盧重國, 2011, 「문헌기록 속의 영산강 유역-4~5세기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신미제국과 서진의 대외정책이 탐구되었으며,⁵ 이와 같은 논의의 바탕이 된 『삼국지』 및 『진서』의 사료적 문제가 검토되었다.⁶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섭의 배경과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교섭 전후의 국제정세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장화의 학문과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신미제국 인식과 교섭 태도를 짐작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고, 한층 다각적인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282년 신미제국의 서진 교섭과 국제정세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 로-], 『백제학보』 6, 12~15쪽; 김수태, 1998,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박순발 外, 『馬韓史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203~213쪽; 권오영, 2001, 「백제국에서 백제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44~47쪽; 문안식, 2002, 「榮山江流域 土着社會의 成長과 聯盟體 形成-新彌國의 聯盟體 形成과 對外關係의 變化를 中心으로-」, 『史學研究』 68, 119~120쪽; 문안식, 2015, 「서남해지역 마한사회의 발전과 연맹체 형성-해남반도 백포만 일대를 중심으로-」, 『東國史學』 58, 15~22쪽; 梁起錫, 2013, 앞의 글, 4~7쪽; 이도하, 2013, 앞의 글, 113~117쪽; 전진국, 2017, 「『晉書』에 보이는 馬韓의 대외 교류와 百濟의 성장」, 『백제학보』 20, 114~119쪽; 강봉룡, 2018, 앞의 글, 11~17쪽; 임동민, 2018, 「『晉書』 馬韓 교섭기사의 주체와 경로」, 『韓國古代史研究』 89, 30~36쪽.
- 5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魏·晉의 동방 정책-낙랑군·대방군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24~30쪽;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東夷觀과 고구려-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65~59쪽, 77~81쪽; 정지은, 2019, 「3~4세기 百濟의 對中 교섭과 東夷校尉」, 『역사와 현실』 112, 144~151쪽.
- 6 岡田英弘, 1978, 「魏志東夷傳を評す」,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東京: 吉川弘文館, 46~50쪽; 崔鍾圭, 1995, 「張華와 烏桓·鮮卑·東夷傳」,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261~264쪽; 尹龍九, 1998,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尹龍九, 2014, 「『진서』동이 조공 기사의 재검토」, 노태돈교수 정년기념논총감행위원회 엮음, 『한국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임동민, 2018, 앞의 글, 9~12쪽.

- A-1. ㉠ 이에 [장]화를 [서울] 밖으로 보내 持節·都督幽州諸軍事·領護烏桓校尉·安北將軍으로 삼았다. ㉡ [장화는] 新舊를 안무하고 수용[撫納]하였으니, 戎夏가 그에 복종하였다. 東夷 馬韓 新彌諸國은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끼고 있었는데, [유주에서] 4천여 리 떨어져 있었다. [동이 마한 중에서] 역대까지 귀부하지 않은 것이 20여 국이었는데, [장화가 유주도독으로 재직하였을 때] 모두 사신을 보내 朝獻하였다. 이에 먼 곳의 夷人까지 복종하였고, 四境이 태평하였으며, 매년 풍년이 들었고, 군대가 강성해졌다. … ㉢ 머지않아 [장]화를 太常으로 삼았는데, 太廟[殿]의 屋棟이 무너져 면직되었다.⁷ (『진서』 권36, 열전6 張華)
- A-2. ㉠ [태강 3년(282) 정월] 갑오(18일)에 尙書 張華를 都督幽州諸軍事로 [삼았다].⁸ (『진서』 권3, 제기3)
- A-3. ㉠ [태강 3년(282)] 9월에 東夷 29國이 歸化하여 그 나라의 方物을 바쳤다.⁹ (『진서』 권3, 제기3)
- A-4. [태강 3년(282) 정월] ㉠ [度支]尙書 장화는 文學과 재주·식견으로 당대에 명성이 높았으므로, [조정의] 의론이 모두 [장]화가 마땅히三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中書監 荀勗·侍中 馮紘은 그를 정벌하였을 때 [장화의] 지모[가 발휘되었기] 때문에 그를 몹시 질투하였다. ㉡ 마침 황제가 [장]화에게 누구에게 후사를 맡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물었다. [장]화는 明德을 가진 皇子[至親]는 齊王만 한 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장]화는 황제의 뜻에 어긋났으니, [순]육이 이에 그를 참소하였다. ㉢ 갑오(18일)에 [장]화를 도독유주제군사로 삼았다. ㉣ [장]화가 鎭에 도착해 夷夏

7 “乃出華爲持節·都督幽州諸軍事·領護烏桓校尉·安北將軍 撫納新舊 戎夏懷之 東夷馬韓新彌諸國依山帶海 去州四千餘里 歷世未附者二十餘國 並遣使朝獻 於是遠夷賓服 四境無虞 頻歲豐稔 土馬強盛 (中略) 頃之 徵華爲太常 以太廟屋棟折 免官.”

8 “甲午 以尙書張華都督幽州諸軍事.”

9 “九月 東夷二十九國歸化 獻其方物.”

를 위무하니, 명예와 인망이 더욱 높아졌다. ㉔ 황제가 다시 그를 부르고자 계획하였는데, 풍담이 황제를 모시며 침착히 말하다가 鍾會[의 일까지] 언급하였다. … 황제가 묵묵히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계획을] 멈추고 [장]화를 부르지 않았다.¹⁰ (『자치통감』 권81, 진기3)

위 사료는 신미제국의 서진 교섭[遣使朝獻]과 관련된 것이다. 내용으로 보아 각 사료의 시간적인 순서는 ㉑~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섭의 직접적인 사실은 사료 A-1-㉔에 전한다. 서진 측에서 교섭을 맡은 것은 장화로 그의 대표적인 직위는 도독유주제군사(都督幽州諸軍事, 이하 유주도독)였다. 장화가 유주에 부임한 이후 이 지역과 변경은 안정을 이루었고, 이로써 명망이 높아졌다고 한다(사료 A-1-㉔·사료-4-㉔). 동이 마한 신미제국의 교섭이 대표적인 성과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료 A-3이 주목된다. 282년 9월 동이의 29국이 귀화해 방물을 바쳤다고 하였다.¹¹ 대체로 사료 A-1에서 신미제국의 교섭은 사료 A-3과 동일한 일인 것으로 파악된다.¹² 동이 20여 국과 29국이 상통하며, 미부(未附) 하였던 데서 귀화(歸化)한 사실이 상통하기 때문이다. 282년 신미제국이 서진과 교섭한 배경이 궁금하다. 이를 생각해보기 위해 먼저 장화의 유주도독 활동과 직임부터 살펴보자.

사료 A-4-㉔에 보이듯 장화는 282년 1월 18일에 유주도독으로 임명되었다. 사료 A-4-㉔처럼 무제(武帝, 재위: 265~290)는 곧 장화를 중앙정계에

10 “尙書張華以文學才識名重一時論者皆謂華宜爲三公中書監荀勗·侍中馮統以伐吳之謀深疾之會帝問華誰可託後事者華對以明德至親莫如齊王由是忤旨勗因而譖之甲午以華都督幽州諸軍事華至鎮撫循夷夏譽望益振帝復欲徵之馮統侍帝從容語及鍾會…帝默然由是止不徵華。”

11 『진서』 권3, 帝紀3 武帝, “[太康三年(282)] 九月 東夷二十九國歸化 獻其方物.”

12 강봉룡, 2010, 앞의 글, 14쪽; 문안식, 2015, 앞의 글, 19쪽; 윤용구, 2014, 앞의 글, 330쪽.

복귀시키고자 하였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 A-1-㉔처럼 머지않아 태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비교적 단기간 유주도독으로 재직하다가 중앙정계에 복귀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로서 태상에 임명된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¹³

다만 사료 A-1-㉔에서 매년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듬해인 283년까지는 재직하였다고 짐작된다. 한편 사료 A-1-㉔에서 장화는 태묘전이 함몰되어 태상에서 면직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287년 1월이었다.¹⁴ 286년 이전에 태상에 임명되어 중앙정계로 복귀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화의 「태강육년삼월삼일후원(太康六年三月三日後園)」이란 시(詩)가 참고되는데, 이를 보면 3년 동안 외관(外官)을 맡은 것처럼 나온다.¹⁵ 이를 통해 장화가 유주도독으로 재직한 것은 태강 6년, 즉 285년 초까지였다고 본 견해가 있었는데,¹⁶ 대체적인 이해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도 장화의 유주도독 재직은 282년 1월부터 대략 285년 초로 보고자 한다.

사료 A-1-㉔처럼 281년 1월 장화가 받은 공식 직함은 “지절·도독유주제군사·영호오환교위·안북장군”이었다. 이 중에서 먼저 유주도독과 영호오환교위가 주목된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280년 서진은 손오(孫吳, 222~280)를 제압하고 주군(州郡)의 민정과 군무(軍務)를 분리하였는데,¹⁷ 이에 주군의 자사와

13 이와 관련한 논의는 岡田英弘, 1978, 앞의 글, 48쪽; 崔鍾圭, 1995, 앞의 책, 262쪽; 전진국, 2017, 앞의 글, 114쪽; 陳春錦, 2017, 「張華出鎮幽州始末考」, 『淮南師範大學報』 101, 81~83쪽 참조.

14 『진서』 권3, 제기3 태강 8년(287) 정월, “太廟殿陷”; 『자치통감』 권81, 진기3 태강 8년(287) 정월.

15 『古詩紀』 권31, 晉1 張華, 「太康六年三月三日後園」, “咨予微臣 荷寵明時 忝恩于外 攸攸三期”

16 姜亮夫, 2002, 『姜亮夫全集』 22, 雲南省 昆明: 雲南人民出版社(원전: 姜亮夫, 1957, 『張華年譜』,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449~450쪽.

17 『자치통감』 권3, 제기3 무제 태강 원년(280), “詔曰 昔自漢末 四海分崩 刺史內親民事 外領兵馬 今天下爲一 當韜戢干戈 刺史分職 皆如漢氏故事 悉去州郡兵 大郡置武吏百人 小郡五十人.” 윤용구, 2014, 앞의 글, 335쪽에서는 282년으

태수는 민정만 맡고, 군무와 이종족 통제는 도독과 교위 등이 담당하였다.¹⁸ 장화의 기본적인 직임은 관할 구역 내의 군무와 이종족 통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유주도독 장화의 관할 구역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B-1. 幽州. … 幽州는 郡·國 7개[范陽國·燕國·北平郡·上谷郡·廣寧郡·代郡·遼西郡]를 통괄하며, 縣은 34개이다. 戶는 59,020이다.²⁰ (『진서』 권14, 志4 地理上 幽州)

B-2. 平州. … [曹]魏에서 東夷校尉를 설치하고, 襄平에 치소를 두었고, 遼東·昌黎·玄菟·帶方·樂浪의 5郡을 나누어 平州로 하였는데, 이후 다시 합하여 幽州로 하였다. 公孫淵[文懿]이 멸망한 이후에 護東夷校尉가 있었는데, 襄平에 치소를 두었다. 咸寧 2년(276) 10월에 昌黎[郡]·遼東[國]·玄菟[郡]·帶方[郡]·樂浪[郡] 등 郡·國 5개를 나누어 平州를 설치하였다. 현 26개를 통괄하며, 호는 18,100이다. … 平州가 처음 설치되자 慕容廆(269~333)를 [평주]刺史로 삼았는데, 마침 永嘉의 亂(307~312)이 일어나 [모용]외가 무리에 추대되었다. 그[모용외]의 손자 [慕容]儁이 薊에 도읍을 옮겼다.²¹ (『진서』 권14, 志4 地理上 平州)

로 설명하였다. 『자치통감』 이외의 여러 사료는 윤용구, 2014, 앞의 글, 336~338쪽 참조.

- 18 서진대 교위의 직임은 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中國 古代邊郡에 대한 事例的 檢討-』, 一潮閣, 122~126쪽; 李周鉉, 2000, 「魏晉南北朝時代의 東夷校尉」, 『東洋史學會 學術大會 發表論文集』, 28~29쪽; 윤용구, 2005, 앞의 글, 77~79쪽 및 97쪽 참조.
- 19 이 무렵 유주의 자사는 존부를 알 수 없는데, 전임 유주도독 衛瓘(220~291)의 사례(『진서』 권36, 열전6 衛瓘. “除征北大將軍·都督幽州諸軍事·幽州刺史·護烏桓校尉 至鎮 表立平州 後兼督之 于時幽·并東有務桓 西有力微 並爲邊害 瓘離間二虜 遂致嫌隙 於是務桓降而力微以憂死 朝廷嘉其功 賜一子亭侯.”)를 보면 장화가 유주자사를 겸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사보다 도독·교위의 직임이 중시되었을 것이다.
- 20 “幽州 … 幽州統郡國七 縣三十四 戶五萬九千二十.”

위 사료는 『진서』 지리지에 보이는 유주와 평주의 연혁이다.²² 사료 B-1에 보이듯 유주는 7개의 군국(郡國)을 관할하였는데, 대체로 지금의 중국 북경과 산서성·하북성 일원이었다. 동북방 요서군은 양락현·비여현·해양현이 속해 있었는데, 지금의 중국 하북성 노룡 근처였다. 자사의 치소는 범양국 탁현(북경)이었고, 도독의 치소는 연국 계현(사료 H-3, 천진)이었다.²³ 다만 282년의 시점에서 유주도독이 사료 B-1에 보이는 7개 군국만 관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료 B-2가 주목된다.

사료 B-2를 보면 조위에서 평주를 설치하였다가 유주에 통합하였다고 하는데, 양평(요령성 요양)에 호동위교위를 두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진에서 276년 다시 평주를 설치하고 창려(요령성 조양·금주)·요동(요령성 요양)·현도(요령성 심양·무순)·대방(황해도 봉산)·낙랑(평남 평양) 등 5개의 군국을 두었다고 하였다.²⁴ 자사의 치소는 창려군 창려현이었고, 동이교위는 치소는 양평현이었다.

신미제국은 평주의 군국 중 대방군과 가장 인접하였다. 비록 3세기 후반 낙랑군·대방군은 쇠퇴한 것으로 이해되지만,²⁵ 신미제국의 직접적인 교섭 대상은 대방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⁶ 그런데 대방군을 관할하던 평주는 282년 7월에

21 “平州 … 魏置東夷校尉 居襄平 而分遼東·昌黎·玄菟·帶方·樂浪五郡爲平州 後還合爲幽州 及文懿滅後 有護東夷校尉 居襄平 咸寧二年十月 分昌黎·遼東·玄菟·帶方·樂浪等郡國五 置平州 統縣二十六 戶一萬八千一百〈戶一萬八千一百八千 各本作六千 今從殿本作八千 與統計戶數相符〉 … 平州初置 以慕容廆爲刺史 遂屬永嘉之亂 廆爲衆所推 及其孫僞移都于薊.”

22 지명은 千寬宇, 1976, 앞의 책, 96~97쪽 참조.

23 윤용구, 2014, 앞의 글, 335쪽.

24 『진서』 제기에서는 274년으로 나오는데(『진서』 권3, 제기3 泰始 10년(274), “二月 分幽主置平州.”) 대체로 274년에 설치를 결정하고 276년에 실행한 것으로 이해한다.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 1, 吉林文史出版社, 452~457쪽(윤용구 2014, 앞의 글, 335쪽에서 재인용); 윤용구, 2014, 앞의 글, 335쪽; 전진국, 2017, 앞의 글, 117쪽.

25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134쪽.

26 윤용구, 2014, 앞의 글, 345~346쪽.

폐지되었다.²⁷ 평주와 함께 폐지된 영주(寧州)의 경우 익주(益州)에 편입되었고, 남이교위를 두어 그를 맡겼다고 하였다.²⁸ 평주 역시 여러 군국은 동위교위가 맡았고,²⁹ 동이교위는 유주에서 관할하였다고 생각된다. 유주도독이 유주와 평주 그리고 그 북방과 동방의 선비 및 동이의 제 종족을 맡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282년 9월 신미제국은 대방군과 직접 교섭하였다고 하지만, 유주도독 장화의 소관이었고 장화가 그를 총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진에서 평주를 설치한 270년대 후반부터 280년대 전반까지, 위관과 장화가 유주도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진의 동방정책은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진의 입장에서 국제정세의 안정기였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270년대 후반 동이 제국의 교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당 태종대에 편찬된 『진서』가 서진 무제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교섭의 성과를 과장한 측면이 고려되지만,³⁰ 실제 서진은 음루(숙신)와 요동 지역의 양맥 등과 교섭하며 고구려를 견제하는 등 적극적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보인다. 280년 고구려에서 일어난 이른바 ‘양맥·숙신의 난(難)’은 그와 같은 서진의 동방정책에 호응하여 전개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³¹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료를 보면, 270년대 후반~280년대 전반 서진의 안정이 확고하였다는 이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C-1. [태강 2년(281)] 겨울 10월에 鮮卑 慕容廆가 昌黎(郡)을 노략질하였다.³²

27 『진서』 권3, 帝紀3 武帝 태강 3년(282), “秋七月 罷平州·寧州 刺史三年一入奏事.”

28 『진서』 권14, 志4 地理上, “太康三年[282] 武帝又廢寧州入益州 立南夷校尉以護之.”

29 윤용구, 2014, 앞의 글, 340쪽.

30 윤용구, 2014, 위의 글, 327~328쪽.

31 이정민, 2019, 「양맥·숙신의 난, 변경에서 본 3세기 후반 동아시아와 고구려」, 『韓國史研究』 187, 123~128쪽.

32 “冬十月 鮮卑慕容廆寇昌黎.”

(『진서』 권3, 帝紀3)

C-2. [태강 2년(281)] 11월 임인(25일). ... 선비가 遼西[郡]을 노략질하였다. 平州刺史 鮮于嬰이 그들을 쳐서 격파하였다.³³ (『진서』 권3, 帝紀3)

C-3. [태강 3년(282)] 3월에 安北將軍 嚴詢이 창려[군]에서 선비 모용외를 패주시키고, 수만 명을 살상하였다.³⁴ (『진서』 권3, 帝紀3)

C-4. [태강 2년(281)] 일찍이 선비 莫護跋이 비로소 塞外에서 들어와 遼西 棘城의 북쪽에 거주하였는데, 이름하여 慕容部라고 하였다. 막호발이 [모용] 木延을 놓고 [모용]목역이 [모용]涉歸를 낳았는데, 遼東[국]의 북쪽에 옮겨와 대대로 中國에 귀부하였다. 자주 征討에 중군하여 功이 있었으므로, [모용]섭귀를 大單于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모용]섭귀가 처음으로 창려[군]을 노략질하였다<창려[군]은 漢의 交黎縣으로 遼西郡에 속하였다. 후한에서 遼東屬國都尉에 속하게 하였다. 魏 正始 5년(244)에 선비가 內附하자 다시 遼東屬國을 설치하고 昌黎縣을 세워 그를 거주하게 하였다. 이후 昌黎郡을 세우니 慕容氏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考異』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진서』 제기에서는 모용외라고 하였다. 范亨의 『燕書』 武宣紀를 보건대 [모용]외는 泰始 5년(269)에 태어났고, 나이 15세에 부친 선우 [모용]섭귀가 죽었으니, 태강 4년(283)이었다. 이 해(281)에 들어와 노략질하였다고 한 것은 마땅히 [모용]섭귀일 것이다.>.”³⁵ (『자치통감』 권 81, 진기3)

C-5. [태강 3년(282)] 3월에 안북장군 엄순이 창려[군]에서 모용섭귀를 패주시

33 “十一月壬寅 … 鮮卑寇遼西 平州刺史鮮于嬰討破之.”

34 “三月 安北將軍嚴詢敗鮮卑慕容廆於昌黎 殺傷數萬人.”

35 “初鮮卑莫護跋 始自塞外入居遼西棘城之北 號曰慕容部 莫護跋生木延 木延生涉歸 遷於遼東之北 世附中國 數從征討有功 拜大單于 冬十月 涉歸始寇昌黎 <昌黎 漢之交黎縣 屬遼西郡 東漢屬遼東屬國都尉 魏正始五年 鮮卑內附 復置遼東屬國 立昌黎縣以居之 後立昌黎郡 慕容氏始此 考異曰 帝紀云慕容廆 按范亨燕書武宣紀 廆泰始五年生 年十五 父單于涉歸卒 太康四年也 此年入寇 當是涉歸.>.”

키고, 참수하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萬計].³⁶ (『자치통감』 권81, 진기3)

C-6. 진 무제 태강 2년(281) 겨울에 [모용]섭귀가 처음으로 昌黎[군]을 노략질하였다. 안북장군 엄순이 그들을 패주시키고 참수하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³⁷ (『십육국춘추집보』 권23, 前燕錄1 慕容廆)

위 사료는 281년 하반기~282년 상반기 모용선비와 서진의 공방에 관한 것이다. 『진서』 제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 281년 10~11월에 모용선비가 평주 창려군과 유주 요서군을 공격하였고(사료 C-1·2), 281년 11월 평주자사 선우영이 그들을 격파하였다고 하였다(사료 C-2). 이어 282년 3월 안북장군 엄순이 창려군에서 모용선비를 격파하고 수만 명을 살상하였다고 하였다(사료 C-3). 모용선비와 서진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사료 C-4·5, 즉 『자치통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진서』 제기와 비교해보면 모용선비를 이끈 것이 모용외(269~333)가 아닌 모용섭귀(?~283)로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료 C-6, 즉 『십육국춘추집보』도 모용섭귀로 적었다. 사료 C-4에 보이는 호삼성(胡三省, 1230~1302)의 주가 참고되는데, 그의 지적처럼 모용섭귀가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료 C-6을 보면 안북장군 엄순의 활동이 282년 3월이 아닌 281년 겨울로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모용선비와 서진의 전쟁이 281년 10월부터 282년 3월까지 지속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엄순이 모용섭귀를 제압한 시점은 282년 3월로 이해된다.

사료 C-4에 자세히 서술된 것처럼 모용섭귀는 요동국(치소 양평현, 요령성 요양)의 북쪽에서 서진과 우호관계를 수립하며 세력을 확대하였고, 마침내 서진을 공격하였다. 모용섭귀의 공격 대상은 창려군과 요서군이었다. 지금의 요령

36 “三月 安北將軍嚴詢敗慕容涉歸於昌黎 斬獲萬計.”

37 “晉武帝 太康二年 冬 涉歸始寇昌黎 安北將軍嚴詢敗走之 斬獲萬計.”

성 서부 지역에서 하북성 북부에 해당했다. 요서주랑(遼西走廊) 방면으로 남하해 온 것이다. 만약 모용섭귀의 공략이 성공한다면, 유주에서 낙랑군·대방군까지 이어진 서진의 주요 동방 거점은 고립될 처지였다. 모용섭귀는 요서주랑을 장악하고 서진의 동방 거점을 차단함으로써 지금의 요령성 일대에서 자립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서진의 유주·평주가 위태로운 형국이었다.

사료 A-4-㉠에 보이듯 282년 1월 장화의 유주도독 부임은 좌천이었다. 장화는 순욱(?~289)·풍담(?~286)과 같은 정적의 견제를 받고 있었는데, 마침 무제의 심중에 부합하지 못하였기에 변방의 외관(外官), 그것도 위태로운 형국의 유주에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주자사 선우영에 이어 안북장군 엄순이 모용선비를 대파하며 위기는 해소되었다. 여기서 사료 A-1-㉡이 주의된다. 장화 역시 282년 1월 안북장군의 관호를 받았다고 하여 동시에 안북장군 2명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송서』에서 안북장군의 정원은 1명이었다고 하였다.³⁸

서진대 사정·사진·사안·사평 등의 장군은 지위를 표시(2품)하였는데,³⁹ 전 시 일정 지역의 군사권을 의미하였고, 도독이 겸직한 사례가 많았다. 안북장군의 경우 유주와 밀접하였다.⁴⁰ 가령 1974년 중국 산둥성 추성(鄒城)에서 발굴된 영강 2년(301) 유보(劉寶)의 묘지를 보면, “사지절·안북대장군·영호호환교위·도독유주제군사·관내후”를 받았다고 하였다.⁴¹ 후술하듯 『태평어람』에 인용된 범향(范享)의 『연서』(사료 H-3)에서도 장화를 안북장군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보건대 장화의 안북장군 관호가 오류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안북장군 엄순이 장화의 오류였거나, 엄순은 장화의 막료, 즉 안북참군(安北參軍)으로 보기도 하였다.⁴²

38 『송서』 권39, 志29 百官上, “安北將軍 一人.”

39 『진서』 권24, 志14 職官, “四征·鎮·安·平加大將軍不開府 持節都督者 品秩第二.”

40 小尾孟夫, 2001, 『六朝都督制研究』, 廣島: 溪水社, 58~67쪽.

41 山東鄒城市文物局, 2005, 「山東鄒城西晉劉寶墓」, 『文物』 2005-1, 4, 25쪽.

42 陣春錦, 2017, 앞의 글, 81쪽.

그런데 『송서』에 정원이 1명이었다고 해서 복수의 안북장군이 공존하였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교체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엄순의 안북장군 관호가 282년의 것이 아니라 차후에 받은 것일 수 있다.⁴³ 현재로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어느 쪽으로 보아도 엄순의 군사 활동은 장화와 무관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장화는 유주도독으로 일대의 군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절까지 받았다. 서진대의 지절은 도독의 등급이자 황제가 위임한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였다.⁴⁴ 전시의 경우 2,000석 이하의 관인(3품)까지 처형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평주자사 선우영은 물론이고 엄순 역시 장화의 지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엄순의 군사 활동과 이를 통한 위기의 해소는 장화의 공로로 인정받았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장화는 유주의 위기 속에서 도독으로 좌천되었는데, 엄순 등의 군사 활동을 지휘하며 위기를 타개하였다. 사료 A-1-㉔에 보이듯 장화는 유주도독으로 재직하며 군대를 강성하게 하였다고 한다. 군사적 안정을 회복한 것이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의 제세력은 서진의 군사적 우위를 재확인하였다고 생각된다. 282년 신미제국의 교섭은 이러한 가운데 성사되었다. 그러므로 미부하였던 신미제국의 교섭은 서진이 위기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을 구가하고 있다는 상징처럼 표방되었을 것이다. 신미제국의 교섭이 장화의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된 까닭이다.

그러면 신미제국은 어떠한 입장에서 교섭을 추진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장화를 비롯한 서진 측의 신미제국 인식과 태도가 궁금하다.

43 충북대학교 양진성 선생님의 조언.

44 『진서』 권24, 志14 職官, “及晉受禪 都督諸軍爲上 監諸軍次之 督諸軍爲下 使持節爲上 持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持節殺無官位人 若軍事得與使持節同 假節唯軍事得殺犯軍令者.”

Ⅲ. 장화의 포용적 태도와 신미제국의 실리적 교섭

1. 장화의 학문과 신미제국 인식

장화의 신미제국 인식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선 그의 생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D. ㉠ 張華(232~300)는 字가 茂先이고, 范陽[郡](현재의 중국 河北省 涿州) 方城[縣](현재의 중국 北京 大興區)人이다. 부친 [張]평은 魏의 漁陽郡(현재의 중국 北京 密雲區) [太]守였다. [장]화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 가난하였다. 스스로 양을 길렀는데 같은 군[범양군]의 盧欽(~278)이 [장화]를 보고서 재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鄉人 劉放(?~250) 역시 그의 재주를 기이하게 여겼으므로 자기 딸을 시집보냈다. [장]화는 학업이 뛰어나고 넓었고, 문장이 온화하고 아름다우며, 총명하고 다방면에 통달하였으니, 圖讖과 方術의 서적까지 상세히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신중히 예법을 지켜서 예기치 못했을 때에도 반드시 예의와 법도를 지켰다. 正義를 지키는 데 용감하였고, 어려운 이를 돕는 데 진력하였다. 재능과 학식이 뛰어나고 넓으니 당시 사람이 그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일찍이 명성이 높아지기 전에 「鷦鷯賦」를 지어 스스로 의지하였다. ... ㉡ [범양]군 태수 鮮于嗣가 장화를 천거해 太常博士가 되었고, 盧欽(?~278)이 文帝(司馬昭, 211~265)에게 그를 말하여 河南尹丞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관직을 받기 전에 佐著作郎에 제수되었고, 머지않아 長史로 [관직을] 옮겨 中書郎을 겸하였다. 조정의 의론으로 表를 상주하였는데, 시행할 만한 것이 많았고 실행하니 성과가 있었다. ㉢ [265년] 쩡왕조가 선양을 반자 黃門侍郎에 임명되었고 關內侯로 책봉되었다. [장]화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四海의 안이 마치 손바닥 안에서 가리키듯 훤히였다. 武帝가 일찍이 漢의 궁실 제도와 [한 무제] 建章[宮]의 千門萬戶에 대해 물어보니 [장]화가 응대하는 데 청산유수와 같았다. 듣는 이

가 흥미를 갖고 집중하였고, 땅 위에 그림을 그려서 도면을 완성하니, 주변이 주목하였다. 황제가 그를 매우 우대하였고, 당시 사람이 그를 [춘추시기 鄭나라의] 子産에 비견하였다. 몇 년이 지나서 中書丞을 받았고, 이후에 散騎常侍를 더해 받았다.⁴⁵ (『진서』 권36, 열전6 張華)

『진서』 장화열전의 일부이다. ㉠ 성장기·㉡ 출사 및 조위 재직기·㉢ 서진 재직기로 구분하였는데, ㉢은 276년 중서령으로 재직하며 손오(229~280) 공격에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기 전까지의 관력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다.

사료 D-㉠에 보이듯 장화는 범양군 방성현 출신으로 부친은 어양태수였다. 그는 유주 출신으로 유주에서 성장하였던 것이다. 부친이 태수였다고 하지만, 장화의 집안은 가난했다고 하였다. 서진의 고위 귀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의 출세는 학문을 통해 가능했다. 어려서부터 학문으로 유명하였는데, 이에 노흠과 유방의 인정을 받았고, 유방의 사위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초료부」를 지어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료 D-㉡과 같이 범양태수 선우사와 노흠의 추천으로 조위(曹魏, 220~265)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학문과 덕행으로 명성을 얻고 입신한 유교적 지식인의 전형이었다.⁴⁶

장화는 조위에서 태상박사·저작좌랑·장사 겸 중서랑 등을 역임하였고, 서

45 “張華字茂先 范陽方城人也 父平 魏漁陽郡守 華少孤貧 自牧羊 同郡盧欽見而器之 鄉人劉放亦奇其才 以女妻焉 華學業優博 辭藻溫麗 朗瞻多通 圖緯方伎之書 莫不詳覽 少自修謹 造次必以禮度 勇於赴義 篤於周急 器識弘曠 時人罕能測之 初未知名 著鷓鴣賦以自寄 … 郡守鮮于嗣薦華爲太常博士 盧欽言之於文帝 轉河南尹丞 未拜 除佐著作郎 頃之 遷長史 兼中書郎 朝議表奏 多見施用 遂即眞 晉受禪 拜黃門侍郎 封關內侯 華強記默識 四海之內 若指諸掌 武帝嘗問漢宮室制度及建章千門萬戶 華應對如流 聽者忘倦 畫地成圖 左右屬目 帝甚異之 時人比之子産 數歲 拜中書令 後加散騎常侍。”

46 이규일, 2020, 「장화의 사상과 인격 정신」, 『中國學論叢』 66, 한국중국문화학회, 129쪽.

진 왕조의 수립 이후 황문시랑에 임명되었다.⁴⁷ 그리고 서진의 손오 공격에서 계책을 제시하고 탁지상서에 임명되어 조운과 국경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무제의 신임을 얻었다.⁴⁸ 유교적 학문만 아니라 행정적 실무 능력 역시 고루 인정받았던 것이다. 특히 그를 출세하도록 한 학문에 명성이 높았다. 사료 D-㉔은 황문시랑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일화였다고 보이는데, 장화는 사해와 고금의 문물에 박식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이 참고된다.

E-1. [장]화는 성품이 人物을 좋아하고 [인재]를 권면하는 데 매진하였다. 빈궁하고 미천한 候官 집안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곧 애석히 여기며 칭찬하며 그를 위해 명성을 널리 전파하였다. 본래 書籍을 좋아하여 죽을 때까지 집에 남는 재산은 없어도 오직 文史는 책상과 상자에 넘쳐났다. 일찍이 이사할 때 책을 실은 수레가 30승이었다. 祕書監 摯虞는 官書를 선정할 때 모두 [장]화의 本으로 正本을 삼았다. 세상에 희소한 天下의 奇祕은 모두 [장]화에게 있었으므로, 이 때문에 문물과 건문의 박식함으로 세상에 비견할 자가 없었다.⁴⁹ (『진서』 권36, 열전6 張華)

E-2. [장]화는 『博物志』 10편과 文章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세상에 유통되고 있다.⁵⁰ (『진서』 권36, 열전6 張華)

47 『진서』 권36, 열전6 張華, “郡守鮮于嗣薦華爲太常博士 盧欽言之於文帝 轉河南尹丞 未拜 除佐著作郎 頃之 遷長史 兼中書郎 朝議表奏 多見施用 遂即眞 晉受禪 拜黃門侍郎 封關內侯.”

48 『진서』 권36, 열전6 張華, “帝潛與羊祜謀伐吳 而群臣多以爲不可 唯華贊成其計 其後 祜疾篤 帝遣華詣祜 問以伐吳之計 語在祜傳 及將大舉 以華爲度支尚書 乃量計運漕 決定廟算.”

49 “華性好人物 誘進不倦 至于窮賤候門之士 有一介之善者 便咨嗟稱詠 爲之延譽 雅愛書籍 身死之日 家無餘財 惟有文史溢于机篋 嘗徙居 載書三十乘 祕書監摯虞撰定官書 皆資華之本 以取正焉 天下奇祕世所希有者 悉在華所 由是博物洽聞 世無與比.”

50 “華著博物志十篇, 及文章並行于世.”

『진서』 장화열전에서 장화의 성품과 학문에 관한 내용이다. 사료 E-1에 보듯 서적을 좋아하였고, 문사(文史)가 넘쳤다고 하였다. 또한 사료 E-2에 보듯 『박물지』를 저술하였다고 하는데, 『진서』가 편찬된 당대(唐代)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박물지』의 다음과 같은 서술이 주목된다.

F-1. 毋丘儉이 王頎를 보내 高句麗王 宮을 추격하였다. [왕기가] 沃沮의 東界 끝까지 가서 그 나라의 耆老에게 바다 동쪽에 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다. 기로가 말하였다. “[우리] 國人은 항상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을 만나 휩쓸린 것이 수십 일이었는데, 동쪽으로 가서 한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섬 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의] 습속에 매년 七夕이면 童女를 데려다가 바다에 빠뜨립니다.”⁵¹ (『박물지』 권2, 異俗)

F-2. 箕子가 朝鮮에 거주하였다. 그 이후에 燕이 [조선을] 치자[伐燕之], 조선 [인]은 달아나 바다에 들어가서 鮮國이 되었다.⁵² (『박물지』 권9, 雜說상)

『박물지』 중에서 한국고대사와 관련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 중에서 사료 F-1은 『삼국지』 동이전 옥저의 내용과 같으며, 사료 F-2는 『삼국지』에 인용된 『위략』과 유사하다. 『박물지』는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소설(志怪小說)의 하나로 분류되는데, 현존 『박물지』는 청대의 『사고제요(四庫提要)』에서 지적하였듯 각종 사서와 유사(類書)의 일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후대의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비록 위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후대의 운문은 대체로 인정된다.⁵³

51 “毋丘儉遣王頎 追高句麗王宮 盡沃沮東界 問其耆老 海東復有人不 耆老言 國人常乘船捕魚 遭風見吹 數十日 東得一島 上有人 言語不相曉 其俗常以七夕 取童女沈海.” 張華 지음, 김영식 옮김, 『박물지』, 홍익출판사, 85~86쪽, 250쪽.

52 “箕子居朝鮮 其後 伐燕之 朝鮮亡入海爲鮮國.”

53 金映植, 1999, 「『博物志』 講論」, 『中國文學』 31, 50~51쪽 참조.

다만 사료 E-1에 보이듯 장화는 각종 전적을 소장하고 있었고, 관서(官書)의 선정에 장화의 본(本)이 정본(正本)이 되었다고 한 점으로 보면, 『위략』과 『삼국지』 같은 역사서 혹은 그 전거자료의 편찬에서도 장화의 본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존 『박물지』의 서술이 『위략』과 『삼국지』와 유사하다고 보면, 이는 유주도독 장화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주목되는 것이 사료 F-2에서 기자조선이 연의 공격으로 바다에 들어가 신국(鮮國)이 되었다고 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서술은 『삼국지』 및 이에 인용된 『위략』에서 기자의 후손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 사실이나, 그가海中(海中)에 있었다고 한 사실과 유사하다.⁵⁴ 문장과 내용의 오류가 고려되지만, 그와 같은 방식의 이해는 삼한(三韓), 특히 마한이 기자를 계승하였다고 한 관념을 보여준다. 장화를 비롯한 서진 측의 삼한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한 제국의 교섭은 장화를 비롯한 서진의 관점에서 보아 기자를 통해 확대된 중화문명의 수복일 수 있었다.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G. 朝鮮<晉의 장화가 말하였다. “朝鮮에 泉水·洌水·汕水가 있는데, 三水가 합쳐서 洌水가 된다. 아마도 樂浪朝鮮은 여기서 명칭이 생긴 듯하다. 汕[의 음]은 所와 晏의 反이다.”⁵⁵ (『통전』 권185, 邊防 朝鮮)

『통전』에 인용된 장화의 설명이다. 조선의 삼수(三水)를 설명하고 낙랑조선의 명칭이 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장화의 어떠한 저술을 인용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명칭의 유래에 대한 설명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료 G는 장화가 고조선과 낙랑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54 『삼국지』 권30, 선비오환동이30 한.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魏略曰 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55 “朝鮮<晉張華曰 朝鮮有泉水·洌水·汕水 三水合爲洌水 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 汕所晏反>.”

말해준다.

이와 같은 장화의 관심은 역시 기자와 밀접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고조선(기자조선)과 마한 그리고 낙랑을 중화문명의 범주 속에서 인식하고,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미부하였던 동이 마한 29국의 교섭은 특별히 중시하고 자랑할 성과였다고 파악된다. 더욱이 서진은 왕조 교체를 전후하여 선양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주변국의 조공을 중시하였다.⁵⁶ 무제가 선양받고 황제권이 안정되며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졌을 수 있지만,⁵⁷ 전대(前代)보다 확대된 조공국은 황제의 치적으로 여전히 중요하였다.

예컨대 『진서』 무제기에 기록된 당 태종(太宗, 재위: 626~649)의 제(制)를 보면, “상대(上代)에 통하지 않던 곳이 통하였고, 전왕(前王)까지 복속하지 않았던 곳이 복속하였다”고 칭송하였다.⁵⁸ 신미제국의 교섭이 그와 같은 치적의 구체적인 사례였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당 태종은 자신을 서진의 무제에 비견하였는데,⁵⁹ 이에 따라 『진서』의 편찬에서도 신미제국의 교섭 사실도 부각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식이 당 태종대에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진대에도 이미 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제가 장화를 곧 중앙정계에 복귀시키고자 생각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장화는 유주도독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대 장화는 유주도독에 부임한 이후 신미제국을 비롯한 마한의 29국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섭을 위해 장화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을까.

56 김택민, 2012, 「중국 고대 정권 찬탈자들의 重譯內庭論-朝貢·冊封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단서를 찾아서-」, 『歷史學報』 213, 279~280쪽.

57 김택민, 2012, 위의 글, 280~281쪽.

58 『진서』 권3, 무제기3, “制曰 … 通上代之不通 服前王之未服.”

59 尹龍九, 1998, 앞의 글, 153~154쪽 참조.

2. 장화의 위신(威信) 중시와 포용적 태도

장화는 엄순 등의 군사 활동을 총괄하며 모용선비를 제압하였다고 하였다. 위기 속에서 추진된 군사적 대응이었다. 그런데 사료 A-4-㉔을 보면 장화는 “이하(夷夏)를 위무”하였다고 하였다. 사료 A-1-㉔에서도 장화가 “신구(新舊)를 안무하고 수용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용하(戎夏)가 그에 복종하였다”고 하였다. 용하의 복종이란 유주의 안정이 이하의 위무 내지 신구의 안무·수용이란 장화의 포용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H-1. [모용]외는 어려서부터 체격이 크고 튼튼하였고, 아름다운 용모였다. 신장이 8척이었고, 재주와 용기가 있었으며 큰 도량을 갖고 있었다. 안북장군 장화는 본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는데, [모용]외가 청소년 때[童冠時] [장화에게] 가서 배알하였다. [장]화가 [모용외의 풍모를] 매우 감탄하며 남달리 여기며 말하였다. “그대가 장성하면 반드시 당대의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니, 난세를 바로잡아 구제할 것이오.” 이에 착용하고 있던 비녀와帙을 [모용]외에게 전해주었고, 정분을 두텁게 맺고서 헤어졌다.⁶⁰ (『진서』 권108, 載記8 慕容廆)

H-2. 崔鴻의 『十六國春秋』 「前燕錄」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모용]외는 신장이 8척이었고, 큰 도량을 갖고 있었다. [서]진의 안북장군 장화가 한번 보고 그를 남달리 여기며 말하였다.” 그대는 반드시 당대의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니, 난세를 바로잡아 구제할 것이오.”⁶¹ (『태평어람』 권121, 偏霸部5)

60 “廆幼而魁岸 美姿貌 身長八尺 雄傑有大度 安北將軍張華 雅有知人之鑒 廆童冠時 往謁之 華甚嘆異 謂曰君至長 必爲命世之器 匡難濟時者也 因以所服簪帙遺廆 結股勤而別.”

61 “崔鴻十六國春秋前燕錄曰 廆身長八尺 有大度 晉安北將軍張華一見奇之 謂曰君後必爲命世之器 定難濟時者也.”

H-3. 范亨의 『燕書』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高祖[모용외]는 어려서부터 큰 도량을 갖고 있었고, 웅대한 계략이 걸출하였다. [서]진의 안북장군 장화가 薊[유주의 치소]에서 진수하며 諸部를 다스렸는데, 고조는 童冠[童冠]으로 가서 [장]화를 만나니, [장]화가 매우 남달리 여기며 고조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반드시 당대의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니, 난세를 바로잡아 구제할 것이고” 착용하고 있던 책과 비녀를 벗어 고조에게 주었으며, 정분을 두텁게 맺고서 헤어졌다.”⁶² (『태평어람』 권478, 人事部190 贈遺)

위 사료는 모용외에 대한 일화이다. 사료 H-1, 즉 『진서』 재기에 가장 자세한데, 같은 내용을 『태평어람』에 인용된 『십육국춘추』 및 『연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연의 패사(霸史)와 같은 모용선비 측의 사서가 전거자료였다고 파악된다. 위 사료의 주된 내용은 모용외의 용모와 인품을 찬양하고 미래를 암시한 것으로, 집권 이후 모용외 측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모용외의 미래를 암시한 대목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찰해보면 위 사료는 이 글의 논의에 일정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장화와 모용외의 만남 및 그 시점이다. 장화가 유주도독에 임명된 것은 282년 1월이었다. 모용외의 부친 모용섭귀는 283년 사망하였는데, 이때 정권을 장악한 것은 동생 모용내(慕容耐)였다. 모용외는 요동으로 피신하였다가 285년 모용내가 피살되자 대인으로 추대되며 복귀하였다. 그러므로 장화와 모용외의 만남은 282~283년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사료에서 모용외는 당시 동관(童冠)이었다고 하였듯 14~15세의 나이였다.

이 무렵 모용선비는 안북장군 엄순 등의 군사 활동으로 서진에 격파된 직후였다. 사료 C-3을 보면 수만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용

62 “范亨燕書曰 高祖少有 大度 雄略傑出 晉安北將軍張華 鎮薊總御諸部 高祖童冠往見華 甚異之 謂高祖曰 君必爲命時之器 匡時濟難者也 脫所著幘簪以遺高祖 結殷勤而別。”

섭귀는 여전히 견재하였고, 모용선비도 결국 재기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282년 3월 이후 모용선비는 재차 서진과 교섭하며 재기를 모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모용외가 파견되었을 수 있다. 장화와 모용외의 만남은 당대의 국제정세로 보아 개연성이 충분하다. 역사적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둘째, 모용선비의 장화 및 그의 동방정책 인식이다. 사료 H-1에서 장화는 본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하였다. 사료 H-1~3에서는 장화가 모용외를 특별히 우대하였다고 하였다. 착용하고 있던 책과 비녀를 주고, 정분을 두텁게 맺고 헤어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은 모용선비 측에서 장화를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하면 모용섭귀 세력이 제압된 이후 장화는 그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하·용하·신구의 위무와 수용이란 이를 함의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화의 「명장출정가(命將出征歌)」가 주목된다.

I. 舜이 帝道를 융성시켰지만, 戎蠻은 간혹 복종하지 않았으니, 徐夷가 흥성해 周의 땅을 차지하였고, 鬼方은 역시 殷을 거역하였네. 지금 전성의 치세를 맞이 하였지만, 도적은 사방에서 매섭게 난동을 부리니, 승냥이와 이리와 같은 무리는 이빨과 발톱을 [피로] 물들였고, 백성을 하늘을 보며 울부짖네. 元帥가 중국[의 군대]를 통솔하여, 출정을 나가 涼[州](지금의 감숙성 중서부)·秦[州](지금의 감숙성 동부)을 위무하려 하는데, 군대의 忠貞은 반드시 법률로 바로잡아야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실로 사람에게 달렸네. 위엄과 신의를 갖고 오랑캐를 대하고, 술을 멀리하며 親親과 仁民을 생각해야 하니, 한잔 술이 어찌 맛있을 수 있겠으며, 솜 옷을 꺼입고 至仁에 감응할 수 있겠는가. 武功은 평화[止戈]를 숭상해야 하고, 七德은 安民을 아름답게 여겨야 하니, 원대한 업적이 이 지병으로 쌓일 것이며, 영원토록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⁶³ (『진서』 권22, 志13 樂上 命將出征歌)

63 “重華隆帝道 戎蠻或不賓 徐夷興有周 鬼方亦違殷 今在盛明世 寇虐動四垠 豺

장화의 「명장출정가」가 찬술된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출정 장수[元帥]가 출정을 나가 양주·진주를 위무하고자 한다고 하여 논의에 단서를 제공한다. 277년 3월 서진의 평로호군(平虜護軍) 문앙(文昂)은 양주·진주·옹주(지금의 섬서성)의 제군사(諸軍事)를 지휘해 독발신비[禿髮樹機能] 세력을 격파하였다고 하는데,⁶⁴ 현전 사료상 「명장출정가」와 가장 밀접해 보이기 때문이다. 위 사료의 명(命)을 받은 장군은 문앙으로, 「명장출정가」는 출정을 앞두고 찬술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명장출정가」에서 인민(仁民)·지인(至仁)·지과(止戈)·안민(安民)이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덕목은 유교 정치사상에서 중시하는 것으로, 유주도독 장화의 기본적인 태도를 짐작케 한다.

물론 장화의 학문이 유교에 한정되지는 않았다. 비록 설화적·문학성 성격이 강한 자료이지만,⁶⁵ 『습유기』를 보면 장화는 도참의 서적을 즐겨 읽었다고 하였다.⁶⁶ 장화의 『박물지』도 신비롭고 괴이한 이야기를 고증하고 세간의 이야기를 묶어 편찬한 책이었다고 한다. 다만 『습유기』에서 무제가 장화를 공자에 버금가는 인재로 평가한 것처럼 그는 기본적으로는 유학자로 인식되었다.⁶⁷ 사료 D-㉔에서도 당대 장화는 춘추시기 정(鄭)나라의 자산(子產)에 비견되었다고

狼染牙爪 羣生號穹冥 元帥統方夏 出車撫涼·秦 衆貞必以律 臧否實在人 威信加殊類 疏狄思自親 單醪豈有味 挾纊感至仁 武功尚止戈 七德美安民 遠跡由斯舉 永世無風塵.”

- 64 『진서』 권3, 제기3 함녕 3년(277), “三月 平虜護軍文淑討叛虜樹機能等破之.”; 『자치통감』 권80, 진기2 무제 함녕 3년(277), “三月 平虜護軍文昂督涼·秦·雍州諸軍 討樹機能破之 諸胡二十萬口來降.”
- 65 『습유기』의 작자 및 판본 그리고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金映志, 1994, 『『拾遺記』 試論 및 譯註』,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8쪽에 자세히 검토하였다.
- 66 『습유기』 권9, 晉時事, “張華字茂仙 挺生聰慧之德 好觀秘異圖緯之部 摺採天下遺逸 自書契之始 考驗神怪 及世間閭里所說 造博物志四百卷 ….”(金映志, 1994, 앞의 글, 358쪽.
- 67 『습유기』 권9, 晉時事, “… 帝詔詰問 卿在綜萬代 博識無倫 遠冠羲皇 近次夫子 ….” 金映志, 1994, 앞의 글, 358쪽.

하는데, 자산은 유교 정치사상에서 중시한 명재상이었다. 현실 정치에서 장화가 중시한 것은 유교 정치사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유교 정치사상에서 추구하듯 무력을 통한 억압과 통제보다 교섭을 통한 포용과 안정을 우선시하였다고 이해된다.

장화는 유주도독으로 부임해서 역시 유교적 정치사상에 입각해 이종족과의 교섭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모용선비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해된다. 더욱이 사료 A-1-㉔과 사료 A-4-㉔에서 이하·용하·신구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유주와 주변 지역은 한인(漢人)만 아니라 각종 이종족이 활동하였고, 이종족의 복속과 이탈이 반복된 공간이었다. 장화는 유주에서 성장하였던 만큼 이종족과 주변 정세에 익숙하였을 것이다. 이종족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의 복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명장출정가」에서는 “위엄과 신의를 갖고 오랑캐를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종족의 입장에서는 위엄과 신의, 즉 위신(威信)이란 안정적인 교섭과 이를 통한 교역이었을 것이다.⁶⁸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J. ㉔ 景初 연간(237~239)에 明帝(재위: 226~239)가 몰래 帶方太守 劉昕·樂浪太守 鮮于嗣를 보내 바다를 건너가 2郡을 평정하였다. ㉕ 諸韓國의 臣智에게 邑君의 印綬를 더하여 주었고, 그[신지] 다음의 [세력가에게는] 邑長 [의 인수를 더하여] 주었다. ㉖ 그 나라[諸韓國]의 습속은 衣幘을 좋아한다. 下戶도 [낙랑군·대방]군에 와서 朝謁할 때에는 모두 의책을 임의로 착용하니, 스스로 인수와 의책을 착용한 자가 천 명을 넘는다.⁶⁹ (『삼국지』 권30, 魏書30

68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례가 참고된다. 『삼국지』 권11, 위서11 田疇, “北邊翕然服其威信 烏丸·鮮卑並各遣譯使致貢遺 疇悉撫納 令不爲寇.”; 『북제서』 권41, 열전 33 高保寧, “武平末 爲營州刺史 鎮黃龍 夷夏重其威信.”; 『수서』 권47, 열전12 韋藝, “遷營州總管 藝容貌壞偉 每夷狄參謁 必整儀衛 盛服而見之 獨坐滿一榻 番人畏懼 莫敢仰視 … 大治產業 與北夷交易 家資鉅萬 頗爲清論所譏.”

69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

3세기 중반 삼한과 조위의 관계를 전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으로 구분하였다. ㉠은 조위의 낙랑군·대방군 장악, ㉡은 조위의 제한국 정책, ㉢은 그에 대한 제한국의 반응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은 서로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의 결과 ㉡의 정책이 추진되었고, ㉢과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중에서 사료 J-㉠에 보이는 낙랑태수 선우사가 주목된다.

선우사는 238년 조위에서 요동의 공손씨 세력을 제압한 이후 낙랑군을 공격·장악하였는데,⁷⁰ 이후 일정 기간 낙랑태수로 재직하였을 것이다. 사료 J-㉢의 다음 내용은 제한국의 대방군 기리영(岐離營) 공격과 관련한 것으로,⁷¹ 246년 무렵의 사건이었다. 제한국의 기리영 공격 때 낙랑태수는 유무(劉茂)였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선우사는 대략 238년을 전후해서부터 240년대 전반까지 낙랑태수로 재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위 사료의 ㉡과 ㉢은 선우사가 낙랑태수로 재직하였을 때의 사실이었다고 생각된다. 사료 J-㉢처럼 선우사는 대방태수 유흔과 함께 제한국에 의책을 제공하였고, 제한국의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위의 의책 제공은 교역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⁷² 그렇다고 한다면 선우사는 낙랑태수로 재직하며 제한국과 교섭·교역하였고, 제한국은 이를 통해 조위의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며,⁷³ 제한국과 조위는 우호관계를

有餘人.”

70 『삼국지』 권30, 위지30 오환선비동이 序, “景初中 大興師旅 誅淵[238] 又潛軍浮海 收樂浪·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71 『삼국지』 권30, 위지30 오환선비동이 韓,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憤沽韓忿 攻帶方郡岐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與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및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고이왕 13년(246) 가을 8월.

72 李賢惠,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265~272쪽 참조.

73 임기환, 2000, 앞의 글, 14~15쪽.

수립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선우사는 포용적 대외정책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조위는 배후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했기에 제한국을 포섭하고 우호관계를 수립하였다고 이해되는데, 이를 위해 출혈 교역도 감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신(新)과 후한(後漢)에서도 흉노·선비·고구려 등에 황금과 비단 등의 재리(財利)를 제공해 조공과 복속의 형식을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변경과 정치의 안정을 추구하였다.⁷⁴

사료 D-㉔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우사는 범양태수로 재직하며 장화를 천거한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장화는 선우사와 밀접하였다고 생각된다. 장화의 생애를 고려하면, 선우사의 범양태수 재직은 24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고 추정된다. 낙랑태수를 맡은 다음이었다. 장화는 유주에서 선우사와 교류하며 그의 경험으로부터 여러 정보와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삼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선우사의 삼한 교섭과 성과 또한 전해 들었을 것이다. 유주도독으로 부임한 장화는 선우사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장화도 선우사처럼 제한국과 교섭·교역하며 그의 호응을 얻고 우호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한다. 다시 말해 마한을 비롯한 제한국에 대하여 유주도독 장화는 포용적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는 곧 교섭·교역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74 『한서』 권99상 王莽, “莽念中國已平 唯四夷未有異 乃遣使者齎黃金幣帛 重賂匈奴單于 使上書言 聞中國譏二名 故名囊知牙斯今更名知 慕從聖帝 … 乃遣中郎將平憲等 多持金幣 誘塞外羌 使獻地 願內屬.”; 왕망의 사례는 李成九, 1997, 「王莽의 禪讓革命과 正統性」, 서울대학교 東洋史學研究室, 『古代 中國의 理解』 3, 지식산업사, 374~375쪽 참조. 왕망의 사례가 조위~동진 시기 정권 장악에 활용된 사례는 김택민, 2012, 앞의 글, 278~287쪽 참조(이상 경북대학교 윤용구 선생님의 조언). 요동태수 祭彤의 사례도 참고된다. 『후한서』 권20, 열전10 祭彤, “[建武] 二十五年[49] 乃使招呼鮮卑 示以財利 其大都護偏何 遣使奉獻 願得歸化 彤慰納賞賜 稍復親附 其異種滿離·高句驪之屬 遂駱驛款塞 上貂裘好馬 帝輒倍其賞賜 … 彤爲人質厚重毅 體貌絕衆 撫夷狄以恩信 皆畏而愛之 故得其死力.”

3. 신미제국의 실리적 교섭과 백제

물론 장화의 포용적 태도가 유교 정치사상과 선우사의 경험과 같은 선형적 지식에만 입각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료 J-㉠·㉡ 이후 부종사(部從事) 오림(吳林)의 진한팔국 분할 계획에서 보이듯 240년대 중반 조위는 제한국에 대한 분할과 조정을 시도하였다.⁷⁵ 서진 역시 차후 국제정세의 확정이 확립된다면, 제한국에 대한 분할과 조정을 계획하였을 수 있다. 다만 장화가 유주도독으로 재직하였던 280년대 전반 유주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였다고 하지만, 모용선비는 여전히 건재하였다. 국제정세의 안정은 확고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배후의 안정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장화가 포용적 태도를 취한 데에는 서진 측의 현실이 고려된다. 장화는 서진의 현실 속에서 유교 정치사상을 통해 교섭의 명분을 수식하였고, 선우사의 경험을 활용하여 교섭의 실리를 기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신미제국의 입장에서 유주도독 장화의 포용적인 태도와 교섭은 정치경제적 성장이란 실리를 얻을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282년 신미제국은 장화의 포용적 태도에 호응해 서진과 교섭하였다고 이해된다.

일찍부터 다수의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교섭은 물론이고 서진의 포용적인 태도는 이미 신미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⁷⁶ 그러면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에서 백제의 입장은 어떠하였을까. 신미제국과 백제, 그리고 백제와 서진의 관계가 궁금하다.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75 尹龍九, 1999,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曹魏의 東夷經略과 관련하여－」, 『國史館論叢』 85, 112~114쪽.

76 末松保和, 1954, 앞의 책, 134쪽; 임기환, 2000, 앞의 글, 29쪽; 강봉룡, 2010, 앞의 글, 15~16쪽; 강봉룡, 2018, 앞의 글, 9~10쪽; 노중국, 2011, 앞의 글, 14쪽; 이도학, 2013, 앞의 글, 115~116쪽; 문안식, 2015, 앞의 글, 18~19쪽.

K. ㉠ 무제 태강 원년(280)·2년(281)에 그 나라[마한]의 군주가 자주 사신을 보내 들어와 망물을 바쳤다. [태강] 7년(286)·8년(287)·10년(289)에 다시 자주 [사신을 보내] 왔다. 태희 원년(290)에 東夷校尉 何龕에게 와서 헌상하였다. ㉡ 함녕 3년(277)에 다시 왔다<함녕 3년에 다시 왔다. 『晉書 載記』에서 함녕의 연호를 세운 것은 태강 연간(280~289)·태희 연간(290) 이전이다. 本傳에서는 先後가 서로 뒤바뀌었다. 이듬해(278)에 다시 內附를 청하였다.⁷⁷ (『진서』 권97, 列傳67 東夷 馬韓)

위 사료는 270년대 후반~280년대 마한과 서진의 교섭에 대한 것이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과 ㉡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은 오류가 지적된다. 『진서각주』처럼 ㉠과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기도 하고, 함녕 3년이 영평 4년(294)의 오류였다고 보기도 한다.⁷⁸ 차후 보다 자세한 검토가 요청되는데, 이 글에서는 일단 ㉠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논의에서 쟁점은 사료 K-㉠에 보이는 ‘그 나라의 군주[其主]’였다. 『통전』(권185, 邊防1 東夷上 弁辰)과 『책부원귀』(宋本, 권999, 外臣部 入觀)에는 마한왕(馬韓王)으로, 『통지』에 ‘기왕(其王)’으로 나오는데,⁷⁹ 『진서』의 자구 이동과 착오를 감안하면 왕이 옳다고 한다.⁸⁰ 이른바 마한왕이 확인되는 것이다. 마한왕의 실체를 두고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⁸¹ 근래의 연구를 보면 백제에 병합된 존재로 보기도 하였고,⁸² 마한의 제국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지

77 “武帝太康元年·二年 其主頻遣使入貢方物 七年·八年·十年 又頻至 太熙元年 詣東夷校尉何龕上獻 咸寧三年復來<咸寧三年復來 載記 咸寧建元 在太康·太熙之前 本傳先後互倒> 明年 又請內附.”

78 李丙燾·金載元, 1959, 앞의 책, 358쪽.

79 임동민, 2018, 앞의 글, 23쪽의 주55 참조.

80 윤용구, 2014, 앞의 글, 329쪽.

81 자세한 연구사는 임동민, 2018, 앞의 글, 24~28쪽 참조.

82 윤용구, 2014, 앞의 글, 344쪽.

민,⁸³ 백제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⁸⁴

이 글에서도 사료 K-㉠에서 ‘자주’ 혹은 ‘다시’란 표현으로 미루어 보면, 복수의 마한 제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정 세력으로 보는 편이 순조롭고, 그러면 백제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료 K-㉠은 장화가 유주에 부임하기 직전인 281년까지 백제와 서진은 밀접히 교섭하였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장화가 부임한 이후는 어떠하였을까.

사료 K-㉠에서 282년부터 280년대 중반까지 백제와 서진의 교섭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공백처럼 보인다. 반면 282년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 사실이 확인된다.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과 비교해 백제가 소외된 양상이다. 서진을 둘러싼 신미제국과 백제의 경쟁도 생각된다. 이에 신미제국이 백제의 통제에서 이탈 혹은 백제를 견제하고자 하였고,⁸⁵ 이를 백제가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⁸⁶ 그런데 『진서』 마한전의 조공 기사에서 누락된 기사도 적지 않다고 보면,⁸⁷ 그와 같이 단정하기도 어렵다. 백제와 서진의 교섭도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료 K-㉠에서 ‘자주’란 표현은 그런 점에서 유의된다.

장화는 마한을 중시하였다고 하였다. 마한왕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서진에서 백제는 마한을 계승한 나라로 인식하였다.⁸⁸ 그러므로 장화는 백제 역시 중시하였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280년대 전반 서진은 제한국의 분할과 경쟁을 유도할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백제를 배척해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

83 전진국, 2017, 앞의 글, 121~122쪽.

84 권오영, 2001, 앞의 글, 44~47쪽; 박대재, 2006, 『고대 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景仁文化社, 149~151쪽; 임동민, 2018, 앞의 글, 28쪽.

85 盧重國, 1988, 앞의 책, 120쪽; 盧重國, 2011, 앞의 글, 14~15쪽; 강봉룡, 2010, 앞의 글, 16쪽; 강봉룡, 2018, 앞의 글, 13~14쪽.

86 임동민, 2018, 앞의 글, 30~36쪽.

87 윤용구, 2014, 앞의 글, 329쪽.

88 임동민, 2018, 앞의 글, 28쪽.

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사료 A-1에서 장화는 “신구를 안무하고 수용하였으니, 옹화가 그에 복종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신구란 유주와 평주 일대 서진의 구민과 신민만 아니라 주변국과 이종족의 구복속 세력과 신복속 세력을 포함했을 것이다. 옹화가 그에 복종하였다고 한 대목이 이를 말해준다. 백제가 이 중에서 구복속 세력에 속하였다면, 신미제국은 신복속 세력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장화는 신복속 세력에 속하였던 신미제국만 아니라 구복속 세력에 속하였던 백제도 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장화가 백제를 중시하고 포용하였다고 보면, 신미제국과 교섭하기 위해 백제를 배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에 백제의 불만이 있었다면, 여타의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그를 해소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282년 신미제국과 서진이 교섭한 데에는 백제 측의 양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⁸⁹ 즉, 신미제국과 서진 그리고 백제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며 실현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282년 신미제국의 서진 교섭은 비록 일시적이거나 3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안정이 구현되었던 사례의 하나로 이해된다.

IV. 맺음말

『진서』 장화열전을 보면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 사실이 나오는데, 『진서』 제기를 통해 보건대 이는 282년 9월의 사실이었다. 서진에서 신미제국과의 교섭은

89 신미제국의 서진 교섭은 282년이 처음이었다. 이와 비교해 백제는 교섭의 경험이 풍부한 편이었다. 이 점에서 신미제국이 서진과 교섭하는 데 백제가 중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제의 입장에서 보면,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은 백제와 신미제국-서진뿐만 아니라 신미제국과 낙동강-왜 방면의 교섭을 중개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일 수 있었다.

대방군에서 직접 담당하였지만, 이는 유주도독의 소관이었다. 장화는 282년 1월 유주도독으로 부임해 285년 초까지 재직하였는데, 그의 부임을 전후한 281년 하반기~282년 상반기 유주와 그 일대는 모용선비와 전쟁 중이었다. 유주의 위기 속에서 좌천되어 부임하였던 것이다. 282년 3월 장화는 엄순 등의 군사 활동을 지휘하며 모용선비 세력을 제압하였고 서진의 군사적 우위를 재확인하였다. 282년 9월 신미제국의 교섭은 이러한 가운데 성사되었다. 신미제국의 교섭은 서진의 위기 극복과 안정을 알리는 상징과 같았다. 그러므로 신미제국의 교섭은 장화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이해된다.

장화는 유주 출신으로 유주에서 성장하였다. 고위 귀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인식되었지만, 학문적 능력을 통해 출세하였다. 특히 서진 무제의 신임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는데, 학문적 명성도 높았다. 특히 사해와 고금의 문물에 박식하였다고 하였다. 『박물지』와 같은 저술도 남겼다. 현존 『박물지』는 장화의 저술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위략』, 『삼국지』 같은 당대의 역사 이해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다. 『박물지』에서 장화는 삼한, 특히 마한이 기자를 계승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이 점에서 신미제국의 교섭은 기자를 통해 확대된 중화문명의 수복일 수 있었다. 따라서 장화는 신미제국의 교섭을 중시하였고, 그의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화는 유주에서 성장한 만큼 주변 정세와 이종족에 익숙하였다. 282년 3월 모용선비를 제압한 이후 그를 포용하였다. 모용선비 측에서도 장화를 우호적으로 인식하였다. 기본적으로 유교적 정치사상에 입각해 무력을 통한 억압과 통제보다 교섭을 통한 포용과 안정을 추구하였다고 이해된다. 제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장화를 천거하였던 선우사도 낙랑태수로 재직하며 교섭과 교역을 통해 제한국과 우호관계를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선우사의 경험도 장화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장화의 포용적인 태도는 서진의 현실에 기초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282년의 시점에서 서진은 위기를 극복한 직후였기에 배후의 안정이 절실했다. 교섭과 교역을 통한 이종족 포용이 요청되었다. 제한국의 입장에서도 교섭과 교역이 선호되었다. 그러므로 신미제국은 장화의 포

용적인 태도에 호응하여 282년 9월 교섭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까지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에서 백제는 소외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신미제국이 백제의 통제에서 이탈 혹은 백제를 견제하고자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 그런데 장화가 모용선비와 제한국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282년의 시점에서 국제정세의 안정을 추구하였다고 보면, 백제를 배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제의 이탈 또한 경계하였을 것으로, 백제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미제국과 서진이 교섭한 데에는 백제의 양해가 있었고, 백제 또한 서진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282년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은 비록 일시적이거나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안정이 구현되었던 사례의 하나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中國 古代邊郡에 대한 事例的 檢討-』, 一潮閣.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國家形成과 支配制體의 變遷을 中心으로-』, 一潮閣.
- _____, 201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 박대재, 2006, 『고대 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景仁文化社.
- 李道學, 1995, 『백제고대국가연구』, 一志社.
- 李賢惠,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交易』, 一潮閣.
- 張華 지음, 김영식 옮김, 1998, 『박물지』, 흥익출판사.
- 崔鍾圭, 1995,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 千寬宇, 1976, 『古朝鮮史·三韓史 研究』, 一潮閣.
- 姜亮夫, 2002, 『姜亮夫全集』 22, 雲南省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 末松保和, 1954, 『新羅史의 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 小尾孟夫, 2001, 『六朝都督制研究』, 廣島: 溪水社.

논문

- 강봉룡, 2010,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4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36.
- _____, 2018, 「해남 백포남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百濟學報』 26.
- 권오영, 2001, 「백제국에서 백제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 김수태, 1998,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박순발 외, 『馬韓史研究』, 忠南 大學校 出版部.
- 金映植, 1999, 「『博物志』 講論」, 『中國文學』 31.
- 김영심, 2013, 「문헌자료로 본 枕彌多禮의 위치」, 『백제학보』 9.

- 金映志, 1994, 「『拾遺記』 試論 및 譯註」,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택민, 2012, 「중국 고대 정권 찬탈자들의 重譯內庭論-朝貢·冊封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단서를 찾아서-」, 『歷史學報』 213.
- 노중국, 2011, 「문헌기록 속의 영산강 유역-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6.
- 문안식, 2002, 「榮山江流域 土着社會의 成長과 聯盟體 形成-新彌國의 聯盟體 形成과 對外關係의 變化를 中心으로-」, 『史學研究』 68.
- _____, 2015, 「서남해지역 마한사회의 발전과 연맹체 형성-해남반도 백포만 일대를 중심으로-」, 『東國史學』 58.
- 梁起錫, 2013, 「全南地域 馬韓社會와 百濟」, 『백제학보』 9.
- 尹龍九, 1998,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 _____, 1999,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曹魏의 東夷經略과 관련하여-」, 『國史館論叢』 85.
- _____, 2005, 「고대중국의 東夷觀과 고구려-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 _____, 2014, 「『진서』동이 조공 기사의 재검토」, 노태돈교수 정년기념논총감행위원회 엮음, 『한국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 _____, 2019, 「馬韓諸國의 位置再論-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45.
- 이규일, 2020, 「장화의 사상과 인격 정신」, 『中國學論叢』 66, 한국중국문화학회.
- 李道學, 2013, 「榮山江流域 馬韓諸國의 推移와 百濟」 『百濟文化』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李丙燾·金載元, 1959,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 李成九, 1997, 「王莽의 禪讓革命과 正統性」, 서울대학교 東洋史學研究室, 『古代中國의 理解』 3, 지식산업사.
- 이정빈, 2019, 「양맥·숙신의 難, 變경에서 본 3세기 후반 동아시아와 고구려」, 『韓國史研究』 187.
- 李周鉉, 2000, 「魏晉南北朝時代의 東夷校尉」, 『東洋史學會 學術大會 發表論文集』.
-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魏·晉의 동방 정책-낙랑군·대방군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 임동민, 2018, 「『晉書』 馬韓 교섭기사의 주체와 경로」, 『韓國古代史研究』 89.

전진국, 2017, 「『晉書』에 보이는 馬韓의 대외 교류와 百濟의 성장」, 『백제학보』 20.
정지은, 2019, 「3~4세기 百濟의 對中 교섭과 東夷校尉」, 『역사와 현실』 112.

山東鄒城市文物局, 2005, 「山東鄒城西晉劉寶墓」, 『文物』 2005-1.
陣春錦, 2017, 「張華出鎮幽州始末考」, 『淮南師範大學報』 101.

岡田英弘, 1978, 「魏志東夷傳を評す」,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東京: 吉川弘文館.

3세기 후반 신미제국의 서진 교섭과 장화(張華)

이정빈

이 글의 목적은 3세기 후반 마한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 배경과 의미를 생각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섭을 전후한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서진에서 교섭을 총괄하였던 장화(張華)의 신미제국 인식과 교섭 태도를 검토하였다. 『진서』 제기를 통해 보건대 신미제국의 교섭은 282년 9월의 사실이었다. 직접적인 교섭 창구는 대방군이었는데 이는 유주도독 장화가 총괄하였다. 그는 282년 1월 부임해 285년대 초까지 재직하였는데, 부임을 전후해 유주와 그 일대는 모용선비와 전쟁 중이었다. 282년 3월 장화는 모용선비 세력을 제압하였고 서진의 군사적 우위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때 성사된 신미제국의 교섭은 서진의 위기 극복과 안정을 알리는 상징과 같았다. 그러므로 신미제국의 교섭은 장화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받았다. 장화는 유주 출신으로 학문적 명망이 높았다. 그의 저술로 알려진 『박물지』나 서진대에 편찬된 『위략』·『삼국지』는 장화의 역사 인식을 반영하는데, 이를 보면 마한은 기자(箕子)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신미제국의 교섭은 기자를 통해 확대된 중화명명을 회복한 것처럼 선전할 수 있었다. 장화는 물론 서진의 조정에서 신미제국의 교섭을 중시한 까닭이

었다. 장화는 유주에서 성장한 만큼 주변 정세와 이종족에 익숙하였고, 무력으로 제압한 모용선비를 포용한 데서 드러나듯 주변국과 이종족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백제와 마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교섭과 교역을 통한 국제정세의 안정을 추구하였다고 생각한다. 유주에서 장화를 천거하였던 선우사(鮮于嗣)도 일찍이 낙랑군 태수로 재직하며 교섭과 교역을 통해 제한국(諸韓國)과 우호관계를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선우사의 경험도 장화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더욱이 282년의 시점에서 서진은 위기를 극복한 직후였기에 안정이 절실하였다. 신미제국은 이러한 장화의 포용적인 태도에 호응하여 교섭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제까지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에서 백제는 소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미제국이 백제의 통제에서 이탈하고자 하였다고 보거나, 백제를 견제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장화가 주변국에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국제정세의 안정을 추구하였다고 보면, 백제를 배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제의 이탈 역시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신미제국과 서진이 교섭한 데에는 백제의 양해가 있었고, 백제 또한 서진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282년 신미제국과 서진의 교섭은 비록 일시적이거나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안정이 구현되었던 사례의 하나로 이해된다.

주제어: 신미제국(新彌諸國), 마한(馬韓), 장화(張華), 모용선비(慕容鮮卑), 유주(幽州), 도독(都督), 대방군(帶方郡), 낙랑군(樂浪郡)

ABSTRACT

Negotiations between Shinmijeguk and Xi-Jin in the Late Third Century and Zhang Hua

Lee Jeongbin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Mahan(馬韓) Shinmijeguk(新彌諸國) and Xi-Jin(西晉) in the late 3rd century.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fore and after negotiations, and examines the perception and negotiation attitude toward Shinmijeguk of Zhang Hua(張華), who was in charge of negotiations in Xi-Jin. According to the Annals(帝紀) of *Book of Jin*(『晉書』), negotiations with Shinmijeguk conducted in September 282. The direct negotiating window was Daebanggun(帶方郡), which was directed by Zhang Hua, area commander(都督) of Youzhou(幽州). He was appointed in January 282 and served until the early 280s. At the time of his appointment, Youzhou and the surrounding area were at war with Murong-Xianbei(慕容鮮卑). In March 282, he defeated the Murong-Xianbei forces and reaffirmed the military superiority of Xi-Jin. The negotiations

with Shinmijeguk, which were concluded at this time, were symbol of overcoming crisis and stability of Xi-Jin. Therefore, it was evaluated as his representative achievement. Zhang Hua was from Youzhou and had a high academic reputation. His writings, known as *Bowuzhi*(『博物志』), and *Weilue*(『魏略』)·*Sanguozhi*(『三國志』) compiled during the Xi-Jin period, reflect his historical perception which recognizes Mahan as the successor to Gija(箕子). Thus, negotiations with Shinmijeguk made it possible to propagate as if restored Chinese civilization expanded through Gija. This is the reason why Xi-Jin court, including Zhang Hua,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negotiation. Growing up in Youzhou, Zhang Hua was familiar with surrounding situation and different people, and showed a tolerant attitude toward neighboring states and different people, as seen in his embracement of Murong-Xianbei that had been subdued. He is believed to have had the same attitude toward Baekje and Mahan. He pursued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rough negotiations and trade. Xianyu Si(鮮于嗣), who recommended Zhang Hua in Youzhou, also served as the Taesu(太守) of Nangnanggun(樂浪郡) and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 with Samhan(諸韓國) through negotiations and trade, and it is considered that this experience of him influenced Zhang Hua to some extent. Moreover, Xi-Jin in 282, right after overcoming the crisis, needed stability. This article interpreted that Shinmijeguk promoted negotiations in response to Zhang Hua's tolerant attitude. The studies so far have generally regarded Baekje as alienated from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Shinmijeguk and Xi-Jin. They regarded that Shinmijeguk was trying to escape from Baekje's control or to keep Baekje in check. However, Zhang Hua pursued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rough tolerant attitude toward neighboring states, which shows that he has no intention to exclude Baekje. The breakaway of Baekje was not what he was pursuing either. This article considers the negotiations between Shinmijeguk and Xi-Jin in 282 as one of the cases that achieved stability, albeit temporarily,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st Asia.

Keywords: Shinmijeguk, Mahan, Zhang Hua, Morong-Xianbei, Youzhou, Area Commander, Daebanggun, Nangnanggun

당-신라 능묘비 형태의 비교연구

배노찬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 I. 머리말
- II. 당 능묘비의 현황과 특징
- III. 당-신라 능묘비의 비교와 그 의미
- IV. 맺음말



I. 머리말

661년에 사망한 태종무열왕의 능비(陵碑)를 시초로 하는 신라의 능비와 묘비(이 하 능묘비)는 한국의 비 문화 형성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 태종무열왕릉 비 이전의 신라에서는 비가 건립되기는 하였으나 대다수가 자연석을 각자(刻字) 할 면만 거칠게 가공한 것으로 후대의 비와 형태 차이가 크다. 그러나 통일기 이후의 신라 능묘비는 정밀하게 가공한 ‘비수(碑首)-비신(碑身)-비부(碑趺)’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수에는 이수(螭首), 비부에는 귀부(龜趺)가 채택되었다. 또 이때부터 문체(文體)와 서체(書體)가 정비되었으며 수량 역시 이전 시기를 압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 속성은 탑비(塔碑), 사적비(事蹟碑) 등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나말여초, 고려, 조선까지 꾸준하게 계승, 발전을 이루었다. 즉, 신라 능묘비는 한국 비 문화 형성과정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신라 능묘비는 중국 당(唐) 능묘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100여 년 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에 의해 제기되었다.¹ 이수와 귀부가 도입된 점 때문이다. 두 속성은 이전 시기 한반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반면 중국에서는 동한비(東漢碑)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당비(唐碑) 역시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해당 견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비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종류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비문(碑

* 투고: 2022년 7월 16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9일, 게재 확정: 2022년 8월 16일

** 이 글은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BK21 Four 교육연구팀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21 Four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한 2022년 공동 국제학술심포지엄 『유라시아 王陵』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關野貞, 1904, 『韓國建築調查報告』, 學術報告 6, 東京: 東京帝國大學工科大(姜奉辰 역, 1990, 99~103쪽에 번역 및 재수록).

文)을 짓는 문장가, 이를 쓰는 서예가, 그리고 비의 형태를 조각하는 석공(石工)이다. 그러므로 신라 능묘비가 당비의 영향, 즉 ‘당 능묘비 문화의 전이’라면, 또 그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체, 서체, 형태가 종합적으로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문체와 서체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미 이영호, 정병모, 이완우, 진복규, 정현숙 등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²

하지만 능묘비의 형태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듯하다. 신라비의 이수와 귀부에 대한 형태를 다룬 연구는 현재 수십 편이 축적되어 있으나 이들은 신라 내부에서의 변천상에 집중하였을 뿐 당 능묘비와의 비교에 천착했던 것은 아니다.³ 또 신라 능묘비는 당과 비교하였을 때 귀부에서 상당한 차이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데 “신라 능묘비의 조형적 우수성”⁴ 또는 “당의 비 문화를 수용하면서 빠르게 자기화한 결과”⁵라는 비교적 간략한 해석에 그친 상황이다. 그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추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미진하였던 당-신라 능묘비의 형태 비교를 시도하여 신라 능묘비, 더 나아가 한국 비 문화 형성과정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
- 2 李泳鎬, 1986, 「新羅 文武王陵碑의 再檢討」, 『역사교육논집』 8, 역사교육학회, 73쪽; 정병모, 2000, 「新羅 書畫의 對外交渉」, 『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제6회 전국미술사학대회, 한국미술사학회, 예경, 138~140쪽; 李完雨, 2001, 「통일신라 시대의 唐代 書風의 수용」,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제7회 전국미술사학대회, 한국미술사학회, 예경; 진복규, 2007, 「〈태종무열왕릉비〉 비액연구」, 『경주문화연구』 9,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8, 「나말여초(羅末麗初)의 비액서풍(碑額書風)」, 『미술사학보』 30, 미술사학연구회; 정현숙, 2008, 「新羅와 北魏·隋·唐의 書藝 比較 研究」, 『서예학연구』 13, 한국서예학회.
 - 3 신라비의 이수, 귀부에 대한 형태를 다룬 연구들은 편 수가 많아 전재하지 않겠다. 엄기표, 2017, 38~39쪽의 〈각주 2〉와 심수연, 2019, 2~4쪽이 참고된다.
 - 4 關野貞, 1910, 「朝鮮文化の遺蹟」, 『朝鮮藝術之研究』, 京城: 度支部建築所(정인성, 2020, 97쪽에 번역 및 재수록).
 - 5 金玟圭, 2019, 「朝鮮時代 陵墓碑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5~36쪽.

II. 당 능묘비의 현황과 특징

당-신라 능묘비의 형태 비교에 앞서 당 능묘비의 현황과 형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신라 능묘비와의 세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당 능묘비의 현황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비는 중국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중국의 비는 자연석이나 암반에 글을 기록한 ‘각석(刻石)’까지 포함하였을 때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한 셈이 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비 문화의 전개는 동한(東漢) 시기부터이다. 이때부터 비가 대량으로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의 기본 구성요소인 ‘비수-비신-비부’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또 비문의 문체와 서체가 정비되고 비수 등에 다양한 문양이 조식되어 심미적·관념적 상징을 표현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비는 기념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건립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능묘 인근에 건립하여 능주(陵主) 및 묘주(墓主)(이하 능묘주)의 생애를 기념하는 ‘능묘비’이다. 죽은 자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산 자들의 염원을 물질로 표현하기에 비만큼 적절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능묘비는 처음 출현한 동한 시기 이래 능묘문화의 주요 속성 중 하나로 정착하게 된다.

동한 시기에 출현한 능묘비는 위진(魏晉) 시기에 들어 박장령(薄葬令) 및 입비금지령(立碑禁止令)⁶에 의해 상당 기간 부침을 겪은 뒤 남북조시대부터 다시 건립된다. 특히 남조의 양(梁)에서는 황제릉과 황족묘(皇族墓)에 능묘비를 다수 건립하였으며 북조 또한 현존하는 것이 많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건립된 듯

6 『宋書』卷15「禮志」, “漢以後, 天下送死奢靡, 多作石室·石獸·碑銘等物. 建安十年, 魏武帝以天下雕弊, 下令不得厚葬, 又禁立碑.”; 『宋書』卷15「禮志」, “晉武帝咸寧四年(278), 又詔曰, 此石獸碑表, 既私褒美, 興長虛僞, 傷財害人, 莫大於此. 一禁斷之.”

하다. 이후 수(隋)에서는 묘비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3품 이상은 귀부와 이수로 비를 세운다. 비부 위의 높이는 9척을 넘을 수 없다. 7품 이상은 갈(碣)을 세우며 높이는 4척으로, 규수방부(圭首方趺)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⁷

이후 당대의 묘비 규정은 수를 계승하였다. 다만 수대에는 귀부와 이수의 제한이 3품 이상이었던 반면 당대에는 그것이 5품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⁸ 한편 당대는 능묘비의 건립이 크게 유행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전 시기보다 사회적 배경이 양호하여 정치·경제·문화적 지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⁹

당비는 당시의 수도인 장안(長安), 즉 현재의 섬서성(陝西省) 일대의 것들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당비는 능묘, 사찰 등 현재까지 본래 건립된 위치를 지키고 있거나 이를 벗어났다면 서안비림박물관(西安碑林博物館), 소릉박물관(昭陵博物館) 등에 소장되어 있다. 호우리신(侯立新)에 따르면 섬서성 일대에 현존하는 당비는 174기이며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나 망실된 것은 825기에 달한다고 한다.¹⁰ 아쉽게도 이들 중 능묘비만 따로 구분하여 그 수량을 파악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당대의 능비는 고종(高宗)대 황태자 이홍(李弘)의 공릉(恭陵), 고종 및 무측천(武則天)의 건릉(乾陵), 효명고황후(孝明高皇后, 무측천 어머니)의 순릉(順陵), 중종(中宗)의 정릉(定陵)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것은 공릉 예덕기비(睿

7 『隋書』卷8「禮儀」第3, 喪葬, “三品已上立碑螭首龜趺上高不得過九尺. 七品已上立碣高四尺. 圭首方趺.”

8 『大唐開元禮』卷3「序例·雜制」, “凡立碑五品以上螭首龜趺高不得過九尺. …七品以上立碑圭首方趺上高四尺.” 『대당육전(大唐六典)』, 『당회요(唐會要)』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9 田有前, 2016, 『雕刻时光 - 陕西古代石刻 -』, 西安: 陕西人民出版社, 108~111쪽.

10 侯立新, 2014, 「关中唐代碑刻研究」, 陕西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234~283쪽.

德紀碑, 675년), 건릉 숭성기비(述聖紀碑, 684년), 건릉 무자비(無字碑, 8세기 초)의 단 3기뿐이다.

묘비는 장안 주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황제릉의 배장묘(陪葬墓)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소릉박물관에는 소릉 배장묘비 4기가, 포성현혜릉박물관(蒲城县惠陵博物館)에는 예종(睿宗) 교릉(橋陵) 배장묘비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또 배장묘 인근에서 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들도 상당한 듯하다. 이들을 중심으로 당 능묘비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자.

2. 당 능묘비 형태의 특징

당 능묘비 형태의 특징을 비의 기본 구성요소인 1) 비수, 2) 비신, 3) 비부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자. 또 비 자체의 형태는 아니나 봉분 및 여타 능원석각(陵園石刻)과 조합되어 능묘역의 경관을 좌우하는 4) 배치방식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1) 비수

당 능묘비의 비수는 능비와 묘비에 따라 구분된다. 능비의 경우 현존하는 것이 3기인데 공릉 예덕기비는 훈문(暈文: 다중의 호선(弧線)을 새겨 마치 무지개와 같은 것), 건릉 숭성기비는 전각식(殿閣式), 건릉 무자비는 팔이하수(八螭下垂)가 채택되어 모두 다르다. 반면 묘비의 경우 확인되는 거의 모두가 ‘육이하수(六螭下垂)’를 채택하였다. 육이하수란 “교룡(蛟龍: 螭) 여섯 마리가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채 엮혀 있는 문양이 표현된 비수”로 이수의 일종이다. 이수는 동한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이때에는 다양한 표현방식이 관찰된다. 이들은 훈리문(暈螭文: 훈문의 양 끝에 교룡의 머리와 꼬리를 표현한 것)과 반리문(蟠螭文: 엮혀 있는 교룡이 비수 측면을 반원상으로 두르는 것)으로 대별된다.¹¹

11 교룡이 표현된 문양의 구분은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이 글에서의 명칭은 관련 연구

남북조비(南北朝碑)의 이수(이수)는 동한비를 계승하였다. 남조 양의 능묘비에서는 반리문이 관찰되며 북조비(北朝碑)에서는 훈리문과 반리문 양자가 모두 관찰된다. 특히 북조비의 이수는 이른 시기에는 동한과 같이 다양한 표현방식이 관찰되나 늦은 시기로 갈수록 점차 정형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육이하수이다. 다만 북조에서는 육이하수보다는 사이하수(四螭下垂)가 다수를 점하였다고 한다.¹² 그리고 북주(北周)를 계승한 수의 비 또한 북조비의 연장선상

〈표 1〉 당 묘비 육이하수의 변천(胡春勃, 2016을 정리하여 작성)

전기: 당 건국(618년) ~ 8세기 전엽(〈그림 1〉의 1~23)

- ① 목: 아래로 곧게 향한다.
- ② 등지느러미: 거치문(鋸齒文)이 역방향으로 배치된다. 즉, 머리를 향해 치켜 올라간 것이다.
- ③ 꼬리: 다른 개체의 앞다리 정강이 위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뒤, 발톱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나온 다음, 교차한 두 다리 사이에서 끝단을 위로 말아 올린다.
- ④ 뒷다리: 발끝이 규형(圭形) 제액(題額)의 양 사변에 붙은 채 보주를 받치고 있다.
- ⑤ 보주: 화염보주이다. 화염의 표현 외에 별다른 장식이 없다. 규형 제액의 정부(頂部)에 바짝 붙어 있거나 그 부근에 위치한다.

후기: 8세기 중엽 ~ 당 멸망(907년)(〈그림 1〉의 24~28)

- ① 목: 위를 향해 한번 접힌 뒤 다시 아래로 진행된 형식이 출현한다.
- ② 등지느러미: 거치문이 순방향으로 배치된 형식이 출현한다.
- ③ 꼬리: 다른 개체의 앞다리 관찰에서 한 바퀴 돌린 다음 앞다리 정강이 아래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뒤, 다시 종아리 위에서 바깥쪽으로 나와 교차한 두 다리의 사이에서 끝단을 아래로 말아 내린다.
- ④ 뒷다리: 발끝이 규형 제액의 양 사변에서 떨어져 올라간 형식이 출현하였다. 그리하여 보주를 받치는 높이 또한 높아졌다.
- ⑤ 보주: 화염보주이다. 연화문(蓮花文) 또는 상운문(祥雲文)이 이를 받치고 있다. 비수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杨磊, 2011; 王文广, 2012; 卢蓉, 2015 등)를 참고하여 필자가 명명한 것이다.

12 胡春勃, 2016, 「从几件唐代神道碑看唐代碑首的变化」, 『大众文艺』7, 河北省群众艺术馆, 82쪽.



1. 윤연박(溫彦博)묘비(637년)



2. 단지현(段志玄)묘비(642년)



3. 장락공주(長樂公主)묘비(643년)



4. 공명달(孔穎達)묘비(648년)



5. 이정(李靖)묘비(658년)



6. 장운(張胤)묘비(658년)



7. 난릉장공주(南陵長公主)묘비(659년)



8. 을지경덕(尉遲敬德)묘비(659년)



9. 신성장공주(新城長公主)묘비(663년)



10. 두군식(杜君紳)묘비(664년)



11. 우덕방(于德芳)묘비(664년)



12. 우지녕(于志寧)묘비(666년)



13. 위귀비(韋貴妃)묘비(666년)



14. 기국선비(紀國先妃)육씨(陸氏)묘비(667년)



15. 이효동(李孝同)묘비(670년)



16. 왕국태비(趙國太妃)연씨(燕氏)묘비(672년)



17. 마주(馬周)묘비(674년)



18. 아사나충(阿史那忠)묘비(675년)



19. 이적(李勣)묘비(677년)



20. 우대유(于大猷)묘비(700년)



21. 건릉(乾陵) 무자비(無字碑)(8세기 초)



22. 양국장공주(涼國長公主)묘비(724년)



23. 식국장공주(鄜國長公主)묘비(725년)



24. 대국장공주(代國長公主)묘비(7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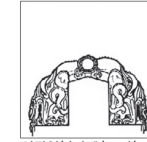
25. 금선장공주(金仙長公主)묘비(736년)



26. 고력사(高力士)묘비(762년)



27. 장희안(臧希晏)묘비(770년)



28. 이광업(李廣業)묘비(804년)

그림 1 당 능묘비의 비수

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 묘비의 육이하수는 북조비부터 시작된 정형화가 진척되어 고도로 통일된 양상이다. 그런데 이들의 표현방식은 현종(玄宗) 개원(開元, 713~741) 후기, 즉 8세기 전~중엽 경을 분기로 하여 형태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를 후춘보(胡春勃)는 전기, 후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양식적 특징을 설명하여 참고할 만하다(〈표 1〉참고).¹³

또 표현방식에서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모든 당 묘비 육이하수에서 관찰되는 속성도 있다. ⑥ 제액의 양측에서 좌우 교룡의 다리가 교차하여 두 발이 서로 마주 보도록 표현된 점, ⑦ 교룡의 엄힘이 4조로 구성된 점, ⑧ (관찰자 시점에서) 우측 교룡이 좌측 교룡보다 앞에 위치하여 우측 교룡의 뒷다리는 몸체에서 그대로 뻗어 보주를 받치는 한편 좌측 교룡의 뒷다리는 우측 교룡의 앞다리 겨드랑이에서 별도로 빠져나와 보주를 받치는 점 등이다(〈그림 1〉 참조).¹⁴

2) 비신

상술하였다시피 당대 묘비 규정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등에 “5품 이상은 비부 위의 높이가 9척을 넘을 수 없으며 7품 이상은 4척으로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각주 8). 그러나 해당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듯하다.¹⁵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당대척(唐大尺) 1척은 대략 30cm이므로 5품 이

13 胡春勃, 2016, 위의 글, 81~82쪽.

14 II 장 2절의 〈그림 1, 2, 3, 4〉, 〈표 2〉에 수록된 도면 및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张沛, 1993, 102쪽; 昭陵博物馆, 2000, 3쪽; 陈安利, 2001, 51쪽; 奈良県橿原考古学研究所, 2002, 32~33, 40쪽; 陕西省考古研究所 外, 2004, 4, 6, 171쪽; 韦正, 2011, 294쪽; 田有前, 2013, 51~52쪽; 张宇, 2014, 22~23쪽; 2015, 136쪽; 胡春勃, 2016, 81쪽; 陕西省考古研究院·顺陵文物管理所, 2017, 8쪽; 陕西省考古研究院·昭陵博物馆, 2017, 11~12, 173쪽; 王名峰, 2018, 120쪽; 李炳武·张志攀, 2018, 170쪽; 박천수(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임영재(同 박사출업) 제공 2017년 답사 사진; 西安碑林博物馆 홈페이지 검색 사진; Baidu百度 검색 사진.

15 张宇, 2014, 「唐碑形制与唐代碑碣制度关系考」, 四川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상 인물의 모비 비수-비신 높이는 규정상 270cm를 넘을 수 없다. <표 2>는 소릉박물관 소장 소릉 배장모비 42기 중 완전한 35기의 비신 크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 중 25. 장아난모비의 205cm를 제외한 모든 모비의 비신 높이는 270cm를 초과한다.

그러나 당 모비에서 비신의 크기 차이가 묘주의 업적·지위에 따른 차등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표 2>에서 푸른색으로 표시한 모비들은 높이가 4m 내외이면서 너비, 두께가 상당한 것이다. 5. 위징, 10. 방현령, 11. 고사렴, 14. 이정, 17. 울지경덕, 29. 이적의 모비가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능연각훈신(凌煙閣勳臣) 24인’에 속한 자들이다. 능연각은 당 태종의 즉위 및 정국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들을 항구적으로 기리고자 조성된 누각이다. 즉, ‘명예의 전당’인 셈이다. 따라서 생전의 업적·지위가 탁월했던 인물들은 모비 또한 초대형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검은색으로 표시한 모비들은 높이가 3m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중 25. 장아난, 32. 강하, 34. 을속고행엄의 지위 또는 그들이 소릉에 배장될 수 있었던 계기는 주목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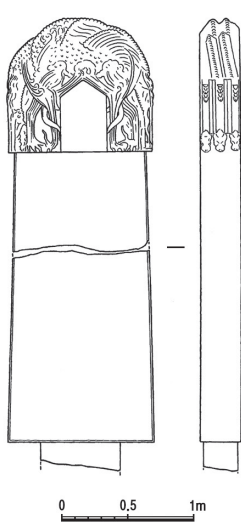
첫째, 장아난은 환관이었다. 이는 소릉에 배장된 다른 인물들이 황족이나 고관대작(高官大爵)인 점에 대비된다. 또 소릉에 배장된 인물들을 기록한 『장안지(長安志)』 등에는 그의 배장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이로 보아 장아난은 소릉에 배장된 다른 인물들에 비해 지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강하는 강행본(姜行本)의 아들이다. 강행본은 태종 재위기(626~649)에 활약하던 무장이었는데 645년의 고구려원정에서 전사하였고 이후 소릉에 배장되었다. 그런데 강하는 640년생으로 고종 재위기(649~683)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즉, 강하가 소릉에 배장될 수 있었던 계기는 자신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태종과의 인연 때문이다.

셋째, 을속고행엄도 강하와 유사한 계기로 소릉에 배장되었다. 그의 아버지

2015, 「论唐碑形制与碑碣制度之不符现象」, 『荣宝斋』 6, 荣宝斋有限公司.

〈표 2〉 당 소릉 배장묘비의 비신 크기(张沛, 1993 등을 참고하여 작성)

연번	묘비명	건립 연도	크기(cm)			신성장공주묘비의 비수-비신
			높이	너비	두께	
1	온언막묘비	637	342	111	37	
2	단지현묘비	642	334	105	35	
3	우문사급(宇文士及)묘비	642	295	104	32	
4	장락공주묘비	643	304	106	30	
5	위징(魏徵)묘비	643	403	130	44	
6	공영달묘비	648	347	108	35	
7	배예(裴藝)묘비	649	363	111	39	
8	두로관(豆盧寬)묘비	650	361	100	37	
9	우진달(牛進達)묘비	651	278	117	38.5	
10	방현령(房玄齡)묘비	652	385	136	45	
11	고사렴(高士廉)묘비	655	437	130	50	
12	설수(薛收)묘비	655	293	103	33	
13	장윤(張胤)묘비	658	354	110	35	
14	이정(李靖)묘비	658	427	128	42	
15	주호(周護)묘비	658	341	111	37	
16	난릉장공주묘비	659	338	111	31.5	
17	울지경덕묘비	659	442	150	53	
18	허락인(許洛仁)묘비	662	338	120	36	
19	신성장공주묘비	663	322	110	30	
20	두군작묘비	664	352	123	30	
21	청하장공주(清河長公主)묘비	664	354	119	35.5	
22	이맹상(李孟常)묘비	666	392	117	39	
23	기국선비 육씨묘비	667	318	102	34	
24	오흑달(吳黑闥)묘비	669	273	103	32	
25	장아난(張阿難)묘비	671	205	81	26.5	
26	월국태비 연씨묘비	672	353	117	35	
27	마주묘비	674	358	116	39	
28	아사나충묘비	675	388	118	34	
29	이적묘비	677	570	180	54	
30	저량(褚亮)묘비	649~683	298	110	39	
31	방인우(房仁裕)묘비	649~683	324	106	34	
32	강하(姜翹)묘비	712 이후	279	103	31	
33	월왕(越王) 이정(李貞)묘비	718	355	120	31	
34	을속고행엄(乙速孤行儼)묘비	725	275	104	34.5	
35	당검(唐儉)묘비	741	360	120	34	



는 을속고신경(乙速孤神慶)으로 태종 재위기에 활약하여 소릉에 매장된 인물이다. 또 을속고행업은 636년생으로 고종 재위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지위가 낮았거나 선대의 인연으로 소릉에 매장된 인물들의 묘비는 비교적 소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당 능비의 비신 크기는 상술한 능연각훈신들의 묘비보다 훨씬 크다. 현존하는 3기부터 살펴보자. 공릉 예덕기비의 비신 크기는 높이 603cm, 너비 194cm, 두께 65cm이다. 건릉 술성기비는 높이 678cm, 너비·두께 186cm이다. 그리고 건릉 무자비는 높이 654cm, 너비 210cm, 두께 148cm이다.¹⁶

이미 파괴된 능비 2기는 추정 복원 또는 관련 기록으로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순릉의 대주무상효명고황후비[大周無上孝明高皇后碑, 이하 순릉비(順陵碑), 702년]는 명 가정제(嘉靖帝) 34년(1556)의 섬서대지진으로 파괴되었고 현재는 일부 편이 함양시박물관(咸阳市博物馆)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전당문(全唐文)』에는 순릉비 전문이 수록되어 있어 비편의 글자 크기로 이 비의 크기를 추정 복원하였을 때 높이 약 600cm, 너비 약 320cm가 된다고 한다.¹⁷ 그리고 정릉의 무자비(無字碑, 810년경)는 문화대혁명기(1966~1976)에 소실되었으나 1943년 서북예술문물고찰단(西北艺术文物考察团)이 이 능을 지표조사하면서 신도석각 분포도를 작성하고 이 비의 대략적인 크기를 기록해둔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높이 약 650cm, 너비 약 200cm, 두께 약 120cm라고 한다.¹⁸

마지막으로 비신-비좌(碑座)의 결구방식도 살펴보자. <표 2>의 오른쪽, 당 능묘비에서 비신-비좌의 결구방식은 비신의 최하단에 장방형의 축을 내고 비좌에는 축의 크기에 맞는 홈을 내어 결구하는 방식이다. 신성장공주묘비를 예시

16 유향양·추교순, 2012, 『중국 당대 황제릉 연구』, 서경문화사, 108~113, 383쪽.

17 田有前, 2016, 앞의 책, 107~108쪽.

18 田有前, 2013, 「西北艺术文物考察团唐陵考察活动述评」, 『中国国家博物馆馆刊』 2, 中国国家博物馆, 52~53쪽.

로 들자면 비신 축의 크기는 너비 약 60cm, 두께 약 25cm이다. 이 묘비의 비신 너비가 110cm이므로 축-흙의 너비는 비신 너비의 절반 정도인 셈이다.¹⁹

3) 비부

당 능묘비의 비부는 평면 세장방형의 ‘방부(方趺)’와 서수(瑞獸)로서의 거북을 표현한 ‘귀부(龜趺)’가 사용된다. 그런데 앞선 당대 묘비 규정에 따르면 “5품 이상의 인물은 귀부, 7품 이상의 인물은 방부를 사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각주 8). 그러나 실제로는 5품 이상에 해당하는 여러 인물의 묘비, 심지어 능비에도 방부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당 능묘비를 신라와 비교하는 데 있고, 현존하는 신라 능묘비 비부는 모두 귀부이므로 여기에서는 귀부만 다루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 능묘비 귀부는 이전 시기인 동한, 남조, 북조의 각 양식이 한데 섞인 양상이다. 따라서 당 능묘비의 귀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 귀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각 시기의 귀부를 ① 귀두(龜頭), ② 네 다리, ③ 귀갑(龜甲), ④ 귀갑 내부 문양, ⑤ 비좌의 속성별로 설명한 다음 당대 귀부의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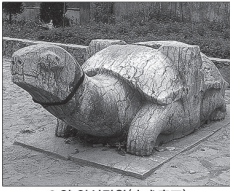
중국의 귀부는 동한 시기에 등장하였다. 동한 귀부는 변민비가 대표적이다. 이는 ① 귀두가 상당히 짧은 편이다. ② 네 다리는 접은 채 귀갑의 아래에 위치한다. ③ 귀갑은 종단면 반원형에 가깝다. ④ 귀갑 내부 문양은 잘 보이지 않는 데 마멸이 심한 탓일 수 있다. ⑤ 비좌는 귀부의 너비와 일치하며 귀부를 좌우로 관통하여 귀부는 앞뒤로 양분된다.

남북조시대의 경우 남조 양의 황제릉, 황족묘에 설치된 신도비(神道碑) 귀부가 유명하다. 이들은 ① 귀두를 길게 뻗은 채 눈이 돌출되어 있다. ② 네 다리 중 앞다리는 전면으로 호상(弧狀)을 이루며 그 끝은 귀갑의 바깥에 위치한다. 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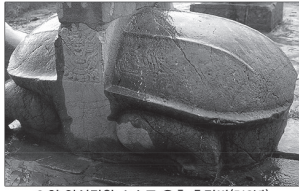
19 陕西省考古研究所 外, 2004, 『唐新城长公主墓发掘报告』, 田野考古报告 27, 北京: 科学出版社, 6쪽.



1. 동한 변민(樊敏)비(205년)



2. 양 안성강왕(安成康王) 소수(蕭秀)묘 좌측 전면비(5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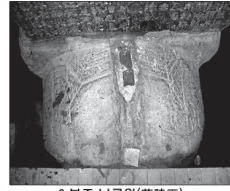
3. 양 안성강왕 소수묘 우측 후면비(518년)



4. 북제(北齊) 고중황산(古中皇山)비 (550~559년)



5. 북주 서악화산신묘(西嶽華山神廟)비(567년)



6. 북주 난릉왕(南陵王) 고숙(高肅)묘비(573년)

그림 2 동한~남북조시대 (능묘)비의 귀부

리는 동한 시기의 것과 마찬가지로 접은 채 귀갑의 아래에 위치한다. ③ 귀갑은 종단면 반원형에 가까우며 중앙·좌·우에 3조의 등줄기 선이 표현되어 있다. ④ 귀갑 내부 문양은 마멸이 심한 탓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4종의 장육각형을 너비 방향으로 평행하게, 길이 방향으로 엇갈리게 배치한 안성강왕 소수묘의 사례가 있다. ⑤ 비좌는 동한과 마찬가지로 귀부의 너비와 일치하며 귀부를 앞뒤로 양분한다. 또 비좌의 전·후면에 당초문(唐草文)이, 측면에 귀문(鬼文)이 표현되기도 한다. 역시 안성강왕 소수묘에서 관찰된다.

북조비 귀부는 북주 난릉왕 고숙묘비 등이 있으나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그러므로 능묘비는 아니나 북제 고중황산비, 북주 서악화산신묘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① 귀두가 육상동물의 머리로 표현된다. ② 네 다리도 마치 육상동물의 다리와 같이 아래로 뻗어 있다. ③ 귀갑은 종단면 반원형과 ‘-’자로 평평한 형태가 있다. ④ 귀갑 내부 문양은 북주 난릉왕 고숙묘비에서 관찰할 수 있다. 4종의 세장한 육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는데 측면부는 귀갑의 길이 방향과 육각형의 장축이 평행하게, 중앙부는 길이 방향과 장축이 직교하도록 배치



1.도인선사(道因法師)비(663년)



2.1.신성장공주묘비(663년)



3.위청묘비(6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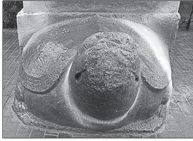
4.1.위귀묘비(666년)



5.기국선비 육씨묘비(667년)



6.이적묘비(6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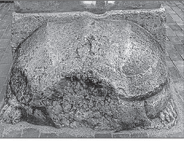
7.1.양국장공주묘비(724년)



8.1.식국장공주묘비(725년)



9.1.대국장공주묘비(734년)



10.금선장공주묘비(7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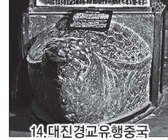
11.다보탑감응(多寶塔感應)비(752년)



12.삼분기(三墳記)비(767년)



13.안씨가묘(顏氏家廟)비(780년)



14.대진경교유행중국(大秦景教流行中國)비(7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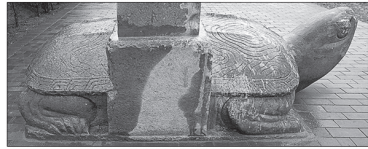
15.불공화상(不空和尚)비(781년)



16.양수검(梁守謙)공덕비(8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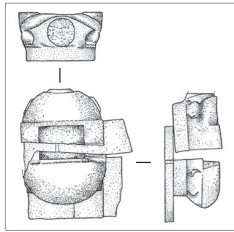
7.2.양국장공주묘비 측면



8.2.식국장공주묘비 측면



9.2.대국장공주묘비 측면



2.2.신성장공주묘비 실측도



4.2.위귀묘비 실측도



그림 3 당 (능묘)비의 귀부

된다. ⑤ 비좌는 동한, 남조와 마찬가지로 귀부의 너비와 일치하며 귀부를 앞뒤로 양분한다.

당 능묘비 귀부는 배장묘에 상당수가 있으나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따라서 능묘비가 아니더라도 서안비림박물관 소장 당비의 귀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3) 참조). ① 귀두는 동한의 짧은 형태, 남조의 길게 뺀 채 눈이 돌출된 형태, 북조의 육상동물과 같은 것이 모두 관찰된다. ② 네 다리는 모두 동한 귀부와 같이 접은 채 귀갑의 아래에 위치한다. ③ 귀갑은 남조의 종단면 반원형에 중앙·좌·우에 3조의 등줄기 선이 표현된 것, 북조의 ‘一’자로 평평한 것이 관찰된다. 또 종단면 반원형에 중앙에만 등줄기 선이 표현된 것, 정부(頂部)에서는 평평하다가 양 측면에서 급격하게 꺾이는 ‘ㄷ’자 형태가 새롭게 관찰되기도 한다. ④ 귀갑 내부 문양은 남조의 4중 장육각형을 너비 방향으로 평행하게, 길이 방향으로 엇갈리게 배치한 방식과 북조의 측면부는 귀갑의 길이 방향과 육각형의 장축이 평행하게, 중앙부는 길이 방향과 장축이 직교하도록 배치한 것이 모두 확인된다. 다만 북조의 귀갑 배치방식은 당대에 이르러 안씨가묘비의 사례와 같이 육각형이 부정형에 가까워진다. 또 새로운 문양이 관찰되기도 한다. 식국장공주묘비, 대국장공주묘비 등의 귀부 내부 문양은 5~7중의 ‘亞’자 문양 단위를 너비 방향으로 엇갈리게,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하였다. 또 당 능묘비 귀부의 상당수는 귀갑의 가장자리에 별도의 외대(外帶)를 구획하고 3~4중의 ‘ㄱ’자 문양 단위를 배열하였다. ⑤ 비좌는 동한, 남조, 북조에서 그러했듯이 귀부의 너비와 일치하며 귀부를 앞뒤로 양분한다.

4) 배치방식

중국 능묘비의 배치방식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첫째, ‘묘비’로 “봉토의 전방에서 전면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비가 출현한 동한 이래 북조의 묘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둘째, ‘신도비’인데 남조에서 새롭게 출현한 개념이다. “신도의 양측에 한 쌍의 비가 서로를 마주 보는 것”을 가리킨다. 역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의 묘비는 묘비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 한편 능비는

묘비와 신도비의 개념이 섞여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남조 양 능묘 신도비의 배치방식 또한 함께 다루어보고자 한다(〈그림 4〉 참조).

남조 양의 신도석각(神道石刻)은 석기린(石麒麟), 화표석(華表石), 신도비가 있다. 문제 소순지 건릉의 경우 석초(石礎)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특수한 사례이다. 여하튼 이들의 배치는 대체로 석기린이 최전방에, 신도비가 최후방에 배치된다. 또 이들은 1쌍씩 설치되어 모두 신도 양측에서 서로를 마주 보도록 배치된다. 즉, 신도비의 개념이 명확히 지켜진 셈이다.

당 묘비는 상술하였듯이 ‘묘비’의 배치 개념이 적용되었다. 다만 관검석인상(冠劍石人象), 석호(石虎) 등 여타 신도석각이 함께 배치되는 사례도 있다. 이때 묘비는 신도의 최전방 중앙에서 전면을 바라보는 한편 여타 석각들은 후방의 봉토 인근, 신도의 양측에서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된다.

반면 능비는 누차 언급하였다시피 공릉 예덕기비, 건릉 술성기비, 건릉 무자비로 단 3기만 현존하고 있으나 이미 파괴된 순릉 순릉비, 정릉 무자비 또한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공릉 예덕기비는 신도석각 중 동쪽 1번~2번 관검석인상의 중간지점에 배치되어 있다. 또 공릉의 여타 신도석각은 동·서로 배치되어 서로를 마주 보는 한편 예덕기비는 홀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건릉의 술성기비와 무자비는 신도에서 문궐(門闕)과 관검석인상의 사이, 즉 신도의 최후방에 배치되어 있다. 또 신도 중앙으로부터 서쪽에는 술성기비, 동쪽에는 무자비가 위치한다. 두 능비 모두 전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술성기비는 고종을 기리기 위해 684년에 건립된 반면 무자비는 무척천을 기리기 위해 8세기 초에 건립된 것이다.²⁰ 당 건릉은 두 명의 황제가 매장된 특수한 황제릉으로 고종 사망 이후이자 무척천 사망 이전인 7세기 말의 건릉에는 신도 서쪽에 술성기비만 건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순릉비는 본래 능역 내 ‘비탑사(碑塔寺)’에 건립되어 있었다. 이곳은 내성(內

20 유향양·추교순, 2012, 앞의 책, 108~1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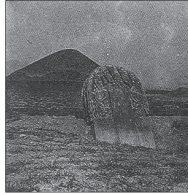


1. 양 문제(文帝) 소순지(蕭順之) 건릉(建陵)(4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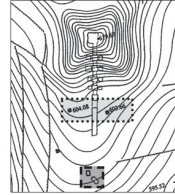
2. 양 임천정혜왕(臨川靖惠王) 소광(蕭宏)묘(526년)



3. 당 위징묘(6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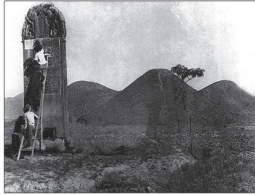
4. 당 을지경덕묘(65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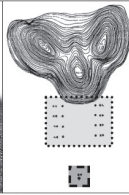
5. 당 신성장공주묘(6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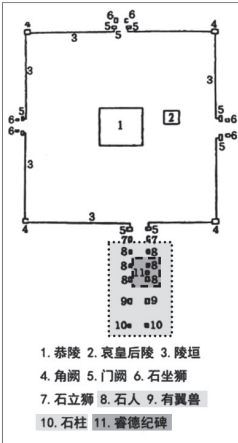
6. 당 위귀비묘(666년)



7. 당 이척묘(669년 사망, 677년 묘비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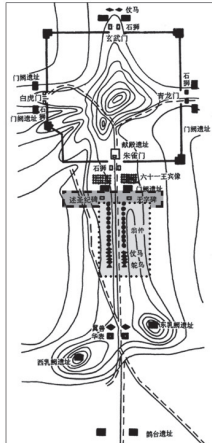


8. 당 식국장공주묘(7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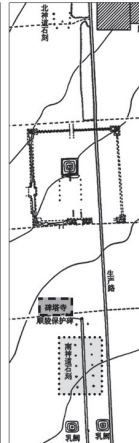


- 1. 恭陵 2. 哀皇后陵 3. 陵垣
- 4. 角闕 5. 門闕 6. 石坐獅
- 7. 石立獅 8. 石人 9. 有翼兽
- 10. 石柱 11. 睿德紀碑

9. 당 황태자 이흥 공릉(675년)



10. 당 고종 및 무숙천 건릉 (684년~8세기 초)



11. 당 효명고황후 순릉 (670년 사망, 702년 능비 건립)



12. 당 중종 정릉(710년)

그림 4 남조 양, 당 능묘비의 배치방식

城) 남문궐(南門闕)로부터 남쪽으로 241m 떨어진 지점이다.²¹ 능원 분포도에 표시된 비탑사의 위치로 보아 순릉비는 신도의 최후방입과 동시에 신도 중앙으로부터 서쪽에 배치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정릉 무자비는 상술했던 서북에 술문물고찰단의 1943년 신도석각 분포도에 의하면 문궐과 관검석인상 사이, 즉 신도의 최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 이 비는 신도 중앙으로부터 서쪽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건릉 술성기비, 순릉 순릉비의 배치방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 능비의 배치방식은 언급하였듯이 남조 양 능묘비와 당 묘비의 배치방식이 섞여 있다. 신도 최후방 및 측면에 배치된 점은 양 능묘비의 배치방식과 유사하나 전면을 바라보는 점은 당 묘비와 유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Ⅲ. 당-신라 능묘비의 비교와 그 의미

신라 능묘비는 현재 5기가 남아 있다. ① 태종무열왕릉비, ② 문무왕릉비(문무왕릉비편과 사천왕사지 서귀부),²² ③ 김인문묘비(비편과 서악동 귀부),²³ ④ 성덕왕릉비, ⑤ 흥덕왕릉비이다. 또 능묘비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비가 몇 있다. ⑥ 사천왕사지 동귀부는 신문왕릉비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으며²⁴ 이 비가 신문왕

21 陕西省考古研究院·顺陵文物管理所, 2017, 『唐顺陵』, 田野考古报告 72, 北京: 文物出版社, 13쪽.

22 洪思俊, 1962, 「新羅 文武王陵 斷碑」 追記, 『고고미술』 26, 한국미술사학회, 287~288쪽.

23 전(傳)김인문묘와 서악동 귀부가 김인문의 무덤 및 묘비인가에 관한 문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중 전칭명(傳稱名)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이 무덤을 김유신묘로 비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전김유신묘를 9세기 중엽 경에 개수된 김유신묘로 보고 있다. 즉, 전김유신묘가 김유신묘라면 전김인문묘 역시 김인문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김인문묘와 서악동 귀부를 김인문묘 및 그의 묘비로 판단하고자 한다.

24 黃壽永, 1976a, 「金石文의 新例」, 『한국학보』 5, 일지사, 26~27쪽; 정현숙,

릉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무왕릉비와 한 쌍을 이루어 건립된 점, 거의 같은 크기 및 형태로 조성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능묘비일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²⁵ 또 ⑦, ⑧ 전황복사지의 동·서귀부도 이 사찰이 종묘성령선원가람(宗廟聖靈禪院伽藍)인 점, 사찰에 능묘비를 건립한 사천왕사지의 사례로 보아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능묘비일 가능성이 있다.²⁶ 그리고 최근에 판독된 ⑨ 공순아찬신도비(恭順阿滄神道碑), 즉 옛 찬지비(滄之碑) 역시 묘비로 이해될 수 있다.²⁷ 이상 9기

2019, 「신라 사천왕사지 출토 비편의 새로운 이해 -다섯 비편은 ‘신문왕릉비’다-」, 『목간과 문자』 22, 한국목간학회, 209~215쪽.

- 25 사천왕사지 동귀부를 신문왕릉비로 보는 연구자들은 ‘차임진(次壬辰)’명 비편과 ‘명왈(銘曰)’명 비편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임진년은 692년으로 신문왕이 사망한 해이며, ‘명왈’은 능묘주의 덕을 칭송하는 명사(銘辭)의 시작으로서 문무왕릉비에서도 같은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이다(黃壽永, 1976a, 26쪽; 정현숙, 2019, 209~213쪽).

다만 신문왕릉은 남산의 동쪽에 장사지냈으므로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第8, 神王王, “十二年(692) … 葬狼山東.” 이에 상당수는 신문왕릉을 전진평왕릉으로 비정한다(이근직, 2012, 256~264쪽 등). 즉, 사천왕사지 동귀부가 신문왕릉비라면 이 비가 신문왕릉 능역 또는 신문왕의 원찰(願刹)인 전황복사지에 건립되지 않은 셈이 되어 어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차임진’명 비편과 ‘명왈’명 비편은 능묘비의 문장 구성이라 판단함이 마땅해 보인다. 즉, 사천왕사지 동귀부는 ‘692년에 사망한 문무왕과 격이 비슷한 인물’을 위한 비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문무왕비인 ‘자의왕후(慈儀王后)’를 주목해보고 싶다. 그녀의 물년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자의왕후와 문무왕은 그의 즉위(661년) 이전에 혼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문무왕이 사망한 681년 그의 나이는 56세이므로(이영호, 2014, 46~47쪽), 그녀가 692년에 사망하였다 해도 그리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녀의 능비가 건립되었다면 그 위치는 남편인 문무왕릉비와 한 쌍을 이룸에 어색함이 없고 능비의 크기 및 형태 역시 문무왕릉비와 동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천왕사지 동귀부가 신문왕릉비가 아니라면 692년에 사망한 자의왕후의 능비일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 26 朱甫暉, 2012, 「통일신라(陵)墓碑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 9, 한국목간학회, 55쪽.
- 27 박홍국, 2022, 「새로 발견된 신라 恭順阿滄碑片의 조사와 碑文 書者」, 『영남학』 8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퇴계연구소, 9~22쪽; 李泳鎬, 2022, 「신라 아찬 金恭順 神道碑片 검토」, 『영남학』 8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퇴계연구소, 39~46쪽.

의 능묘비 중 이번 절에서는 7세기 후반의 능묘비 4기를, 다음 절에서는 8~9세기의 능묘비 5기를 당 능묘비와 비교하고 각각의 의미를 추론해보겠다.

1. 7세기 후반의 능묘비

7세기 후반 신라의 능묘비는 태종무열왕릉비, 문무왕릉비(비편과 사천왕사지 서귀부), 사천왕사지 동귀부, 김인문묘비(비편과 서악동 귀부)의 4기가 있다. 각각의 건립연대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대체로 7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이들을 앞 장의 당 능묘비와 마찬가지로 1) 비수, 2) 비신, 3) 비부, 4) 배치방식의 순으로 살펴보겠다.

1) 비수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의 비수는 현재 태종무열왕릉비만 완전하며 나머지는 모두 멸실되었다. 그런데 광복 이후 사천왕사지 부근의 민가에서 이수편 1점이 발견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10여 년 전에 실시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동·서귀부 인근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이수 소편이 몇 점 출토된 바 있다. 이들은 출토 지점을 통해 어느 귀부의 것인가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나,²⁸ 같은 귀부의 것이라 여겨지는 이수편들 간 색조와 세부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관찰되고 두 귀부의 거리가 32.7m로 비교적 가까우며 이수편들이 각 비각(碑閣) 내부의 안정된 문화층에서 출토된 것이 아닌 후대 건물지 또는 그와 관련된 유구에서 출토된 점을 보았을 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 이수편이 어느 귀부에 해당하였는가의 판단은 유보한 채 A~D의 부호로만 매겨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7세기 후반은 앞

28 洪思俊, 1962, 앞의 글, 288~289쪽;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四天王寺Ⅲ -回廊外廓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연구총서 86, 319~322, 403~404쪽; 국립경주박물관, 2022,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 도록, 68~69쪽.

선 후춘보에 의한 당 묘비 육이하수의 변천안에 따랐을 때 ‘전기’에 해당한다(〈표 1〉 참조).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지적되어왔듯이 태종무열왕릉비 이수의 전반적인 형태는 당 묘비의 ‘육이하수’와 유사하다. 또 사천왕사지 이수편 A는 현재 좌측 2마리 교룡만 완연하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나머지 1마리의 일부가 확인되므로 역시 육이하수이다. 사천왕사지 이수편 B~D는 소편으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다른 능묘비가 모두 육이하수이므로 역시 육이하수일 가능성이 크다(〈그림 5〉 참조).^{29,30}

다음으로 세부 표현방식을 비교해보자. 당 묘비 육이하수와 마찬가지로 ① 목, ② 등지느러미, ③ 꼬리, ④ 뒷다리, ⑤ 보주, ⑥ 양다리의 교차, ⑦ 교룡의 얽힘, ⑧ 좌우 교룡의 선후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태종무열왕릉비 육이하수의 ① 목은 아래로 곧게 향한다. ② 등지느러미는 거치문이 순방향으로 진행된다. ③ 꼬리는 다른 개체의 앞다리 정강이 위에서 바깥쪽으로 나간 뒤, 정강이 아래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앞다리와 제액의 사이에서 ‘C’자형을 이루며 마무리된다. ④ 발끝은 균형 제액의 양 사변에 붙은 채 보주를 받치고 있다. ⑤ 보주는 화염 표현이 없는 단순 원형보주이다. ⑥ 제액의 양측에서 좌우 교룡의 다리가 교차하나 두 발은 서로 등지고 있다. ⑦ 교룡의 얽힘이 4조로 구성된다. ⑧ (관찰자 시점에서) 우측 교룡이 좌측 교룡

29 <그림 5>에 표시된 화살표(→)에서 화살표 머리(▶)는 교룡의 머리 방향을, 화살표 꼬리(—)는 교룡의 꼬리 방향을 가리킨다.

30 Ⅲ장 1절의 <그림 5, 6, 7, 8, 9>에 수록된 도면 및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洪思俊, 1962, 288쪽; 朴日薰, 1968, 285쪽; 齋藤忠, 1973, 197쪽, 필자 편집; 陝西省考古研究所 外, 2004, 6쪽; 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3b, 17~19쪽, 필자 편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83쪽; 陝西省考古研究院·昭陵博物館, 2017, 12쪽; 경주시·대경건축사사무소, 2019a, 4~5쪽; 경주시·대경건축사사무소, 2019b, 10쪽;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109쪽; 국립경주박물관, 2022, 68~69·73쪽; 박천수·임영재 제공 2017년 답사 사진; 필자 촬영 2022년 답사 사진;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한국금석문 검색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검색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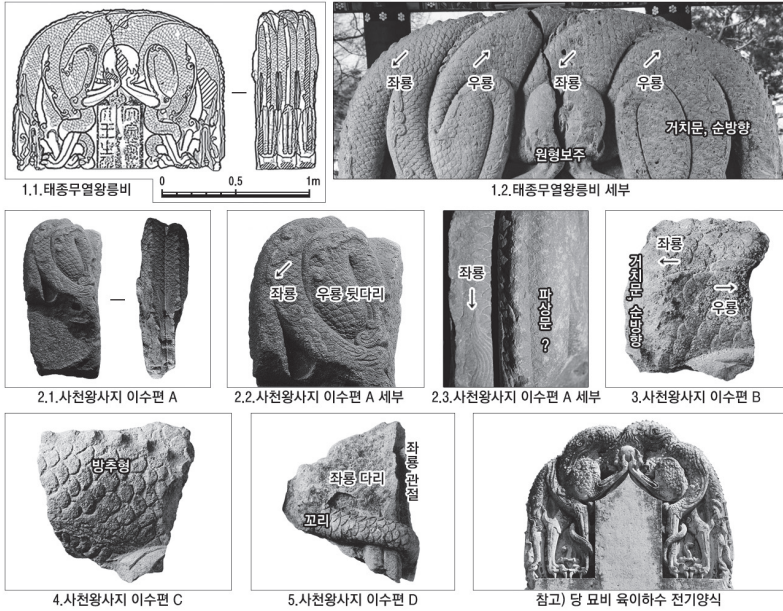


그림 5 신라 7세기 후반 능묘비의 비수

보다 앞에 위치하여 우측 교룡의 뒷다리는 몸체에서 그대로 뺀어 보주를 받치는 한편 좌측 교룡의 뒷다리는 우측 교룡의 앞다리 거드랑이에서 별도로 빠져나와 보주를 받치고 있다. 즉, ① 목, ④ 뒷다리, ⑦ 교룡의 엽힘, ⑧ 좌우 교룡의 선후 관계는 당과 유사하지만 ② 등지느러미, ③ 꼬리, ⑤ 보주, ⑥ 양다리의 교차는 상이하다.

둘째, 사천왕사지 이수편 A는 전면(또는 후면)³¹ 좌측의 1/3가량만 잔존하고

31 전면과 후면은 동일한 표현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⑧ 좌우 교룡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때 비수의 전면의 (관찰자 시점에서) 좌측 교룡이 앞에 위치하면 후면 역시 좌측 교룡이 앞에 위치하는 등이다. 즉, 전·후면 여부에 따른 좌우 반전의 문제가 없으므로 전면과 후면이 굳이 구분되지 않아도 분석에 문제가 없다.

있어 ② 등지느러미, ⑧ 좌우 교룡의 선후관계만 관찰할 수 있다. ② 등지느러미는 말단부가 마멸되었으나 잔존 부분이 이미 높은 점으로 보아 현상에서 거의 그대로 마무리되는 파상문(波狀文)이라 짐작된다. ⑧ 좌측 교룡이 우측 교룡보다 앞에 위치하여 우측 교룡의 뒷다리는 좌측 교룡의 앞다리 겨드랑이에서 별도로 빠져나와 있다. 즉, 두 속성 모두 당과 상이하다.

셋째, 사천왕사지 이수편 B는 교룡의 동체부이다. 전면(또는 후면) 상단부의 좌우 교룡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판단된다. ② 등지느러미만 관찰할 수 있는데 거저문이 순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당과 상이하다.

넷째, 사천왕사지 이수편 C는 교룡의 동체부이다. 등지느러미를 기준으로 비늘의 진행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시 전면(또는 후면) 상단부의 좌우 교룡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판단된다. 이 또한 ② 등지느러미만 관찰할 수 있는데 각 단위가 방추형이다. 즉, 당과 상이하다.

다섯째, 사천왕사지 이수편 D는 관절의 방향으로 보아 좌측 교룡의 다리와 이를 감고 있는 꼬리이다. ③ 꼬리만 관찰할 수 있는데 해당 편이 비수의 좌측 또는 우측인가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 비수의 좌측일 경우 좌측 교룡의 앞다리와 우측 교룡의 꼬리이다. 꼬리가 다른 개체의 앞다리 정강이 위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셈이다. 이때는 당과 유사하다. 반대로 비수의 우측일 경우 좌측 교룡의 뒷다리와 꼬리이다. 꼬리가 같은 개체의 뒷다리를 감고 있는 셈이다. 이때는 당과 상이하다.

7세기 후반 당-신라 능묘비 비수의 전반적인 형태가 유사한 점은 당시 신라인들이 당에서 묘비 건립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점, 비수 형태가 육이하수라는 점을 분명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당 묘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즉, 신라가 당 묘비 육이하수를 자발적으로 모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방의 과정은 어떠하였을까. 첫째, 당인 석공이 신라에 도래하여 조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731년 돌궐의 쾰테긴(闕特勤)이 사망하자 당에서는 공인 6명을 파견하여 묘비 등의 조성에 참여시킨 바 있다.³² 7세기

후반의 신라에서도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당 묘비를 모사한 그림, 탁본 등의 2차 자료가 어떠한 경위로 신라에 전해졌고 신라인 석공이 이를 참고하여 조각하였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648년 김춘추 등이 입당하여 온탕비(溫湯碑)와 진사비(晉祠碑)를 받아 온 바 있어³³ 이러한 맥락에서 2차 자료가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중 비신의 형태를 비교하였을 때 후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한다. 전자의 예시로 든 켈테긴비는 육이하수와 귀부로 구성된 비로서 각 속성의 세부 표현방식은 당 능묘비와 일치한다.³⁴ 그러나 신라 능묘비 육이하수의 세부 표현 방식은 당과 상이하다. 즉, 당인 석공이 신라 능묘비의 건립에 참여하였다면 세부 표현방식까지 모두 당의 육이하수 형태로 조각하였을 것인데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의 방식은 개연성이 떨어져 보인다.

한편 육이하수의 세부 표현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일까. 신라에 능묘비 문화가 처음 수용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태 규범이 없어 다양한 표현이 시도된 결과라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또 다양한 표현이 시도되었다는 점은 모방의 선택지가 다양하였다고 치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 묘비의 육이하수는 형태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었다. 즉, 당의 것만 모방하였다면 선택지는 단 하나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아마 남북조시대의 비, 특히 북조비 이수에 대한 2차 자료가 신라에 전해져 있었고 이를 신라 석공이 참고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비의 서체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양적성비를 비롯한 6세기대 신

32 『新唐書』卷215「列傳」第140, 突厥, “十九年(731), 闕特勒死, 使金吾將軍張去逸·都官郎中呂向奉璽詔弔祭, 帝爲刻辭于碑, 仍立廟像, 四垣圖戰陣狀, 詔高手工六人往, 繪寫精肖, 其國以爲未嘗有, 默棘連視之, 必悲梗.”

33 『三國史記』卷5「新羅本紀」第5, 眞德王, “二年(648) … 遣伊浪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 春秋請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

3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외, 2008, 『돌에 새긴 유목민의 삶과 꿈 -몽골의 암각화·시슴돌·비문 탁본-』, 222~227쪽.

라비 비문에서는 북위(北魏)의 서풍이 관찰된다고 하며 태종무열왕릉비를 비롯한 7~10세기 신라비 제액의 전서체(篆書體)는 수·당보다 북위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한다.³⁵ 즉, 7세기 후반 이전의 신라에 이미 북조비 2차 자료가 전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북조비 이수는 당 육이하수에 비해 정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즉, 이수라는 전반적인 형태는 공통되나 신라와 같이 세부 표현방식은 다양하였다는 것이다. 양자 간의 면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아쉽게도 필자는 북조비 중 신라 능묘비 육이하수와 세부 표현방식에서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망실된 북조비 중 이들과 일치하는 이수가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2) 비신

앞선 당 능묘비 비신 형태의 특징에서는 크기 및 비좌와의 결구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신라 능묘비의 비신은 모두 파괴되어 완전한 것이 없다. 문무왕릉비편과 김인문묘비편만 그 형태를 겨우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파괴되어 높이를 알 수 없을지라도 너비와 두께를 통해 그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다. 비신의 높이-너비-두께는 정확한 함수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나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신라 능묘비의 너비와 두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이수를 통해서이다. 당 능묘비의 형태를 참고하였을 때 이수의 너비와 두께는 비신까지 거의 그대로 내려온다. 즉, 이수의 너비, 두께는 비신의 너비와 두께라 보아도 무방하다. 태종무열왕릉비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비편을 통해서이다. 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문무왕릉비편과 김인문묘비편은 비록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하단부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너비와 두께를 계측할 수 있다. 그리고 비

35 정병모, 2000, 앞의 글, 136~140쪽; 진복규, 2007, 앞의 글, 127~139쪽; 정현숙, 2008, 앞의 글, 201~209쪽.

신-비좌의 결구방식은 문무왕릉비편과 김인문묘비편의 경우 하단부의 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능묘비의 경우에는 귀부의 비좌 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크기를 비교해보면, 태종무열왕릉비 이수는 너비 141.2cm, 두께 43.8cm이다.³⁶ 문무왕릉비편은 너비 94cm, 두께 24.5cm이다. 한편 문무왕릉비(사천왕사지 서귀부) 비좌 홈은 너비 90cm, 두께 20cm인데 사천왕사지 동귀부 역시 이와 거의 일치한다.³⁷ 그러므로 두 비의 크기는 거의 같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인문묘비편은 너비 94.5cm, 추정 두께 약 27cm이다.³⁸

앞서 보았듯이 당 소릉 배장묘비에서 비신의 크기 차이는 묘주의 업적·지위에 따른 차등을 반영한다. <표 2> 그런데 신라에서는 태종무열왕릉비가 유달리 큰 한편 다른 3기의 능묘비는 비슷하면서도 이들은 다시 추정을 포함한 능비 2기, 묘비 1기로 구별된다. 즉, 7세기 후반 신라에서의 비신 크기는 능비끼리 비슷한 것도 아니고 능비와 묘비가 차등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에서 관찰되는 비신의 크기 차이는 능묘주의 업적·지위와는 무관해 보인다.

그렇다면 비신의 크기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상이 아닐까 한다. 7세기 후반에 건립된 4기의 능묘비는 대체로 해당 인물의 몰년에서 약간 늦은 시점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태종무열왕릉비는 661년 직후, 문무왕릉비는 681년 직후, 김인문묘비는 694년 직후인 셈이다. 사천왕사지 동귀부의 경우 귀부의 형태로 보아 문무왕릉비와 가까운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즉, 대형인 태종무열왕릉비는 다른 능묘비에 비해 20년 정도 이르게 건립된 반면 소형인 3기의 능묘비는 이에 후행하며 비교적 조밀한 시간대에 건립

36 경주시·대경건축사사무소, 2019b,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95~96쪽.

37 洪思俊, 1962, 앞의 글, 288쪽.

38 朴日薰, 1968, 「金庾信墓와 金仁問墓」, 『고고미술』 100, 한국미술사학회, 485쪽.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술하겠으나 7세기 후엽~8세기 전엽에 건립된 전 황복사지 동·서귀부의 비신은 780~790년대에 조영된 3기의 능묘비 보다 더 작다. 즉, 7세기 중엽~8세기 전엽의 신라 능묘비는 점차 소형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같은 시기 왕릉의 봉토 규모가 작아지는 현상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태종무열왕릉의 봉토 직경은 36.6m, 효소왕릉으로 비정되는 전신문왕릉은 29.4m, 성덕왕릉은 14.7m인 점에서 그러하다.³⁹ 선대 왕보다 능묘비 및 봉토 규모를 작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듯하다.

한편 신라 최초의 능묘비인 태종무열왕릉비 비신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이 능비의 제반 요소들이 중국, 특히 당 능묘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인 만큼 크기 또한 그들을 모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태종무열왕릉비의 건립 시점인 660년대의 당에서는 능비의 건립 사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무열왕릉비는 당 묘비 중 최고 수준의 것을 따르거나 남조 양과 같은 전대 황제릉·황족묘의 비신 크기를 따른 듯하다. 언급하였듯이 당 소릉 배장묘비에 서 능연각훈신들의 묘비는 초대형이다. 그중 677년에 건립되어 늦은 이적묘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높이 385~442cm, 너비 125~150cm, 두께 42~53cm이다. 그리고 남조 양 황제릉·황족묘의 능묘비 중 완전한 것은 현재 5기인데 이들은 높이 410~445cm, 너비 140~160cm, 두께 31~34cm이다.⁴⁰ 태종무열왕릉비 이수(石首)는 너비 141.2cm, 두께 43.8cm이므로 두 시기의 능묘비와 유사해보인다. 즉 661년 직후의 신라에서는 당시 중국 최대 규모의 비에 필적하는 크기로 태종무열왕릉비를 조성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그의 업적과 ‘태종(太宗)’이라는 성군을 암시하는 묘호(廟號)의 제정과 깊은 관련이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비신-비좌의 결구방식을 비교해보겠다(〈그림 6〉 참조). 당 능묘비

39 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3a, 『I. 신라왕릉 현황조사보고서 [본문편]』, 37, 83, 199쪽.

40 南京博物院, 2006, 『南京陵墓雕刻艺术』, 北京: 文物出版社, 87, 105, 1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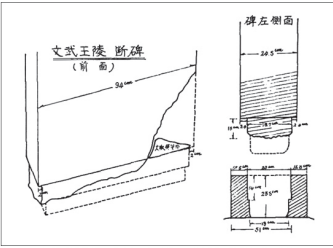
1. 태종무열왕릉비 비좌 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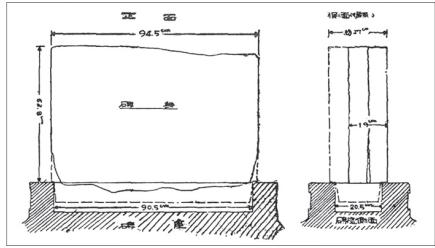
2.1. 문무왕릉비 비신 축



3.1. 김인문묘비 비신 축



2.2. 문무왕릉비 비신 축 - 사천왕사지 서귀부 비좌 홈의 결구 모식도



3.2. 김인문묘비 비신 축 - 서악동 귀부 비좌 홈의 결구 모식도

그림 6 신라 7세기 중·후엽 능묘비 비신-비좌의 결구방식

는 비신의 최하단에 축을 내고 비좌에는 축의 크기에 맞는 홈을 내어 결구하는 방식이다. <표 2>의 오른쪽, 신라 능묘비 또한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나 비신-비좌 축-홈의 형태에서 차이가 관찰된다. 신라 능묘비 비신-비좌의 축-홈은 능묘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매우 세장하여 비신 너비로부터 4~5cm 정도만 차이 나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비신 하단부가 남아 있는 문무왕릉비편, 김인문묘비편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여타 능묘비의 귀부 비좌 홈으로 유추해보아도 그러하다.

비신-비좌의 축-홈은 비가 건립 완료되었을 때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다. 즉, 그 형태는 왕실 등 수요층의 예술적·관념적 수요보다는 석공의 기술적 선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당-신라 능묘비 비신-비좌의 결구방식 차이는 양국 석공의 비 제작기법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신라 능묘비 비신-비좌의 결구방식은 6세기 후반에 건립된 진흥왕순수비에서도 확인된다(<그림 7> 참조). 마운령비는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을



1.마운령 진흥왕순수비



2.북한산 진흥왕순수비

그림 7 진흥왕순수비의 결구방식

보았을 때 비신의 양 끝단이 신라 능묘비와 유사하다. 북한산비의 경우 비수에서 그러한 방식이 관찰된다. 따라서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 비신-비좌의 결구방식은 당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전 시기 신라의 비 제작기법 전통이 계승된 것이다.

이는 또다시 신라의 당 능묘비 모방 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이수는 물론이며 세장한 직육면체 형태로 가공된 비신은 당 능묘비와 실로 유사해 보인다. 이러한 점이 만약 당인 석공이 신라에 도래하여 능묘비의 건립에 참여한 결과라면 결구방식 또한 당식(唐式)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능묘비에는 오히려 신라의 전통적인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는 곧 당인 석공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신라인 석공이 왕실 등 수요층의 요구에 따라 외형만 당의 것을 모방하였음을 보여준다.

3) 비부

현재까지 확인된 신라 능묘비 비부는 모두 ‘귀부’이다. 그런데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의 귀부 4기 중 태종무열왕릉비와 김인문묘비(서악동 귀부), 문무왕릉비(사천왕사지 서귀부)와 사천왕사지 동귀부는 서로 인접해 있으며 형태 또한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4기 중 태종무열왕릉비 귀부와 귀두가 남아 있는 사천왕사지 동귀부만 다루겠다. 당 능묘비 귀부와 마찬가지로 ① 귀두, ② 네 다리, ③ 귀갑, ④ 귀갑 내부 문양, ⑤ 비좌를 속성별로 설명하고자 하며 추가로 ⑥ 크기도 다루고자 한다(그림 8) 참조.

첫째, 태종무열왕릉비 귀부의 ① 귀두는 길게 뻗은 채 눈이 돌출되어 있다.



그림 8 신라 7세기 중·후엽 능묘비의 귀부와 비교

그런데 뾰족한 귀가 표현되어 육상동물의 그것과도 닮아 있다. 각 표현방식은 중국 남조, 북조, 당의 귀부에서 확인된다. 또 동심원문(同心圓文), 보상화문(寶相華文), 당초문 등을 주변부에 조식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② 네 다리는 모두 곧게 뻗고 있다. 따라서 네 다리의 말단은 귀갑의 바깥에 위치한다. 이 역시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③ 귀갑은 종단면 반원형이다. 이는 당에서 확인된다. 또 등줄기 선은 중앙에 1조만 표현되어 있는데 능형문(菱形文)을 약간씩 겹치도록 배열하였다. 이 또한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④ 귀갑 내부 문양은 4중의 장육각형을 너비 방향으로 평행하게, 길이 방향으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이는 남조, 당에서 확인된다. 또 귀갑 가장자리에 별도의 외대를 구획하고 내부에 운문(雲文)을 배열하였다. 외대의 구획은 당에서 확인되나 내부에 운문을 배열한 점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⑤ 비좌는 귀갑의 내부에 조성되어 있다. 중국 비의 비좌 및 비신 너비는 귀갑 너비와 일치하여 귀부를 좌우로 양분한다. 그러나 태종무열왕릉비의 귀갑 너비는 비좌의 너비보다 크다. 이는

앞선 비신의 크기로 보아 비신 및 비좌가 작아져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귀부가 커진 점 때문이다. 이는 당-신라 능묘비 귀부를 동일 축척으로 비교하였을 때 더욱 명확하다. 또 비좌의 둘레에는 복련(覆蓮)의 연화문(蓮華文)을 조식하였다. 즉, 비좌는 여타 속성보다도 중국 능묘비와 가장 다르다. ⑥ 태종무열왕릉비 귀부의 귀갑 길이·너비는 2.5m가량이다. 후술할 여타 귀부에 비해 크기가 큰 편이다.

둘째, 사천왕사지 동귀부의 ① 귀두는 길게 뻗은 채 눈이 돌출되어 있다. 이는 남조, 당에서 확인된다. 또 태종무열왕릉비와는 달리 주변부에 문양이 조식되지 않았다. 즉, 태종무열왕릉비보다 남조, 당과 더욱 유사해 보인다. ② 네 다리와 ③ 귀갑은 태종무열왕릉비와 유사하다. ④ 귀갑 내부 문양 또한 전반적으로 태종무열왕릉비와 유사하나 외대 내부에는 당초문을 배열하였다. ⑤ 비좌 역시 연화문의 세부 표현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태종무열왕릉비와 유사하다. ⑥ 크기는 태종무열왕릉비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 비를 비롯하여 문무왕릉비(사천왕사지 서귀부), 김인문묘비(서악동 귀부) 귀갑의 길이·너비는 2m 내외이다.⁴¹ 상술한 태종무열왕릉비와 세 능묘비 간의 비신 크기 차이와 상응한다.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 귀부가 중국 귀부를 모방하여 조각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유사한 점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귀갑 외대의 구획은 당에서 처음 관찰된다. 즉, 7세기 후반의 신라인들은 당시 기준 최신 자료인 당 귀부를 포함한 중국 귀부에 대한 형태를 2차 자료 등을 통해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신라 능묘비 귀부는 중국 귀부와 상이한 점이 더 많다. 이는 신라에서 당 능묘비 귀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변용을 시도한 것이라

4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앞의 책, 75, 83쪽; 경주시·대경건축사사무소, 2019a, 『경주 서악동 귀부 정밀실측조사보고서』, 83~90쪽; 경주시·대경건축사사무소, 2019b, 앞의 책, 87~96쪽; 심수연, 2019, 「경주지역 통일신라 귀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3쪽.

판단된다. 그런데 신라에서 비좌의 조성방식이 달라진 점은 설계단계부터 기존의 중국 귀부 도안에서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또 화려하게 조성된 문양들은 석공이 조각의 난도를 대폭 상승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귀부는 통돌로 제작되므로 이들이 대형화된 점은 석재의 채취, 운반에서 역시 난도를 대폭 상승시켰을 것이다. 즉, 신라 능묘비 귀부의 조각은 중국 귀부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왜 하필 비용이 많이 들도록 변용하여 귀부를 조각하였을까. 왕실 등 수요층의 특명이 있었던 듯하다. 시행자인 석공의 입장에서는 굳이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자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왕실 등이 이러한 특명을 내린 이유는 크고 화려하게 강조된 점에서 선조를 추앙하기 위한 과시의 측면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능묘비에 ‘왕즉불(王即佛) 사상’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귀부에 조각된 다양한 문양, 특히 비좌 주변에 두른 복련의 연화문 때문이다.

특정 조형물을 안치하기 위한 받침(座)에 복련의 연화문을 두른 ‘연화좌’는 신라의 불교 관련 제재에서 매우 흔한 편이다. 불상의 대좌, 석등의 하대석, 사리장엄구의 기반부 등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불상, 석등, 사리장엄구는 모두 부처를 표상하는 조형물이다. 즉, 신라에서 연화좌는 부처의 받침으로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라에서의 운문과 당초문은 와전, 토기 등에서 확인되는 등 비교적 널리 활용되었던 문양이나 역시 불교 관련 제재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불교에서의 해당 문양들은 불상의 광배나 면으로 구성된 조상의 주변부 여백 등에서 확인된다. 즉, 주변부 장식이 주된 활용처였던 것이다.

한편 능묘비의 비신에는 비문, 즉 성명, 세계(世系), 생애, 업적 등 능묘주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빼곡하게 기록된다. 능묘주를 글로써 표현하는 셈이다. 따라서 능묘비의 비문은 능묘주의 표상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신라 능묘비 비신을 받쳤던 비좌에는 복련의 연화문을 두르고 있어 불교의 연화좌와 같다. 또 이러한 비좌를 받치는 귀부의 귀갑 주변부에는 운문·당초문이 배열되어 있

어 이 또한 불교에서의 활용처와 같다. 이로 보아 신라 왕실에서는 능묘비의 귀부에 불교 관련 제재에서 부처를 표현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왕과 부처를 동일시하는 왕즉불 사상을 실물로 구현하여 이를 참배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길 원하였던 듯하다.⁴²

4) 배치방식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의 배치는 둘로 대별된다. 중국의 사례와 같이 봉토 전면에 배치된 태종무열왕릉비, 김인문묘비(서악동 귀부)와 사찰에 배치된 문무왕릉비(사천왕사지 서귀부)와 사천왕사지 동귀부이다. 이 중 후자의 배치방식은 사적비(寺蹟碑)나 탑비 등과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겠으나,⁴³ 능묘비의 비교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 글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제외하고자 한다(〈그림 9〉 참조).

태종무열왕릉과 김인문묘의 전면은 정동(正東)에서 남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다. 태종무열왕릉비는 봉토 중심으로부터 전면으로 69m 떨어진 지점에서 북

42 남동신(2005, 83~85쪽), 박광연(2013, 91~101쪽) 등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와 당대에 왕즉불 사상을 표방하였으나, 신라에서는 중고기 왕과 왕실이 전륜성왕 및 석가모니의 가계와 같음을 주장하였을 뿐 왕즉불 사상을 표방한 것이 아니며, 중대에 이르러는 그러한 인식이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술사학 및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신라 중대의 왕릉인 성덕왕릉에서 관찰되는 호석의 가구식(架構式) 구조, 십이지신장상(十二支神將像)의 부조, 난간석(欄干石)의 설치, 능체 네 모서리에 석사자상(石獅子像)의 배치는 '왕릉의 불탑 모방'이며, 이는 즉 '왕의 시신을 모신 능'을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신 탑'과 같은 형태로 꾸며 '왕즉불 사상을 구현'한 것이라 이해되고 있다(배노찬, 2021, 27쪽, 재인용).

이 중 필자의 논지는 후자의 견해에 입각한 것인데 만약 태종무열왕릉비에 왕즉불 사상을 구현하였다는 상기 견해가 타당하다면, 해당 왕릉부터 왕즉불 사상을 물질자료에 구현하기 시작하였다가, 이후 성덕왕릉에 이르러 그러한 양상이 발전 및 완성을 이루며 여타 능원석각에 옮겨가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43 박상준(朴相俊, 2002, 13~23쪽)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탑비 건립은 수·당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또 양은경(2020, 55쪽의 〈각주 57〉, 재인용)에 의하면 당 금주(金州)의 신라사(新羅寺)에서는 사찰 입구에서 2기의 비가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들과의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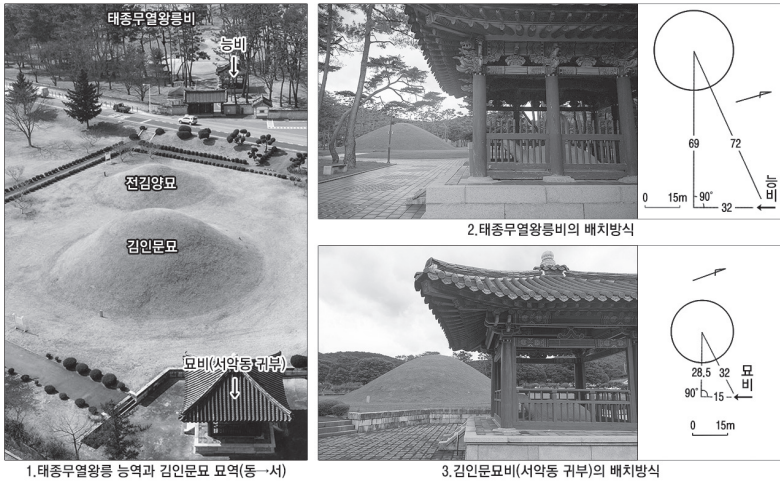


그림 9 태종무열왕릉비와 김인문묘비(서약동 귀부)의 배치방식

쪽으로 직교하여 32m 떨어져 있다. 참배객 기준 봉토 전면 우측이다. 귀부는 남향, 즉 배례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김인문묘비(서약동 귀부)는 봉토 중심으로 부터 전면으로 28.5m 떨어진 지점에서 북쪽으로 직교하여 15m 떨어져 있다. 역시 참배객 기준 봉토 전면 우측이다. 귀부 또한 남쪽인 배례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즉, 거리 차이를 제외하고는 배치방식이 같다.

두 능묘비의 배치방식은 역대 중국 능묘비와 유사한 점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 일치하는 것은 없다. 신도의 측면에 능묘비를 배치하는 것은 '신도비'의 특징으로 남조 양 능묘비와 당 능비에서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남조 양 능묘비는 신도 양측에 한 쌍의 비가 배치된 점, 당 능비는 모두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점, 공릉 예덕기비를 제외하고 모두 서쪽, 즉 참배객 기준 봉토 전면 좌측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와 다르다. 한편 당 능비 중 가장 이른 것은 675년의 공릉 예덕기비이다. 그런데 태종무열왕릉비는 무열왕의 몰년인 661년 인근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태종무열왕릉비의 배치방식과 이

를 답습한 김인문묘비(서악동귀부)의 배치방식은 당 능비의 배치방식과는 무관해 보인다. 따라서 두 능묘비의 배치방식은 남조 양 능묘비의 ‘신도비’ 배치방식에서 자체적인 변용이 가해진 결과라 판단된다.

상술하였듯이 7세기 후반 신라에서 능비를 건립하고자 하였을 당시에 당에서는 능비를 건립한 사례가 없었다. 한편 남북조시대의 중국에서는 왕의 작호를 받은 황족묘에 묘비를 건립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남조 양에서는 황족묘에 다수의 신도비를 건립하였다. 앞서 언급한 안성강왕 소수묘비가 대표적이다. 이들과 신라왕은 왕으로서 서로 격이 통하므로 신라에서는 이들의 배치방식을 참고하여 능묘비를 조성하였던 듯하다.

앞선 비수의 비교에서 신라 중고기의 비에서는 북조의 서풍이 관찰되는 점을 잠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 신라 중고기의 비 중 진흥왕순수비와 남산신성비에서 남조의 서풍도 감지된다고 한다.⁴⁴ 이로 보아 7세기 후반의 신라에는 남조비(南朝碑)에 대한 정보 또한 전해져 있었던 듯하다.

한편 남조 양 능묘비는 신도 양측에 한 쌍이 배치된다. 신라와는 분명 다른 점이다. 이는 북조와 당에서 능묘비를 하나만 배치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따라서 7세기 후엽 두 능묘비의 배치방식이 역대 중국 능묘비와 유사한 점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 일치하는 것이 없는 점은 신라에서 역대 중국 능묘비의 배치방식을 두루 참고하여 절충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2. 8~9세기의 능묘비

8~9세기 신라 능묘비는 전황복사지 동·서귀부, 성덕왕릉비, 공순아찬신도비, 흥덕왕릉비의 5기가 있다. 각각의 건립연대는 전황복사지 동·서귀부가 8세기 전엽,⁴⁵ 성덕왕릉비는 754년경으로 8세기 중엽,⁴⁶ 공순아찬신도비는 8세기 후

44 정병모, 2000, 앞의 글, 140~144쪽.

45 심수연, 2019, 앞의 글, 85~92쪽; 윤선태, 2022, 「비편으로 찾은 또 하나의 성전

엽,⁴⁷ 흥덕왕릉비는 9세기 후엽⁴⁸이다. 이들 또한 1) 비수, 2) 비신, 3) 비부, 4) 배치방식의 순으로 살펴보겠다.

1) 비수

8~9세기 신라 능묘비의 비수는 완전한 것이 없다. 공순아찬신도비 비수만 절반가량 잔존할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8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공순아찬신도비 비수만 살펴보겠다. 한편 8세기 후엽은 앞선 후춘보에 의한 당묘비 육이하수의 변천안에 따라왔을 때 ‘후기’에 해당한다(〈표 2〉 참조).

공순아찬신도비 비수의 전면 형태는 당 묘비의 ‘육이하수’와 유사하다. 측면은 필자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실견한 박흥국에 따르면 여섯 마리의 교룡이 얹혀 있는 형태이며 태종무열왕릉비 이수과 같은 양식이라고 한다.⁴⁹ 따라서 육이하수라 판단된다(〈그림 10〉 참조).⁵⁰



그림 10 공순아찬신도비의 비수

사원],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 도록, 국립경주박물관, 111쪽.

46 『三國史記』卷9「新羅本紀」9, 景德王, “十三年(754) … 五月, 立聖德王碑.”

47 박흥국, 2022, 앞의 글, 19~22쪽; 李泳鎬, 2022, 앞의 글, 56~62쪽.

48 李基東, 1975,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中世的 側近政治의 志向-」, 『역사학보』 77, 역사학회, 25~26쪽 및 〈각주 30〉.

49 박흥국, 2022, 앞의 글, 19~22, 33쪽.

50 Ⅲ장 2절의 〈그림 10, 11, 12, 13〉에 수록된 도면 및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齋藤忠, 1973, 197~198쪽, 필자 편집;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1985, 61쪽; 國立慶州博物館, 2002, 125쪽; 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3b,

다음으로 세부 표현방식을 비교해보자. 앞선 8가지 속성 중 ① 목, ③ 꼬리, ④ 뒷다리, ⑤ 보주, ⑥ 양다리의 교차, ⑧ 좌·우 교룡의 선후관계만 관찰할 수 있다. ① 목은 아래로 곧게 향한다. ③ 꼬리는 다른 개체의 앞다리 관절 위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뒤, 정강이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나온 다음, 교차한 두 다리의 사이에서 아래를 향하여 ‘S’자형을 이루며 마무리된다. ④ 뒷다리는 발끝이 규형 제액의 양 사변에 붙은 채 보주를 받치고 있다. ⑤ 보주는 마멸되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山’자형의 화염이 표현된 화염보주인 듯하다. ⑥ 제액의 양측에서 좌우 교룡의 양 다리가 교차하여 두 발은 서로 마주 본다. ⑧ 좌측 교룡이 우측 교룡보다 앞에 위치하여 우측 교룡의 뒷다리는 좌측 교룡의 앞다리 겨드랑이에서 별도로 빠져나와 보주를 받치고 있다.

언급하였듯이 공순아찬신도비가 건립된 8세기 후엽의 당 묘비에서는 후기 양식의 육이하수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 묘비의 육이하수 세부 표현방식은 오히려 전기양식과 닮아 있다. 또 꼬리의 경우 다리를 감는 방식에서 굽기가 상당히 아래를 향하여 곡선을 이루며 마무리된 점은 태종무열왕릉비와 유사하다. 한편 좌우 교룡의 선후관계는 당 전기양식, 태종무열왕릉비와 다르고 사천왕사지 이수편 A와 같다. 또 보주에 화염이 표현된 점은 7세기 후반 능묘비의 이수에서는 찾을 수 없으나 신라에서 보주 표현을 관찰할 수 있는 사례가 태종무열왕릉비 1기밖에 없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즉, 여타 능묘비에 그러한 표현이 이미 적용되었을 수도 있다.⁵¹

공순아찬신도비 육이하수의 세부 표현방식이 같은 시기 당에서 유행하던 육이하수 후기양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당에서 유행하던 최신 표현방식이 신라에 전해지지 못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술할 귀부의 형태를 살펴보면 당의 최신 표현방식이 신라에 전해진 점이 관찰된다. 그러므로 이 비의

188~189, 292~293쪽; 필자 촬영 2019~2022년 답사 사진.

51 664년경 부여 부소산성에 건립된 당 유인원기공비(劉仁願紀功碑)의 육이하수에는 보주에 화염의 표현이 확인된다. 이와도 관련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육이하수는 당의 최신 표현방식을 일부러 따르지 않았다 판단된다. 다만 8~9세기의 능묘비 비수가 현재 단 하나에 불과하여 이 시기의 전반적 양상이라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이 비는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 이수 of 세부 표현방식이 산견되기도 한다. 이로 보아 공순아찬신도비 이수는 기존 신라에 건립되었던 여러 능묘비의 세부 표현방식 각각을 참고하고 절충하여 조각된 듯하다.

2) 비신

8~9세기 신라 능묘비의 비신 역시 완전한 것이 없다. 출토된 비편 또한 모두 소편으로 문무왕릉비편 및 김인문묘비편과 같이 너비, 두께를 측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전황복사지 동·서귀부는 비좌 흡으로, 공순아찬신도비는 이수편과 비편으로 너비, 두께를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성덕왕릉비와 흥덕왕릉비는 현재로서는 비신의 정확한 크기를 추정할 수 없고 대략적인 크기만 가늠할 수 있다.

먼저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황복사지 동·서귀부는 비좌 흡의 크기가 너비 약 80~90cm, 두께 약 12~15cm로 추산된다고 한다.⁵² 공순아찬신도비는 이수편의 너비가 52cm이다.⁵³ 잔존 부분이 대략 절반이므로 원래 너비는 104cm 내외였을 것이며 비신 너비 역시 이와 거의 같을 것이다.⁵⁴ 비신의 두께는 약 26cm이다.⁵⁵ 성덕왕릉비와 흥덕왕릉비는 후술할 비신-비좌의 결구방식으로 인해 비좌받침의 크기만 알 수 있다. 성덕왕릉비 비좌받침은 장축 175cm, 단축

52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1985, 『新羅狼山遺蹟調査』, 고적조사보고 1, 19쪽.

53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 - 新羅人の記錄과 筆跡 -』, 특별전 도록, 125쪽.

54 박홍국(2022, 16쪽)은 비신 너비를 80cm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당 능묘비의 사례로 보아 육이하수의 경우 비수와 비신의 너비가 거의 같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비신 너비 역시 104cm 인근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55 黃壽永, 1976b, 『韓國金石遺文』(初版), 일지사, 70~71쪽; 박홍국, 2022, 앞의 글, 11쪽.

84.4cm, 흥덕왕릉비 비좌받침은 장축 202.2cm, 단축 85.4cm이다.⁵⁶

이들의 크기는 전황복사지 동·서귀부의 경우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에서 소형으로 분류된 문무왕릉비편, 김인문묘비편 등보다도 더 작다. 이는 상술하였듯이 신라 7세기 중엽~8세기 전엽의 능묘비 소형화 현상이라 판단된다.

한편 754년경에 건립된 성덕왕릉비와 그 이후의 흥덕왕릉비는 크기가 대폭 확대되었다. 비신의 크기는 비좌받침보다 다소 작았더라도 태종무열왕릉비를 능가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이로 보아 8세기 중엽부터의 능묘비는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던 듯하다. 두 능비는 후술할 비신-비좌의 결구방식, 귀부 등에서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이 다수 관찰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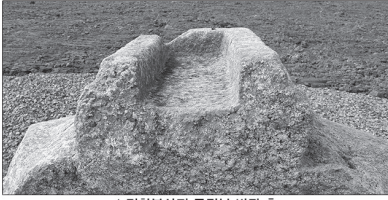
성덕왕릉비가 건립된 754년은 경덕왕대이다. 경덕왕은 수많은 불사(佛事)를 일으켰던 왕으로 유명하다. 그의 다양한 불사 중 대형 조형물의 조성은 특히 주목된다. 이는 여타 왕의 불사와 다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룡사 대웅, 분황사 약사여래, 봉덕사 성덕대왕신종의 주성(鑄成), 영묘사 장륙존상(丈六尊像)의 개금(改金) 당 대종(代宗)을 위한 만불상(萬佛山)의 제작이 있다.⁵⁷ 또 경덕왕은 여러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도 유명하다. 성덕왕릉비를 건립한 지 3년 뒤인 757년 3월에는 녹읍(祿邑)을 부활시키고 동년 12월에는 군현명(郡縣名)을, 759년 1~2월에는 관호(官號)를 개정하였다.⁵⁸

8세기 중엽 성덕왕릉비부터 시작된 능묘비의 대형화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대형 조형물을 자주 조성하였던 경덕왕은 성덕왕릉비 역시 이전 시기보다 대형으로 조각하길 바랐을 가능성이 크다. 또 성덕왕릉비부터 능묘비에 여러 변화가 관찰되는 점은 다양한 개혁을 추구하였던 경덕왕의 정치방

56 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3a, 앞의 책, 95~96, 129~130쪽.

57 郭丞勳, 2002, 『統一新羅時代の政治變動과 佛教』, 국학자료원, 31~43쪽.

58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第9, 景德王, 16年3月條, 16年12月條, 18年1~2月條.



1. 전황복사지 동귀부 비좌 홈



2. 성덕왕릉비 비좌받침



3. 흥덕왕릉비 비좌받침



4. 무장사지 아미타여래 조상비 비좌와 비좌받침

그림 11 신라 8~9세기 능묘비의 비신-비좌 결구방식

식과 닮아 있다. 즉, 경덕왕은 그의 정치방식과 같이 능묘비 형태, 특히 크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 또한 추구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는 공순아찬신도비의 크기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공순아찬신도비의 비신 크기는 선대왕인 문무왕릉비, 사후 태대각간으로 추존된 김인문묘비보다 더 크다. 묘주가 6관등인 아찬에 불과한데 선대의 최고위층보다 비를 더 크게 제작한 점은 상당히 어색해 보인다. 그러나 경덕왕대 능묘비의 크기가 대형으로 조정되었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신-비좌의 결구방식을 비교해보면, 〈그림 11〉 8~9세기 신라 능묘비에서는 두 가지 결구방식이 확인된다. 첫째, 매우 세장하여 비신 너비보다 약간 짧은 세장방향의 축-홈을 마련하는 기존의 방식이다. 비좌 홈의 관찰을 통해 전황복사지 동·서귀부가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좌를 별도로 제작하여 비신-비좌-비부로 결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성덕왕릉비와 흥덕왕릉비가 이에 해당한다. 두 능비의 비좌부는 현재 비좌를 엮을 공간을 평면 세장방향으로 마련한 뒤 그 주위에 높이 1cm 이내의 턱

을 내고 운문 또는 화문(花文)을 조식하였다. 선행연구 중 상당수는 이 위에 바로 비신을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⁵⁹ 만약 그러했다면 턱의 높이가 미미하여 도괴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801년경에 건립된 무장사 아미타여래 조상비 귀부는 두 능비와 유사한 비좌부 형태를 보이는데 이에는 초석(礎石) 역할을 하여 무게중심이 아래로 위치하도록 하면서 세장방향의 흠이 있는 비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또 신라비 귀부의 비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높아짐과 동시에 비좌 측면에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는 양상인 점⁶⁰을 참고하였을 때 두 능비의 비좌가 현존하는 것이 전부라면 전반적인 변천상에서 어색하다. 그러므로 성덕왕릉비와 흥덕왕릉비의 비좌는 별도로 제작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8~9세기 신라 능묘비 비신-비좌의 결구방식에서 전황복사지 동·서귀부의 경우 7세기 후반 능묘비와 같으므로 기존 신라의 제작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비신의 크기가 소형화된 점도 궤를 같이하므로 8세기 전엽까지는 7세기 후반의 연장선상에서 능묘비가 건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반면 8세기 중엽의 성덕왕릉비부터는 기존과는 판이한 결구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는 당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라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상술한 8세기 중엽 이후 능묘비 형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의 일환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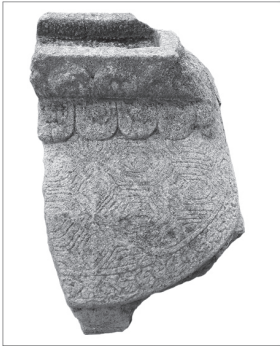
3) 비부

8~9세기 신라 능묘비 5기 중 공순아찬신도비는 현재 비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외 4기의 귀부를 살펴보겠다. 역시 ① 귀두, ② 네 다리, ③ 귀갑, ④ 귀갑 내부 문양, ⑤ 비좌, ⑥ 크기를 다루고자 한다(그림 12) 참조).

첫째, 전황복사지 동·서귀부의 ① 귀두와 ② 네 다리는 파괴되어 알 수

59 崔尙陸, 1975, 「統一新羅時代龜趺 및 螭首의 樣式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쪽; 심수연, 2019, 앞의 글, 60~61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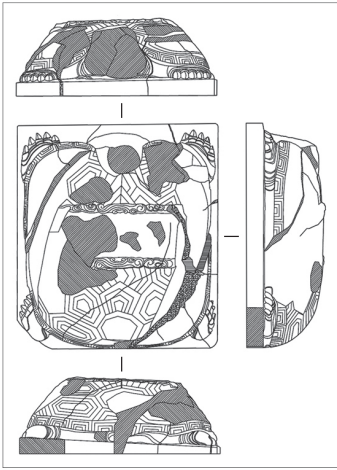
60 李浩官, 1982, 「統一新羅時代の 龜趺와 螭首」, 『고고미술』 154·155, 한국미술사학회, 1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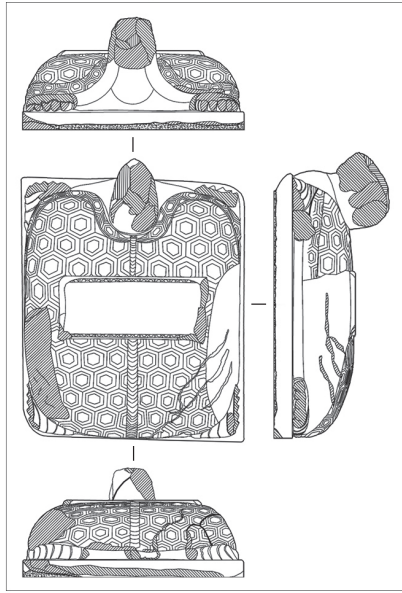
1. 전황복사지 동귀부



2. 전황복사지 서귀부와 실측도



3. 성덕왕릉비



4. 흥덕왕릉비

그림 12 8~9세기 신라 능묘비의 귀부

없다. ③ 귀갑은 종단면 반원형이다. 이는 당과 7세기 후반 신라에서 확인된다. 등줄기 선은 1조의 능(稜)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당에서 확인되며

7세기 후반 신라에서는 능형문이 겹치게 표현되어 다르다. ④ 귀갑 내부 문양은 4중의 ‘亞’자 문양 단위를 너비 방향으로 엇갈리게,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하였다. 이는 7세기 후반 신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당에서는 8세기 전엽 이후의 귀부에서 유사 사례가 있다. 당 식국장공주묘비, 대국장공주묘비, 양수점공덕비 등이다(〈그림 3〉의 8·9·16 참조).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는 하나 전반적인 형태는 이들과 가장 유사해 보인다. 또 귀갑 가장자리에 별도의 외대를 구획하고 내부에 화문을 배열하였다. 외대를 구획한 점은 당에서 확인되기는 하나 이미 7세기 후반 신라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내부에 화문을 두른 점은 다르다. ⑤ 비좌는 귀갑 내부에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7세기 후반 신라에서 확인된다. 비좌의 둘레에는 복련의 연화문과 동시에 비좌의 측면부에도 양련(仰蓮)의 연화문을 조식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7세기 후반 신라에서 복련의 연화문은 확인되나 양련의 연화문을 조식한 점은 다르다. ⑥ 크기는 앞 시기의 것에 비해 더욱 작은 편이다. 서귀부의 잔존 길이는 140cm, 너비 115cm이다.⁶¹ 본래 크기를 추정해 보더라도 귀갑의 길이·너비가 1.5m를 크게 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귀부의 크기가 작은 점은 앞선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와 같이 비신의 크기 차이와 상응한다.

둘째, 성덕왕릉비 귀부의 ① 귀두는 파괴되어 알 수 없다.⁶² ② 네 다리는 모두 곧게 뻗고 있으나 짧은 편으로 말단이 귀갑의 경계에 위치한다. 곧게 뻗은 점은 7세기 후반 신라에서 확인되나 짧게 표현되어 말단이 귀갑의 경계에 위치하는 점은 당과 유사하다. ③ 귀갑은 정부에서는 평평하다가 양 측면에서 급격하게 꺾이는 ‘ㄷ’자 형태이다. 이는 7세기 후반 신라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당에서 확인된다. 등줄기 선은 표현되지 않았다. ④ 귀갑 내부 문양은 육각형의 기본 단위가 부정형에 가깝게 표현된다. 이 또한 7세기 후반 신라에서 찾아볼

61 東國大學校慶州캄퍼스博物館, 앞의 책, 19쪽.

62 성덕왕릉비 귀부의 귀두 형태는 파손된 흔적을 통해 귀두로 보는 견해와 용두화(龍頭化)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강정근, 2010, 94쪽, 재인용).

수 없는 반면 중국에서는 당 안씨가묘비 등에서 확인된다(〈그림 3〉의 13 참조). 또 귀갑 가장자리에 별도의 외대를 구획하고 내부에 4종의 ‘ㄷ’자 문양 단위를 배열하였다. 이 역시 7세기 후반 신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당에서는 대다수의 귀부에서 유사한 표현이 확인된다. ‘ㄱ’자와 ‘ㄷ’자의 세부 형태가 다르기는 하나 기존 신라의 운문·당초문·화문보다는 형태상 가까워 보인다. ⑤ 비좌는 귀갑 내부에 구성되어 있다. 세부 형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비좌받침만 남아 있어 알 수 없다. 이 귀부와 전반적인 형태가 유사한 울산 영축사지 귀부⁶³나 9세기대 탐비의 사례로 보아 비좌 측면부에 안상문(眼象文), 십이지신장상 등 화려한 문양을 조식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당, 7세기 후반 신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표현방식일 것이다. ⑥ 크기는 귀갑 길이 285.5cm, 너비 267.2cm로 태종무열왕릉비보다도 더 크다.⁶⁴ 역시 비신의 크기 차이와 상응한다.

셋째, 9세기 후엽에 건립된 흥덕왕릉비 귀부의 형태는 인근 시기에 건립된 탐비의 귀부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소위 ‘당비모방변형(唐碑模倣變型)’ 또는 ‘후기양식’이라 명명하고, “당비 양식에서 점차 탈피하여 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비 양식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라 이해되고 있다. 해당 양식 귀부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귀두가 용두로 변화하고 목은 직립한다. ③ 귀갑은 어깨너머까지 두껍고 무겁게 덮이며 이 글에서 분류한 ‘ㄷ’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④ 귀갑 내부 문양은 도식화되고 경화된 느낌을 주게 된다. ⑤ 비좌는 높이가 높아짐과 동시에 비좌 측면에 다양한 문양이 조식된다.⁶⁵ 이 외에 ② 네 다리는 성덕왕릉비와 같고 ⑥ 크기는 길이 377.5cm, 너비 301.7cm로 성덕왕릉비보다 크다.⁶⁶

63 울산박물관, 2018, 『울산 울리 영축사지 발굴조사보고서 II』, 131~133, 406, 409쪽.

64 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3a, 앞의 책, 95~96쪽.

65 李浩官, 1982, 앞의 글, 163~167쪽.

66 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3a, 앞의 책, 129~130쪽.

8~9세기 신라 능묘비 귀부는 당과 비교하였을 때 이전 시기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이다. 7세기 후반의 신라 능묘비를 계승한 부분이 일부 관찰되는 한편 오히려 이들과는 다르고 당 능묘비의 요소가 관찰되기도 하며, 또는 양자에서 관찰되지 않는 점도 모두 확인되기 때문이다. 특히 7세기 후엽~8세기 전엽에 건립된 전황복사지 동·서귀부의 귀갑 내부 ‘亞’자 문양은 같은 시기 당에서 막 등장한 표현방식이다. 또 성덕왕릉비 귀부의 귀갑이 ‘ㄷ’자 형태인 점, 귀갑 내부의 육각형 문양이 부정형에 가까운 점, 외대 내부에 4중의 ‘ㄷ’자 문양 단위를 배열한 점도 주목된다. 이들은 당에서 이른 시기부터 확인되므로 최신 표현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이전 시기 신라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취하지 않았던 표현방식들이 이 시기에 들어 다시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보아 8~9세기 신라 능묘비의 귀부는 7세기 후반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당에서 최신 유행하던 표현방식 또는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기존에는 취하지 않았던 표현방식들을 두루 반영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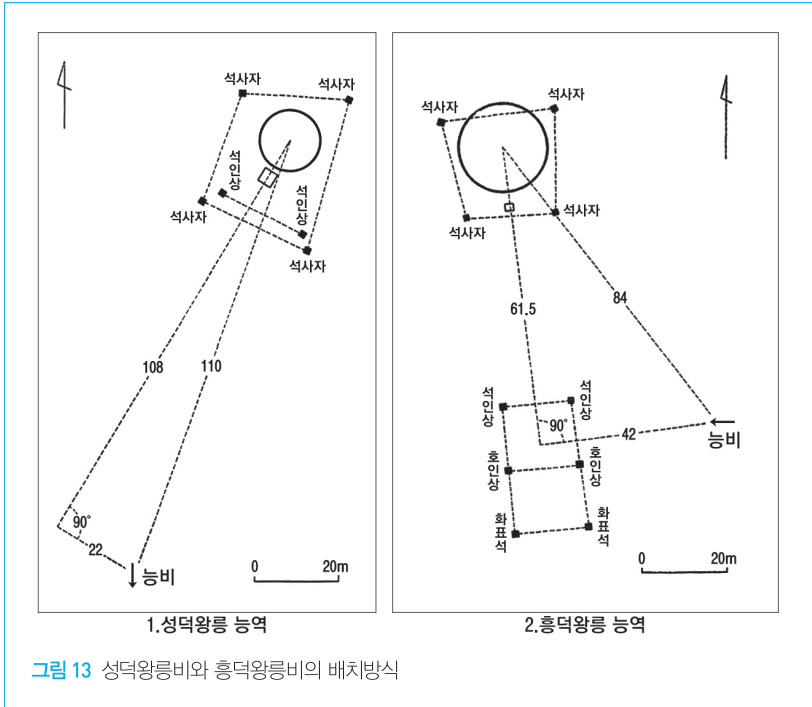
한편 귀두, 비좌의 높이와 측면부 문양 표현, 크기에서는 기존 능묘비에서 당과는 무관해 보이는 자체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 역시 8세기 중엽 이후 능묘비 형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의 일환이다.

그런데 8세기 중엽 이후의 귀부에서는 특히 비좌에 다양한 변화를 준 점이 주목된다. 비좌의 높이가 높아지며 측면부에 양련의 연화문, 안상문, 십이지신장상 등 화려한 문양을 조식한 점이다. 해당 문양들은 역시 불교 관련 제재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귀부, 특히 비좌를 통해 왕즉불 사상을 구현하고자 한 의도가 한층 발전한 결과라 생각된다.

4) 배치방식

8~9세기 신라 능묘비의 배치 역시 7세기 후반과 같이 봉토 전면과 사찰에 배치된 것으로 대별된다. 여기에서도 전자만 살피고자 하는데 이에는 성덕왕릉비와 흥덕왕릉비가 해당된다(〈그림 13〉 참조).

성덕왕릉비의 배치방식에 대한 설명은 그리 간단치 않다. 능비를 포함한 이



왕릉의 능원석각들은 능의 조영 당시에 조성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능비는 누차 언급하였듯이 754년에, 관겸석인상은 해공왕대(765~780)에 조성된 것이다.⁶⁷ 석사자상, 상석 또한 관겸석인상과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석과 관겸석인상, 석사자상의 배치를 기준으로 능역 전면을 설정하였을 때 이 능의 전면은 남서향이며 능비는 봉토 중심에서 전면으로 108m 떨어진 지점에서 동쪽으로 직교하여 22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런데 성덕왕릉비 귀부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즉, 이 능비는 능역의 전면을 바라보

67 권준희, 2017, 「통일신라 왕릉의 석인상(石人像) 복식 연구 (I)-양당개(彌當鎧) 착용 석인상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20, 한복문화학회, 41~49쪽 및 <각주 45> 재인용.

는 것도, 배례공간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어색한 배치방식이 되어버린다.

반면 능비 건립 당시의 능역 전면은 정남향이었는데 이후 관검석인상 등의 능원석각이 조성되면서 전면이 남서향으로 변화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성덕왕릉비는 능역 전면으로부터 서쪽에 배치되었으며 전면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

후자의 배치방식은 당 능비의 배치방식과 닮아 있다. 또 전면의 배치방식, 즉 해공왕대 능원석각을 건립한 이후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당 묘비의 배치방식과 닮아 보인다. 능비는 신도의 최전방 중앙에서 전면을 바라보는 한편 여타 석각들은 후방의 봉토 인근에서 신도의 양측에서 서로 마주 보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배치방식으로 보았을 때 성덕왕릉의 전면은 본래 정남향이었으나 이후 능원석각을 조성하면서 남서향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누차 언급하였듯이 8세기 중엽 이후 능묘비는 대대적인 변화를 보인다. 성덕왕릉비의 배치방식 역시 그중 하나이다. 그런데 신라에서 능묘비의 배치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한 8세기 중엽의 당에서는 이미 몇 기의 능비가 건립되어 있었다. 당시 신라에서는 이를 모방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당의 능비는 황제의 능비이므로 왕의 능비와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는 다시 당 묘비와의 절충을 통해 성덕왕릉비를 황제와 신하의 중간 격으로 배치한 듯하다.

흥덕왕릉 능역의 전면은 정남향에서 동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다. 능비는 봉토 중심에서 전면으로 61.5m 떨어진 지점에서 동쪽으로 직교하여 42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지점은 남-북상으로 호인상(胡人象)과 관검석인상의 중간에 해당한다. 귀부는 정서향, 즉 신도이자 배례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흥덕왕릉비의 배치방식은 당 공릉 예덕기비,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와 유사하다. 당 공릉 예덕기비의 경우 1번~2번 석인상의 중간지점에 배치된 점, 참배객 기준 봉토 전면 우측에 배치된 점에서 닮아 있다. 그러나 당 공릉 예덕기비는 전면을 바라보고 있어 다르다. 또 당 능비의 배치방식을 참고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추존황제릉인 공릉이 아니라 황제릉인 건릉, 정릉의 배치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흥덕왕릉비와 공릉 예덕기비가 유사하다 하여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한편 태종무열왕릉비, 김인문묘비(서악동 귀부)의 7세기 후반 신라 능묘비는 참배객 기준 봉토 전면 우측에 배치된 점, 배례공간을 바라보는 점에서 닮아 있다. 특히 태종무열왕릉비와 흥덕왕릉비는 봉토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각 72m, 84m로 110m의 비교적 먼 거리인 성덕왕릉비보다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흥덕왕릉비의 배치방식은 7세기 후반 능묘비, 특히 능비인 태종무열왕릉비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즉, 8세기 중엽의 성덕왕릉비는 배치방식에서 변화를 준 반면 흥덕왕비는 이전 시기의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 능비의 배치방식이 태종무열왕릉비와 닮은 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신라 하대에 들어서도 무열왕릉의 위상이 유지되었던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신라 하대의 오묘제(五廟制) 변천사를 살펴보면 성덕왕의 경우 원성왕대인 785년, 이미 묘(廟)가 훼손되었으나 태종무열왕은 여전히 불훼지종(不毀之宗)이었다.⁶⁸ 또 오묘제가 다시 정비된 801년에도 태종무열왕의 묘는 별도로 옮겨지기는 하였으나 훼손된 것은 아니었다.⁶⁹

한편 흥덕왕릉비가 건립된 9세기 후엽이라는 시간적 위치는 직전에 건립된 능비인 성덕왕릉비만 해도 이미 120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왕실의 계보 또한 원성왕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덕왕릉비를 건립하기 위해 역대 능비들을 참고하였을 때 성덕왕릉비보다는 태종무열왕릉비가 참고하기에 더욱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서 흥덕왕릉비의 배치방식은 200여년 전의 태종무열왕릉비를 모방한 듯하다.

68 『三國史記』卷10「新羅本紀」第10, 元聖王, “元年(785) … 毀聖德大王·開聖大王二廟, 以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及祖興平大王·考明德大王爲五廟.”

69 『三國史記』卷10「新羅本紀」第10, 哀莊王, “二年(801), 春二月, 謁始祖廟. 別立太宗大王·文武大王二廟, 以始祖大王及王高祖明德大王·曾祖元聖大王·皇祖惠忠大王·皇考昭聖大王爲五廟.”

IV. 맺음말

이상으로 당-신라 능묘비의 형태를 비교하여 그 의미를 추론해보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 능묘비는 당 능묘비를 모방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중국 역대 능묘비를 모사한 그림, 탁본 등 2차 자료에 근거하여 신라인 석공에 의해 이루어졌다. 능묘비의 건립에 사용된 기술은 당의 것이 아닌 신라의 전통적인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로 보아 신라는 당 능묘비를 모방하면서 외형만 따르고자 하였을 뿐 기술을 포함한 당 능묘비 문화 전반을 수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둘째, 당 묘비에서 크기의 차이는 묘주의 업적·지위에 따른 차등을 반영한다. 그러나 7세기 후반의 신라에서는 그 크기가 능비끼리 비슷한 것도 아니고 능비와 묘비가 차등을 보이지도 않아 능묘주의 업적·지위에 따른 차등과는 무관해 보인다. 한편 신라 최초의 능묘비인 태종무열왕릉비는 건립 당시 중국 최대 규모에 필적하는 크기로 건립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8세기 전엽까지 점차 소형화되었다.

그런데 8세기 중엽의 성덕왕릉비부터는 형태 전반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비의 대형화, 귀부의 전반적인 형태 변화 등이다. 성덕왕릉비를 건립한 경덕왕은 대형 불교 조형물을 조성하고 다양한 개혁을 추구하였던 왕으로 유명하다. 8세기 중엽 능묘비의 변화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신라 능묘비의 귀부는 중국 귀부의 영향을 받은 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비좌에 비해 귀부의 크기를 확대한 점, 화려한 문양이 조식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왕실 등 수요층의 특명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 의도는 선조를 추앙하기 위한 과시의 측면임과 동시에 불교 관련 제재에서 표현되는 연화좌 등과 유사하게 조각함으로써 왕즉불 사상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넷째, 신라 능묘비의 배치방식은 7세기 후반에는 중국 역대 능묘비의 배치 방식을 절충하였다. 그 시기의 당에서는 능비의 건립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754년경의 성덕왕릉비는 당 능비와 묘비의 배치방식 각각을 절충하였다. 이는 황제와 신하의 중간인 왕의 격을 반영한다. 한편 흥덕왕릉비는 태종무열왕릉비의 배치방식으로 회귀하였다. 이는 해당 능비가 건립된 9세기 후엽 신라에서의 태종무열왕과 성덕왕의 위상 차이에 기인한다.

한편 이 글은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신라 능묘비는 당 능묘비와 달리 극히 적은 수만 조성되었고 능비라 할지라도 모든 왕릉에 건립된 것이 아닌데 그러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왕을 비롯한 최고위층에만 배타적으로 건립된 신라의 능묘비는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까지 6기 내외가,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후엽까지 단 3기만 확인되어 시간대별 대조를 이룬다.⁷⁰ 이와 관련하여 당의 능비 건립 사례가 참고된다. 당의 능비는 675년의 공릉 예덕기비부터 710년경의 정릉 무자비까지 한정적인 시간대에 건립되었다. 즉, 양국의 능비 건립 유행 시기가 유사한 것이다. 다만 신라의 태종무열왕릉비가 661년 직후에 건립되어 당의 능비 건립에 선행하므로 당 능비를 신라가 모방하였다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된다.

또 754년의 성덕왕릉비와 9세기 후엽의 흥덕왕릉비는 어떠한 계기로 조성된 왕릉에 추가 건립되었던 것인지 설명되어야 한다. 8세기 전엽 이후의 당에서는 능비를 건립하지 않았으므로 당의 영향은 아닌 듯하며, 각 능비의 건립 주체에 따른 어떠한 의도가 작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찰에 건립된 능묘비 및 사적비(寺蹟碑)의 구분과 이에 따른 양자의 형태 및 배치방식의 차이, 사찰에 능묘비를 건립한 배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룬 신라 능묘비 중에서 사천왕사지 동·서귀부와 전황복사지 동·서귀

70 현재까지 신라 능묘비가 당의 그것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만 확인된 현상에 관해서는 朱甫墩(2012, 51~52, 57~70쪽)의 해석이 참고된다.

부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출토 비편을 통한 문장 구성의 비교와 더불어 나말여초기의 탑비, 당비 중 사찰에 건립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⁷¹ 차후 이들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이 진행된다면 신라 능묘비, 더 나아가 한국의 비 문화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71 전황복사지에서 출토된 비편의 경우 최근 비문 일부에 대한 복원안이 윤선태(2022, 109~111쪽)에 의해 제시된 바 있어 참고된다.

참고문헌

자료

『宋書』, 『隋書』, 『大唐開元禮』, 『新唐書』, 『三國史記』.

단행본

- 경주시·대경건축사사무소, 2019a, 『경주 서악동 귀부 정밀실측조사보고서』.
_____, 2019b,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 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3a, 『Ⅰ.신라왕릉 현황조사보고서 [본문편]』.
_____, 2013b, 『Ⅱ.신라왕릉 현황조사보고서 [도면편]』.
- 郭丞勳, 2002, 『統一新羅時代の 政治變動과 佛敎』, 국학자료원.
- 關野貞 著, 姜奉辰 譯, 1990, 『韓國의 建築과 藝術 東京帝國大學 -韓國建築調査報告-』, 산업도서출판공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四天王寺 Ⅲ -回廊外廓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연구총서 86.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외, 2008, 『돌에 새긴 유목민의 삶과 꿈 -몽골의 암각화·시슴돌·비문 탁본-』.
-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 -新羅人의 記錄과 筆跡-』, 특별전 도록.
_____, 2022,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 도록.
-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한국의 석비 -고대(국보·보물)-』, 한국 금석문 학술정보자료집.
-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1985, 『新羅狼山遺蹟調査』, 고적조사보고 1.
- 울산박물관, 2018, 『울산 울리 영축사지 발굴조사보고서 Ⅱ』.
- 유향양·추교순, 2012, 『중국 당대 황제릉 연구』, 서경문화사.
-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 이영호,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 정인성, 2020, 『한국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 -1909년과 1910년의 조사내용-』, 학술연구총서 1,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黃壽永, 1976, 『韓國金石遺文』(初版), 일지사.

南京博物院, 2006, 『南京陵墓雕刻艺术』, 北京: 文物出版社.

卢蓉, 2015, 『中国墓碑研究』,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陕西省考古研究所 外, 2004, 『唐新城长公主墓发掘报告』, 田野考古报告 27, 北京: 科学出版社.

陕西省考古研究院·昭陵博物馆, 2017, 『唐昭陵韦贵妃墓发掘报告』, 田野考古报告 76, 北京: 科学出版社.

陕西省考古研究院·顺陵文物管理所, 2017, 『唐顺陵』, 田野考古报告 72, 北京: 文物出版社.

韦正, 2011, 『六朝墓葬的考古学研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李炳武·张志攀, 2018, 『大唐歌飞的千年传奇 -昭陵博物馆-』, 西安: 西安出版社.

张沛, 1993, 『昭陵碑石』, 西安: 三秦出版社.

田有前, 2016, 『雕刻时光 -陕西古代石刻-』, 西安: 陕西人民出版社.

陈安利, 2001, 『唐十八陵』, 北京: 中国青年出版社.

關野貞, 1904, 『韓国建築調査報告』, 學術報告 6, 東京: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奈良県橿原考古学研究所, 2002, 『南朝石刻』, 中国南朝陵墓の石造物 図録, 奈良: 橿原考古学協会.

齋藤忠, 1973, 『新羅文化論攷』, 東京: 吉川弘文館.

논문

강정근, 2010, 「경주 이조리소재 崔震立神道碑 龜趺의 彫刻樣式과 編年問題 -統一新羅時代 龜趺의 樣式과 관련하여-」, 『경주사학』 32, 경주사학회.

권준희, 2017, 「통일신라 왕릉의 석인상(石人像) 복식 연구 (I) -양당개(襴襜鎧) 착용 석인상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20, 한복문화학회.

金玟圭, 2019, 「朝鮮時代 陵墓碑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동신, 2005,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박광연, 2013, 「동아시아의 ‘王卽佛’ 전통과 미륵불 궁예」, 『사학연구』 110, 한국사학회.

朴相俊, 2002, 「新羅下代 塔碑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朴日薰, 1968, 「金庾信墓와 金仁問墓」, 『고고미술』 100, 한국미술사학회.
- 박홍국, 2022, 「새로 발견된 신라 恭順阿湊碑片의 조사와 碑文 書者」, 『영남학』 8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퇴계연구소.
- 裴魯燦, 2020, 「傳金庾信墓의 造營年代와 被葬者 推定」, 『유라시아 고고와 문화 -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40周年 記念 論叢 -』, 간행위원회.
- _____, 2021, 「九政洞 方形墳 年代 再考」, 『중앙고고연구』 36,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심수연, 2019, 「경주지역 통일신라 귀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경, 2020, 「신라 쌍탑가람의 기원과 출현배경」, 『미술사학연구』 308, 한국미술사학회.
- 엄기표, 2017, 「新羅 5~6世紀 石碑의 전개와 특징」, 『목간과 문자』 18, 한국목간학회.
- 윤선태, 2022, 「비편으로 찾은 또 하나의 성전사원」,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 도록, 국립경주박물관.
- 李基東, 1975,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中世의 側近政治의 志向-」, 『역사학보』 77, 역사학회.
- 李泳鎬, 1986, 「新羅 文武王陵碑의 再檢討」, 『역사교육논집』 8, 역사교육학회.
- _____, 2022, 「신라 아찬 金恭順 神道碑片 검토」, 『영남학』 8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퇴계연구소.
- 李完雨, 2001, 「통일신라시대의 唐代 書風의 수용」,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제7회 전국미술사학대회, 한국미술사학회, 예경.
- 李浩官, 1982, 「統一新羅時代의 龜趺와 螭首」, 『고고미술』 154·155, 한국미술사학회.
- 정병모, 2000, 「新羅 書畫의 對外交渉」, 『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제6회 전국미술사학대회, 한국미술사학회, 예경.
- 정현숙, 2008, 「新羅와 北魏·隋·唐의 書藝 比較 研究」, 『서예학연구』 13, 한국서예학회.
- _____, 2019, 「신라 사천왕사지 출토 비편의 새로운 이해 -다섯 비편은 '신문왕릉비'다-」, 『목간과 문자』 22, 한국목간학회.
- 朱甫暉, 2012, 「통일신라 (陵)墓碑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 9, 한국목간학회.
- 진복규, 2007, 「〈태종무열왕릉비〉 비액연구」, 『경주문화연구』 9,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 _____, 2008, 「나말여초(羅末麗初)의 비액서풍(碑額書風)」, 『미술사학보』 30, 미술사학연구회.
- 崔尚陸, 1975, 「統一新羅時代龜趺 및 螭首의 樣式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洪思俊, 1962, 「新羅 文武王陵 斷碑」追記, 『고고미술』 26, 한국미술사학회.
- 黃壽永, 1976, 「金石文의 新例」, 『한국학보』 5, 일지사.
- 昭陵博物館, 2000, 「唐昭陵李勣(徐懋功)墓清理簡報」, 『考古与文物』 3, 陕西省考古研究所.
- 杨磊, 2011, 「汉魏晋南北朝石碑形制研究」, 山东艺术学院 硕士学位论文.
- 王名峰, 2018, 「唐代乾陵石刻模式形成研究」, 西安美术学院 博士学位论文.
- 王文广, 2012, 「中国古代碑之设计」, 苏州大学 博士学位论文.
- 张宇, 2014, 「唐碑形制与唐代碑碣制度关系考」, 四川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_____, 2015, 「论唐碑形制与碑碣制度之不符现象」, 『荣宝斋』 6, 荣宝斋有限公司.
- 田有前, 2013, 「西北艺术文物考察团唐陵考察活动述评」, 『中国国家博物馆馆刊』 2, 中国国家博物馆.
- 胡春勃, 2016, 「从几件唐代神道碑看唐代碑首的变化」, 『大众文艺』 7, 河北省群众艺术馆.
- 侯立新, 2014, 「关中唐代碑刻研究」, 陕西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 關野貞, 1910, 「朝鮮文化の遺蹟」, 『朝鮮藝術之研究』, 京城: 度支部建築所.

당-신라 능묘비 형태의 비교연구

배노찬

신라의 능비와 묘비는 한국의 비 문화 형성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 이들에게서 관찰되는 제 속성은 이후 탑비(塔碑), 사적비(事蹟碑) 등으로 확대되었음과 동시에 나말여초, 고려, 조선까지 꾸준하게 계승,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신라 능묘비는 중국 당(唐) 능묘비 문화를 신라가 모방, 변용한 것이다. 그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체(文體), 서체(書體), 형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 중 문체, 서체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미 진행된 바 있으나 형태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이 글은 당-신라 능묘비의 형태를 비교하여 신라의 당 능묘비 모방, 변용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신라 능묘비를 비수(碑首), 비신(碑身), 비부(碑趺), 배치방식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그 의미를 추론해본 결과 여러 요소에서 신라의 당 능묘비 모방 과정, 전통적인 제작기법의 반영, 관념체계의 투영 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신라가 당 능묘비 문화 전반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중국 남북조시대의 방식을 절충하거나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투영하는 등 상당히 주체적인 능묘비 문화를 영위하였음을 밝힌 점은 이 글의 가장 큰 의의라 생각된다.

주제어: 통일신라, 신라왕릉, 능비(陵碑), 묘비, 문화비교, 모방과 변용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orm of Royal and Elite's Tombstone in Tang and Silla

Bae Nochan

Silla Tombstone i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Korean tombstone culture. This is because the various factors observed in these tombstones were later expanded to all different kinds of tombstones. Another additional reason is Silla tombstones' persistency, which was steadily succeeded and developed to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 through Goryeo dynasty and finally to Joseon dynasty.

Silla Tombstone is an imitation and transformation of Tang's tombstone culture. In order to closely research the process, the style of writing, typeface, and general form itself must be comprehensively compared. Among those items written above, comparative studies on writing styles and typefaces have already been done. However, comparative research on tombstones' form has not yet been specifically dealt wit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mitation and transformation of Silla tombstone by comparing forms of

Tang-Silla tombstone itself. Through this form comparison between the two, this study aims to infer the meaning of imitation and transformation pattern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ang-Silla tombstones by dividing them into tombstone's head-body-bearing support, and placement methods, it was possible to view the overall process of imitation and to understand Silla's reflection of traditional manufacturing technique, and Projection of the ideological system. Particularly, Silla did not unconditionally accept the entire tombstone culture, but rather led a fairly autonomous culture through compromising the methods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in China or projecting the idea of "King is Buddha" Ideological system.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point of this study.

Keywords: Unified Silla, Silla Royal Tombs, Royal Tombstone, Tombstone, Cultural Comparison, Imitation and Transform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루안판의 『북원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요 서술의 특이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윤은숙 | 강원대학교 독립학부 자유전공학부 교수

- I. 머리말
- II. 『북원사』의 주요 내용 및 서술의 특이점
- III. <고이 편>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 IV. 맺음말: 북원사는 중국사의 일부인가?

I. 머리말

최근 중국은 ‘초원문화 연구공정(草原文化研究工程, 2004~2014)’, ‘북부변강 역사와 현상 연구(北部邊疆歷史與現狀研究, 2010~2014)’, ‘몽골족 기원과 원조 제릉 종합연구(蒙古族起源與元朝帝陵綜合研究, 2012~)’와 ‘내몽골 민족 문화 건설 연구공정(內蒙古民族文化建設研究工程, 2013~2018)’ 등의 각종 연구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몽골학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여하고 있다. 그 결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연구 성과물들이 학계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루안판(欒凡)이 쓴 『북원사(北元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출판되었지만, 기존 국가 단위의 대형 연구 사업의 대다수가 몽골족의 기원과 몽골 제국 그리고 초원의 유목문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북원사』는 제국 이후의 몽골사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고려(高麗)·조선(朝鮮)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북원사¹ 연구는 토곤 테무르(Toghon Temur) 카안 이후의 복잡하게 얽힌 황위 계승 문제와 정체성, 명과의 전쟁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 관련 저술이 다수였고, 이 외에 몽골사 개설서에서 부분적으로 다루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² 『북원사』는 정치, 경제, 문화, 민족과 인물 등을 총망라하여 본격적으로

* 투고: 2022년 7월 6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8일, 게재 확정: 2022년 8월 16일

** 이 글은 2021년 6월 18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東北古代方國·屬國史 연구총서』 분석 학술회의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했다.

1 토곤 테무르 카안이 복상한 1368년부터를 ‘北元’으로 명기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루안판이 사용하는 ‘북원’이란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2 북원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황위 계승 문제와 정체성: 達力扎布, 1991, 「北元史研究三題」, 『黑龍江民族叢刊』 1991-2; 達力扎布, 1997, 『明

복원의 역사를 다룬 중국의 첫 번째 저술로서, 중국학계의 복원사 인식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복원사』는 2010년 중국의 국가사회과학기금(國家社會科學基金) 중대위탁항목(重大委託項目)인 <동북고대 방국·속국사 연구(東北古代方國·屬國史研究)>(吉林省社會科學院 주관) 과제의 일환으로 편찬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편(主編)을 맡은 길림성사회과학원 원장 빙정(邢正)은 관련된 1차 회의에서 <동북고대 방국·속국사 연구>가 ‘중화민족 다원 일체의 역사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고 주변국의 역사, 민족과 강역 방면의 논쟁을 처리하며 국제 학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역설해 해당 연구가 목적하는 바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³

위의 <동북고대 방국·속국사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이 책은 중국에서 대원제국(大元帝國)이 가지는 의미와 그 계승성이 내포하는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몽골제국사를 중국사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몽골족이 중국의 동북지역을 통일하여 다민족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전제하며, 원(元)이 처음으로 북방

代漢南蒙古歷史研究』, 呼和浩特: 內蒙古文化出版社; 蔡美彪, 1992, 「明代蒙古與大元國號」, 『南開學報』 1992-1; 薄音湖, 1987, 「關於北元汗系」, 『內蒙古大學學報』 1987-3; 薄音湖, 1994, 「北元與明代蒙古」, 『內蒙古大學學報』 1994-1; 格日勒圖, 2018, 「論北元政權」, 『內蒙古大學學報』 44-5; 本田實信, 1991, 『モンゴル時代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등. 명과의 관계: 李學, 1996, 「北元, 蒙古, 明代蒙古」, 『內蒙古大學學報』 1996-3; 刁書仁·卜照品, 2001, 「論元末明初中國與高麗, 朝鮮的邊界之爭」, 『北華大學學報』 2-1; 特木勒, 2000, 「北元與高麗的外交: 1368年-1369年」, 『中國邊疆史地研究』 36-2, 中國邊疆史地研究會; 윤은숙, 2007, 「나가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政勢」, 『明清史研究』 28; 윤은숙, 2008, 「北元과 명의 대립-遼東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05 등. 통사류: 達力扎布, 1997, 앞의 책: 蒙古族簡史編寫組, 1986, 『蒙古族簡史』,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曹永年, 2002, 『蒙古民族通史』 3권,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 第3卷,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和田清, 1959, 『東亞史研究(蒙古篇)』, 東京: 東洋文庫 등.

3 <http://www.hlass.org.cn/xwj/qgsk/2011/03/6646.htm>.

을 하나로 통일하였기에, 현대 중국의 판도를 조성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화민족’이란 논리를 역사적으로 설명할 근거로 몽골족이 세운 다민족국가 대원제국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원의 계승국인 북원의 역사도 중국사의 일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위해 북원과 함께 명조(明朝)도 원의 계승국으로 등장시키고, 양국은 원 소멸 이후 중국 영토상에 병존했던 두 개의 정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즉, 원조 판도 내의 영북행성(嶺北行省, 몽골리아) 및 중서성(中書省), 요양행성(遼陽行省)의 일부분이 북원의 강역이므로, 북원사도 중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중국사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과 북원의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이므로, 이 시기 몽골리아도 중국의 영토가 된다는 논리조차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북원을 포함한 몽골 민족의 역사 활동이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졌고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몽골사 전체가 중국사의 범주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원사』 서술 목적이 내포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책의 주요 내용과 특이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북원사의 쟁점을 다룬 「고이편(考異 編)」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국의 북원사 연구의 현 단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북원의 역사 정체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II. 『북원사』의 주요 내용 및 서술의 특이점

저자 루안판(栾凡)은 길림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교수로, 주요 연구 분야는 명(明)·청(淸) 시기 중국의 동북 민족사라고 한다. 주요 저서로는 『길림통사(吉林通史)』(길림인민출판사, 2008), 『중국동북고대민족발달사(中國東北古代民族發達史)』(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3), 『명대여진문화연구(明代女眞文化研究)』(길림문사출판사, 2013), 『고대동북소수민족생태민속문화연구(古代東北少數民族生態民俗文化研究)』(길림인민출판사, 2013)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명대

중조 조공 예의 제도화」, 「동북지구 우수 민속 문화론」, 「명대 요동의 미가, 군량과 시국」⁴ 등이 있고, 몽골 및 복원사 관련 논문으로는 「원명청 시기 동북 민족 사회의 비교」, 「원대 중조 관계」, 「약론 원말 명초의 동북사회 국세」와 「복원과 고려의 외교 관계 및 그 문화 정결」⁵ 등의 관계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저자의 논저들로 볼 때 몽골사(복원사 포함) 전공자라기보다는 중국의 동북지역 민족사 연구자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복원사』는 통사, 전지(典志), 전기(傳記), 고이(考異), 도표(圖表), 대사편년(大事編年) 및 주요 문헌 목록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지, 전기, 도표와 대사편년 등의 방식은 중국 정사류의 서술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목차를 통해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 통사		제5장 예문지와 종교지
제1장 원말 명초의 동북사회의 국세(局勢)		1 토곤 테무르 카안 오회시(懊悔詩)
1 원조의 통치와 인민의 반항		2 몽골문과 여진문
2 홍건군의 고려 출병		3 잠치와 교통
3 원 조정 내부의 모순과 투쟁	제6장 민속지	1 의식주행
4 주원장의 반원(反元)사상		2 예속과 혼장 풍습
5 여진 각부의 향배와 고려·조선의 북강 추진 기도		3 말 승배 풍습
6 명조의 여진을 통한 북로(北虜) 통제		4 성명을 부르는 풍습
제2장 원 조정의 북사(北徙)-사칭 “북원”		5 금기 풍습
1 원 조정의 북사		

4 夔凡, 2008, 「明代中朝朝貢禮儀的制度化」, 『社會科學戰線』 2008-12; 夔凡, 2009, 「東北地區優秀民俗文化論」, 『社會科學戰線』 2009-5; 夔凡, 2010, 「明代遼東의 米價, 軍糧與時局」, 『東北史地』 2010-3 등.

5 夔凡, 2008, 「元明清時期東北民族社會之比較」, 『東北史地』 2008-7; 夔凡, 2009, 「元代中朝關係」, 『古代文明』 2009-10; 夔凡, 2013, 「略論元末明初的東北社會局勢」, 『東北史地』 2013-11; 夔凡, 2014, 「北元與高麗的外交關係及其文化情結」, 『社會科學戰線』 2014-3 등.

- 2 원 혜종(惠宗)의 원조의 옛 영토 회복 시도
- 3 북원 소종(昭宗) “중흥”의 입지
- 4 영복의 역
- 제3장 북원, 명조와 고려 사이의 관계
 - 1 원조와 고려의 중번 관계의 변천
 - 2 고려의 원조에 대한 조공
 - 3 원조의 고려 간섭 기구와 관리
 - 4 북원과 고려의 관계
 - 5 명조와 고려 관계
 - 6 북원 시기의 동북아 구도
 - 7 북원과 고려의 문화 정결
- 제4장 북원 멸망
 - 1 명조의 운남 출병
 - 2 동북지구의 북원 세력
 - 3 나가추의 명조 투항
 - 4 부이르 호 전투와 북원의 멸망
 - 5 명조의 북원 정책 및 동북에 대한 통치 확립

권2 전지

- 제1장 지리지
 - 1 강역
 - 2 할경
 - 3 성진
- 제2장 민족지
 - 1 몽골 민족 기원
 - 2 주변 민족
 - 3 울랑합(兀良哈, 우랑카이)
 - 4 와랄(瓦剌, 오이라트)
 - 5 달단(타타르)
- 제3장 정치지
 - 1 통치기구
 - 2 북원 관직
 - 3 민족 정책

권3 전기

- 제1장 제왕
 - 1 원 혜종 토곤 테무르
 - 2 원 소종 아유시리다라
 - 3 토구스 테무르
 - 4 앙크 조리크투
 - 5 엘베크
 - 6 군 테무르
- 제2장 황후
 - 1 타나시리 황후
 - 2 비안쿠투 황후
 - 3 고려 공녀 기황후
- 제3장 문무백관
 - 1 나가추
 - 2 쿠케 테무르
 - 3 아자스리
 - 4 보르지긴 바자르와르미
 - 5 이수
 - 6 카라장
 - 7 이사제(李思齊)

권4 고이

- 1 북원에 대하여
- 2 북원 유물 및 관련 문제고
- 3 북원 관인 고

권5 도표

- 1 도
- 2 표

권6 대사편년 권7 주요문헌 목록

- 1 고대 문헌
- 2 근현대 문헌
- 3 국외 문헌

- 1 목축업
- 2 농업 및 기타 생업
- 3 잠치와 교통

권1 <통사 편>의 제1장 <원말 명초의 동북사회의 국세(局勢)>에서는 원 내부의 권력투쟁과 농민반란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무능한 군주 토곤 테무르와 부친의 권력을 탐하는 황태자 아유시리다라(Ayusiridara) 사이의 권력 다툼과 농민반란으로 원조가 쇠퇴하게 되었고, 이를 대신해 명조가 중원을 차지했다는 저자의 논지는 기존 중국학계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 시기 고려와 조선의 영토 침탈이 누차 발생했음에도 명조는 대국적 이념을 견지했다고 하고, 명조의 여진 정책은 기미위(羈縻衛) 설치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몽골의 남하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5절 ‘여진 각부의 항배와 고려·조선의 북강(北疆) 추진 기도’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의 동북지역은 본래 원에 속해 있었고, 명조는 원의 계승국으로 이 일대의 영토와 민족은 자연히 명조에 귀속되므로 명조는 여진 각부에 초무(招撫)를 진행했다.
- ② 철령(鐵嶺)은 원의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와 고려의 경계가 되는 산이고 고려와 명조의 경계선이므로, 명조는 함경도와 강원도가 겹쳐지는 곳에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해 한반도 북부의 여진 부족을 초무하려 했다.
- ③ 고려는 여진 각부를 초무한다는 명분으로, 명조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탐욕을 멈추지 않았다.
- ④ 주원장(朱元璋)은 고려와 조선의 탐욕을 꾸짖으면서도, 대국적 견지에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압록강이 양국의 경계선이 되는 상황을 용납했다.

이 논리의 근간은 명조가 원의 계승국이므로, 원의 영토는 그대로 명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군의 공격을 피해 상도로 북상한 토곤 테무르 카안이 원의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계승자들에 의해 국가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명이 원의 계승국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주원장이 원을 ‘호로(胡虜)’로 규정하며 원을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자⁶라 한 것이나, 복원을 ‘호인(胡人)’⁷으로 부른 것은 명조 건국자를 통해서도 명이 원을 계승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명은 원을 내쫓고 무력으로 중원을 차지한 정권으로, 원의 계승국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고려의 요동 경략과 여진인 초무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을까? 원 북상 이후 요동 일대는 무칼리 왕가의 나가추(Naghachu)와 에센부카(Esen Buqa), 옷치긴 왕가의 아자스리(Ajasri), 요양행성의 유익(劉益), 고가노, 홍보보(洪保保), 복주(復州)의 카라부카(Qara Buqa)와 동녕위(東寧府)의 기사인 테무르 등의 군벌 세력들이 반(半) 독립적으로 할거하는 그야말로 무주공산(無主空山)의 형국이었다. 1370년에 이인임(李仁任)이 서북면도통사(西北面都統使)를 맡고, 지용수(池龍壽)를 서북면상원수(西北面上元帥)로, 이성계(李成桂)를 동북면상원수(東北面元帥)로 하는 요동 정벌군이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을 정벌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요동의 혼란한 정국과 맥을 같이한다. 이때 동녕부에 자문(咨文)을 보내 말하기를, “요·심 지역은 원래 아국(我國)의 옛 경계지역인데, 사대 이래로 인척 관계를 맺고 생구(甥舅) 관계가 되어 행성(行省)의 관할하에 두었다”⁸라고 한 것은 당시 고려가 요양과 심양을 고려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나가추의 반격과 식량부족으로 퇴각하기는 했으나 고려의 요동 경략과 여진인 초무 행위는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왕조 국가의 정당한 통치행위라 할 수 있다.

6 『명태조실록』 권26, 吳元年 10월조.
 7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7월조.
 8 『고려사』 권42, 공민왕 19년 12월조.

저자는 철령(鐵嶺)이 함경도와 강원도가 겹쳐지는 곳이라면서, 철령을 원대 이래 양국의 경계선으로 규정하여 명의 영토를 한반도 경내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철령위의 위치는 고려의 쌍성총관부 남단, 요녕성(遼寧省) 봉성(鳳城)과 요녕성 개원(開原) 일대의 철령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지역이므로 철저한 논증 없이 선부르게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명의 철령위 설치에 대해 ‘명조가 고려의 탐욕을 꾸짖으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는 저자의 주장은 사료에는 나오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 다만 고려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주원장이 고려 경내가 아니라 요동의 봉집현(奉集縣)에 철령위를 설치했다는 점은 철령의 위치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하다.⁹ 더욱이 쌍성총관부는 1356년(공민왕 5, 至正 16)에 공민왕이 밀직부사(密直副使) 유인우(柳仁雨)를 동북면병마사로 삼아 수복한 지역이고,¹⁰ 이를 두고 원이 용서한다는 문서를 보내 승인한 적이 있다.¹¹ 또한 1362년에 나가추가 삼살(三撒)과 홀면(忽面)을 공격했으나 이성계에게 패했고, 1364년(공민왕 13, 지정 24)에 덕흥군이 압록강을 건너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으므로, 원말까지 이성(泥城)이 양국의 경계가 되었다.¹² 1356년에 고려가 쌍성총관부를 회복하였으므로, 철령이 고려와 원 또는 명과의 경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저자는 북원과 고려의 경계가 쌍성(永興)을 기점으로, 압록강과 파저강(波猪江)이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당연한 역사적 사실인 고려의 쌍성총관부 수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장 〈원 조정의 북사(北徙)-사칭 “북원”〉에서는 토곤 테무르 카안의 상도(上都) 북상과 대도(大都) 회복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일 등을 통사적 시각에서 기술했다. 카라코룸 전투(嶺北之役) 이후 아유시리다라 카안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었고, 명조는 잠시 북방초원 통일의 꿈을 잠시

9 『명태조실록』 권189, 홍무 21년 3월조.

10 『고려사』 권39, 공민왕 5년 7월조.

11 『고려사』 권39, 공민왕 5년 10월조.

12 김순자, 2010, 「고려~조선초 한·중간 영토에 대한 현대 중국학계의 시각」, 『역사와 현실』 76, 306쪽.

접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372년(宣光 2, 洪武 5)의 카라코룸 전투는 양국이 벌인 본격적인 전투로, 주원장이 계획한 ‘청사막(淸沙漠)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후 명은 몽골 초원 공격을 멈추고 요동 일대의 군벌 세력을 적극적으로 회유하기 시작했다.¹³

3장 〈북원, 명조와 고려의 관계〉는 책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북원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분석했다기보다는 주로 고려·원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저자의 논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조 통치 기간에 유일하게 국체를 유지한 국가가 고려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양국의 관계는 단순한 종변 관계가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고려가 원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었고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했다. 반면 명조와 한반도의 종변 관계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였다.
- ② 종변 관계 성립 후에 몽골은 국가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물자와 인구를 약탈하였고, 내정에 간섭했으므로 고려는 원조의 ‘지방 권력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 ③ 고려의 요청으로 양국 통혼이 이루어졌지만 불평등한 혼인 관계를 성립시켜 예속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고려는 독립적인 정치 권력을 상실했다.
- ④ 종변 관계 성립 후 고려 문화에 대량의 한학(漢學)문화가 흡수되었고, 유학이 고려에서 일반화되었다. 또한 원조가 제정한 조공제도도 유학의 영향으로 상하적 질서에 의한 불평등성을 강화시켰다.

고려는 국체만 유지했을 뿐이고 실상은 원에 예속된 ‘지방 권력 기구’에 불과했다는 ①, ②, ③의 주장은 종변 관계로 고려·원 관계를 규정지으려는 중국학

13 윤은숙, 2008, 「北元과 명의 대립-遼東 문제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05, 89~93쪽.

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한층 예측성을 강화하고 있다.¹⁴ 국체를 가지고 있던 고려를 ‘지방 권력 기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저자가 몽골에 대한 고려의 예측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정복국가 몽골이 오랜 항전 끝에 투항한 고려의 국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엄격한 족외혼(族外婚)의 전통을 가진 칭기스칸 일족에게 통혼은 범위가 제한적인 혼인동맹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통혼의 대상은 통일에 협조하거나 술선해서 귀부한 부족장의 자제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방혼을 맺은 경우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¹⁵ 반면 쿠빌라이의 딸인 쿠틀룩케미시와 혼인한 충렬왕(忠烈王)을 필두로 공민왕(恭愍王)에 이르기까지 5명의 고려왕이 몽골 공주들과 지속해서 혼인했다. 특히 충선왕(忠宣王)은 황금씨족(Altan urug)의 일원으로 심왕(瀋王)에 책봉되기까지 했으므로, 고려왕들은 몽골 특유의 폐쇄적인 인척 집단에 무사히 안착했고, 이로 인해 국체의 유지가 수월했던 면이 있다. 13세기 몽골의 말발굽 아래 유라시아대륙이 정복되는 상황에서 몽골에 대한 고려의 예측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원종(元宗)의 통혼 요구와 성사가 고려의 국체 유지 및 왕권 강화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 군주인 동시에 황실의 부마라는 고려왕의 이중적 지위는 많은 특혜와 제국 정치 전반에 참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부마 자격으로 쿠빌라이에 참여한 고려왕은 제국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황실의 제위 계승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양국 통혼으로 고려가 손해만 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몽골의 압박으로 물자와 공녀 징발이 심각했다는 주장 역시 재

-
- 14 付百臣 主編, 2009, 『中朝歷代朝貢制度研究』,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李雲泉, 2004, 『朝貢制度史論-中國古代對外關係體制研究-』, 北京: 新華出版社; 孟古托力, 2000, 「蒙元與高麗關係述論」, 『北方文物』 64; 朴延華·朱紅華, 2004, 「試論元麗兩國政治聯姻關係」, 『延邊大學學報』 37-1; 薛磊, 2004, 「元朝與高麗政治關係中的重要人物-高麗忠宣王王璋」, 『內蒙古大學學報』 25-3 등.
- 15 윤은숙, 2020, 「대원제국 시기 황실 통혼과 여성의 정치적 역할-몽기라트 부족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53, 90쪽.

고가 필요하다. 몽골의 징발 요구는 양국 전쟁의 시기에 심화되었고, 1282년(충렬왕 8, 至元 19)에 충렬왕이 ‘부마고려국왕인(駙馬高麗國王印)’을 받게 되면서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원에서 고려로 보낸 세사(歲賜)가 상당할 정도였다. 예를 들면 1290년(충렬왕 16, 지원 27) 11월에 대도에 도착한 세자가 쿠빌라이 카안으로부터 안마(鞍馬)와 의대(衣帶)를 하사받았고, 1294년(충렬왕 20, 지원 31) 4월에 쿠빌라이 카안이 충렬왕에게 은 3만 냥을 주었다.¹⁶ 또한 1296년(충렬왕 22, 元貞 2) 3월에는 성종(成宗) 테무르 카안이 왕에게 직금단(織金段), 홍견(紅絹) 각 4필씩, 포도주 2기, 역일(曆日)을 하사하고 원 조정이 선능(線綾), 홍견 각 5필을 제공했다. 같은 해 12월에 테무르 카안이 충렬왕에게 금 4정(錠), 금단(金段) 2필, 견 2필을 하사하고, 시종하는 신하들에게 은 50정, 금단 18필, 수단(繡段) 10필, 능소단(綾素段) 578필, 견 486필을 하사했으며, 부인들과 환관들에게는 능견(綾絹)을 각각 27필씩 하사하고, 노복들에게는 목면과 견을 각각 411필씩 하사했다¹⁷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명조와 한반도의 중변 관계는 명조의 대국적 견지가 작용하여 우호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했지만, 주원장은 매년 금 100근, 은 1만 냥, 세포(細布) 1만 필, 양마(良馬) 1,000필 등¹⁸ 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공물을 고려에 요구하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수십만의 군대를 보내 공격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¹⁹ 이렇게 본다면 ①, ④에서 고려와 원은 조공제도로 불평등성이 강화되었고 명과는 우호적이었다는 논리도 수정이 필요하다. 문화적 측면에서 양국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중원의 문화가 고려사회로 유입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학이나 유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몽골의 제도, 풍습, 문화 등이 같이 전파되었다. 반대로 고려의 풍습과 문화도 원

16 『고려사』 권30, 충렬왕 16년 11월조; 권31, 충렬왕 20년 4월조.

17 『고려사』 권31, 충렬왕 22년 3월조, 12월조.

18 『명태조실록』 권116, 홍무 10년 12월조.

19 『고려사』 권134, 우왕 5년 3월조.

의 수도 대도로 전파되었으므로 일방적인 영향이 아닌 양국의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권2 <전지 편>은 지리지, 민족지, 정치지, 경제지, 예문지와 종교지, 민속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3 <전기 편>에는 제왕, 황후, 문무백관 등을 기술했는데, 저자는 토곤 테무르 가계(家系)를 북원의 정통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서 토곤 테무르-아유시리다라-토구스 테무르(Togus Temur)-앵케(Enke)-엘베크(Elbeq)-군 테무르(Gun Temur) 등을 제왕에 편성했고, 아릭부케의 후손 이수테르(Yisuder)는 찬탈자로 보아 대간 계보에 넣지 않았다. 2장 황후에는 토곤 테무르 카안의 3명의 정후(正后)를 편성했는데, 이들을 타나시리(Tanasiri) 황후, 바얀쿠투(Bayan Qutu) 황후와 고려 공녀 기황후라고 표기하고 있다. 기황후가 고려 공녀 출신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奇)올제이 쿠투(Oljei Qutu)’라는 황후 명칭이 있음에도 고려 공녀를 강조해 표기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 비하가 담겨 있다. 관련해 저자는 토곤 테무르 카안이 그녀를 제2 황후로 책봉하려 할 때 감찰어사 이필(李泌)의 상주를 상기시키고 있다. 즉, 저자는 쿠빌라이 카안이 고려 여성을 종묘(宗廟)에 들이지 말라고 했다는 이필의 상주를 토곤 테무르가 무시했기에 망국의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 공녀 출신이 종묘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이 멸망했다는 저자의 논리는 지나치게 작위적이라 할 수 있다. 논쟁거리를 다룬 권4 <고이 편>에서는 북원 존속기간과 멸망 시점을 분석했고, 북원 관련 출토 유물 현황과 관련 등을 개괄했다.

이 책이 2019년에 출간되었음에도 최신의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 저자가 참고한 연구물의 대다수가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출간된 저술이다. 중국 외의 참고문헌의 저자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와다 기요시(和田清), 준페이 오기하라(荻原淳平)²⁰ 등으로, 1980년대 이전에

20 池内宏, 1963, 『滿鮮史研究』 중세3, 東京: 吉川弘文館; 和田清, 1934, 「明初の滿洲經略」,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東京: 東京帝國大學文學部; 和田清,

출간된 일본학자들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III. <고이 편>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1. 쟁점: 북원의 존속기간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권4 <고이 편>에서는 북원사 관련 주요 쟁점을 북원의 존속기간이라고 전제하고, 북원의 멸망을 군 테무르 카안이 사망한 1402년으로 보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했다. 저자는 북원의 존속기간을 ① 1368~1388년 설²¹과 ② 1368~1635년 설²²로 상정한 기존 학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① 1368~1388년 학설이 주장한 것처럼 1388년에 아릭부케의 후손 이수테르가 토구스 테무르를 죽이고 대간 자리를 찬탈하면서 원조(元朝)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수테르 사후 다시 쿠빌라이 계통인 토구스 테무르의 장자 앙케 카안이 즉위했고, 그의 사후 동생 엘베크가 즉위했으며, 이후 엘베크의 장자(長子) 군 테무르가 1400년에 각각 즉위했다. 따라서 아릭부케의 후손으로 쿠빌라이계가 아닌 이수테르는 찬탈자에 불과하므로 1388년에 북원이 멸망한 것이 아니다. 1402년 군 테무르가 굴리치에게 피살되면서 북원은 타타르와 오이라트로 분열되었으므로 1402년을 북원의 소멸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1959, 앞의 책; 荻原淳平, 1980, 『明代蒙古史研究』, 京都: 同朋舎出版.

21 達力扎布, 1997, 앞의 책, 160쪽; 薄音湖, 1987, 앞의 글, 41~42쪽; 薄音湖, 1994, 「北元與明代蒙古」, 9~10쪽; 蔡美彪, 1992, 앞의 글, 46쪽; 윤은숙, 2015, 「북방민족의 정체성과 계승성」, 『몽골학』 18, 18쪽 등.

22 格日勒圖, 2018, 앞의 글, 30쪽; 曹永年, 2002, 앞의 책; 叢佩遠, 1998, 앞의 책 등.

② 1368년부터 1635년까지의 260여 년을 북원으로 표기하기보다는 ‘북원-몽골’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북원-몽골’은 원조 판도의 일부분인 영북행성 및 중서성, 요양행성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명조가 관할하고 있었다. 즉, 원조의 판도 내에 건립된 ‘북원-몽골’과 명조는 대통일의 원조가 붕괴한 뒤에 중국 영토에 상존하는 원조의 유산을 받은 두 개의 국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자는 1402년에 북원이 멸망했으므로, 1368~1635년의 몽골을 ‘북원’으로만 통칭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 시기를 ‘북원-몽골’ 또는 ‘명대 몽고(明代蒙古)’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자는 원의 계승국 북원과 명조 중에, 중심에 있는 명조가 대표성을 갖고 있으므로 ‘명대 몽고’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한다.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1368년에 원이 멸망하고 원 조정이 북상한 이후 1402년 굴리치 카안 시기 ‘대원(大元)’ 국호를 버릴 때까지를 북원으로, 이후 1635년까지의 몽골을 ‘북원-몽골’ 또는 ‘명대 몽고’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문제점: 1402년에 북원이 멸망했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1402년 북원 멸망설에 대한 저자의 주요 논거는 국호의 변경이다. 『명사』 「달단전」에서는 “괴력적(鬼力赤)이라는 자가 위(位)를 찬탈하여 가한(可汗)을 칭하고 국호를 버리고 ‘달단(韃靼)’이라고 칭했다”²³라고 하여 굴리치(Gulrichi, 鬼力赤) 카안이 달단이라고 자칭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굴리치 카안이 ‘대원’ 국호를 버리고 ‘달단’을 자칭했다는 기술은 『명사』가 유일하다. 이 시기 사실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한 몽골어로 된 『황금사(黃金史, Altan Tobči)』,²⁴ 『몽골원류(蒙古源流, Erdeni-yin Tobči)』²⁵와 『알탄칸전(Erdeni tunumal neretü sudur

23 『明史』 권327, 「韃靼傳」.

24 Ш. Чоймаа, 2006, *Лувсанданзан Алтан Товч*, УБ., Соёмбо.

orosiba)』²⁶ 등에는 관련 기술이 없다. 오히려 『황금사』와 『몽골원류』 등에서는 이 시기의 몽골을 Tatar(韃靼)가 아닌 ‘Mongol’ 또는 ‘Yeke Mongol’로 기술하고 있다. 명대에 편찬된 한문사료인 『무비지(武備志)』와 『노룡새략(盧龍塞略)』 등에서도 몽골을 가리키는 ‘이지(夷地)’를 ‘망관아갈찰랄(莽官兒噶扎剌, Mongol gajar)’, ‘북로(北虜)’를 ‘야극망관아(野克莽官兒, Yeke Mongol)’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²⁷

1449년(특토부카 17, 正統 14)에는 특토부카 카안이 명 영종(英宗)에게 사신을 보내, 왜 자신을 ‘달달가한(達達可汗)’으로 부르느지를 묻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북원이 ‘달단’으로 국호를 변경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²⁸ 특히, 1442년(특토부카 10, 세종 24)에 특토부카 카안이 조선에 보낸 칙서에서 스스로를 ‘몽골 황제’로 자칭함으로써 타타르와는 무관함을 보여준다.²⁹ 이렇게 볼 때 달단이란 칭호는 몽골의 자칭이 아니라 명대인들의 타칭임이 분명하다.³⁰ 따라서 굴리치 카안이 달단으로 자칭한 것을 기점으로 북원이 멸망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근거나 논지가 성립하기 어렵다.

1389년에 즉위한 이수데르 조리크투 카안부터는 쿠빌라이의 중국 지배 이래 사용되어왔던 중국식 연호와 묘호 등이 사용되지 않는다.³¹ <고이 편>에서

25 M. Баярсайхан, 2006, *Саган сэцэн Эрдэнийн товч*, УБ., МУИС.

26 珠榮嘎 譯, 1990, 『阿勒坦汗傳』,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7 『武備志』 권227, 「北虜詛語」; 『盧龍塞略』;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6,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9.

28 『明英宗實錄』 권174, 정통 14년 정월조.

29 『조선왕조실록』 권96, 세종 24년 5월조.

30 和田清, 1959, 앞의 책; 達力扎布, 1991, 앞의 글. 미야자키 준코(宮脇淳子) 저, 조병학 역, 2000, 『最後의 몽골유목제국』, 백산출판사)는 명조인들이 몽골을 韃靼이라고 부른 것은 원과 몽골의 후계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원의 정통을 계승한 것을 자임한 명조에게 몽골은 부당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韃靼이라고 부르게 되면 문명의 중심을 떠나 야만스러운 옛 유목민 무리로 돌아간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31 『黃金史』에서는 조리크투 카안이 1388년에 즉위했다고 기술했다. 저자 미상, 김장

북원의 유물로 소개한 대다수가 아유시리다라의 ‘선광(宣光)’ 연호와 토구스 테무르의 ‘천원(天元)’ 연호임도 이와 유관하다. 몽골은 토구스 테무르를 끝으로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아유시리다라에 대한 표기는 중국식 모호인 소종(昭宗)과 몽골식 칭호인 빌리크투(Biligtu)를 병기했고, 토구스 테무르 사후에는 중국식 모호를 사용하지 않고, 몽골식 칭호인 우스칼(Usqal) 카안으로만 표기했다.

이수테르 카안 시기는 이런 외형적 변화 외에 원대 중기 권신(權臣)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해졌던 쿠릴타이의 기능을 부활해 유목국가 몽골로의 복귀를 본격화했다. 이수테르 이후 대다수 제위 계승 쟁탈전이 쿠릴타이를 통해 진행되었던 점은 정치제도 면에서 몽골이 초원의 유목국가로 복귀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³² 또한 이수테르 이후에도 태사(太師), 승상(丞相), 지원(知院) 등의 원대 한자(漢字) 관직명은 어느 정도 보존되기는 했지만, 직능과 성질은 완전히 변모되었다.³³ 나아가 1368년 북상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던 ‘대원’ 국호는 이수테르 시기를 기점으로 사라졌고, 대신에 ‘몽골’ 또는 ‘예케 몽골’을 국호로 주로 사용했다.³⁴ 물론, 1453년에 에센이 ‘대원전성대가한(大元田盛大可汗)’을 칭하고,³⁵ 바투 몽케 다얀 카안을 ‘대원가한(大元可汗)’으로 립단 카안 역시 ‘대원가한’으로 불렀던 점으로 볼 때 ‘대원’의 칭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후대의 대칸들이 사용하기도 했다.³⁶

저자가 주장한 1402년 설의 또 다른 주요한 논거는 쿠빌라이 계인 토곤 테무르 가계의 단절이다. 토곤 테무르-아유시리다라(子)-토구스 테무르(자)-영

구 역주, 2014, 『역주 몽골 황금사』, 동북아역사재단, 96쪽.

32 朱風·賣敬顏 譯, 2007, 『漢譯蒙古黃金史綱』,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73쪽; 珠榮嘎 譯, 앞의 책, 14쪽.

33 達力扎布, 1997, 앞의 책, 160쪽.

34 蔡美彪, 1992, 앞의 글, 46쪽.

35 『明英宗實錄』 권234, 景泰 4년 10월조.

36 森川哲雄, 2008, 「大元の記憶」, 『比較社會文化』 14.

케(자)-엘베크(弟)-군 테무르(자)로 이어지는 토곤 테무르의 가계가 굴리치 카안의 등장으로 와해되었고 이로써 동·서 몽골로 분열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앙케와 엘베크가 토구스 테무르의 자식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황금사』와 『몽골원류』는 이들을 토구스 테무르의 아들들로 묘사했지만, 관련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한 『명태조실록』에서는 토구스 테무르에게는 천보노(天保奴)와 지보노(地保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천보노는 이수테르에게 피살되었고, 지보노는 부이로호(湖) 전투에서 명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유구(琉球)로 유방(流放)되었다고 한다.³⁷ 오히려 페르시아 사료들은 앙케와 엘베크를 이수테르의 자식들로 보기도 한다.³⁸ 따라서 토곤 테무르 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군 테무르가 사망하는 1402년에 복원이 멸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³⁹

이수테르나 굴리치를 찬탈자로 보는 저자의 시각도 문제이다. 몽골제국의 제위는 칭기스칸의 후계자 중에 적임자 계승원칙을 따르고 있기에, 쿠빌라이-토곤 테무르 가계만 정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릭부케의 후손인 이수테르나 우구데이 후손인 굴리치 역시 대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고, 무력으로 제위를 차지한 인물이 이 두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⁴⁰ 이와 관련해 『황금사』는 비교적 명확하게 찬탈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토곤 타이시(Toghon Tashi)의 아들인 에센(Esen)을 ‘평화를 파괴한 자(Эе Эвэрч)’라고 묘사하며 찬탈자로 명명했다.⁴¹ 즉, 몽골 대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칭기스칸 후손에게 있으므로 비(非)칭기스칸 계인 에센의 대칸 즉위는 ‘평화를 파괴한’ 찬탈 행위라는 것이다.

이수테르를 찬탈자로 보는 시각은 주원장에서 비롯되었다. 주원장이 이수테르를 황금씨족의 계승자가 아닌 찬탈자로 여겨 1392년에 총병관(摠兵官) 주

37 『明太祖實錄』 권118, 홍무 21년 4월조.

38 薄音湖, 1987, 앞의 글, 44~45쪽; 本田實信, 1991, 앞의 책, 597~599쪽.

39 윤은숙, 2015, 앞의 글, 18쪽.

40 김성수, 2014, 「몽골제국 이후 쿠빌라이계의 활동과 그 한계」, 『몽골학』 39, 35쪽.

41 Ш. Чоймаа, 2006, 앞의 책, p. 251.

흥(周興)을 파견해 군주를 시해하고 찬탈한 죄를 물었다는 것에 기인한다.⁴² 그런데 주원장은 이수테르의 즉위 시점이 아닌 1392년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를 찬탈자로 규정하고 공격을 감행했다. 이처럼 이수테르를 찬탈자로 보는 것은 그럴듯한 전쟁 명분을 찾기 위한 주원장의 작위적 주장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수테르는 주흥의 군대가 오기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그야말로 전쟁 명분으로밖에 입히지 않는다. 게다가 적국의 군주인 주원장이 이수테르를 찬탈자로 규정한다고 찬탈자가 되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사료적·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1402년에 북원이 멸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우선 1635년 북원 멸망설은 차오용니안(曹永年)이나 총페이위안(叢佩遠) 등이 개설서에서 토곤 데무르의 북상부터 몽골이 청에 복속되는 시기까지를 북원 또는 ‘명대 몽고’라고 통칭한 것에 불과해, 사료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저자의 1402년 북원 멸망 주장은 1388년 북원 멸망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북원사를 중국사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에서 볼 때, 1388년 북원 멸망설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괴력적(鬼力赤)이라는 자가 위(位)를 찬탈하여 가한(可汗)을 칭하고 국호를 버리고 ‘달단(韃靼)’이라고 칭했다”⁴³는 『명사』 「달단전」의 기술이 북원의 존속 시기를 15세기 초로 확장하는 사료적 근거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명의 팽창정책이 일정한 효력을 발휘했던 15세기 초까지를 북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북원이 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명분으로 북원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계산을 깔고 있다. 결국, 원의 판도가 현재의 중국 영토를 포함했기에, 중국사라는 억지 주장을 넘어 몽골리아에 있던 북원도 원의 계승국이란 허울 아래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다. 뒤이어 명조와는 역사적 개연성과 당위성이 전혀 없는 15~17세기 몽골

42 『明史紀事本末』 권10, 「故元遺兵」.

43 『明史』 권327, 「韃靼傳」.

에 대해서는 ‘명대 몽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중국사의 언저리에 두려는 의도는 몽골사 전체를 중국사 안에 가두려는 심산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3. 문제점: ‘명대 몽고’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저자는 기존 내몽골 학자들이 개설서 등에서 1368년 원의 북상 이후를 ‘명대 몽고’라고 통칭했던 점에 착안하여, 이 명칭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저자는 ‘명대 몽고’라는 표기는 북원이 명조 관할하의 할거 정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⁴⁴ 명조는 ‘북원-몽골’과 동시에 260여 년간 중국의 영토 안에 존재했고, 당시 명조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대표했다. ‘북원-몽골’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내부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북원-몽골’이 명조의 속국은 아니지만, 당시에 명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5~17세기 몽골을 ‘명대 몽고’라고 표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시각은 비단 몽골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본문에서는 ‘명대의 조선’이란 표기도 거침없이 등장한다. 이것은 몽골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거나 변방사로 취급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역사 왜곡 행위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명조가 과연 대원제국의 계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원제국의 국호인 ‘대원(大元, Dai Öñ)’은 원래 몽골제국의 명칭이었던 예케 몽골 울루스(Yeke Mongol Ulus)와 등치해 사용되었으며 ‘대원’이 ‘대재건원(大哉乾元)’에서 따온 말이라는 하지만 ‘원(元)’ 역시 ‘지극히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대원(大元)’은 ‘크다’라는 개념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형상으로 볼 수 있다.⁴⁵ 당시에 몽골제국의 판도에서 ‘예케 몽골 울루

44 烏雲畢力格, 2009, 「歴史と民族の創成: 17世紀モンゴル編年史におけ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形成」, 一橋大學博士學位論文, 171쪽.

45 김호동, 2006,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스'라는 국호가 여전히 통용된 점은 대원제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흔히 원·명·청이라는 전형적인 중국왕조의 구분법은 왕조의 연속성을 강조하게 되어 마치 명이 원을 잇는 국가로 설정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1368년에 금릉(金陵)에서 명이 건국되었지만, 원이 여전히 대도(大都)를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368년 8월에 토곤 테무르 카안의 복상 이후에도 여전히 양국은 끊임없이 대립과 충돌을 지속했다.⁴⁶ 결국 원이 몽골리아로 퇴각한 이후에 카라코룸 전투(1372년)에서 명이 크게 패배하면서 양국의 충돌은 일단락되었다. 이때부터 주원장은 몽골리아 본토로의 진격을 멈추고 수세적인 방어로 전환했으며 양국의 대치상황은 명조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원과 명의 계승 관계를 찾을 수 없다.

원의 계승국은 후금(後金)이다. 후금의 홍타이지가 몽골의 차하르부(部)를 평정하면서 대원의 전국새(傳國璽)를 수중에 넣은 사건은 원과 청의 계승 관계를 확실히 보여준다. 본래 전국새는 1294년(至元 31)에 성종 테무르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제위 계승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때마다 사용되어왔다.⁴⁷ 그런데 1635년에 립단 카안의 아들인 에제이(Ejjei)로부터 홍타이지(Hong Taiji)가 전국새를 넘겨받음으로써 대원제국 황권의 정치적 전통이 홍타이지로 계승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636년에 홍타이지는 만주·몽골·한인의 대표들을 심양(瀋陽)으로 초대해 몽골식 대연회인 쿠릴타이를 개최했다. 이때 몽골의 왕공들은 홍타이지에게 몽골식 칭호인 '복드 세첸 카안(Bogd Sechen Qa'an)'이란 칭호를 헌상하고 그를 몽골의 대칸으로 승인했다. 이를 계기로 홍타이지는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하고 황제에 즉위함으로써 자신이 대원 황제의 정통적 후계자임을 증명하려 했다.⁴⁸ 그는 몽골로부터 옥새를 이어받음으로써 천하의 지배권이 홍타이지에게로 옮겨갔다는 권위를 부여받아

46 윤은숙, 2008, 앞의 글, 5쪽.

47 『南村輟耕錄』 권26, 「傳國璽御」.

48 N. 哈斯巴根, 2012, 「清初汗號與滿蒙關係」, 『民族研究』 2012-2, 95쪽.

대내외적으로 대청의 정통성과 동아시아 및 내륙 아시아의 통일을 달성할 명분을 제시하고자 했다.⁴⁹

저자의 논리인 대원제국의 두 개의 계승국가 명과 복원은 존립할 수 없고, 1368년 토곤 테무르의 북상 이후 양국은 치열한 전쟁을 진행한 적대 국가이다. 비록 북상했지만 실재하는 원을 두고 명이 원을 계승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나아가, 몽골이 명조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국이었으므로, 15~17세기 몽골 시기를 ‘명대 몽고’라고 표기하는 것은 국가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도외시한 지극히 중국 중심적인 시각에 기인한 심대한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복원사는 중국사의 일부인가?

중국학계의 몽골사 왜곡은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논리에 근간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몽골인의 선조 몽올실위(蒙兀室韋)의 근거지가 에르구네 일대에 있었으므로 중국사이고, 몽골제국도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었고, 청(淸)이 몽골을 복속했으므로 당연히 중국사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국 영토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몽골 역사 부분은 복원과 15~17세기 몽골뿐이다.

『복원사』 저술의 목적은 현재 중국 영토 안에 포함되지 않는 대원제국 소멸 이후의 몽골사를 중국사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명조가 대표성을 가진다는 명분으로 15~17세기 몽골을 ‘명대 몽고’로 불러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궁색하지만, 이 시기 몽골리아를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명조를 위협했던 몽골국을 중국사에 포함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기에 내놓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몽골 역사 공동체는 중국사와 직·간

49 杉山正明, 2008, 『モンゴル帝國と長いその後』, 東京: 講談社, 300~301쪽.

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전(全) 몽골사가 중국사가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북원사』의 전개 방식은 논리를 개발하는 단계이므로 비약이 심한 다소 거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논리가 조밀하게 강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원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인식하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왜 루안판을 비롯한 중국학자들은 ‘북원’ 칭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일까? 몽골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북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국호가 될 수 없다. 토곤 테무르, 아유시리다라와 토구스 테무르 등은 북상 후에도 기존의 ‘대원’ 국호를 계속 사용했고, 자신들의 국가를 원으로 이해했음은 당연하다. ‘북원’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쪽은 고려(高麗)로, 1369년(공민왕 18, 至正 29) 5월에 고려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지정(至正)’ 연호를 정지하고 그해 8월부터 ‘북원’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⁵⁰ 고려가 북상한 원을 ‘북원’으로 표기한 것은 몽골·명조 등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¹ 명조는 북상한 원을 ‘고원(故元)’,⁵² ‘전원(前元)’⁵³ 또는 ‘망원(亡元)’⁵⁴으로 부르면서 실재하는 대원제국의 멸망을 공식화하려 했고, 영락제 시기부터는 달단⁵⁵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주원장이 원의 멸망을 공식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것이라면, 영락제의 달단 표기는 몽골이 북방의 할거 세력 중 하나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북원이라는 표기가 ‘사칭’이라고 했지만, 『고려사』의 표기를 중국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 중국학자들은 원과

50 『高麗史』 권133, 공민왕 18년 8월조.

51 윤은숙, 2010, 「고려의 北元 칭호 사용과 동아시아 인식-고려의 양면 외교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5, 200~201쪽.

52 『명태조실록』 권34, 홍무 원년 8월조.

53 『명태조실록』 권76 홍무 5년 9월조.

54 『명태조실록』 권52, 홍무 3년 5월조.

55 『明史』 권156, 「清韃靼傳」, 韃靼汗鬼力赤遇弒.

복원을 분리하여, 복원과 함께 명에게도 원의 계승국 지위를 부여해 원과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사 속의 대원제국의 위상을 계승한 다민족국가 중국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명조가 1368년부터 중원을 차지한 정통 국가임을 강조하고, 북상한 원을 ‘제족 정권(諸族政權)’으로 격하시키려는 속셈도 내포되어 있다.

한편, 저자 논리의 중요한 모순은 복원사가 <동북고대 방국·속국사 연구>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책의 총전언(總前言)에서는 <동북고대 방국·속국사 연구>의 대상을 역사적 개연성과 주요 활동무대를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적 개연성은 중원왕조의 조공·책봉체제에 존속하는 국가나 정권을, 주요 활동무대는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던 국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복원은 중원의 명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전쟁 상대국이 있었으므로 역사적 개연성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1368년에 상도(上都)로 북상한 후에 응창(應昌)을 거쳐 1370년에 아유시리다라 카안이 카라코룸으로 복귀했고 저자가 주장한 1402년 멸망 때까지 몽골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아유시리다라의 카라코룸 복귀 이후 요동 일대에는 원의 잔여 세력인 군벌들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엄밀히 보면 이들은 복원·명·고려 사이에서 자파(自派)의 이익에 충실했던 집단으로 복원이라 규정하기는 어렵다.⁵⁶ 따라서 복원은 지리적으로 <동북고대 방국·속국사 연구>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 역시 중국의 동북지역이 아니다.

결국 <동북고대 방국·속국사 연구>의 범주에 복원을 억지로 넣은 의도는 원(元)이 중국 영토 내에 건설되었기에 중국사의 일부라 주장하는 것처럼, 원의

56 아유시리다라의 몽골리아 복귀 후에 요동 일대의 군벌들은 각자도생을 선택했다. 요양형성 平章 劉益은 명의 遼南 공격에 두려움을 느껴 1372년에, 요동 최고 군벌 나가추는 지배하의 여진인들이 굶주림 때문에 1387년에, 遼王 아자스리와 동방왕 가는 나가추 투항 이후 밀려오는 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해 1388년에 각각 명조에 항복했다. 이처럼 요동 일대의 군벌들은 복원의 명령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세력들이라기보다는 자파의 이익에 충실한 독자 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도 내에 복원이 존재하고 원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복원 역시 중국사의 범주라는 억지 논리를 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중국 내부 통합이라는 현재적 문제를 넘어 중국의 영토적 야심이라는 미래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 영토 안에 몽골족과 내몽고자치구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정책이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몽골국의 중국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제국사와 복원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는 현재의 문제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⁵⁷ 이러한 중국의 포석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각종 몽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0여 년간 몽골 관련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그 연구 결과물들을 쏟아내는 것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이 몽골 연구에 이처럼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단순히 민족사를 복원하여 역사적 실체를 찾으려는 의도만은 아닐 것이다.⁵⁸

루안판이 저술한 『복원사』는 몽골사 전체를 중국사 안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속셈이 복원 시기까지 도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라는 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복원사』의 논리 전개 방식은 이 시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고려와 조선에 대해서도 상통하는 논리 적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57 이평래, 2008, 「중국 학계의 몽골사 서술 분석」,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76쪽.

58 박장배 편, 2020, 『중국의 변경 연구4-북부변경 연구와 역사해석』, 동북아역사재단, 110~111쪽.

참고문헌

사료

- 『高麗史』(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역주 몽골황금사』(김장구 역주, 동북아역사재단, 2014).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南村輟耕錄』(上海: 上海書店, 1985).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9).
『明史』(標點校勘本, 北京: 中華書局, 1997).
『明史紀事本末』(北京: 中華書局, 1985).
『明實錄』(臺灣: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2).
『阿勒坦汗傳』(珠榮嘎 譯,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0).
『元史』(北京: 中華書局, 1976).
『漢譯蒙古黃金史綱』(朱風·賈敬顏 譯,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7)

Ш. Чоймаа, 2006, *Лувсанданзан Алтан Товч*, УБ., Соёмбо.

М. Баярсайхан, 2006, *Саган сэцэн Эрдэнийн товч*, УБ., МУИС.

단행본

박장배 편, 2020, 『중국의 변경 연구4-북부변경 연구와 역사해석』, 동북아역사재단.

樂凡, 2019, 『北元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達力扎布, 1997, 『明代漠南蒙古歷史研究』, 呼和浩特: 內蒙古文化出版社.

蒙古族簡史編寫組, 1986, 『蒙古族簡史』,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付百臣 主編, 2009, 『中朝歷代朝貢制度研究』,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李雲泉, 2004, 『朝貢制度史論-中國古代對外關係體制研究-』, 北京: 新華出版社.

曹永年, 2002, 『蒙古民族通史』3卷,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 3卷,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本田實信, 1991, 『モンゴル時代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杉山正明, 2008, 『モンゴル帝國と長いその後』, 東京: 講談社.

荻原淳平, 1980, 『明代蒙古史研究』, 東京: 同朋舍出版.

池内宏, 1963, 『滿鮮史研究』 中世3, 東京: 吉川弘文館.

和田清, 1934, 「明初の滿洲經略」,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東京: 東京帝國大學文學部.

_____, 1959, 『東亞史研究(蒙古篇)』, 東京: 東洋文庫.

논문

김성수, 2014, 「몽골제국 이후 쿠빌라이계의 활동과 그 한계」, 『몽골학』 39.

김순자, 2010, 「고려~조선초 한·중간 영토에 대한 현대 중국학계의 시각」, 『역사와 현실』 76.

김호동, 2006,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윤은숙, 2007, 「나가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 政勢」, 『明清史研究』 28.

_____, 2008, 「北元과 명의 대립-遼東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05.

_____, 2010, 「고려의 北元 칭호 사용과 동아시아 인식-고려의 양면 외교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5.

_____, 2015, 「북방민족의 정체성과 계승성」, 『몽골학』 18.

_____, 2020, 「대원제국 시기 황실 통혼과 여성의 정치적 역할-몽기라트 부족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53.

이평래, 2008, 「중국 학계의 몽골사 서술 분석」,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格日勒图, 2018, 「論北元政權」, 『內蒙古大學學報』 44-5.

達力扎布, 1991, 「北元史研究三題」, 『黑龍江民族叢刊』 1991-2.

孟古托力, 2000, 「蒙元與高麗關係述論」, 『北方文物』 64.

朴延華·朱紅華, 2004, 「試論元麗兩國政治聯姻關係」, 『延邊大學學報』 37-1.

薄音湖, 1987, 「關於北元汗系」, 『內蒙古大學學報』 1987-3.

- _____, 1994, 「北元與明代蒙古」, 『內蒙古大學學報』 1994-1.
- 薛磊, 2004, 「元朝與高麗政治關係中的重要人物-高麗忠宣王璋」, 內蒙古大學學報』 25-3.
- N. 哈斯巴根, 2012, 「清初汗號與滿蒙關係」, 『民族研究』 2012-2.
- 烏雲畢力格, 2009, 「歴史と民族の創成: 17世紀モンゴル編年史におけ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形成」, 一橋大学博士學位論文.
- 李學, 1996, 「北元, 蒙古, 明代蒙古」, 『內蒙古大學學報』.
- 刁書仁・ト照品, 2001, 「論元末明初中國與高麗, 朝鮮的邊界之爭」, 『北華大學學報』.
- 蔡美彪, 1992, 「明代蒙古與大元國號」, 『南開學報』 1992-1.
- 特木勒, 2000, 「北元與高麗的外交: 1368年-1369年」, 『中國邊疆史地研究』 36-2, 中國邊疆史地研究會.
- 本田實信, 1986, 「早期北元世系」, 『內蒙古大學學報』 1986-2.
- 森川哲雄, 2008, 「大元の記憶」, 『比較社會文化』 14.

루안판의 『북원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요 서술의 특이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

윤은숙

몽골제국 이후의 역사를 다룬 루안판(婁凡)이 쓴 『북원사』(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9)는 2010년 중국의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위탁항목인 <동북고대 방국·속국사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편찬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 경제, 문화, 민족과 인물 등을 총망라하여 본격적으로 북원의 역사를 다룬 중국의 첫 번째 저술로서 중국학계의 북원사 인식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기존 중국학계의 논리를 답습해서 몽골제국사를 중국사로 간주하면서, 몽골족이 중국의 동북지역을 통일하여 다민족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전제하며, ‘중화민족’이란 논리를 역사적으로 설명할 근거로 몽골족이 세운 다민족국가 대원제국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북원사도 중국사의 일부라고 역설하기 위해, 북원과 명조를 원의 계승국으로 등장시키고, 양국은 원 소멸 이후 중국 영토상에 병존했던 두 개의 정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원(元)이 중국 영토 내에 건설되었기에 중국사의 범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원의 판도 내에 북원이 존재하고 원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북원 역시 중국사의 일부라는 억지 논리를 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주제어: 북원사, 루안판, 원, 명, 몽골, 다민족국가

ABSTRACT

Critical Study of Luan Fan's *History of Northern Yuan*: Focused on the Peculiarities and Issues of the Main Descriptions

Yoon Eunsook

Since this book was published as part of the major commissioned project “Research on the History of Ancient Northeast Fang Empire and its Dependent Countries” in 2010 by China’s National Social Science Fund of China,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book in that it is a writing that can analyze the latest trend of research on the history of Northern Yuan in Chinese academia. *History of Northern Yuan* written by Luan Fan who dealt with the history after the Mongol Empire (China Science Publishing & Media Ltd., 2019) is China’s first description that covered politics, economy, culture, ethnicity, and people to earnestly deal with the history of Northern Yuan.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as Chinese history, following the logic of traditional Chinese academia and presupposing that the Mongols established a multi-ethnic nation, unifying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the author would present the Great Yuan Empire, a multi-ethnic nation, founded by the Mongols as a ground for explaining the logic of ‘Zhonghua minzu (Chinese nation)’ historically. Especially, he brings out Northern Yuan and Ming Dynasties as successor states of the Yuan Dynasty to emphasize the history of Northern Yuan, too, is part of Chinese history and argues that the two countries were two governments that coexisted on the Chinese territory after the extinction of the Yuan Dynasty.

Like he argues that since the Yuan Dynasty was founded in the Chinese territory, its history was part of Chinese history, this seems to be the groundwork to set out a coercive logic that Northern Yuan would also be part of Chinese history since Northern Yuan existed in the territory of the Yuan Dynasty and succeeded the Yuan Dynasty.

Keywords: History of Northern Yuan, Luan Fan, Yuan Empire, Mongol, Multi-ethnic n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경재전집』의 지리류(地理類)와 한국고대 영토 인식

김희만 | 서강대학교 디지털역사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연경재전집』 지리류의 구성과 내용
- III. 지리류를 통해 본 고대의 영토 인식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정조·순조 대에 활동한 인물이다. 그의 생애는 성장기(1760~1788), 관직 재직기(1788~1815), 저술기(1815~1839)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특히 정조대의 규장각 검서관 시절에는 각종 편찬사업에 참여하면서 학문적으로 성숙하였다.¹ 그의 문집인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²은 크게 본집·외집·속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학과 경학사상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문집 가운데 외집(外集) 권44~권51까지는 ‘사료지리류(史料地理類)’라는 항목으로 지리류가 세분되어 있으며, 속집(續集) 권50에는 ‘산수기(山水記)’, 외집 권63에는 ‘고적류(古蹟類)’, 속집 권16에는 ‘동국지리변(東國地理辨)’으로 소위 ‘지리류’³가 편성되어 있다. 이들 기록은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 투고: 2022년 7월 12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9일, 재심사 완료: 2022년 8월 31일, 게재 확정: 2022년 9월 1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0S1A5B5A16082534).

- 1 김문식, 1996,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74~75쪽.
- 2 『연경재전집』은 두 종류의 판본이 전하는데, 하나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圖書番號: 貴555·貴555A·貴555B)으로 1982년 昨晟社에서 영인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01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영인표집) 한국문집중간』 273~279권이다.
- 3 이 글에서 사용하는 ‘지리류’라는 용어는, 하나는 ‘史料地理類’의 약칭으로, 여기에는 「東水經」, 「東國泉品」, 「祖江壽志」, 「苑陵島志」, 「漢二郡考」, 「九城考」, 「六鎮開拓記」와 「西北疆域辨」 上·下, 「西北邊界考」 등과 「四郡考」, 「厚州紀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문헌을 통한 역사지리적 서술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소위 ‘지리류’에 포함할 수 있는 「山水記」 上·下, 「古蹟類」, 「東國地理辨」, 「文〇辨」 등의 내용을 말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산수나 고적 및 지리에 대

그 구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내용 면에서는 중국 사서에 보이는 관련 기사가 다양하게 차용되었을 뿐 아니라, 『설문(說文)』이나 『수경(水經)』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성해응이 지리류를 이렇게 다양한 구성과 내용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역사지리와 지리 환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며, 아울러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성해응의 지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성해응에 대해서는 연경재(研經齋)라는 호에 주목하여 주로 경학자로서 이해하거나, 그의 문학적 소양에 주목해왔다. 실제로 『연경재전집』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면 경학과 문학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⁴ 그러나 성해응은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전문지식을 서술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중에서 성해응의 조선 영토와 지리에 관한 인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⁵

한 성해응의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즉 자연지리적 측면의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내용으로 성해응의 ‘지리류’를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 4 성해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학과 경학사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 성과 가운데 문학으로는 손혜리, 2011,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출판; 성해응 지음, 손혜리·이성민 옮김, 2015, 『연경재 성해응의 초사담헌』, 사람의무늬; 성해응 지음, 손혜리·지금완 옮김, 2016, 『서화잡지』, Humanist; 성해응 지음, 윤세순 옮김, 2017, 『연경재 성해응의 난실담총』, 학자원; 손혜리, 2018, 「성해응의 서북지역에 대한 인식과 비판」, 『민족문화사연구』 66; 윤세순, 2018, 「『난실담총』의 편찬 시기와 지식 구축 방식」, 『동방한문학』 76; 손혜리, 2020, 「정조대 관찬과 사찬의 이중주」, 『한문학보』 43 등이 있다. 경학사상으로는 李丙燾, 1938, 「成研經齋與其學術略述」, 『稻葉博士還曆記念滿鮮史論叢』; 李丙燾, 1987,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서경요, 1982, 「성해응의 경학사상에 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김문식, 1996, 앞의 책; 양원석, 2003, 「성해응의 시경학」, 『어문론집』 48 등이 참고된다.
- 5 성해응에 관한 역사지리 연구는 배우성, 1997, 「17·18세기 淸에 대한 인식과 북방 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99·100;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월; 강석화, 2005,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 강석민, 2006, 「18세기 조선의 영토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석화, 2007, 「19세기 북방 강역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5; 강신엽, 2007,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는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우선 이들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사료지리류’의 구성과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산수기’와 ‘고적류’, ‘동국지리변’의 구성과 내용 및 해당 시기 등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해응이 한국 고대의 영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해응은 조선의 역사지리를 서술하면서 독특한 분류방식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방위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서술 방식을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방위개념은 크게 중국과 대비되는 「동수경(東水經)」 「동국천품(東國泉品)」 「동국지리변(東國地理辨)」 등 ‘동(東)’이나 ‘동국(東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나온다. 또한 ‘서북강역(西北疆域)’, ‘서북변계(西北邊界)’ 등 ‘서북(西北)’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서술 방식은 ‘류(類)’, ‘경(經)’, ‘기(記)’, ‘고(考)’, ‘변(辨)’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양한 서술 방식은 당연히 성해응의 의도적인 구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특히 영토 관련 내용 중 ‘변’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된 내용이 있는데, 이 ‘변’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살펴해보면서 성해응이 ‘변’이라는 항목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 보이는 한국 고대의 영토 인식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성해응의 영토 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로 조선 후기 당대의 정세에 따른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성해응의 국방론」, 『문헌과 해석』 41; 강석화, 2012, 「성해응의 서북 변계 의식」, 『진단학보』 115; 이원택, 2012, 「성해응의 지정학과 울릉도·우산도 인식」, 『한국사상사학』 41 등이 있다. 최근 번역서로는 성해응 지음, 박동욱 옮김, 2012, 『동국산수기』, 한양대학교 출판부; 성해응 지음, 이승준 번역, 2018, 『동국지리변』, 시간의 물레 등이 있다.

되었기 때문이다.⁶ 이 글에서는 성해응이 한국의 고대(古代) 영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II. 『연경재전집』 지리류의 구성과 내용

성해응은 이덕무(1741~1793)·유득공(1748~1807)·박제가(1750~1805) 등과 함께 규장각에 근무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학문과 식견을 크게 넓힐 수 있었다고⁷ 한다. 특히 성해응의 박학적 학풍은 지리와 명물의 고증에 밝았던 유득공의 학문과 유사한 것이 많았다.⁸ 이는 유득공이 “내가 규장각 소속 관료로 있으면서 궁중 도서를 상당히 열람하였기에 발해에 관한 사항들을 편찬”⁹하였다고 말할 대목으로 볼 때, 두 사람 모두에게 규장각이 학문적 토양을 제공하였음을 알려준다. 유득공의 『발해고』에 성해응의 서문이 실린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성해응은 유득공의 『발해고』를 경세지학에 도움이 되는 저술로 평

- 6 성해응의 당대 경제론에 대해서 서북지역 정비론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대명의리론과 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청이 멸망한 이후의 대비책인데,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 북방의 영토 인식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문식, 1996, 앞의 책, 100~115쪽; 강석화, 2005, 위의 글, 106~113쪽; 강석화, 2007, 위의 글, 3~17쪽; 강석화, 2012, 위의 글, 128~133쪽;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등이 있다.
- 7 규장각 검서관에 관한 연구로는, 배재홍, 1996, 「조선 정조대 규장각 검서관」, 『조선사연구』 5; 김문식, 1996, 위의 책, 78쪽; 박인호, 1996,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문화사, 180쪽; 박현욱, 2000, 「조선 정조조 검서관의 역할」, 『서지학 연구』 20 등이 참고된다.
- 8 유득공의 『발해고』 서문은 1784년 윤3월 25일에, 박제가의 서문은 1785년 가을에 작성하고 있으며, 성해응은 별도로 『발해고』의 서문을 작성하였다. 박인호, 1996, 위의 책, 179쪽; 유득공 지음·김종복 옮김, 2018, 『정본 발해고』, 책과 함께.
- 9 유득공 지음·김종복 옮김, 2018, 위의 책, 61쪽의 유득공의 서문. 이 서문은 현전하는 『발해고』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성해응, 1982, 「발해고서」, 『연경재전집』 외집 1, 오성사, 179쪽에 전하며, 서경압록부에 대한 비정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박인호, 1996, 위의 책, 179쪽.

가하였고, 서북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사군지(四郡志)』를 공동 저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해응의 ‘지리류’ 저술들은 유득공의 『발해고』나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日懷古詩)』와 유사하여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¹⁰ 평가된다. 이 장에서는 성해응이 이러한 학문적 풍토를 배경으로 어떠한 지리류를 편찬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사료지리류’의 구성과 내용

먼저, 『연경재전집』의 「사료지리류」¹¹의 권호와 각 권호의 분류 내용 및 그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항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경재전집』 「사료지리류」의 분류와 내용

권 호	분류	내용	비고
외집 44권	東水經	漢江, 大同江, 淸川江, 鴨綠江, 豆滿江, 龍興江, 城川江, 洛東江, 太和江, 沙湖江, 蟾江, 泗水江, 東津江, 沙津浦, 沔陽江, 錦江, 大津, 禮成江	朝鮮 (東國)
	東國泉品	四井, 椒井, 訓鍊院泉, 陽陵井, 烜艾井, 椒泉, 椒泉, 飛鳳山泉, 普光山泉, 椒井, 俗離山泉, 溫泉, 溫泉, 于筒水, 潢池, 五峯泉, 溫泉, 溫泉, 盧春井, 寒松仙井, 酒泉, 溫泉, 平安泉, 葛山洞溫泉, 靈泉, 溫井, 馬山溫泉, 大橋溫井, 溫泉, 白鹿潭, 金鷄泉, 金井泉, 墨井, 花藏泉, 葦井, 酒泉, 善妙井, 農泉, 潮泉, 靈泉, 甘泉, 神湓池, 箕子井, 溫井, 大泉	
외집 45권	祖江壽志 苑陵島志 漢二郡考	祖江壽志 苑陵島志 玄菟郡, 樂浪郡	朝鮮
외집 46권	九城考 六鎮開拓記	九城考 六鎮開拓記	高麗

10 김문식, 1996, 앞의 책, 78쪽.

11 성해응, 2001, 『연경재전집 외집』 277집(『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외집 47권	西北疆域辨(上)	箕子朝鮮, 漢眞蕃郡, 後漢玄菟郡, 晋玄菟郡, 夫餘, 東沃沮, 濊, 高句麗諸城,	朝鮮
외집 48권	西北疆域辨(下)	肅慎國, 渤海, 金源諸地, 高麗邊界, 邊界山水, (附)蒙古四十八部	朝鮮 周邊
외집 49권	西北邊界考	安定國, 高麗六城, 東寧府, 雙城府, 五國城, 白山記, 長城, 二僭僞載記	高麗
외집 50권	建州錄 建州紀程 紅島偵探記 後春將標文	建州錄 建州紀程 紅島偵探記 後春將標文	朝鮮
외집 51권	四郡考 厚州紀略	沿革, 山川, 關防, 復置議, 蓼政 鎮堡, 山川, 李健秀手本	朝鮮

〈표 1〉에서 보듯이, 『연경재전집』 외집, 권44~권51까지에는 「사료지리류」라는 편명으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연경재전집』 외집, 권44에서는 「동수경」과 「동국천품」이라 하였는데, 「동수경」의 경우 중국의 『수경』¹²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쓰였다고 생각된다. 「동국천품」 역시 그러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국 서적 중에는 『천품』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동국천품」은 성해응의 독창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동수경」에는 18개의 강(浦, 津)이 나열되어 있으며, 각각의 강에는 다시 세 부적으로 그에 속하는 지류의 강을 열거하고 있다. 「동국천품」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정(井)과 온천을 중심으로 그 소재지와 내력 및 효용성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동수경」은 16개의 강과 1개의 포(浦), 1개의 진(津)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의 「동수경」의 강·포·진 및 지류의 명칭을 보면, 한강을 시작으로 한반도 북부지역의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두만강 등과 남부지역의 낙동강, 동진강, 금강 등 한반도 전역에 걸친 「동수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강, 대

12 이에 대해서는, 山元貴尙, 2008, 『『水經』, 『水經注』, 『水經注疏』について』, 『水經注疏譯註(渭水篇 上)』, 東洋文庫가 참고된다.

〈표 2〉 『연경재전집』 「동수경」의 강·포·진 및 지류의 명칭

구분	이름	지류의 명칭/비고
江	漢江	達川江, 蟾江, 新淵江, 昭陽江, 臨津江, 大灘江
	大同江	沸流江, 能城江, 月唐江
	淸川江	大寧江
	鴨綠江	虛川江, 長津江, 禿魯江, 修家江, 古津江
	豆滿江	
	龍興江	
	城川江	
	洛東江	琴湖江, 黃芑江, 晉江
	太和江	
	沙湖江	砥石江
	蟾江	洛水
	泗水(江)	
	東津江	
	納陽江	
	錦江	
	禮成江	
	浦	沙津浦
津	大津	* 外集 목차에는 大津, 頓串津, 彌勒川(頓串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大津 안에 포함되어 있다.

동강, 압록강, 낙동강 등은 지류의 명칭이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이와 관련하여 정약용의 『대동수경(大東水經)』의 구성과 내용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표 2〉 「동수경」의 강·포·진 및 지류의 명칭과 비교할 때, 〈표 3〉 『대동수경』의 구성과 내용은 다분히 한반도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이를 통해서 「동수경」과 『대동수경』은 서술 범위와

〈표 3〉 정약용의 『대동수경』의 구성과 내용

권호	구성	내용	비고
『大東水經』 第1	淥水 1	長白山, 發源, 北靑, 三水, 厚洲	鴨綠江
	淥水 2	江界, 渭原, 楚山, 碧潼, 昌成, 朔州, 義州, 入海, 漲水	
『大東水經』 第2	淥水 3	禿魯水, 鹽難水, 潼水, 鬩河水, 古津水	鴨綠江
	滿水 1		豆滿江
	滿水 2		
『大東水經』 第3	薩水·淀水	薩水(淸川)·淀水(大寧水)	淸川江
	湏水 1	辨說, 寧遠, 德川, 价川, 順川, 慈山, 殷山, 江東	大同江
	湏水 2	平壤, 中和, 江西	
『大東水經』 第4	湏水 3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해응과 정약용의 ‘수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정약용이 한반도 북부지역의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두만강 등을 주로 다루었다면, 성해응은 한반도 전역에 걸친 ‘수경’을 소개하고 있다. 정약용이 당시 청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압록강이나 두만강, 또는 역사적으로 경계가 되었던 대동강, 청천강 등에 관심

- 13 북한에서 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대동수경』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이 판본을 남한에서 재발행(정약용 저, 강서영 외 공역, 2001, 『역주 대동수경』, 여강출판사) 한 바 있다. 『대동수경』 해제(9쪽)를 보면, 북부 조선의 강들만 취급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 북부 조선의 지리에 대한 문헌이 풍부하며 또 역대에 걸쳐 강역의 변천이 매우 복잡하며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이 허다히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중국의 『수경』을 저작하려는 것이었던 만큼 웅당 미완성 저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대동수경』의 내용이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등 북부 조선 6대 강을 따로 서술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을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성해응은 조선 전 영토의 물길에 대한 시원과 지류를 소개하여, 강이 지리적 경계, 국경의 경계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팔도를 흐르는 생활 수자원으로서의 의미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강뿐 아니라 포나 진을 서술하였던 점은 물길을 교통의 요충지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리 환경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성해응이 보다 실질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어서 『연경재전집』 외집, 권45에는 「조강도지(祖江濤志)」, 「울릉도지(甌陵島志)」, 「한이군고(漢二郡考)」가 기술되어 있는데, 「조강도지」에서는 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석 간만의 차이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울릉도지」에서는 신라 지증왕 13년 조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이군고」라고 할 수 있는데, 한사군 가운데 현도군과 낙랑군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경재전집』 외집, 권46에는 「구성고(九城考)」와 「육진개척기(六鎭開拓記)」가 기술되어 있는데, 「구성고」는 고려 시대의 윤관(尹瓘)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육진개척기」 또한 육진, 즉 옥저와 읍루 지역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으므로, 실제 고대와 고려 시대의 영토 인식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성해응이 「구성고」와 「육진개척기」를 두 개의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고토에 대한 진지한 역사지리적 접근의 한 방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 ‘사료지리류’에서 9개의 중(中) 항목이 있는데, 「동수경」, 「동국천품」, 「조강도지」, 「울릉도지」의 경우는 한반도의 자연지리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한이군고」 이하 5개의 중 항목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였던 지역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조선의 영토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부분은 우리의 고토에 대한 역사지리적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연경재전집』 외집, 권47과 권48은 「서북강역변」 상·하(上·下)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이 지리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 4〉 『연경재전집』 「서북강역변」 상·하(上·下)의 구성과 내용

구분	구성	내용
	西北疆域辨總目	箕子朝鮮, 肅慎國, 夫餘, 東沃沮, 濊, 高句麗諸城, 渤海, 金源諸地, 高麗邊界, 邊界山水, 附 蒙古四十八部
西北疆域辨 上	朝鮮, 溟水, 帶方·屯有, 眞番郡, 渤海長嶺府, 玄菟郡, 高句麗, 小水貊, 東沃沮, 西蓋馬, 丸都, 沸流水, 小遼水, 馬營水, 鹽灘水, 北豐, 蓋牟城, 渤海東京龍原府, 渤海南京南海府, 渤海西京鴨綠府, 渤海驪賓府, 星顯水, 曷懶甸, 曷蘓館, 長城, 抱州, 雙城, 兀刺城, 臨菴郡, 東曉, 不而, 蠶台·華麗·邪頭味, 含資, 吞列·列口·粘蟬, 濊, 單單大嶺	
西北疆域辨 下	肅慎, 蓋馬山, 混同江, 土門江, 置溝婁, 渤海上京龍原府, 渤海中京顯德府, 胡里改路, 孩懶水, 馬紀嶺, 乙離骨嶺, 活刺渾水, 夫餘城, 建安城, 安市城, 烏骨城, 沙卑城, 辱夷城, 積利城, 附 蒙古四十八部	

그 내용 또한 고대의 영토 인식을 살펴보는 데 긴요한 부분이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위의 내용은 「서북강역변」 상·하에 대한 기록이다. 그 가운데 「서북강역변」의 서두에 있는 ‘서북강역변총목’은 말 그대로 ‘서북강역변’에 대한 전체 목차이다. 이후 이를 근간으로 ‘서북강역’에 대한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북강역변총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당시 ‘서북강역’에 대한 내막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자조선(箕子朝鮮)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미 주왕(周王)에게 치국의 도를 전하였으나, 중국을 피하여 조선으로 왔다. 이때 은(殷)의 유민과 옛 신하 등 5,000명이 그를 따라 조선으로 와 예의(禮儀)·정전(井田)·팔조교(八條敎) 등 은대의 문물을 전하였으며, 그 이후 작은 현에 불과하였던 조선이 기자에 이르러 대국이 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숙신국(肅慎國)이 한대(漢代)

에 음루(挹婁)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내용부터 한의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 낙랑군과 후한의 현도군, 낙랑군의 영현(領縣)과 영성(領城), 진(晉)의 현도군, 낙랑군 영현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부여(夫餘)와 동옥저(東沃沮) 및 예(濊)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 제성(諸城)으로 북풍(北豊), 건안성(建安城), 개모성(盖牟城), 안시성(安市城), 오골성(烏骨城), 사비성(沙卑城), 옥이성(辱夷城), 적리성(積利城)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발해에 관해서도 5경을 비롯하여 부(府)·주(州)의 명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 남경남해부(南京南海府), 서경압록부(西京靑綠府), 장령부(長嶺府), 부여부(扶餘府), 막힐부(鄒顯府), 정리부(定理府), 안변부(安邊府), 솔빈부(率賓府), 동평부(東平府), 철리부(鐵利府), 회원부(懷遠府), 안원부(安遠府), 독주주(獨奏州)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원제지(金源諸地)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갈라진(曷懶甸),¹⁴ 갈소관(曷蘇館),¹⁵ 홀품로(恤品路),¹⁶ 성현수(星顯水),¹⁷ 호리개로(胡里改路), 해라수(孩

14 曷懶甸은 10세기경 동북아시아의 옛 지명으로, 金朝에 들어와서는 曷懶路로 칭하기도 하였다. 遼代에는 그에 편입되지 않았던 生女眞의 거주지로 함경남도 함흥시 일대라고 보기도 한다. 당시 많은 여진부락이 있었고, 고려와 경계를 이루었다. 『金史』 「高麗傳」에도 여러 지명이 나온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이 참고된다. 김구진, 1976, 「공험진과 선춘령비」, 『백산학보』 21; 방동인, 1976, 「운관구성재고」, 『백산학보』 21; 稻葉岩吉, 1931, 「高麗尹瓘九城考」, 『史林』 16-1·2; 池内宏, 1922, 「完顔氏の曷懶甸經略と尹瓘の九城の役」,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9.

15 曷蘇館은 고구려의 옛 지역이며, 金과 고려의 경계 지역이었다. “曷蘇館在今昌城隔江之地 遼史云若大軍行由曷蘇館女眞北 直渡鴨綠江 高麗可取而有, 又稱合蘇按清一統志 漢安平縣 在句麗爲泊灼城 在金曰婆娑府 其地在鳳凰城東 正合曷蘇地分也.” 尹廷琦, 1991, 「鴨水外地」, 『東寶錄』, 原主文化社.

16 恤品路는 雙城子の 남쪽으로, 金朝 회령부의 동남 경계지역이다. 郭毅生, 1983, 「率賓府, 恤品路和開元城」, 『歷史地理』 2.

17 星顯水는 지금의 吉林省 延吉市를 흐르는 布尔哈通河로 동남으로 흘러서 圖門江으로 들어간다.

懶水), 마기령(馬紀嶺), 을리골령(乙離骨嶺), 활라혼수(活刺渾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몇 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금원제지에 기록된 지명들도 대개 고구려의 옛 지역이거나, 고려와의 국경지대를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의 변계를 서술하는 데 장성(長城), 보주(保州), 쌍성(雙城), 울자성(兀刺城)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변계의 산수를 기재하였는데, 개마산(蓋馬山), 단단대령(單單大嶺), 소요수(小遼水), 마자수(馬訾水), 염수(鹽水), 패수(溈水), 혼동강(混同江), 토문강(土門江) 등을 기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해당하는 몽고사십팔부(蒙古四十八部)를 표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이상이 ‘서북강역변총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는 그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서북강역’의 중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서북강역변’ 상·하에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성해응의 ‘서북강역’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파악해볼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연경재전집』 외집, 권49에는 「서북변계고(西北邊界考)」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략 고려 시대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정국(安定國), 고려육성(高麗六城), 동녕부(東寧府), 쌍성부(雙城府), 오국성(五國城), 장성(長城), 백산기(白山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끝부분에 수록된 ‘이참위재기(二僭僞載記)’에는 궁예와 견훤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신라 후기의 영토 인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연경재전집』 외집, 권50과 권51에도 지리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권50의 「건주록」은 「건주정토록」과 함께 조선의 역대 여진 토벌 상황을 기록한 것이며, 「건주기정」도 건주 여진의 사정을 정탐한 내용이다. 또한 영조 대에 후춘(厚春) 지역 홍도(紅島)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장교의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권51에는 「사군고」에 해당하는 연혁, 산천, 관방(關防), 복치의(復置議), 삼정(參政)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어서 「후주기략」의 진보(鎭堡)와 산천 등에

〈표 5〉 『연경재전집』 「서북변계고」의 구성과 내용

구분	구성	내용
安定國		安定國. 本渤海之種. 爲契丹所破. 保其西鄙 …
高麗六城	興化鎮今入義州, 通州今宣川, 龍州今龍川府 鐵州今鐵山府, 郭州今郭山郡, 龜州今龜城府	高麗成宗四年, 契丹蕭遜寧大舉入寇. 王至西京. 遜寧移書促降. 羣臣議者. 欲自黃州至崑嶺爲界. 以與而請和 …
東寧府	東寧府今平壤府	高麗元宗十年, 以西京爲東寧府, 忠烈王庚寅, 罷東寧府 …
雙城府	和州. 高麗恭愍時. 陞和寧府. 今爲永興府. 登州. (省略) 今爲安邊府	定州古稱巴只. 一云宣威. 初改名千丁. 爲萬戶府. 高麗睿宗爲州. 府南五十里. 有元興關. 以都連浦爲界. 今定平府. 宜州句麗時泉井郡. 新羅時泉井郡. 景德王築炭項關門 …
五國城	又徙之均州五國城. 城在白頭山南云	古記五國城有二. 一云在江界伐等堡江越邊. 有方城形址. 一云在會寧甫乙下堡西豆滿江南. 古城形址是也 …
長城	高句麗榮留王辛卯. 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千有餘里.	按後漢書. 扶餘在玄菟北千里. 南與高句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本濊地. 今開原縣. 本扶餘國. 勃海爲扶餘府. 後漢時. 玄菟治高句麗縣. 高句麗縣. 今建州地也 …
白山記	白頭山特起於大荒之中. 金與清迭起其下	雖以土門鴨綠二水限之. 水淺狹. 不足爲天塹. 且又長坡平夷. 可方軌而至. 顧陰雨之備. 茫然不之講. 且當辛未定界也. 分界江以南可拓界 …
二僭僞載記	金弓裔. 新羅憲安王之庶子. 以重午日生. 甄萱尙州加恩縣人. 姓李. 後改甄.	屋上有素光若虹上屬天. 且生而有齒. 日官言不利國家. 王勅中使殺之. 中使取之襪襪. 投諸樓下. 乳婢竊捧之 … 父阿慈介以農爲業. 起爲將軍. 萱始生. 父耕野. 母媿焉. 置萱林下. 虎乳之. 及壯貌雄奇. 仕于新羅 …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폐사군(廢四郡) 및 후주부(厚州府) 복구에 대한 조정의 논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이는 18세기 말 폐사군 지역의 사정과 후주진 설치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다¹⁸고 한다.

18 강석화, 2012, 앞의 글, 126~127, 131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는 조선의 지리 환경에 대한 정보와 조선 영토의 역사지리적 사료를 정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해옹의 ‘지리류’의 구성과 내용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시대인인 정약용(1762~1836)의 저술인 『아방강역고』의 목차와 내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들의 ‘지리류’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호 비교해보면, 당시의 지리류에 관한 추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방강역고』의 목차를 살펴보면, 조선고(朝鮮考)를 시작으로 사군총고(四郡總考), 즉 한사군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어서 삼한총고(三韓總考)에 대한 내용과 발해고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 관한 내용이 차례로 이어진다. 특히, 낙랑별고(樂浪別考)와 변진별고(弁辰別考), 예맥별고(濊貊別考) 등에 대해서는 ‘별고’로서 다루고 있다. 또한 졸본고(卒本考), 국내고(國內考), 환도고(丸都考), 위례고(慰禮考), 한성고(漢城考) 등은 고구려와 백제의 수도를 열거함으로써 한국 고대의 영토 인식을 이해하는 데 주목된다. 그리고 팔도연혁총서 상·하는 팔도의 강역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¹⁹

이는 『연경재전집』에 보이는 「동수경」과 「동국천품」 같은 일부 항목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이군고」를 비롯해서 「서북강역변」 상·하, 「서북변계고」 등에 보이는 명칭은 『아방강역고』의 목차와 비교해볼 때 대동소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마도 조선 후기, 즉 18~19세기에 조선의 영토 인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성장해나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요컨대, 성해옹의 ‘사료지리류’의 구성은 크게 조선 영토의 자연지리적 내용을 정리한 「동수경」, 「동국천품」, 「조강도지」 부분과, 「한이군고」, 「서북강역변」과 같은 조선의 역사지리를 서술한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료지리류’의 내용상 특징은 첫째, 고조선을 역사지리 서술의 첫머리에 둠으로써 조선 역사의 시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

19 정약용, 1969, 『증보 여유당전서』 6, 경인문화사, 386쪽.

이군 혹은 한사군의 치폐와 이동의 연혁을 밝혀서 옛 고조선 지역과 고구려, 발해 영역과의 귀속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셋째, 고려와 요, 금과의 경계 지역에 대한 지리 고증에도 주력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성해옹이 고려의 ‘서북변계’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조선의 영토가 고려를 계승하여 출발하였다는 인식과 연관되어 보인다.

2. ‘산수기’·‘고적류’·‘동국지리변’의 구성과 내용

이상에서는 주로 ‘사료지리류’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리류’에 포함할 수 있는 「산수기」 상·하(上·下), 「고적류」, 「동국지리변」 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²⁰ 먼저, 『연경재전집』 속집, 권50에 수록된 「산수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시기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산수기」 상·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上)은 호중산수(湖中山水), 상류강행(上流江行), 동음산수(洞陰山水) 세 부분으로 서술하였으며, 하(下)는 상보다 더욱 광범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편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도(京都)를 시작으로 전국 8도를 두루 섭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산수기」가 성해옹의 전 국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시기별로 고대에 해당하는 내용은 「동국지리변」의 내용에 비해 비중이 적다. 「산수기」는 성해옹이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곳을 유람한 내용을 서술하거나, 또는 43세부터 45세까지 자신의 부임지 주변으로 유람한 곳을 소개, 작성한 것으로²¹ 평가된다. 따라서 역사 유적지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많지는 않다. 다만 기왕의 서적들을 읽고 발췌한 것이 아님에도, 조

20 「山水記」는 신경준의 『旅庵全書』 「山水考」에서, 「古蹟類」는 『여암전서』 「疆界考」에서 내용을 참조하였으리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성해옹의 지리류는 신경준의 저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1 김문식, 1996, 앞의 책, 111쪽.

〈표 6〉 『연경재전집』 「산수기」의 내용과 해당 시기

지역	내용	시기별(古代)	비고
湖中山水 (忠淸道)	阜蘭寺, 永保亭, 長淮村, 釣龍臺, 黃江, 龜潭, 半月城, 丹陽邑村, 烏潭, 自溫臺, 下仙巖, 風水穴, 大哉閣, 中仙巖, 寒碧樓, 眞峴城, 上仙巖, 桃花洞, 泗泚水, 守一庵, 漱玉亭, 看月島, 遊仙臺, 孤山亭, 安興鎮, 舍人巖, 華陽洞, 安眠島, 雲巖, 仙遊洞	古代: 阜蘭寺, 釣龍臺, 半月城, 自溫臺, 眞峴城, 泗泚水	「山水記」上
上流江行 (忠州 原州)	彈琴臺, 達川, 可興, 映竹, 蓀谷, 法泉, 興元倉, 淸心樓, 仰德村, 石湖亭	古代: 彈琴臺	「山水記」上
洞陰山水 (京畿道)	白鷺洲, 三釜淵, 禾積淵, 金水亭, 蒼玉屏		「山水記」上
京都(서울)	仁王山, 三角山		「山水記」下
畿路(京畿道)	道峯, 水落山, 龍門山, 白雲山, 彌智山, 逍遙山, 晚翠臺, 寶蓋山, 聖居山, 天摩山, 天聖山, 花潭		「山水記」下
海西(黃海道)	葱秀山, 石潭, 九月山, 白沙汀	古代: 九月山	「山水記」下
關西(平安道)	佳殊窟, 妙香山		「山水記」下
湖中(忠淸道)	銃潭, 龍潭, 大治山, 屏川, 俗離山, 天政臺, 月巖, 義林池	古代: 天政臺, 義林池	「山水記」下
湖南(全羅道)	金骨山, 德裕山, 瑞石山, 金鎖洞, 月出山, 天冠山, 達摩山, 漢孛山, 智異山	古代: 月出山, 天冠山, 智異山	「山水記」下
嶺南(慶尙道)	伽倻山, 淸涼山, 陶山, 小白山, 四佛山, 玉山, 氷山, 太白山, 錦山	古代: 四佛山, 太白山	「山水記」下
關東(江原道)	金剛山, 聖留窟, 五臺山, 寒溪, 雪嶽, 華陰山, 淸平山	古代: 金剛山, 五臺山	「山水記」下
關北(咸鏡道)	七寶山, 鶴浦, 國島		「山水記」下

선의 전 영토의 주요 산천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성해응의 실질적인 답사가 그만큼 빈번했다는 예증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연경재전집』 외집, 권63에 수록된 「고적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연경재전집』 「고적류」의 내용과 시기

순서	내용	시기별	비고
1	田橫島	朝鮮	
2	看羊島	朝鮮	
3	九峯山	朝鮮	
4	淸海鎮	古代	莞島
5	滄海	古代	江陵
6	鬱陵島	古代	鬱陵島
7	陽陵井	朝鮮	
8	五國	朝鮮	
9	楸島	朝鮮	
10	肅愼城	古代	北靑
11	獐島	朝鮮	
12	金馬郡	古代	益山
13	金鰲山	古代	慶州
14	任存城	古代	大興
15	顯慶碑	古代	劉仁願
16	平濟塔	古代	蘇定方
17	劉仁軌城	古代	劉仁軌
18	五六島	朝鮮	
19	急水門	高麗	
20	八莒城	朝鮮	

「고적류」라는 항목 바로 다음에 ‘소화고적(小華古蹟)’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을 중화(中華)로 인식하였던 성해응의 역사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²² 「고적류」의 내용과 시기를 분류해보면, 고대가 10개, 고려가 1개, 조선이 9개 항목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들 고적은 아마도 직접 답사하였거

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서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적류」에 대한 성해응의 관심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들 고대의 고적들은 지역으로는 청해진(淸海鎭), 창해(滄海), 울릉도(鬱陵島), 금마군(金馬郡)을, 유적으로는 숙신성(肅愼城), 금오산(金鰲山), 임존성(任存城), 유인궤성(劉仁軌城)을 들 수 있고, 유물로는 현경비(顯慶碑), 평제탑(平濟塔)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현재 그 「고적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으로는, 창해, 숙신성, 유인궤성을 거론할 수 있다. 또한 현경비와 평제탑에 대해서는 그 비문의 내용을 판독하여 적시하고 있으므로, 조선 후기의 새로운 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연경재전집』 속집, 권16에 수록된 「동국지리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동국지리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한국 고대의 영토 인식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Ⅲ. 지리류를 통해 본 고대의 영토 인식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해응이 이상의 내용으로 ‘지리류’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사실 영토 의식은 특정 민족의 생활공간에 대한 애착과 그 중요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말한다. 즉, “영토 의식은 민족 공동체의 생활공간이라는 인식이 전제되는 것으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받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민족 내지는 준(準)민족의 결속과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는 사

22 이 ‘小華’와 연관하여 “조선이 ‘華’임을 주장하는 것은 조선 전기 이래 일관되지만, 그 근거를 箕子의 후예로 보는 17세기의 성리학자와 檀君朝鮮을 출발점으로 삼는 18세기의 실학자를 구별하여, 전자를 소중화의식, 후자를 조선중화주의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우봉, 1997, 「실학파의 대외인식」, 『국사관논총』 76, 132~133쪽.

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²³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성해응의 영토 인식을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 보이는 각각의 자료를 통해 분석, 검토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의 역사에서 영토 의식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역사서를 주목한 바 있는데, 특히 역사지리서에서 우리의 고대사 연구와 관련하여 고대국가의 판도에 관한 규명작업을 통해서 ‘영토적 과거’에 대한 회상을 강화시켜²⁴준다고 한다. 이처럼 ‘영토적 과거’에 대한 회상을 강화해주는 고대사 연구는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지에 대한 구명 작업이 필요하다. 성해응의 『연경재전집』에 보이는 지리류 관련 자료는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동국(東國)’에 대한 영토 인식

『연경재전집』의 ‘지리류’를 분석해보면, 성해응이 이를 편찬하면서 나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동수경」, 「동국천품」, 「동국지리변」이라 하여 ‘동(東)’ 또는 ‘동국(東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때 동국이라는 의미는 중국의 동쪽이라는 방위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에 상대하여 조선의 지리상 위치를 동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동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스스로 동국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성해응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조선 초기의 『동국통감(東國通鑑)』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해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유형원의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志)』, 신경준의 『동국문헌비고 여지고(東國文獻備考 輿地考)』, 정약

23 조광, 1998, 「조선후기 영토의식의 전개와 그 이상」,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조광, 2010, 『조선후기 사회의 이해』, 경인문화사, 247쪽.

24 조광, 2010, 위의 책, 249쪽.

용의 『대동수경』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선인들 스스로 ‘동국’이라는 명칭을 수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연관해서 「동국지리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보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국지리변」이라는 항목을 만든 이유를 밝힘으로써, 성해응의 영토 인식이랄까 의미 전달의 요소랄까 하는 내용이 곳곳에 내재하여 있음을 파악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경재전집』 속집, 권16에 수록된 「동국지리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연경재전집』 「동국지리변」의 내용과 해당 시기

순서	내용	시기	비고
1	漢二郡辨	古代	『史記』朝鮮傳
2	高麗九都督府辨	古代	高句麗
3	高句麗諸城辨	古代	『晉書』『唐書』
4	渤海疆城辨	古代	賈耽
5	謂邯辨	古代	『漢書』『後漢書』
6	麗玉辨	古代	『古今注』
7	長岑辨	古代	『漢書』
8	滄海郡	古代	『漢書』
9	弓口門辨	高麗	文宗
10	高麗六城辨	高麗	徐熙
11	雙城辨	高麗	高宗
12	東寧府說	高麗	元宗
13	曷蘇館辨	高麗	『高麗史』
14	長城辨	古代	榮留王
15	燕初辨	古代	文字
16	清海鎮辨	古代	莞島
17	匏蘆河辨	古代	臨津江

18	薩水辨	古代	清川江
19	熊津辨	古代	錦江
20	馬鞍島辨	朝鮮	獐子島
21	太白山辨	古代	妙香山
22	耽毛羅辨	古代	濟州
23	對馬島辨	古代	『三國志』
24	忽刺溫說	朝鮮	哈達部
25	平州都督辨	古代	『東國通鑑』
26	置溝婁辨	古代	『三國志』
27	夫餘辨	古代	『三國志』『唐書』
28	月城辨	古代	『三國志』『三國史記』
29	群山島辨	朝鮮	『大明一統志』
30	安興亭說	高麗	『大明一統志』
31	朶顏三衛說	高麗	朶顏 福餘 泰寧
32	女眞坪說	朝鮮	卒本川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국지리변」의 내용에서 한이군변, 고려구도독부변(高麗九都督府辨), 고구려제성변(高句麗諸城辨), 발해강역변(渤海疆城辨), 남감변(訃邯辨), 여옥변(麗玉辨), 장잠변(長岑辨), 창해군(滄海郡) 등 외에도 다양한 고대의 지명을 통한 영토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고대뿐만 아니라 고려나 조선의 내용도 있지만, 고려나 조선의 내용도 모두 고대부터 조선까지 역사지리적으로 지속되어온 명칭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사실 민족 공동체의 영토 의식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개별적인 영토 의식이 작용하였으리라 본다.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 내포된 성해옹의 한국 고대의 영토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찬자가 본인의 입으로 표현한 ‘변(辨)’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이

해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리류’에 표현된 변을 분석,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고대 21개, 고려 7개, 조선 4개로 총 32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고대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항목도 많고 내용도 훨씬 많은 것은 『연경대전집』 지리류에 나타나는 특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이군변’의 내용은 「사료지리류」의 ‘한이군고’에서 역사지리와 영현에 대한 내용 가운데 변방에 대한 영토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먼저, “自始全燕時~以其主遼東外塞”의 내용은 『사기』 조선전²⁵을 인용하였으며, “而遼東東都尉理武次縣” 부분은 “【正義】地理志云遼東郡武次縣，東部都尉所理也”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 이하 많은 부분을 성해옹 자신의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이 조선을 평정하고, 4군을 설치하였다. 압록강을 나누어 그 남쪽으로 낙랑군을 삼았다. 지금의 관서 지방의 경계다. 백두의 북쪽은 옛날에는 진번이라 칭하였다”라는 부분은 중국 사서에서 따온 내용이 아니라, 성해옹이 옛 (고)조선 지역의 연혁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또한 낙랑군에 대해서는 『한서』 지리지, 『후한서』 지리지에 기재된 25개 속현의 치폐와 시대에 따른 변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낙랑군의 연혁은 『괄지 지』나 『동국통감』을 인용하여 서술하였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를 인용하여 주변의 대방군과의 관계 및 낙랑군 주변의 지리 정보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한서』 요동군 험독(險瀆)의 내용에 대해서 응소(應劭)의 주(注)에서는 “조선왕 위만은 물길어 험한 지세에 의지해서 도읍하여, 험독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으며, 신찬(臣贊)은 “왕검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당대의 인물인 안사고(顔師古)는 “신찬의 말이 옳다. 즉, 평양을 가리킨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응소가 어떤 이유로 이런 오류를 서술하였는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구려(高麗九都督府辨, 高句麗諸城辨), 제주도(耽毛羅辨), 대마

25 『史記』朝鮮傳.

도(對馬島辨), 부여(夫餘辨) 등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의 변경에 대한 영토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구도독부변, 고구려제성변은 서북 변경에 대한 서술이고, 부여변은 동북 변경에 대한 기록이다. 또 탐모라변은 조선의 남쪽 끝 단을, 대마도변은 동쪽 일본과의 경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한 사서들도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비롯하여 『사기』에서부터 『대명일통지』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보아, 성해응이 이 지역의 연혁을 서술하는 데 꽤 많은 공을 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 고구려의 영역, 제주도·대마도·부여 등의 영토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성해응의 ‘동국’에 대한 영토 인식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국’=‘조선’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동국지리변」에서는 동국의 사방 경계에 주의를 기울여 자연 경계는 물론 행정기구의 치폐를 서술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역사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결국 「동국지리변」을 통해 밝히고자 한 변경에 대한 연혁은 조선의 변경에 대한 역사 인식을 위한 설정이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국에 대한 영토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더 찾아진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연경재전집』 「文〇辨」의 내용과 해당 시기

순서	내용	시기	비고
1	伯夷辨	古代	余作伯夷辨 復考王介甫伯夷論 云其沒先於伐商者 與余意合 獨其謂伯夷不死 當如太公成武王之烈者 豈伯夷志乎
2	涇水辨	古代	涇水有漢涇水唐涇水之別 漢涇水無定名 唐涇水有定名 史記朝鮮傳 漢興復修遼東故塞 至涇水爲界
3	洌水辨	古代	前漢書地理志 樂浪郡中有列口有吞列 列者洌水 洌水者今漢江也
4	安市辨	古代	淸一統志 安市在蓋州衛東北七十里 東國輿地勝覽 安市城在龍岡縣烏石山 又古記東人方言以鳳皇爲安市 故鳳凰城 東人稱安市 華人稱鳳皇
5	單單大嶺辨	古代	漢之疆理東國 自今嶺東西 而始漢武帝元朔元年 東夷歲君降 置滄海郡 三年而罷其地

6	樂浪辨	古代	樂浪今平壤府 漢末屬公孫度 魏明帝景初二年 破度孫淵而誅之 樂浪隸平州 尋移隸幽州 晉復隸平州 授慕容廆刺史以統之 慕容氏既滅而高句麗都之
7	玄菟辨	古代	漢武帝所定四郡曰樂浪臨菟玄菟眞番也 昭帝罷眞番郡入玄菟
8	五國城辨	古代	余嘗考清一統志 有曰寧古塔 古蹟云五國頭城在城東北 契丹國志女眞東北 與五國爲隣 五國之東 接大河
9	三韓辨	古代	余未嘗得韓之義 及讀書序肅慎之命 孔安國注海東諸夷駒麗扶餘馱狃之屬 馱者韓也 馱同驛
10	卒本辨	古代	卒本 考之諸書云成川 非也 按魏畧云北方有葷離之國 其王侍婢生子 名曰東明
11	沸流水辨	古代	清一統志引遼史志 正州本沸流國故地 爲公孫康所並 渤海置沸流郡 有沸流水
12	帶方辨	古代	帶方卽海西及畿服地也 漢建安中 公孫康分四郡之屯 有以南荒地爲帶方郡 魏遂置郡守
13	尉那岳城辨	古代	尉那岳城卽兀喇城也 按三國史琉璃王二十一年 郊豕逸 掌牲薛支逐之 至國內尉羅岳得之
14	丸都辨	古代	丸都今江界地也 按唐書地理志 自鴨江口舟行百餘里 乃乘舫泝流東北三十里 得渤海之境 又泝流五百里 至丸都縣城 故高麗王都
15	肅慎辨	古代	肅慎一作息慎 蓋東北夷之統名也 由漢水以南曰韓 韓分爲三 曰弁韓辰韓馬韓也 由蓋馬以西曰朝鮮 漢時分爲四郡者也 蓋馬以東曰肅慎
16	朝鮮辨	古代	朝鮮本平壤府 前漢書地理志中朝鮮縣是也 檀君箕子衛滿高句麗皆都之
17	蓋馬辨	古代	蓋馬大山 大明一統志云在平壤西 清一統志云漢之蓋馬卽唐蓋牟 今蓋平縣並誤也 文獻備考引柳碯溪馨遠說謂咸鏡平安兩道之間嶺脊者最確
18	周留城辨	古代	周留疑知留字音或轉而訛也 蓋山李公嘗言瑞山有地谷廢縣 地甚險阻 卽周留城也
19	眞峴城辨	古代	眞峴城距公州七十里 在鷄龍山之麓 隣懷德魯城諸縣 雖十室之殘 當百濟盛時 據此而南距新羅 干戈擾攘 乃雄鎮也
20	公險鎮辨	高麗	公險鎮 或云在豆滿江內 或云在豆滿江外

이상의 내용은 『연경재전집』 본집, 권15에 수록된 「文○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해응의 영토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보면, 백이변(伯夷辨)에서 시작하여 공험진변(公險鎭辨)에 이르기까지 ‘동국’의 영토에 관한 주변 지역의 중요한 민족, 하천, 도읍, 성곽을 망라하여 언급하고 있다. 대개 고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논란이 되는 고려의 공험진까지도 관련 기록을 서술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성해응이 나름 ‘동국’에 해당하는 역사지리적 접근을 통해 ‘동국에 대한 영토 인식’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표 8〉과 〈표 9〉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文○辨」에서는 「동국지리변」에서 다루었던 지명들을 다시 한번 세분하여 살피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이군변’에 해당하는 사항은 「文○辨」에서 ‘낙랑변’, ‘현도변’ 등의 항목으로 재론되고 있고, 「동국지리변」에서 ‘고구려제성변’에 해당하는 사항이 「文○辨」에서는 ‘안시변(安市辨)’, ‘졸본변(卒本辨)’, ‘환도변(丸都辨)’ 등의 항목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내용이 『연경재전집』에 수록된 선후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항목들이 중복해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은 성해응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술 방법과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동국지리변」에서는 역사서(주로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다면, 「文○辨」에서는 성해응 자신의 견해를 부기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서술의 태도에서 본다면 자신의 견해를 확신하여 서술한 부분도 있지만,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후일 논구(論究)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2. ‘서북강역(西北疆域)’에 대한 영토 인식

성해응의 ‘지리류’에서 ‘동국’이라는 용어와 함께 대비되는 것이 바로 ‘서북(西北)’이라는 방위개념이다. 동쪽에 위치하였던 조선에서 서북은 동국, 즉 조선의 서북쪽 경계이며, 바로 중국과 마주하는 최전선이 된다. 특히 성해응의 ‘지리류’

에는 ‘서북강역’ 또는 ‘서북변계’라는 분류 항목 속에 많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성해응이 조선의 서북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방증해주는 것으로 보인다.²⁶

먼저, 『연경재전집』 외집, 권47에 수록된 ‘서북강역’ 및 ‘서북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는 데 주요한 자료이면서 참고가 되는 것이 바로 ‘서북강역변총목’이다.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 수록된 표를²⁷ 참고하여 작성해보았다.

「서북강역변」에 해당하는 〈표 10〉은 ‘서북강역변총목’의 해당 지역과 시기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성해응이 일찍이 『연경재전집』에 이러한 표를 수록하였다는 사실은 ‘지리류’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해응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한국 고대에 해당하는 한, 위, 진, 수, 당대의 조선, 숙신, 진번, 임둔, 현도, 옛 현도 등의 연혁과 귀속 관계를 자세히 기재하였다.

우선 〈표 10〉에서 성해응은 조선의 서북 경계에 있었던 고대국가와 한의 군현을 분별하여 서술하였다. (고)조선은 조선의 고대국가이고, 숙신은 말갈, 발해로 이어지는 토착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의 4군 중에서는 낙랑을 제외한 진번, 임둔, 현도(옛 현도 포함) 등의 3군을 표제어로 작성하고 있다. 성해응이 조선의 서북 강역에 대하여 상세히 분별하면서, (고)조선, 숙신(발해지역), 그리고 한의 3군을 선별한 이유는 무엇일

26 지금까지 성해응의 서북지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성해응은 어릴 때 부친 成大中을 따라다니면서 북방의 지리에 대한 안목을 가지기 시작”(김문식, 1996, 앞의 책, 111쪽)하였다거나, “평안도 위원과 운산, 함경도 북청의 수령을 지낸 부친 성대중의 영향”(강석화, 2012, 앞의 글, 133쪽)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해응의 ‘서북강역변’과 ‘서북변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서북지역에 대한 인식은 유득공과의 친분을 통해 얻어보았던 열하의 노정, 즉 ‘熱河路程’(『연경재전집』 외집, 권58, 난실담총 권3)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후대 규장각 시절의 학문적 성숙에서 기인한 바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27 성해응, 2001, 앞의 책, 306쪽.

〈표 10〉 『연경재전집』 「서북강역변」 '서북강역변총목'의 해당 지역과 시기

지역 시기	조선	속신	진번	임둔	현도	舊 현도
周	箕子國					
漢	衛滿國. 漢武帝元封3年 置樂浪郡		元封三年置雪縣. 昭帝始元5年 罷入玄菟	本朝鮮濊地. 武帝初置滄海郡尋罷. 元封3年置郡治東曠. 昭帝始元5年罷入樂浪. 隸東部都尉	本朝鮮地. 昭帝始元5年. 自沃沮城徙治. 句驪西北	本朝鮮沃沮地武帝元封3年. 置治沃沮城. 昭帝始元5年罷. 屬樂浪東部都尉
魏			屬玄菟郡	不耐侯地	漢末屬公孫度. 明帝景初2年. 破公孫淵. 隸平州. 尋隸幽州	不耐侯地
晉	漢末屬公孫度. 魏明帝景初2年. 破公孫淵. 隸平州. 尋隸幽州. 晉又隸平州. 授慕容廆州刺史以統之	挹婁	入高句麗	入高句麗	隸平州. 授慕容廆州刺史以統之	入高句麗
元魏		勿吉				
隋	高句麗國都					
唐	安東都護府. 入渤海	靺鞨所居. 渤海上京. 中京定理府 安邊府等地	渤海長嶺府	*高句麗: 河西良一云 何瑟羅 *新羅: 溟州善德王時爲小京. 太宗爲州	入高句麗. 爲南蘇木底等城. 入渤海爲率賓府	入高句麗. 後入渤海. 置南京南海府
金			隸會寧府		隸會寧府	耶懶路
元	置東寧府 復歸高麗		開元路		開元路	哈蘭府
明			毛憐衛		建州衛	
清		寧古塔 吉林等地	吉林		興京	
高麗	西京元宗時. 陷于元. 忠烈王時復置西京. 恭愍王時號平壤府			太祖置東京. 尋改溟州. 成宗改河西. 元宗改慶興. 忠烈王改江陵		咸州舊爲女眞所據稱曷懶甸睿宗時築城復與女眞後陷於元恭愍時置萬戶府陸州
本朝	平壤府	咸鏡道		江陵府		咸興府

※ 밑줄은 서북 경계에 있던 한국 고대사 관련 지역명

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낙랑을 제외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낙랑의 옛 지역은 당시 조선의 영토 안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였다면, 다른 3군 지역은 옛 영토의 일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표 10>의 내용 중에 낙랑군이 나오는 곳은 조선에 관한 한대의 기록인데, 한의 4군 가운데 진번, 임둔, 현도는 각기 표제어로 취급되어 시대에 따른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낙랑군만은 일찍이 당시 조선의 영토에 지속적으로 편입되었고, 조선의 영토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싶다.

반면 진번, 임둔, 현도의 경우는 시대에 따라 귀속에 출입이 있었는데, 대개 한~당 대에는 고구려 혹은 발해에 귀속되었고, 이후 금·원·명·청대에는 부침이 있었다. 특히 조선으로 계승되었던 서북 영토는 이미 고려 시대에도 고려의 영토였던 곳이 대부분으로, <표 10>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고)조선 지역과 숙신, 임둔, 현도 지역이다. 진번 지역은 일찍이 조위시대에는 현도군에 포함되었다가 고구려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지역이 고구려~고려를 거쳐 조선의 영토로 귀속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숙신 지역은 당대에 발해의 영토에 속하였고, 조선에서는 그 일부 지역이 함경도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시기는 당대인데, 이 시대에 고구려의 영토였던 전 지역을 조선의 ‘서북강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구려를 이어서 등장한 발해의 영토에 대해서도 조선의 ‘서북강역’이라는 의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 지역이 고구려·발해를 이어 조선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표 10>의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그 내용이 유사하지만, 어느 부분은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 이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표 10>을 작성할 때와는 달리 본문을 서술할 때 어떠한 변화 또는 시기상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북강역변」의 해당 지역과 시기를 <표 10>과 같이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서술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

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서북강역변총목’의 「서북강역변」 상에서는 기자조선, 숙신국, 한진번군, 후한현도군, 진(晉) 현도군, 부여, 동옥저, 예, 고구려제성, 발해, 금원제지, 고려변계, 변계산수, 부몽고사변팔부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본 내용을 서술하면서도는 조선, 패수, 대방·둔유, 진번군, 발해장령부, 현도군, 고구려, 소수맥, 동옥저, 서개마, 환도, 불류수, 소요수, 마자수, 염난수, 북풍, 개모성, 발해동경용원부, 발해남경남해부, 발해서경압록부, 발해솔빈부, 성현수, 갈라전, 갈소관, 장성, 포주, 쌍성, 울자성, 임둔군, 동이, 불이, 잠태·화려·사두매, 함자, 탄렬·열구·점제, 예, 단단대령 등이 찾아진다.

다음으로, 「서북강역변」 하에는 숙신, 개마산, 혼동강, 토문강, 치구루, 발해상경용원부, 발해중경현덕부, 호리개로, 해라수, 마기령, 올리골령, 활라혼수, 부여성, 건안성, 안시성, 오골성, 사비성, 옥이성, 적리성, 부몽고사변팔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북강역변」의 ‘서북강역변총목’에 보이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조선, 숙신, 진번, 임둔, 현도 등의 연혁과 귀속 관계를 서술하면서, 한, 위, 진, 수, 당대의 관련 기사를 주로 한반도에 있었던 고대국가, 특히 (고)조선, 고구려, 낙랑, 현도, 발해 등에 주목하고 있다.²⁸ 이는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서 찾을 수 있는 ‘서북강역’에 대한 또 다른 영토 인식의 내용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바로 ‘변’이라는 분류방식이다. 서두에서 ‘지리류’는 ‘류(類)’, ‘경(經)’, ‘기(記)’, ‘고(考)’, ‘변(辨)’의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동국지리변’·‘서북강역변’과 ‘文○辨’ 등은 모두 ‘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류’가 동종을 모았다는 의미라면, ‘경’은 중국의 『수경』에서 가져왔을 것이며, ‘기’는 사물의 기록을 말하며, ‘고’는 탐구라

28 이러한 북방 고대사 인식은 주로 고구려·발해 중심의 자국사 인식과 북방영토 의식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허태용, 2009, 앞의 책, 24쪽.

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변’은 분석하여 판별한다는 의미로서, 아마도 성해응이 밝히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주로 조선의 고대 영토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위치가 불분명해진 지명이나, 역대 여러 국가에 귀속되었던 지역, 혹은 치폐가 빈번하였던 행정구역 등을 판별해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성해응 역시 여러 사안에 대하여 분명한 자신의 견해나 결론을 피력하지는 않았지만,²⁹ ‘변’이라는 방식을 빌려서 문제를 드러내고, 사실을 추적해보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여겨진다.

3. ‘한이군(漢二郡)’에 대한 영토 인식

이제 성해응의 고대 영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한이군’에 대한 서술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경재전집』 외집, 권45에는 「한이군고」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전거 자료가 매우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다. 논지 전개를 위해 『연경재전집』에 보이는 「한이군고」의 내용을 『동국지리지』의 내용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을 보면 ‘한이군’으로 현도군과 낙랑군이 거론되고 있다. <표 11>은 ‘한현도군영현 3’과 ‘한낙랑군영현 25’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인데, 현도군이 서술된 내용은 『한서』 「지리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³⁰ 낙랑군

29 이러한 내용은 강석화, 2012, 앞의 글, 125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해응의 활동 시기가 “실제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천 의지와는 별도로 압록강과 두만강의 대안 만주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구 관념과 고토 회복의 주장이 강하게 표출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30 『漢書』卷28下「地理志」,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遼山, 遼水所出, 西南至遼隊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 上股台, 莽曰下股, 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莽曰玄菟亭.”

〈표 11〉 『연경재전집』 지리류 「한이군고」의 구성과 내용

분류	구성	내용	『동국지리지』
玄菟郡 (漢玄菟郡 領縣 3)	句麗(卽高句麗縣也)	漢書地理志註 …	(屬縣)高句麗
	上股台(未詳何在)	漢書註 莽改下股	西蓋馬
	西蓋馬(今厚州廢四郡等地)	漢書註 …	上股台
樂浪郡 (漢樂浪郡 領縣 25)	朝鮮(今平壤)	漢書註 …	(屬縣)朝鮮
	誦邯(今未詳其地)	然按後漢書 … 漢書註 …	誦邯
	湏水(今陽德縣)	漢書註 … 東國輿地勝覽 … 申景濬又曰 … 遼史 … 魏略 … 漢書地理志 …	湏水
	含資(今文川郡)	漢書註 … 東史曰 …	含資
	黏蟬(今豐德等地)	漢書註 …	黏蟬
	遂成(今未詳)	杜佑通典曰 …	遂成
	增地(今三和界)	漢書註 …	增地
	帶方(今長湍等地)		帶方
	駟望(今未詳)		駟望
	海冥(今未詳)	遼志曰 …	海冥
	列口(今通津等地)	史記 …	列口
	長岑(今未詳)	後漢書 … 遼志曰 …	長岑
	屯有(今黃州瑞興等地)	三國志 …	屯有
	昭明(今未詳)	漢書註 …	昭明
	鏤方(今寧遠郡)	許氏說文云 … 酈道元水經註 …	鏤方
	提奚(今未詳)		提奚
	渾彌(今未詳)		渾彌
	吞列(今江陵府)	漢書註 …	吞列
	東曠(今江陵府)	三國史曰 … 外 多數(別途)	東曠
	不耐之國(在嶺東)	漢書註 …	不而(東部都尉治)
	蠶台(在嶺東地)	後漢書 …	蠶台
	華麗(在嶺東地)	後漢書 …	華麗
	邪頭昧(在嶺東地)	說文 … 鮑本艸石首魚, 李時珍曰 …	邪頭昧
	前莫(在嶺東地)		前莫
	夫租(在嶺東地)		夫租

에 대한 기록 역시 『한서』 「지리지」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³¹ 앞서 〈표 10〉에서는 낙랑군 지역의 역사적 변천과 현도군 지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추적하여 서술한 것과는 달리, 이 부분에서는 한이 조선의 옛 지역을 개척할 당시 설치하였던 속현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현도군과 낙랑군 지역을 다시 주목한 것인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서술함으로써 두 군데에 그대로 기록이 남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성해옹이 현도군의 3영현에 대한 내용과 낙랑군의 25영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놓음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그의 관심이 컸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현도군 관련 내용으로는 ‘후한현도군영성(後漢玄菟郡領城) 6’, ‘진현도군영현(晉玄菟郡領縣) 3’이 있으며, 낙랑군 관련 내용으로는 ‘후한낙랑군 18’, ‘진낙랑군영현 6’, 그리고 대방군 관련 내용으로 ‘진대방군영현 7’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비고 항목에 보면, 『동국지리지』에 보이는 ‘한현도군영현 3’에서 상은대(上殷台)와 서개마(西蓋馬)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 있으며, ‘不耐之國(在嶺東)’의 내용이 ‘不而(東部都尉治)’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연경재전집』 외집, 권45, 「한이군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찾아진다. 첫째, 개별 영현에 대한 상세한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왕에 「(漢)이군」을 다룬 지리지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연경재전집』 「한이군고」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漢)이군」을 다룬 기왕의 지리지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와 신경준의 『여암전서 강계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에 보이는 내용과 아울러, 한치윤·한진서 편 의 『해동역사

31 『漢書』 卷28下 「地理志」,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 有雲鄣, 縣二十五: 朝鮮, 誦邯, 溟水, 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 含資, 帶水西至帶方入海, 黏蟬, 遂成, 增地, 莽曰增土, 帶方, 駟望, 海冥, 莽曰海桓, 列口, 長岑, 屯有, 昭明, 南部都尉治, 鏤方, 提奚, 渾彌, 吞列, 分黎山, 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 行八百二十里, 東曬, 不而, 東(郡)部都尉治, 蠶台, 華麗, 邪頭味, 前莫, 夫租.”

속 지리지』에 보이는 다양한 자료인데, 이들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첫째에 대해서는, 개별 영현에 대한 서술의 목적을 ‘패수’와 ‘동이’ 두 지역의 내용을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경재전집』 외집, 권45, 「한이군고」, ‘패수’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아래 사료는 번역하지 않는 편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溟水 今陽德縣

漢書注 水西至增地入海 止 溟水者大同江也 …

東國輿地勝覽 漢興 修遼東古塞 至溟水爲界 …

申景濬 又曰 燕秦經理未嘗及於鴨江 則溟水乃在鴨江之北

遼史 所稱泥河爲溟水明甚 止 二說皆非也

魏略 燕遣秦開 攻朝鮮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漢書地理志 遼東郡屬縣有番汗 註云沛水出塞外 西南入海 止 此大遼水也 …

遷固 以海外鴻荒略之 而後來遂不復釐正爾

(※ 밑줄은 인용한 전거 자료 표시)

이상의 내용은 ‘패수’에 대한 전거 자료를 나열한 것이다. 『한서』와 『동국여지승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략』과 『요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서주(漢書注)』 또는 『한서지리지』와 같은 내용을 더 함으로써 ‘패수’의 위치 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申景濬又曰’ 처럼 해당 시대의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지리지에서도 연관된 자료를 발췌하여 그 위치와 내역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연경재전집』 외집, 권47, 「서북강역변」 상, ‘패수’ 조에서는 그 전거 자료를 훨씬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는 기사도 찾아진다. 다음 사료는 번역하지 않는 편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淇水 史記漢興 脩遼東故塞 至淇水爲界 滿亡命東走出塞 渡淇水 居秦故空地

漢書音義 淇水縣水西至增地入海

周書 高麗治平壤城 南臨淇水

唐書 高麗平壤城 隨山屈繚爲郭 南渡淇水

說文 淇水出樂浪鏤方 東入海 一曰出淇水縣

水經 淇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於臨淇縣 東入于海

水經註 許慎云淇水出鏤方 東入海 一曰出淇水縣

十三州志曰 淇水縣在樂浪東北 鏤方縣在郡東 盖出其縣而經鏤方也 …

故地理志曰 淇水西至增地縣入海 考之今古 於事差謬 盖經誤證也

按淇水卽大同江也 …

輿地志 大同江一云淇江 又王城江 其源之出寧遠者 …

案東國輿地勝覽 疑本國境內有三淇水

其一史記衛滿東渡淇水 是以鬲綠爲淇水也

其二唐書平壤城南涯淇水 是以大同江爲淇水也

其三高麗史以平山府猪灘爲淇江 此所謂三淇水也

文獻備考 辨鴨綠之爲馬訾而非淇水

又引遼史云遼陽淇水 眞漠淇水 盖漢書遼東屬縣番汗注 沛水出塞外西南入海 …

若猪灘之稱淇水 卽東人杜撰之說也.

(※ 밑줄은 인용한 전거 자료 표시)

위의 기사를 통해서 볼 때, 「한이군고」의 기사보다 「서북강역변」의 기사가 전거 자료 측면에서 볼 때 더욱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수록하고 있다. 그것은 앞의 기사에 수록된 지리지의 내용보다 종류나 상세함 등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한이군고」를 서술한 시점과 「서북강역변」을 서술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후자가 다소 후대가 아닌

가 한다.³² 또한 그 말미에는, “若猪灘之稱沮水即東人杜撰之說也”라고 하여, 편찬자의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탄(猪灘)의 명칭이 ‘패수’와 같다면 이는 동인(東人)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해응이 낙랑 25현의 지명을 검토하면서 ‘패수’에 주목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패수는 한국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지역이다. 패수는 고조선과 한의 경계가 되는 강으로, 고조선의 영토 범주의 문제, 한사군의 위치 문제 등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논쟁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³³ 이 글이 패수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므로, 패수의 위치를 고증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패수와 관련된 사료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해응이 패수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고증을 통하여 당시의 주요한 쟁점을 풀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다음으로, 『연경재전집』 외집, 권45, 「한이군고」, ‘동이’ 조에는 다음과 같

-
- 32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 가운데 『文獻備考』가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편찬, 간행된 『東國文獻備考』를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시기 추정에도 도움이 된다.
- 33 고조선 때에는 중국과 경계를 이루던 강을 지칭하였다. 『史記』朝鮮傳의 기록에 따르면, 漢은 중국을 통일한 뒤 요동 지방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沮水를 요동과 고조선의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史記』卷115, 「朝鮮列傳」,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嘗略屬真番, 朝鮮, 為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為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沮水 為界, 屬燕.”). 이에 관한 연구로는, 17세기 초에 한백겸이 『동국지리지』에서 패수를 오늘날의 청천강에 비정했으며, 그 뒤 이병도가 이 설을 상세하게 고증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패수를 압록강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요서 지방의 大凌河나 灤河로 보는 설도 있다(이병도, 1933, 「패수고」, 『청구학총』 13; 今西龍, 1937, 「沮水考」,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이병도, 1956, 「위씨조선흥망고」, 『서울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4;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이지린, 1963,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이지린, 1989, 『고조선연구』, 열사람; 노태돈, 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송호정, 2011,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2). 성해응은 패수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은 기사가 보인다. 아래 사료는 번역하지 않는 편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문을 그대로 실는다.

東曺 今江陵府

三國史曰 東曺濊國都 止 今江陵府東 有濊時所築古城遺址 …

又說文 鯢皮有文 出樂浪東曺 神爵四年初 捕收輸考功

楚詞 大招 鯢鰭短狐 注 鯢鰭短狐類

補注 狀如犂牛 今江陵三陟等海中有牛 赤眸無角 羣臥海岸 名可之 此疑鯢也 …

杜氏通典 新羅兼有沃沮·不耐·韓·濊之地 沃沮在北 今咸鏡道也 …

又魏志 嶺東不耐濊侯等降樂浪 濊都江陵矣 不耐之國在嶺東 有通川 高城等地

漢書注 東部都尉治

(※ 밑줄은 인용한 전거 자료 표시)

위의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연경재전집』 「한이군고」에 수록된 ‘동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고증을 시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삼국사』를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설문』, 『초사(楚詞)』, 『통전(通典)』, 『위지(魏志)』, 『한서』 등을 망라하여 ‘동이’의 위치와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청대의 고증학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해응 개인의 연구 경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동이’ 또한 한국 고대사의 주요 쟁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동이’는 본래 예 지역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옥저, 고구려가 모두 고조선의 영역에 속해 있었으므로, 역시 고조선, 고구려의 영역과 중첩된다.³⁴ 이러한

34 『後漢書』卷85, 「東夷列傳」, “濊, 北與高句驪·沃沮, 南與辰韓接, 東窮大海, 西至樂浪, 濊及沃沮·句驪, 本皆朝鮮之地也. 昔武王封箕子於朝鮮, 箕子教以

점에서 성해응 또한 이를 주목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다음으로, 『연경재전집』 외집, 권47, 「서북강역변」 상, ‘마자수’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아래 사료 역시 번역하지 않는 편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馬訾水 漢書音義 西蓋馬縣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
二 行一千一百里
唐書 高麗有馬訾水出靺鞨之白山 …
通典 馬訾水去遼東五百里 高麗之中此水最大 波瀾清澈 所經津濟
皆貯大船 …
大明一統志 鴨綠江在都司城東五百六十里
清統志 鴨綠江在吉林爲喇南九百七十七里 源出長白 西南與朝鮮
分界至鳳凰城東南入海.
全遼志 鴨綠江在遼陽城東五百三十里 源出長白山 …
盛京通志 鴨綠江一名益州江 或呼纓江 長白山南諸泉南注 …
輿地志 鴨綠江一云馬訾 又清河 又龍澳 源出咸鏡道白頭山 南流經
甲山府界 西北流入平 安道古茂昌界 西南流至楚山府 …
(※ 밑줄은 인용한 전거 자료 표시)

‘마자수’³⁵ 관련 자료를 보면, 『한서』, 『당서』부터 『성경통지』, 『여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³⁶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지지를 인용해서 압록강

禮義田蠶, 又制八條之教.

- 35 마자수에 대한 연구로는, 남의현, 2021, 「고구려사에 나오는 역사지명 위치 再考 - 중국 역사개설서의 지명 위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구』 7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승수, 2022, 「압록강 명칭고」, 『한국민족문화』 8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내용이 참고된다.
- 36 김문식, 1996, 앞의 책, 104쪽에서, 『皇明遺民傳』의 참고자료 인용 사례로, 명·청대 문집(55人 71種) 외에도 중국의 史書(明史, 淸一統志), 중국 지방지(江南通

은 마자, 또는 청하, 또는 용오라고도 하며, 함경도의 백두산으로부터 남쪽으로 갑산부의 경계, 서북으로는 평안도로, 서남으로는 초산부에 이르는” 내용을 자세하게 적기하고 있다. 이는 당시 ‘마자수’에 해당하는 경계 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해서 표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에 대해서는, 「(漢)이군」을 다룬 지리지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연경재전집』 「한이군고」의 해당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漢)이군」을 다룬 기왕의 지리지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와 신경준의 『여암전서 강계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한치운·한진서 편 의 『해동역사속 지리지』에 보이는 다양한 자료인데, 이들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³⁷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漢)이군」을 다룬 지리지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가 먼저 찾아지는데, 이 책은 겨우 60장에 달하는 작은 분량이지만, 삼한을 한사군 이전에 서술하게 한 점과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설정한 점, 만주가 고대의 우리의 강역이었다는 점 등 조선 후기의 역사지리학에서 역사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신경준의 『여암전서 강계고』를 보면, 삼한 문제, 열수의 한강설 등은 한백겸의 설을 취하면서도 자신의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사서를 한백겸보다 훨씬 다양하게 보고 역사지리학에 바친 노력과 시간이 많았다.³⁸ 특히 신경준은 자신의 의견을

志, 盛京通志 등), 조선인 문집(西溪集, 靑城集 등), 한중 교섭 자료(通文館志, 同文彙考)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37 조선 중기 이후 당시 지식인에게는 지리에 대한 인식(윤희면, 1982, 「해제」, 『동국지리지』, 일조각, 152쪽, “壬辰亂을 겪고 난 뒤 現實을 이해하기 위하여 過去의 歷史를 상고하려는 것이 動機”)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가 역사지리서들의 선구적인 저술로 언급되면서, 신경준의 『疆界考』, 『東國文獻備考 輿地考』, 한치운·한진서의 『海東繹史續 地理考』, 정약용의 『疆域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지리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성해응의 역사지리적 위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 38 정구복, 1987, 「한백겸의 사학과 그 영향」, 『구암유고·동국지리지』, 일조각, 41, 42, 44쪽.

〈표 12〉 「(漢)이군」 관련 지리지[地理志(誌)]의 목차와 내용

구분	목차	내용	비고
『東國地理誌』	前漢書朝鮮傳 三國 高麗	① 前漢書朝鮮傳, 後漢書高句麗傳, 後漢書東沃沮傳, 後漢書濊貊傳, 後漢書扶餘國傳, 後漢書挹婁傳, 後漢書三韓傳, 四郡, 二府, 二郡 ② 三國, 高句麗, 百濟, 新羅 ③ 高麗	洛陽東北四千里 罷都督府爲二郡 (玄菟, 樂浪郡)
『旅庵全書』	권4~권16	① 疆界考1(我東國別號, 三朝鮮, 漢郡縣, 二府, 二郡) ② 疆界考2(高句麗國, 北夫餘, 渤海國, 辰國, 百濟國) ③ 疆界考3(唐州府, 新羅國, 高麗) ④ 疆界考4(昭代) ⑤ 四沿考1(鴨綠江, 豆滿江, 八道沿海) ⑥ 四沿考2(中國相通海路, 日本相通海路) ⑦ 山水考1(山經) ⑧ 山水考2(山緯) ⑨ 山水考3(山經) ⑩ 山水考4(水經) ⑪ 山水考5(水緯) ⑫ 山水考6(水緯) ⑬ 伽藍考	後漢書昭帝元鳳六年改二府爲二郡 玄菟郡 屬縣三 樂浪郡 屬縣二十五
『研經齋全集』	外集 권44~권51 續集 권50 外集 권63 續集 권16	① 東水經, 東國泉品, 祖江壽志, 菟陵島志, 漢二郡考, 九城考, 六鎮開拓記, 西北疆域辨上·下, 西北邊界考, 建州錄, 建州紀程, 紅島偵探記, 後春將標文, 四郡考, 厚州紀略 ② 山水記上·下 ③ 古蹟類 ④ 東國地理辨	玄菟郡 本朝鮮地 樂浪郡 本朝鮮地
『我邦疆域考』	1권~10권	① 朝鮮考, 四郡總考, 樂浪考, 玄菟考 ② 臨屯考, 眞番考, 樂浪別考, 帶方考 ③ 三韓總考, 馬韓考, 辰韓考, 弁辰考 ④ 弁辰別考, 沃沮考 ⑤ 濊貊考, 濊貊別考, 靺鞨考 ⑥ 渤海考 ⑦ 女眞考, 契丹考, 蒙古考 ⑧ 卒本考, 國內考, 丸都考, 慰禮考 ⑨ 漢城考, 八道沿革總書上 ⑩ 八道沿革總書下, 溟水辯, 白山譜	樂浪者今平安黃海二道之地也 玄菟者本沃沮故地今咸鏡南道之地也
『海東繹史續』	권1~권15	① 地理考1 ② 地理考2(朝鮮, 濊, 貊, 沃沮) ③ 地理考3(三韓) ④ 地理考4(四郡) ⑤ 地理考5(夫餘, 挹婁) ⑥ 地理考6(高句麗) ⑦ 地理考7(新羅) ⑧ 地理考8(百濟) ⑨ 地理考9(渤海) ⑩ 地理考10(高麗1) ⑪ 地理考11(高麗2) ⑫ 地理考12(本朝) ⑬ 地理考13(山水1) ⑭ 地理考14(山水2) ⑮ 地理考15(山水3)	玄菟者元封三年以朝鮮之沃沮地置郡今咸鏡道地也 樂浪者元封三年以朝鮮地置郡始元封五年臨屯合郡領縣爲二十五

※ 밑줄은 「(漢)이군」의 낙랑·현도 표시

‘안(案)’이라는 방식을 취하여 부기하고 있다.

그리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에서는 ‘낙랑고’와 ‘현도고’라고 해서 중국의 사서뿐만 아니라 김부식의 『삼국사』 및 실학자들의 저술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아방강역고』에서 ‘용안(鑛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치윤·한진서 편 의 『해동역사속 지리지』에서도 중국의 사서를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진서 근안(鎭書 謹案)’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고 있음은 신경준의 ‘안’과 정약용의 ‘용안’과 더불어 실학자의 지리지에 대한 하나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연경재전집』 「한이군고」를 통해서 보거나, 다른 내용에서도 성해응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적은 편이다.³⁹ 이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내용이 매우 소략하므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리지에서는 중국의 사서뿐 아니라 우리의 전적에서 그 자료를 찾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대체로 부기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다른 실학자와 비교해볼 때, 성해응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즉, 그가 담당하였던 규장각 검서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영토 인식도 그에 한정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또한 성해응의 시대의 한계점이며, 성해응 자신의 신분적·학문적 한계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성해응은 저명한 실학자들처럼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피력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하여 한국 고대의 중요한 역사지명에 관해서는 그 연혁을 밝히기 위하여 통시대적인 사료를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이군’이나 고구려, 부여, 발해 지역과 같이 고대사와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재차 그 연혁을 밝히는 데

39 조선 후기의 요동수복론, 서북지역 정비론 등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古代의 자료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목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성해응의 『연경재전집』 ‘지리류’와 그를 통한 한국 고대의 영토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 주목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성해응에 관한 주요한 연구가 주로 조선 후기 당대의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해응이 주목한 고대의 영토 관련 자료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고대에 한정하여 자국의 영토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해보았다.

먼저,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 보이는 다양한 사항을 분석하여 그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구명해보려고 하였다. 이 ‘지리류’에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자료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작업의 토대 위에서 성해응은 한국 고대의 영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방법과 인식론을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연경재전집』에는 조선사회의 국토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산수기」를 비롯하여 「고적류」와 「동국지리변」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지리류’의 역사지리 내용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성해응은 ‘지리류’의 구성을 크게 중국과 대비되는 「동수경」, 「동국친품」, 「동국지리변」 등 ‘동(東)’이나 ‘동국(東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북강역’, ‘서북변계’, ‘한이군고’ 등의 항목에서 당시 고대 조선의 영토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실학자가 바라본 다양한 고대의 영토 인식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성해응이 ‘지리류’를 정리하면서 ‘변(辨)’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던 것은 ‘류(類)’, ‘경(經)’, ‘기(記)’, ‘고(考)’의 내용과는 달리, 단순한 사료의 집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분석

적 영토 인식'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해보면, 성해응은 『연경재진집』의 '지리류'를 서술하면서 해당 기록을 인용하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방대한 사료나 전거 자료들은 성해응의 논지를 보강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한국 고대의 역사적 경계 지역에 대한 사료의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패수'의 위치 비정 문제라든지, '서북변계' 인식은 지금 우리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지리적 귀속 문제를 판가름하는 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지리지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안', '용안', '진서 근안'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성해응의 경우 '변(辨)'을 통하여 자신의 영토 인식을 드러내었다.

참고문헌

사료

『舊唐書』, 『史記』, 『三國史記』, 『隋書』, 『新唐書』, 『梁書』, 『魏書』, 『晉書』, 『漢書』, 『後漢書』.

成海應, 1982, 『研經齋全集』(本集3冊, 外集6冊, 全9冊),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圖書影印 第11號), 昨辰社.

_____, 2001, 『韓國文集叢刊(影印標點)』 273~279輯, 民族文化推進會.

申景濬, 1979, 『旅庵全書』, 景仁文化社.

柳馨遠, 1983, 『全國地理志-東國輿地志③』, 亞細亞文化社.

尹廷琦, 1991, 『東寔錄』, 原主文化社.

丁若鏞, 1969, 『增補 與猶堂全書』 6, 景仁文化社.

韓百謙, 1982, 『東國地理誌』, 一潮閣.

韓致齋·韓鎮書 編, 1974, 『海東繹史 下』, 景仁文化社.

단행본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김문식, 1996,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각.

박인호, 1996,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문화사.

성해웅 지음, 박동욱 옮김, 2012, 『동국산수기』, 한양대학교 출판부.

성해웅 지음, 손혜리·이성민 옮김, 2015, 『연경재 성해웅의 초사담헌』, 사람의 무늬.

성해웅 지음, 손혜리·지금완 옮김, 2016, 『서화잡지』, Humanist.

성해웅 지음, 윤세순 옮김, 2017, 『연경재 성해웅의 난실담총』, 학자원.

성해웅 지음, 이승준 번역, 2018, 『동국지리변』, 시간의 물레.

손혜리, 2011, 『연경재 성해웅 문학 연구』, 소명출판.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유득공 저, 김종복 역, 2018, 『정본 발해고』, 책과 함께.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_____, 1987,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_____, 2012, 『한국유학사』(斗溪李丙燾全集 7), 한국학술정보(주).
 이지린, 1963,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_____, 1989, 『고조선연구』, 열사람.
 조광, 2010, 『조선후기 사회의 이해』, 경인문화사.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논문

- 강석민, 2006, 「18세기 조선의 영토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석화, 2005,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
 _____, 2007, 「19세기 북방 강역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5.
 _____, 2012, 「성해응의 서북 변계 의식」, 『진단학보』 115.
 강신엽, 2007, 「성해응의 국방론」, 『문헌과 해석』 41.
 김구진, 1976, 「공협진과 선춘령비」, 『백산학보』 21.
 남의현, 2021, 「고구려사에 나오는 역사지명 위치 再考 -중국 역사개설서의 지명 위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노태돈, 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박현우, 2000, 「조선 정조조 검서관의 역할」, 『서지학연구』 20.
 방동인, 1976, 「윤관구성재고」, 『백산학보』 21.
 배우성, 1997, 「17·18세기 淸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99·100.
 배재홍, 1996, 「조선 정조대 규장각 검서관」, 『조선사연구』 5.
 서경요, 1982, 「성해응의 경학사상에 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손혜리, 2018, 「성해응(成海應)의 서북지역에 대한 인식과 비판: 「속죄언(續罪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6.
 _____, 2020, 「정조대 官撰과 私撰의 이중주-이덕무와 성해응의 어정명찬서 편찬과 사적 저술 활동-」, 『한문학보』 43.
 송호정, 2011,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2.

양원석, 2003, 「성해응의 시경학」, 『어문론집』 48.
 윤세순, 2018, 「『난실담총』의 편찬 시기와 지식 구축 방식」, 『동방한문학』 76.
 윤희면, 1982, 「해제」, 『동국지리지』, 일조각.
 이병도, 1933, 「패수고」, 『청구학총』 13.
 ———, 1938, 「成研經齋與其學術略述」, 『稻葉博士還曆記念滿鮮史論叢』
 ———, 1956, 「위씨조선흥망고」, 『서울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4.
 이승수, 2022, 「압록강 명칭고」, 『한국민족문화』 8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이원택, 2012, 「성해응의 지정학과 울릉도·우산도 인식」, 『한국사상사학』 41.
 정구복, 1987, 「한백점의 사학과 그 영향」, 『구암유고·동국지리지』, 일조각.
 조광, 1974, 「조선 후기의 변경의식」, 『백산학보』 16.
 ———, 1998, 「조선후기 영토의식의 전개와 그 이상」,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하우봉, 1997, 「실학파의 대외인식」, 『국사관논총』 76.

郭毅生, 1983, 「率賓府, 恤品路和開元城」, 『歷史地理』 2.

池内宏, 1922, 「完顔氏の曷懶甸經略と尹瓘の九城の役」,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9.
 稻葉岩吉, 1931, 「高麗尹瓘九城考」, 『史林』 16-1·2.
 今西龍, 1937, 「渭水考」, 『朝鮮古史の研究』, 京城: 近澤書店.
 山元貴尚, 2008, 「『水経』, 『水経注』, 『水経注疏』について」, 『水経注疏譯註(渭水篇上)』, 東京: 東洋文庫.

『연경재전집』의 지리류(地理類)와 한국고대 영토 인식

김희만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은 크게 본집·외집·속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류’의 편성은 외집 권44부터 권51까지의 ‘사료지리류’와 속집 권50의 「산수기」, 외집 권63의 「고적류」, 속집 권16의 「동국지리변」 등이다. 지금까지 성해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학과 경학사상을 중심으로 이해해왔으나, 이 글에서는 성해응의 다양한 전문지식 가운데 ‘지리류’를 통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하였다.

먼저, 『연경재전집』의 지리류에 보이는 다양한 사항을 분석하여 그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구명해보았다. 이 지리류에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자료가 다수 수록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작업의 토대 위에서 성해응이 한국 고대의 영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방법과 인식론을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연경재전집』에는 조선사회의 국토 인식을 알 수 있는 「산수기」, 「고적류」, 「동국지리변」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사료지리류’의 역사지리 내용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성해응은 지리류의 구성을 크게 중국과 대비되는 「동수경」, 「동국천품」, 「동국지리변」 등 ‘동(東)’이나 ‘동국(東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북강역」, 「서북변계」, 「한이군고」 등의 항목에서 당시 고대 조선의 영토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실학자가 바라본 다양한 한국 고대의 영토 인식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제어: 성해응(成海應),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지리류(地理類), 영토(領土) 인식(認識), 「사료지리류(史料地理類)」, 「산수기(山水記)」, 「고적류(古蹟類)」, 「동국지리변(東國地理辨)」, 「서북강역(西北疆域)」, 「서북변계(西北邊界)」

ABSTRACT

A Study on Geography Genre(地理類) in View of *The Complex Works of Yeongyeongjae*(『研經齋全集』) and Recognition of Korean Ancient Territory

Kim Heuman

The book of 『研經齋全集』 by Seong, Hae-eung(1760~1839), is largely composed of a main books, an outer books, and a separate books. Among them, the composition of Geography Genre consists of ‘史料地理類’, ‘山水記’, ‘古蹟類’, ‘東國地理辨」 and so on.

In this article, I tried to find a new approach through geography among Seong Hae-eung’s various expertise. As a result, 『研經齋全集』 contains ‘山水記’, ‘古蹟類’, ‘東國地理辨」, which show the perception of the land of Joseon society, so that it can be used to expand the historical and geography contents of ‘史料地理類’ found it helpful.

In addition, it is also revealed that Seong, Hae-eung uses the terms ‘East’ or ‘East Country’ which largely contrasts with China. And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various data that can recognize the territory of ancient Joseon at the time, in items such as ‘西北疆域’, ‘西北邊界’

and ‘漢二郡考’.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status of various ancient territorial perceptions of Korea as viewed by Silhak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Seong, Hae-eung, *The Complex Works of Yeongyeongjae*(『研經齋全集』), Geography Genre(地理類), Korea's Ancient, Cognition of territory, 「Geography Genre of Historical Records(史料地理類)」, 「Essay on Nature(山水記)」, 「Genre of Archaeological site(古蹟類)」, 「Tale of Dongguk Geography(東國地理辨)」, Frontier of Northwest territory(西北疆域), Borderline of Northwest territory(西北邊界).

한국 핵 피폭자운동의 선구자 박수복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행선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I. 머리말: 방송작가와 재한 원폭 피해자
- II.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67) 결성과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
- III. 세계평화의 해(1986)와 『핵의 아이들』
- IV. 맺음말: 수치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방송작가와 재한 원폭 피해자

이 글은 핵 피폭자운동의 선구자격인 방송작가 박수복(朴秀馥, 1930년 8월 12일 출생)의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와 『핵의 아이들』(1986)을 중심으로 그의 피폭자 지원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정의기억연대)과 윤미향 전 이사장의 기부금 유용과 회계부정을 지적하면서 크게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의 평가나 찬반은 차치하고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위안부’와 소녀상뿐만 아니라 정의연이란 시민단체와 윤미향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30년 동안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 전신),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시민단체가 30여 년이나 존재했고 지원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수요집회, 소녀상, ‘위안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대일 민족감정, 정치·이념 갈등과 결부되면서 시민단체 정의연을 주목했다. 여기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는 자금 유용·부정의 문제를 떠나 한국 정부와 사회가 외면해왔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가 및 지식인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구호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관련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과 다름없다.¹

가령 한국에서 환경운동의 선구자는 학문의 영역에서는 1960~1970년대 초기 환경학자 권숙표가 있고, 환경시민운동가의 영역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의 최열이 있다. “2017년 8월 이후 살충제 달걀, 생리대, 기저귀, 중금속 핸드폰 케이스, 물티슈 등 일련의 화학물질의 오·남용사건이 충격을 주면서 환경오

* 투고: 2022년 6월 7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10일, 게재 확정: 2022년 8월 16일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염과 생활안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환경의식의 각성을 위해 환경운동의 역사를 보다 대중화하고 사회화하는 ‘기억의 역사화’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 두 사람은 한국인에게 환경오염의 문제를 각인하기 위해 일본의 환경 소설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 1931~1984)의 『복합오염(複合汚染)』(1975)을 번역하는 대중화 노력을 했다. 하지만 책이 품질되고 사회의 관심이 대기오염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환경학계와 시민운동가의 선각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복합오염』의 독서경험이 사라지고, 오염문제의 인식을 ‘공해 → 환경 → 사회도덕’으로 확장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환경 선각자의 목소리도 잊혀졌다. 그 결과 2017년 8월 ‘살충제 달걀’ 사건 후 지정된 알라딘의 환경교전 도서에도 『복합오염』은 제외되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선구자이자 번역자에 대한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관련 종사자에게만 잠재되어버렸다. 이처럼 생활안전에 무관심한 국민 대신 이전부터 솔선수범하여 환경운동을 해온 학자나 시민단체가 존재하지만 환경재난의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힘쓴 이들의 노력이 사회적 기억화되어 축적되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의식 각성과 사회의 진보는 더딜 수밖에 없다. 운동가들이 한국의 공동체를 위해 투신한 역사가 ‘공적 기억’화되어야만 사회 제반 분야에서 분투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세력 및 단체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¹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 투쟁 주도의 한국 반핵운동의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에 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 식민지배와 전후청산의 문제에서 ‘위안부’는 한일 양국의 주요 외교적 현안이 되었지만, 전쟁피해자의 한 축인 원폭 피해자의 실상은 사실상 거의 공론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핵발전소의

1 이형선·양아람, 2017,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번역 수용과 한국 사회의 ‘복합오염’-환경재난과 환경운동(권숙표, 최열)」, 『대동문화연구』 100집, 509~540쪽.

위험성을 알리는 반핵 투쟁에서도 실제 핵 방사능 피해자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는 거의 가시화되지 않았다. 동일본대지진·경주지진 이후 반핵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다룬 김옥숙의 장편소설 『홍터의 꽃』(2017)이 출간되었지만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 소설이 간행된 2017년 5월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6.5.29. 제정)이 시행된 달이었다. 그럼에도 원폭의 참상을 알리는 원폭 피해자의 호소와 경험이 공적 언어화되어 미디어의 공적 이슈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² 피해자가 사회적 이목을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운동가가 주목을 받을 리 없다.

대다수 사람은 잘 모르지만 현재 책이 출간되고 조명되는 인물로 김형률(1970~2005)이 있다. 피폭2세인 그는 2002년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폭2세의 존재를 한국 사회에 알린 대표적 피폭자운동가이자 ‘한국피폭2세 환우회’ 초대 회장이었다. 김형률은 2005년 5월 29일 선천성면역글로불린결핍증으로 작고했는데, 그를 추모하는 동료들은 여러 사람이 “김형률을 또 다른 글로 엮고 영상으로 표현”³하기를 바라고 ‘김형률의 길’에 동참하기를 염원했다. 일반적으로 ‘원폭특별법’은 김형률과 그로 인해 원폭 문제의 절박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 김형률의 동료들이 없었으면 제정될 수 없었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추모할 수 있고 운동도 지속하며 확장할 수 있다.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효과적인 전략 중에서 정부의 ‘공적 지원’은 피해 사실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제주4·3사건, 한국전쟁의 민간인학살, 5·18광주민주화운동, ‘위안부’ 등의 진상규명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당사자의 직접적인 증언과 구술이 국민 다수에게 전달되면서 공감은 자아내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일종의 ‘증언의 시대’

2 이행선, 2018,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증언의 서사, 원폭문학-김옥숙, 『홍터의 꽃』(2017)」, 『기억과 전망』 39호, 151~154쪽.

3 아오야기 준이치, 「김형률, 전태일의 또 다른 이름, 전진성, 2008,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원폭2세 환우 김형률 평전』, 휴머니스트, 10쪽.

가 열리는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에 유입되지 않았다. 정부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원폭 피해자의 사회적 의제화를 가로막는 주요 조건의 하나였다. 원폭 피해자 구술 정리작업은 2003년경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1990년대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종전 이후 해마다 ‘분단 ○년, 광복 ○년’ 등의 이름으로 기념식이 열렸지만 피해자가 외친 ‘원폭 ○년’은 못했다.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조약에 양국 간의 모든 청구권이 해결된 것으로 명시되면서 원폭 희생자의 배상 문제가 해소되었고 한국 정부는 구호책임을 회피했다. 실제로 2017년 5월 ‘원폭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의 개별 피폭자는 외국인 피폭자를 차별해온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의 재판투쟁을 개인적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그 재판소송은 많은 일본의 시민과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양국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의 지원과 연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그래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운동의 역사’는 국내에 다양한 협조를 구해온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활동의 역사’와, 일본의 시민단체나 지식인·정치인의 지원과 연대 속에서 이어져온 ‘재판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다.⁶ 이 글에

4 「「광복의 그늘」 속에 잊혀진 사람들 원폭피해자」, 『동아일보』, 1988.8.13, 9쪽 참조.
 5 운동의 역사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소송은 원폭1세 ‘손진두와 광귀훈의 소송’이다. 1972년 일본 사회에 한국인 피폭자의 존재를 각인시키면서 피폭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최초의 소송이 손진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소송(1972.10.2.~1978.3.30.)으로 한국인 피폭자에게도 건강수첩과 건강관리수당이 지급되었지만, 피폭자가 일본을 벗어나면 ‘통달402호’라는 행정명령에 의해 그 권리가 박탈되었다. 이에 광귀훈이 일본에서 취득한 피폭자건강수첩이 한국 귀국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위법이라는 소송(1998.10.1.~2002.12.5.)을 제기해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원호법을 재외원폭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건강수첩과 건강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식발표를 했다. 2004년 4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승소해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광귀훈에게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여했다.
 6 정근식 편, 진주 채록, 2005, 『고통의 역사 -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31쪽.

서 다룰 박수복은 손을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관계를 맺으며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수복은 1975년 자료에 따르면 “1930년 8월 12일 출생. 부산일보기자, 한국문화방송연예부 프로듀서를 거쳐 현재 프리로서 활약 중인 여성 작가. 한국에서 피폭자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끝없는 출발>(라디오연속극, 1968년 동양방송) 외, 라디오, TV에 연속극이나 단막물을 다수 발표. 한국방송작가협회회원”⁷이 었다. 여기서 박수복은 기자 출신 방송작가이며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직업을 살려 박수복은 1970년대 후반에도 단막 드라마 <희망>(박수복 극본, 이유봉 연출) 등 방송을 통해 피폭 생존자의 참상을 한국사회에 전하는 노력을 했다. 이 외에도 그녀는 직접 피폭자를 찾아다니며 구술 작업을 한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와 『핵의 아이들』(1986)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공적 기억화 하며 반핵의식을 각성하게 했다. 그 결과 박수복은 1996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주는 반핵인물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박수복은 한국피폭자운동의 역사를 정리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선구자격 인물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작가이자 피폭2세인 김옥숙은 『흉터의 꽃』을 쓰면서 원폭 피해자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공적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획의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획의 선구자격인 박수복은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와 『핵의 아이들』을 통해 원폭 피해자와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퍼져나가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기억의 사회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그녀와 다른 성격의 반핵운동가 표문태도 있었다. 표문태는 1970년에 『핵전쟁』(랩, 랠프 E)을 번역했으나 197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에 집중했고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반핵운동을 하여

7 박수복·郭貴勳·辛泳洙 共著, 1975, 『被爆韓國人』, 東京: 朝日新聞社, 326쪽. 박수복은 1964년 4월 1일부터 1977년 10월 10일까지 라디오방송극 <절망은 없다>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1984년 ‘세계비핵지대화운동 국제협의회 한국지부’ 대표가 되고 1987년 재일 징용피폭자를 다룬 『버림받은 사람들』을 편저했으며 『아시아를 비핵지대로』의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표문태는 박수복보다 당대의 핵무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민한 반핵운동가였으며 재한 원폭 피해자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었다.⁸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재한 원폭 피해자운동의 선구자격인 방송작가 박수복의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와 『핵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의 피폭자 지원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피폭자도 아닌 박수복은 어느 누구보다 진지하게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원폭 피해자의 외침을 드러내고 기억화하는 작업에 뛰어든 방송작가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피해자의 집에서 만난 각 증언자의 파편적인 기억과 염원을 재조합하고 전달하는 수단과 서사전략을 고심한 끝에 단막 드라마와 구술증언집을 택했다. 특히 구술증언집은 10여 년 간격으로 기획되어 박수복의 피폭자 관심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이었다는 것을 환기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수행한 구술증언집은 매우 큰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박수복은 피해자의 증언을 집합적·공적 기억화하고 역사의 장면으로 만들었다. 이제 재한 원폭 피해자운동의 선구자의 활동을 정리하고 역사화할 시점이다.

8 1980년대 표문태의 반핵운동에 대해서는 이형선, 2021, 『『핵전쟁』(랩, 램프 E.)의 번역(1970)과 문학자 표문태의 반핵 운동』, 『한국학』 통권 164호, 87~123쪽 참조.

II.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67) 결성과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

전후 냉전사와 핵무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 말이 하나의 변곡점이다. 1977년 들어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중간거리 핵미사일 SS-20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 카터 미행정부가 서유럽에 신형 핵미사일 퍼싱 II와 크루즈 미사일(순항 미사일)의 배치를 추진하면서 핵협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같은 파행에도 카터와 브레즈네프는 1979년 6월 빈에서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정에 서명하고 카터는 상원의 비준을 요구했다.⁹ 하지만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소·대공 군사대결 강경정책으로 급선화하면서 1980년대 초중반 미·소의 핵무기 경쟁이 극심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과 박수복의 활동을 고려하여 II장에서는 1977년 이전 시기 박수복의 활동을, III장에서는 그 이후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77년 이전 방송작가 박수복의 활동은 1968년 한국에서 피폭자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끝없는 출발>(라디오연속극, 동양방송)과 1975년 7월 출간한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그리고 같은 달 일본에서 일본어로 간행된 『피폭한국인(被爆韓國人)』이 있다.¹⁰ 박수복은 『피폭한국인』의 서문과 총3부 중 제1부를 맡았는데 서문은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의 「피폭30년의 그날과 오늘」 부분을 전문 그대로 일본어로 옮긴 것이고, 제1부는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에서 경남 합천과 경기도 가평의 피폭자 부분을 발췌하여 옮긴 내용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이 시기 박수복은 라디오연속극 <끝없는 출발>(1968)과 구술기록집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를 바탕으로 일본에 재한 원폭 피해자의 실상을 전하는 작업을 했다. 박수복은 구술기록집에서 자신이 재한 원폭 피해자를 방문

9 존 루이스 캐디스 저, 정철·강규형 역, 2010,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276~277쪽.

10 朴秀馥·郭貴勳·辛泳洙 共著, 1975, 앞의 책.

하여 작업한 구술에 8년 동안 모아온 자료를 더했다고 밝히고 있다. 8년 전이라면 1967년이다. 이때는 그녀가 라디오연속극 작업을 했을 시점이다. 선구자 박수복이 원폭 피해자에 최초로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1967년 무렵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일협정(1965)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지만 1966년 8월 한국에서도 피폭자 문제가 매스컴에 부각되었다. 8월 6일 『중앙일보』는 한국 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의 비참한 실정을 보도했고, 서울 동양TV는 8월 8일 밤 김재근(히로시마 미쓰비시 조선소 피폭자)을 초청하여 대한적십자사와 원자력원 의사와의 좌담회를 방송했다. 처음으로 전파를 타게 된 피폭자의 방송에 대한 반응은 컸다. 이를 시청한 배도환(1909년생) 등이 김재근을 찾아가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창립기성회발기인회를 연 것이 1967년 2월 11일이다. 3개월쯤 지난 1967년 7월 10일 원호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얻었다.¹¹ 1968년 8월 6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원폭희생자 제1회 위령제가 거행되었다.¹² 한국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진혼제였다. 1968년 10월 2일에는 히로시마 피폭자 손귀달(35, 여)이 원폭증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체포되었다. 손귀달 밀항사건의 영향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재한 피폭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이처럼 재한 원폭 피해자의 사정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자 1968년 10월 제69차 국회본회의에서 김상현 의원이 원폭 피해자 문제를 최초로 국회에서 제기했다. 김재소 의원은 보사분과 위원회에서 피폭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대일민간청구권자금에서 피폭자를 보상해주자고 제의했으나 답변에 나선 정회섭 보사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6·25의 뒷처리가 남아 있어 특별법 제정은 어렵고 생활보호법을 적용해서 구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18세 이하 60세 이상의 무의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11 표문태 편, 1987, 『머림받은 사람들』, 중원문화, 178~179쪽.

12 「망각되고 있는 국내의 원폭피해자」, 『조선일보』, 1968.8.7, 2쪽.

했다.¹³ 1968년 일본에서는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1968)하여 특별수당, 건강관리수당, 간호수당, 의료수당 등을 피폭자에게 지원하고 있었다.¹⁴

대외적으로는 1967년 미·소·영이 우주에서의 원자무기금지를 합의하고 1968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체결(1970년 발효)되었다. 1968년 4월 22일에는 남미 지역의 틀라텔롤코 조약(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세계 최초의 비핵지대 조약으로서 1962년 쿠바 위기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 비핵화 구상이 제기되어 중남미 33개국이 참여해 서사되었다.¹⁵ 방송작가 박수복은 이러한 국내외의 영향 속에서 1968년 한국에서 피폭자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끝없는 출발>(라디오연속극, 동양방송)을 만들었고 한국원폭 피해자원호협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 각지로 피폭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7.)은 그 산물이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우정의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창작과 비평』, 1975.3.)¹⁶와 이우정의 『한국원폭피해자 실태보고』(1975.9.),¹⁷ 강수원이 엮은 『가공 원자 폭탄 투하(可憐 原子 爆彈 投下): 과연 인류는 전멸할것인가?』(1976)¹⁸도 출간되었다. 이 당시 이우정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이자 서울여대 교수였다. 강수원(1916년생)은 1942년 2월 창씨개명 반대운동을 한 제일본유학생연맹의 민족운동 및 비밀결사 등에 참여하여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 국가변란 전복 기도 등으로 체포되어 히로시마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피폭당한 인물이다.

13 이우정, 1975,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 『창작과 비평』 35호(봄호), 222쪽.

14 이치바 준코 저, 이계수 역, 2003,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334쪽. 그 이전에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15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2005,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 11쪽.

16 이우정, 1975, 앞의 글, 211~238쪽.

17 이우정, 1975, 『한국원폭피해자 실태보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8 강수원(姜壽元) 엮음, 1976, 『可憐 原子 爆彈 投下: 과연 人類는 全滅할것인가?』, 금강출판사.

이들과 박수복의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7)과 일본에서 간행된 『피폭 한국인』(1975.7)을 감안하면, 1970년대 중반 드디어 재한 원폭 피해 당사자와 이들을 돕는 지식인 및 시민단체가 국내외에 목소리를 드러내고 피폭자 구호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초중반에 원폭 피해자와 관련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 봄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밖에 세워졌다. 1970년 12월 3일에는 손귀달의 오빠 손진두 밀항사건이 있었다. 일본인의 민간의료지원은 1970년 6월 일본 의사와 의료진이 내한하고 이듬해 9월 20일 히로시마 원폭병원 내과과장 이시다 사다루와 진료의사단이 방문하면서 촉발되었다.¹⁹ 또한 1972년 히로시마 핵금회회에서 한국에 진료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1973년 12월 15일 ‘합천원폭피해자진료소’가 개원했다. 1974년 3월 손진두의 수첩재판 1심에서 승소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동년 7월 22일 일본 후생성은 ‘402호 통달’을 통해 “원폭특별조치법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피폭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영역을 넘어 거주지를 옮긴 자에게는 동법의 적용은 없다”는 행정 방침을 정한다. 피폭자로 인정되어 일본의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해야 한다. 일본에 거주 관계를 갖는 사람들만 피폭자의 자격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제약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거나 입국하더라도 한 달 이상 체재할 곳이 없는 한국 원폭 피해자의 경우 수첩의 교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1975년 3월 4일 히로시마 미쓰비시 조선소 징용 피폭자 이남수가 사망했다. 그의 죽음이 화제가 된 것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약속을 받을 때까지 내 시체를 일본대사관에 놔두라”는 유언 때문이다. 그의 영결식장

19 「인터뷰 사죄의 仁術 石田定 씨」, 『경향신문』, 1971.9.23, 5쪽; 「원폭환자 12명 선정 일본병원 입원치료」, 『매일경제』, 1980.3.8, 7쪽.

20 오은정, 2018,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기억과 전망』 39호, 133~135쪽.

에 일본 정부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모리타 요시오 주한일본대사관참사관이 참석해 ‘속죄의 분향’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1년에 한 번 ‘원폭투하의 날’이 아니면 원폭 피해자를 전혀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피폭자 문제를 외면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¹

당대가 이러할 때,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피폭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74년 2월 미국교회여성연합회가 주최한 평화회의에 참석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과 기념관을 방문한 후부터이다.²²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피폭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해 이우정 회장이 『창작과 비평』에 조사 보고서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1975.3.)를 실었고 동년 9월 “교회여성연합회가 이것을 발취해서 1,500만 우리 여성과 교회여성, 즉 할머니, 어머니, 누나, 누이동생이, 그리고 온 겨레가 이것을 읽고 이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신속 과감히 퍼주기 바라며”²³ 소책자 『한국원폭피해자 실태보고』(1975.9.)를 발간했다. 또한 『가공 원자 폭탄 투하』는 강수원이 일본의 원폭 관련 서적들을 번역해 모은 자료와 자신의 체험담을 엮은 책이다. 이우정, 강수원의 책은 모두 자료조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우정의 글은 한국 원폭 피해자의 실정과 특이성, 일본 피폭자의 현황, 일본 민간사회의 관심, 일본 지방법원의 판시, 일본 정부의 관심, 한국 정부의 입장, 한일의원 간친회에 거론 처결요망, 원폭병, 손귀달·신영수·김재근 등 일부 피폭자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강수원의 글은 제1부 원자폭탄 개괄적 소개, 제2부 한국 원폭 피해자의 참상과 일본·미국의 책임문제, 제3부 강수원 자신의 30년 회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두 책은 핵무기와 원폭 피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독자 대중이 핵 문제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습득

21 「무관심과 천대에 서러운 원폭피해자」, 『동아일보』, 1975.3.7, 6쪽; 「버림받은 「원폭피해자」」, 『조선일보』, 1975.3.7, 7쪽.

22 오은정, 2018, 앞의 글, 129쪽.

23 공덕귀(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1975, 「『한국원폭피해자의 실태보고』를 내면서」, 이우정, 『한국원폭피해자 실태보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5쪽.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글은 지식뿐만 아니라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두 사람은 원폭 피해자를 통해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상기시켜야 하고 한국인의 사회적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억울한 피해자성을 각인시켜야 했다. 가령 이우정은 “그 당시 우리 동포의 전반이 징용·징병·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동원,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의 도구로 혹사를 당하다가 원자폭탄에 무고한 우리 동포가 무려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피폭을 당하였습니다. … 이러한 처참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피폭자가 현재 한국에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에 등록된 인원만도 9,36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피해자 수는 일본 전체 피폭자 수의 약 1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 피폭자는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끌려가서 전쟁수행 도구로 혹사되다가 참화를 당한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은 억울한 피해자들”²⁴이라고 했다. 강수원도 마찬가지로 식민지배의 잔혹성과 참혹성을 지적하고 강제로 끌려간 피폭자 참상을 강조했다.

한국방사선의학연구소가 히로시마 대학 원폭방사능 의학연구소장 시미즈(志水 清) 박사의 도움으로 1969년에 이장규(李章圭) 박사 팀 5명이 7개월 동안에 걸쳐 서울시 일원에 있는 피폭자 90명(그중 피폭자 2세 28명 포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국내 원폭 피폭자에 대한 의학적 관찰 및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폭자 90명의 샘플 중, 두통을 앓는 사람이 39%, 사지무력감이 17%, 소화불량이 17%이고, 신체검사 결과 위장장해가 34% 간비대(肝肥大)가 21%, 고혈압과 화상 반흔(火傷搬痕)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 신경증환자가 8명, 사지기형 및 근육위축이 3명, 정신이상(精神異常)이 2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원폭피해자들이 각종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24 이우정, 1975, 앞의 글, 212쪽.

〈합천원폭진료소 개원 후 1년간 진료 내역〉²⁶

병명	인수	병명	인수
당뇨병	8명	정신이상	6명
요결석	1명	관절염	25명
전립선염	2명	신경통	62명
기관지염	18명	순환기질환	22명
빈혈	24명	폐결핵	13명
심장질환	9명	호흡기장해	22명
고혈압	54명	간기능장해	42명
절단	1명	소화기장해	58명
골절	2명	백내장	4명
켈로이드증	26명		

피폭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고와 가난이 사회화되어 한국 정부의 지원과 일본의 치료 및 배상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우정의 글에는 1969~1970년 서울 지역 피폭자 90명의 샘플 조사 결과 두통 39%, 사지무력감 17%, 소화불량 17%이고, 신체검사 결과는 위장장해 34%, 간비대 21%, 고혈압과 화상반흔이 12% 등의 순이며, 이 중에 신경증환자(8명), 사지기형 및 근육위축(3명), 정신이상(2명)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었다. 강수원의 글에는 합천원폭진료소 개원 후 1년간 진료 내역이 있는데 신경통이 가장 많고 소화기 장해, 고혈압 순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대중독자의 입장에서는 제시된 일련의 원폭병이 일반인도 걸리는 병이라서 잘 납득이 안 되고 병명이 지닌 고통의 현실감도 떨어진다. 실제로 합천원폭피해자진료소 개원을 계기로 원폭병원 내과과장 이시다 박사와 일본 의료진이 1973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합천에서 100명을 조사했을 때, 진찰을 끝낸 이시다 박사가 “이 같은 질환이 모두 원폭병의 후유병발증

25 이우정, 1975, 위의 글, 224~225쪽.

26 강수원 엮음, 1976, 앞의 책, 258쪽.

이라고만 꼭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발병원인의 하나는 될 수 있다”²⁷고 말했다 정도로 원폭병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

〈후기〉, 박수복

被爆者 대다수가 지난 일을 기억해내는 데 힘들어했다. 전혀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해서 기다림과 인내는 그동안의 取材과정에서 첫 단계의 과제였다.

병고의 하소연 繫連性 없는 얘기의 되풀이 영망이 되어버린 시간성을 제 나름으로 가늠하고 정리하는 작업 또한 첫 단계 못지않게 적은 시간과 냉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질문의 중요 力點은 渡日의 배경 피폭 시의 상황 피해상태, 그리고 귀국 후의 생활과 투병 과정으로 요약해봤으며, 事實기록에 가능한 충실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이미 장구한 시간과 버려진 상태에서 소멸과정에 빠져든 그들의 실태를 조각난 부분이나마 원형 그대로 被寫體로 잡아둠으로써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통계자료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한국 피폭자들의 역사적, 시대적 자료의 일단이나마 補贖해보자는 필자 나름의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필자의 예비지식이나 선입관을 배제한 피폭자 당사자들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서술형식의 일인칭 구성을 택해봤으며 객관서술의 경우에도 이 점에 유의했다.

또 한 가지, 얘기식으로 풀어 쓴 이유를 덧붙인다면 많은 국민이 이 부족한 기록이나마 읽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이다.

日帝군국주의 식민치하의 막바지 충동원령에 강징되어 끌려 나갔던 그 술한 現場 속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박씨가 아니면 김씨가, 김씨가 아니면李씨가

27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환종별 환자 수는 간장염이 22명으로 제일 많고 소화불량 21명, 혈액불순환 18명, 빈혈 13명, 신경통 12명, 켈로이드 6명, 호흡기질환 3명, 암 3명, 내분비질환 3명, 관절염 1명, 백내장 1명, 기타 8명으로 한 사람이 빈혈, 간장염, 혈액불순환, 신경통 등 4가지 병에 걸려 있는 등 10명이 합병증환자였고 단 1명만 아무런 질환에도 걸려 있지 않았다. 「일의료진(日醫療陣) 진단결과 피폭자 거의 병발증(症)」, 『동아일보』, 1973.12.24, 7쪽.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생각한다면 뒤늦은 일기기는 하나 同族으로서의 연대적 비극으로서의 올바른 파악이 우선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당하게 이해되어야 하겠다는 소신 때문이다.

필자 역시 그러한 깨우침의 동기로 해서 이 일에 제 나름의 참가를 해온 것이 八年 세월이 겨우 두서없는 부분기록으로 요약된 것이다.

八년간에 이제 겨우 어렵듯하나마 손터듬으로 한국 피폭자의 윤곽을 이해하게 되는 문턱에 서서 이 이해의 폭을 시민적 광장으로 넓혀야겠다는 조급한 소망은 역부족인 필자로서는 적잖은 만행에 속하는 일이었으나 이 이해의 확장 없이는 어떠한 피폭자 구원운동도 시발점에서부터 있을 수도 있게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뼈아프게 뉘우친 바 있어 내뉘고 말았다.²⁸

이처럼 ‘원폭후유증의 심각성과 독자의 실감’을 떨어뜨리는 한계를 보완하는 게 박수복의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이다. 이 책은 원폭개론서가 아니라 재한 원폭 피해자의 구술을 담은 증언집이다. 박수복이 원폭 피해자에게 던진 “질문의 중요 역점은 독일의 배경, 피폭 시의 상황, 피해상태, 그리고 귀국 후의 생활과 투병 과정”이었다. 이 질문법은 중요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원폭 증언집의 시작을 알린 『고통의 역사-원폭의 기억과 증언』(2005)은 증언자의 피폭 경험을 원폭 피해자의 생애 전체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내 몸에 새겨진 8월-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2008)은 피폭구술자 20명이 그 장소에 있어야 했던 역사적 의미에만 집중했다.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2011)는 일본의 원폭체험이야기가 대체로 ‘피폭체험’이어서 조선인이 동일하게 된 계기나 생활 등의 내용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대담자의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확장해보면 ‘피폭 순간’만 다룬 문학작품이나 증언을 극복하고, ‘도일 이전, 이후, 피폭 당시, 귀국, 귀국 이후의 삶’ 등을 총체적으

28 박수복, 1975,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한국원폭피해자 30年の 기록』, 創元社, 292~293쪽.

로 파악하는 것이 희생자를 온전히 대변하고 이해하며 공적 기억화 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었다.²⁹ 사실상 최초의 원폭대담자인 박수복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의 원폭 피해자는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 경남 합천 지역 피폭자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가평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민들, 그 다음은 기타 지역 피해자로 구성되었다. 박수복은 합천 지역에서만 200여 명의 원폭 피해자를 만났다고 밝히고 있다.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다. 세 번 이상 대면한 사람도 있다. 직업이 있는 개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노력과 관심이 확인된다. 이 책의 서문을 쓴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회장 신영수(히로시마 군수공장 피폭)도 박수복의 노고에 매우 감사했다. 신영수는 한국을 “메마른 우리 사회, 우리 동포”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지 않을 거라면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30년 전 옛날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사성이 없다. 둘째, 재미가 없고 참혹하기만 하겠기 때문에. 셋째, 피폭자에게 투심과 동정을 보내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넷째, 우리 모두가 원수폭(핵무기)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원폭투하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³⁰

그럼에도 박수복의 책은 이우정, 강수원의 글이 갖지 않는 힘이 있다. ‘한국 원폭피해자 30년의 기록’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구술에 나선 원폭 피해자는 일시적인 병증, 병명이나 가난을 논한 게 아니다. 이들은 피폭 30년을 버티면서 쌓인 한과 원통함, 울분을 쏟아냈다. 피폭자 유춘성이 “이름 모를 병에 대한 고통, 공포증, 당장 내일을 모르는 목숨에 대한 불안감, 어린애에 대한 유전적 두려움”³¹을 털어놓은 것처럼, 이들이 겪는 원폭후유증과 병은 병원의 검진 결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 강수원의 책에 따르면 “방사능의 침투력은 세

29 이형선, 2018, 앞의 글, 160쪽.

30 박수복, 1975, 앞의 책, 16~17쪽.

31 박수복, 1975, 위의 책, 257쪽.

포분열이 자주 일어나는 조직일수록 영향이 빠르고 또한 강하게 나타난다. 조혈기, 성기, 소화기 등이 그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신진대사가 완만한 세포조직일수록 잠복기가 길다. 신진대사가 완만한 조직에서의 발병은 10년 또는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만발성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근래의 피폭자에게 발생하는 이들의 여러 질환은 일반적으로 피폭 뒤에 일어나는 영향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원폭증이란 고유의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원폭의료법에 의하여 인정된 질병을 말하는 것이며 실은 피폭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발병하는 병이다.”³² 즉, 원폭병은 피폭 즉시 발병하기도 하지만 생체조직 부위에 따라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박수복이 만난 피폭자는 피폭 10년 혹은 15년이 지나 발병하여 이미 사망했거나 악화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았다. 심각한 것은 공식적으로 원폭유전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다. 원폭의 유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폭자의 자녀(피폭2세)와 그 손자(피폭3세)는 아파도 병의 원인도 모르고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 1973년 12월 합천에 최초로 진료소가 만들어졌을 때도 피폭2세는 무료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피해자의 원성이 컸다. 피폭자 중에는 강제동원된 사람 외에도 이주자도 많았다. 이 때문에 피폭 생존자(피폭 1세)는 피폭 당시 가족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고, 피폭 당사자는 귀국 후 피폭의 후유증과 한국사회의 외면 그리고 멸시 속에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며, 그 후손인 피폭2·3세는 병의 발병 원인도 잘 모른 채 병을 안겨준 부모를 원망하며 생을 이어나가야 했다. ‘내 몸이 바로 증거다’라는 말이 있듯이 박수복의 책을 접한 독자는 원폭 피해자가 자신과 후손의 몸을 통해 아직도 공식적으로 원폭유전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일본·한국 정부에게 항변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32 강수원 엮음, 1976, 앞의 책, 107~108쪽.

정임술 임신상태, 아이들 우리말을 하나도 못한다. … “빌어먹더라도 몸이나 성해
 야지 애들까지 반병신이니 어찌 사람들의 눈총을 피할 수 있겠어요. 지난 일이니
 이렇게 입을 놀립니다만, 무슨 말로 그 지옥을 표현합니까! 바로 이 집 자리에 움
 막을 짓고 얻어먹다시피 하면서 4월 말에 제가 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부기가 가
 시지 않아 다 죽게 돼서 자리에 누워 있는데 바로 옆에서 주인(40, 남편)이 피를
 쏟기 시작하더군요. 그 길로 죽고 말았지요.” … 내곡부락은 산골짜기 … 일본서
 태어난 반병어리와 같은 아이들도 차차 말을 익히고 자연 식물처럼 그런 대로 세
 월과 함께 자라왔다. 그러나 재임 양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채, 오히려 손가락
 과 발가락 일부가 휘어들면서 전신마비를 일으켰고,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반병어리 백치 상태로 굳어가고 있었다.³³

유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해방 이후 한
 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방치했다. 피폭1세 광귀훈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협정에서 원폭 피해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³⁴ 이후 정부의
 모든 조치는 한국인 원폭 당사자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소송에서 승소하
 여 일본의 지원이 조금씩 확대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후속 조치로 피폭자를 지원
 하는 패턴이었다. 구술자들은 전쟁과 피폭보다 한국에서 하루하루 영위하는 일
 상이 더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피폭자는 문둥병자, 병신으로 간주되어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피폭자 병세의 공통적인 특징이 힘을 쓸 수 없
 는 무기력증과 숨이 가쁘고 두통이 빈번한 점이다. 농사나 건설현장, 공장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고 취업이 되도 무리를 해서 나
 중에는 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당시는 12시간 노동이 일
 반적이었기 때문에 공장의 일은 피폭자에게 무리였다. 이 때문에 병고와 가난이
 악순환이 되어 자식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교육이 가능하더라

33 박수복, 1975, 앞의 책, 85~86쪽.

34 광귀훈, 2013,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민족문제연구소, 140쪽.

도 자녀도 발병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게 상당수였다. 게다가 일본에서 태어나 귀국한 아이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 고립되고 무시 받았다.

재한 원폭 피해자는 사회의 냉대와 무시, 피폭자의 열등의식과 고립, 가난과 심각한 병증 때문에 일상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피폭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피폭자나 피폭2세는 결혼 이후 병이 발병하거나 아이를 사산하고 기형아를 출산하여 들통이 나고 이혼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결혼을 택했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는 지난했다. 피폭자나 그 후손이 한국에서 “원폭지옥”의 일상을 영위한 것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자국민과 한국인을 구분했던 일본의 ‘차별적 원폭정책’과 ‘한국 정부의 무관심’ 사이에서 한국인 피폭자는 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체험해야 했다. 게다가 이웃이든 누구든 거의 찾거나 말을 걸어주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원폭 피해자는 박수복이 찾아가 말을 걸어주고 사연을 들으려는 것을 꺼리면서도 고마워하고 ‘사람 대접해준다’고 여겼다.

자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걸 1974년 신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가 있다는 것 알게 된 것 그 원자탄으로서 내가, 그리고 내 자식들이 30년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니 ... 원통하기 이를 데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모두가 도깨비 짓 같은 것으로만 알고 산 나는 동물과 뭐가 다른가! 나는 웬지 희망이 생긴다. 이제까지 괴물로만 알았던 원자탄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내 병과 불행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그 밝힘은 이왕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도 살아남은 내 자식들에게 부당하게 끌려 나가, 부당하게 살인탄을 맞은 억울한 아버지의 일생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해와 변명 그리고 용서를 빌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³⁵

그렇다면 ‘원폭지옥’의 삶 속에서 피폭자가 바라는 간절한 염원은 무엇인가.

35 박수복, 1975, 앞의 책, 128~130쪽.

일본의 도입치로나 한국 내 원폭병원 설립 등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자신의 병의 근원을 찾는 것’과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다. 원폭탄이 최초로 투하되었을 때 이 무기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피폭자는 자신의 병이 원폭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거의 없었다.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가 등장하여 신문에 피폭자 등록 광고를 냈을 때 그제야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원폭에서 기인했다고 자각한 사람이 많았다. 광고는 그 이후 계속되었기 때문에 1970년에 최초로 안 사람도 있고 더 늦은 사람도 있다. 이처럼 피폭자에게 자신의 병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자식에 대한 죄의식과 미안함 때문이다. 피폭자는 자식이 기형아이거나 발병하여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직장생활과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죽어가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 이들은 ‘자식의 원망스런 눈빛’을 마주할 때 가장 괴로웠다고 토로한다. 당장 치료 대책이 없더라도 피폭자는 자녀의 병이 부모의 탓만은 아니며 병의 근원을 자식에게 설명해야 하는 소명이 있었다. “아빠/엄마 왜 나는 이렇게 아파?”는 피폭자에게 가장 곤혹스런 자녀의 질문 중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피폭자도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바람이다. 피폭자 신영수는 “언제 누가 가르쳐주었는지도 모르게 사람은 저마다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도 본능에 가까운 인간 최대의 욕망인 것이다. 이러한 욕망이 하루아침에 내 잘못이 아니고 타의에 의하여 말살되었을 때 어느 누가 자신의 희생을 달게 받고, 체념하고, 이 저주할 운명을 감수하고만 있을 수가 있겠는가?”³⁶ 하고 외쳤다. 부모가 피폭자인 피폭2세대 마찬가지다. 예컨대 히로시마 피폭자 최재연(1921)의 딸 최문자는 먹지 못하고 기침을 하며 몸이 말라드는 증세와 결핵, 신경성 위장염, 전신쇠약을 앓고 있다. 부모가 말려도 그녀는 “나도 남과 같이 살고 싶어요” 하며 고무공장 여공으로 나간다. 하지만 그녀도 먼저 세상을 떠난

36 박수복, 1975, 위의 책, 17쪽.

엄마의 증상처럼 새까맣게 말라붙어서 죽고 말았다.³⁷

원폭 피해자는 자신이 피폭자로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사회적 지원이나 혜택이 전혀 없는 경우 ‘피폭자’라는 호칭은 사회적 낙인에 불과하다. 겉으로 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원폭후유증을 숨기고 남들처럼 행복한 일상을 꿈꾸지만 애초에 제대로 학교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병이 갑자기 발병하며 부모와 형제, 자매, 친척이 수십 년에 걸쳐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 그래서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고립된 ‘빈곤가정’은 유일한 버팀목이면서도 동시에 ‘지옥’이다. 좁은 방에서 아픈 가족과 절망적인 현실을 날마다 체감하는 것은 이들에게 지옥이다. 이웃은 피폭자의 집을 “금기의 집”, “재앙의 집”, “문둥이의 집”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피폭2세는 취업과 결혼을 통해 ‘지옥’의 탈출을 꿈꾸지만 대부분 좌절하고 만다.

박수복의 책을 읽은 독자는 피폭자뿐만 아니라 피폭2·3세가 겪는 고통과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수복이 책을 간행하면서 바랐던 것처럼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해를 넓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을 피폭과 관련이 없는 개인 한 명이 최초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박수복의 8년의 작업은 많은 피폭자에게 ‘인간의 정과 관심’을 체감하게 하는 가치가 있었다.

III. 세계평화의 해(1986)와 『핵의 아이들』

박수복은 1977년 이후에도 1996년 무렵까지 원폭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1979년 3월에는 피폭자를 다룬 단막 드라마 <희망>이 서독 후트라상을 수상했다. 1984년에는 홍가이 원작의 드라마 <피폭자> 제작을 시작했으며 1986년에는 두 번째 구술증언집 『핵의 아이들: '86 한국 원폭피해자 2세의 현장』을 출간했다. 1987년 피폭자의 아픔을 다룬 8·15 특집 드라마 <사랑의 시

37 박수복, 1975, 위의 책, 274~275쪽.

작)은 동년 12월 방송기자가 뽑은 올해의 드라마 부분 수상작이 되었다. 1989년 8·15 특집은 1984년부터 작업해온 홍기이 원작의 드라마를 <영주의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다. 1991년에는 일본에서 『핵의 아이들』의 일본 어판이 간행되었고 1994년 개정 증보되었다. 1967년부터 이어온 그녀의 노력은 인정받아 1996년 8월 6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반핵평화상을 수여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박수복은 자신의 직업을 더 잘 살려 작품성을 인정받는 원폭 드라마를 제작했고 10여 년 만에 2차 구술증언집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대중독자에게 피폭의 참상을 알렸으며 일본어로도 번역하여 일본인과 일본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제부터 이 시기 박수복의 활동과 그 의미를 구체화해보자.

1979년 4월 7일(토) 밤 KBS TV가 서독 후트라상 수상작(특별상, 3월 수상) <희망>(단막 60분; 박수복 극본, 이유봉 연출)을 방영했다. 후트라상은 독일의 SFB와 ZDF 방송국이 공동주최하는 프로그램 콘테스트로 미래에 닥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희망>은 피폭 생존자들의 참상을 통해 무서운 원폭이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경각시키면서 송고한 인간애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휴먼드라마로 평가받은 수작이었다.³⁸ 1977년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SS-20을 배치하고 미국이 서유럽의 미군 증강과 퍼싱 II 배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희망>은 시사성 있는 작품이었던 셈이다.

그 이전 1978년 6월 중앙대학교 신문사가 해당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이 핵무기를 제조·보유하는 것을 원하는가?”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찬성이 89%나 나왔다. 열 명에 아홉 명이 핵무기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결국 이 잠재/의식적 사고는 북한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핵인식이었다.³⁹ 젊은 이들이 이런 사고를 하는 상황에서도 박수복의 <희망>처럼 피폭자를 위한 움직임

38 「KBS의 「희망」 후트라상 받아 연출-연기 등 제작 열의 생생」, 『조선일보』, 1979.4.14, 5쪽.

39 이영희·임재경 편, 1988, 『반핵』, 창비, 275쪽.

임이 좀 더 확대되어갔다. 가령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1977년부터 1986년까지 연세의료원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400여 명(1억 1,600만 원)의 피폭자를 무료 치료해주었고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희의료원도 1982년부터 1986년까지 4,800여 명(치료비 3억 1,00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도왔다.⁴⁰ 무엇보다 제한 원폭 피해자가 바랐던 독일치료는 손진두의 소송 승소(1972.10.2.~1978.3.30.) 덕분에 일부 가능해졌다. 한국 정부가 1979년 6월부터 협상을 추진하여 1979년 11월 29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한국의 원폭 피해자 60명을 일본에 보내 원자병진문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합의했고⁴¹ 1980년 10월 8일 5년간의 독일치료를 결정했다.⁴²

하지만 독일치료의 혜택은 일부만(총 349명)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오히려 냉전의 국제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에서 핵 동결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서유럽에서 반핵 시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NATO의 새 미사일 배치가 진행되었다. 특히 레이건은 1983년 3월 23일 전략방위구상(SDI, 별칭 스타워스)을 내세워 소련을 압박했다. 그 결과 1983년 10월 1일 한국 여객기 한 대가 우발적으로 사할린의 소련 영공으로 이탈했을 때 모스크바 군 당국은 미국의 핵공격을 상상하고 격추했다. 책임자 안드로포프는 실수를 인정할 의사가 없었기에 이 사건을 “미국의 특수 기관이 조직한 정교한 도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 63명을 포함해 민간인 269명이 목숨을 잃었다.⁴³ 1983년 12월 6일 재미교포 반핵평화위원회는 ‘한반도 비핵시대 선언’⁴⁴을 했다.

40 「「광복의 그늘」속에 잊혀진 사람들 원폭피해자」, 『동아일보』, 1988.8.13, 9쪽.

41 「한국원폭 중환(重患) 60명 독일치료합의」, 『동아일보』, 1979.11.29, 7쪽.

42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0쪽.

43 존 루이스 개디스 저, 정철·강구형 역, 2010, 앞의 책, 306~309쪽.

44 “1. 한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자. 2. 남북의 군비를 축소하자. 3.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4.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자. 5.

이런 상황에서 1984년 KBS TV가 핵전쟁으로 빚어지는 참혹상과 핵폭발의 공포를 그린 특집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다. 이 특집프로는 제2차 세계 대전 말 원폭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한국인 2세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 <피폭자>와 핵폭발 후의 끔찍한 상황을 가상해서 그린 다큐멘터리 <핵전쟁 후의 지구>였다. <피폭자>는 재미물리학자 홍가이가 한국원폭피해자의 비참한 일생을 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 영어로 쓴 희곡인데 박수복이 극본, 이유항이 연출을 맡아 제작을 시작했다.⁴⁵

박수복은 이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면서 1986년 『핵의 아이들: '86 한국 원폭피해자 2세의 현장』을 출간했다. 한국의 대중독자는 10년 전처럼 박수복의 책 이전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책도 읽을 수 있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84년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냈고 1986년 재판을 냈다. 이 책은 서울, 경기도, 부산, 합천 지역 피폭자 실태를 파악하고 별도로 피폭자2세를 포함했으며 일본 시민회의 보충조사 보고서를 추가했다. 1975년의 글처럼 이 책도 자료조사의 성격이다. 이우정은 이 책을 간행하면서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핵무기에 대한 공포와 그 방지책을 강구하며, 세계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이 시점에 한국 원폭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전쟁을 도발한 나라도 아니요, 원자탄을 만들고, 사용한 나라도 아니다. 또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참여한 일도 없다. 그러나 이런 무고한 선의의 피해자가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문제는 전 세계, 온 인류의 문제이다. 이 원폭 피해자들의 실태조사보고서를 보고 핵무기의 무서움을 실감하고, 온 인류에게 경고해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⁴⁶는 소회를 밝혔다. 이 시국에 이르러 이제 한국교회여성연합

세계적 반핵평화운동과의 유대를 강화하자.” 김승국, 1988, 『반전반핵 양키고홈』, 아침, 225쪽.

45 「KBS 「핵전(核戰) 참상」 TV로 보여준다」, 『경향신문』, 1984.8.22, 12쪽.

46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편, 1986,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쪽.

회가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재한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수복의 책 『핵의 아이들: '86 한국 원폭피해자 2세의 현장』의 발간사를 맡아 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임정선도 “1986년은 세계평화의 해로 매우 뜻 깊은 해”라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회장은 “평화운동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핵의 아이들』이란 책자를 본 회에서 내놓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의 머리말을 쓴 이우정(한국교회여성연합회 증경회장) 역시 “1983년 8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남태평양 마셜군도에서 온 대표 존슨(Darlene Kjrju-Johnson) 여사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이 그 근방 바다에서 핵폭탄 실험을 66번 했는데,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암이 많아지고, 악성 피부병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피폭자를 위한 “치료비, 생계보조비 등을 조달하는 일 외에 근본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운동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굳어진다. 즉 평화운동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우정은 피폭 피해자는 “핵무기를 만든 자들, 전쟁을 일으키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자들, 군국주의자들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⁴⁷ 이와 같이 1986년은 UN이 정한 ‘세계평화의 해’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도 1980년대 초중반 세계적으로 확산된 반핵평화운동의 자장 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평화의식이 자라나는 상황에서 박수복이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핵의 아이들: '86 한국 원폭피해자 2세의 현장』을 출간했다. 책의 〈후기〉를 보면, 박수복은 1984년 12월 평소 저돌적이지만큼 삶에 의욕을 보여 온 피폭2세 황의태(22)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황의태의 집을 찾아가 그가 단식 끝에 자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충격으로 박수복은 구술 작업을 다시 시작해 이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1975년에 발간된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와 같은

47 박수복, 1986, 『핵의 아이들: '86 한국 원폭피해자 2세의 현장』, 한국기독교가정생활사, 3~15쪽.

구술증언집이지만 목차를 보면 구술자가 21명으로 대폭 줄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제목이나 부제 ‘한국 원폭피해자 2세의 현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피폭2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술자는 21명 중 5명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10여 년 전에 구술을 했던 상대다. 모르는 분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도움으로 새롭게 대면이 이루어졌다.

이 구술의 특징은 목차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지만 다른 가족구성원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목차에 적힌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 그 외의 가족이 사망자를 포함해 가족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박수복은 가족구술사라는 생애사적 접근법을 취했다. 일반적으로 개별 구술은 경험과 시각에 차이가 있고 증언의 내용과 구성 및 깊이가 다르며 그 양은 현실적으로 적고 파편적이다. 『핵의 아이들』은 피폭 41년이 지난 후 발간되었는데, 1975년에 발간된 구술증언집보다 11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다양한 피해자상이 존재한다. 과거 어렸던 피폭2세가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가 되었다. 그사이 사망한 부모나 형제도 있다. 세대 차이와 원폭후유증에 따라 상이한 피해상과 삶이 있다. 가족구술사는 이러한 개별 구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피해의 역사를 좀 더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핵의 아이들』에서는 성장한 피폭2세의 시선이 부각되었다.

셋째 오빠.. 한동안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오빠의 병, 가난한 집안, 우울했어요. 그게 싫었어요. ... 이 형벌이 정말 자기 탓인가? 아니면 부모 탓인가 결코 순녀 양은 그녀의 부모들처럼 침묵하고, 묵인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두 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아니 어머니로서의 실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크게 그 소재를 밝히고야 말 것이라고 웃으면서 눈물짓는다. ... 이걸 듣고 모친 임아기 씨는 남동생 임경택이 한 말이 있다. “누님, 채화(딸)는 이미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목숨이 있는 동안은 그 병의 원인을 캐고 말겠어요. 애비로서 그것만이라도 해야, 피지도 못하고 가는 그것에게 자식 대접 했노라고 보낼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며 통곡하던 그 동생도 그 이유를 캐지 못했는데 순녀가 무슨 수로 그 노릇을

찾아내겠어요.⁴⁸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과 『핵의 아이들』(1986)의 공통점은 병과 빈곤이 악순환하면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폭 피해자의 참상은 피폭1세대 2세대 모두 별반 다르지 않다. 21개 피폭가정 내 피폭2세의 관점을 분석해보면 피폭1세대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은 병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심정이다. 어려서부터 학교 친구들과 건강과 경제적인 면에서 점점 격차를 체감하며 성장한 피폭2세는 ‘병에 무지하고 체념하는 부모’와 다른 삶을 살고자 했다. 예컨대 인용문의 이순녀처럼 피폭2세는 “병의 소재를 밝히고”자 했다. 그녀는 가난하고 우울한 집을 탈출하기 위해 피폭2세인 것을 숨기고 결혼했지만 결국 드러나 이혼당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병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더욱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러나 피폭2세 이순녀의 말은 과거 작은 아버지(피폭1세)도 했던 말이다.

박수복은 『핵의 아이들』을 내면서 피폭2세의 유전 유무, 생태학적인 영향 또는 돌연변이에 대한 소견을 두 분의 의사를 찾아 물었다. 한 사람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피폭자 치료를 했으며 부산과 경남지방의 많은 피폭자 시술로 혜택을 준 전 부산복음병원장이자 당시도 고문의사로 있는 장기려 박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 합천군 보건진료소 소장 겸 원폭피해자진료소 소장(1972~1979)으로 근무한 정창생(울산해성병원 조사연구실 근무 중)이었다. 두 의사는 피폭2세의 유전문제에 대해 일본이나 기타 국제적 문헌이 전무하여 학적인 진단기점이 없다고 했다. 정창생은 “2세라고 따로 분리 관찰대상으로 삼을 만한 환경이나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재임한 70년대 중후반의 8년간은 시기적으로 피폭 후 30년을 맞게 되는 관계로 피폭자의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정신적인 문제, 암 발생의 빈도 등 노인병과 가름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특징적인 징후를 든다면 혈액병, 그리고 아프다고 호소를 시작하자마자 다음 날 느닷없이 죽어버리는 류

48 박수복, 1986, 위의 책, 104~109쪽.

의 병세를 들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⁴⁹ 이처럼 원폭유전뿐만 아니라 원폭병도의 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폭2세가 병을 알고 싶다는 염원은 여전히 실현불가능한 일이었다.

- 그만큼 지켜왔다고 할까. 지난날의 시간적 감정처리가 힘이 든다는 뜻이겠지요.
- 공포지요. 살에 닿는 옷나무라고 할까 무조건 싫은 거지요.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1·2학년 때부터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가 사회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70년 초반 무렵이지요. 대구지방에서 그 일에 발 벗고 나서신 거예요. 어머니는 마치 그동안 그 술한 밑바닥 고통을 참아오시던 비참상을 회복이랄까, 보상받기라도 하실 모양으로 바깥일에 동분서주, 매사가 그 일에만 관심을 집중했어요.
- ... 고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피폭자가족, 피폭자의 딸이 제생활의 일부였지요.

차정순의 어머니 김분순 여인은 대구 및 경북지방의 피폭자라면 모르는 분이 없다. 김 여인은 70년대 후반 손수 피폭자를 찾아가고 또한 대구로 나오게 해서 협회에 등록시키고 피폭상황을 서로 교환토록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다.⁵⁰

이처럼 원인 모를 병 앞에서 체념하고 절망하는 피폭1세가 다수인데, 이와 반대로 다른 피폭자를 위해 직접 나선 피폭1세도 있다. 이런 가정의 경우 피폭1세와 2세의 입장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용문은 피폭자 운동에 나선 피폭1세 김분순 여인의 딸이 토로한 내용이다. 김분순은 히로시마 피폭자(10세 때)로서 두 팔이 몸에 붙고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가 하면 10여 년 동안 머리카락이 한 올도 자라지 않는 등의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 책에는 나오

49 박수복, 1986, 위의 책, 238~239쪽.

50 박수복, 1986, 위의 책, 222~223쪽.

지 않지만 김분순은 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를 창설한 주역이다. 김분순은 “저는 정말이지 원폭피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며 친병 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피폭자가 있다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불쌍한 처지는 절대로 그냥 버려둘 수 없어요. 물론 내가 그 피폭자와 만난다고 해서, 또 그분을 협회에 나오게 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무슨 이익을 당장에 줄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고립과 막막함, 자기 병이 친병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 확실히 알게 되어도 그것은 큰 구원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도 같은 피폭자에게 인색할 수는 없지요. 자식이 아무리 귀하지만 저는 그 일도 자식 못지않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지요. 자식들이 정 애미를 서운하다고 여긴다면 권리를 포기하지요 뭐”⁵¹라고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그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활동을 공포와 지겨움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어머니로 인해 피폭자가족, 피폭2세라는 사실이 노출되었고 집을 찾아오는 피폭자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딸은 “자기가 당한 부당한 고통, 의문, 불안감, 피폭의 근원적 문제점과 과학적 해결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부모들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무슨 수를 쓰든 피할 길만 생각했”고, 둘째 아들은 “도저히 피폭자의 자녀라는 생리를 감당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딸은 결혼으로, 아들은 취업으로 집을 탈출했다. 이처럼 『핵의 아이들』에는 부모의 가난과 병, 절망, 죽음 때문에 탈출을 꿈꾸는 다수의 피폭2세와 부모의 피폭자 구호운동 때문에 탈출을 모색한 소수의 피폭2세의 내면 심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 느긋하고 태평한 부모의 영향으로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는 피폭2세가 예외적으로 두 가정이 존재했다. 이와 같이 이 책을 접한 독자는 원폭 피해자의 참상이나 후손의 몸을 통한 원폭유전뿐만 아니라 피폭2세의 정신적 고통 및 심리 상태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핵의 아이들』을 출간한 이듬해 8월 15일 KBS1 TV가 2시간짜리 8.15특집 <사랑의 시작>(박수복 극본, 이유황 연출)을 방영했다. 이 드라마는 히로시마 원

51 박수복, 1986, 위의 책, 226쪽.

폭투하에 따른 우리 민족의 피해, 민족분단의 아픔, 핵전쟁 공포 등 강렬한 주제 의식이 두드러진 작품이었다. 형식상으로는 40년 전 원폭 피해자인 한 여인이 반공포로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 끝에 결혼해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되며 남편이 죽은 뒤에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실제로는 해방 이후의 복잡한 민족수난사를 깊이 있게 그린 이원적 주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핵전쟁의 위험을 그린 이 드라마는 핵위험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와 있을 만큼 절실하고 구체적인 공포’의 대상임을 일깨워주었다.⁵² <사랑의 시작>은 드라마 소재로 금기시 여겨온 원폭 피해자 문제를 감동적으로 극화하여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동년 12월 방송 담당기자들이 뽑은 ‘제2회 올해의 TV 프로그램’ 드라마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⁵³

이어서 박수복은 1984년경부터 작업해온 홍가이 원작의 드라마 <영주의 증명>을 KBS1 TV에서 8.15특집으로 13~14일 양일간 100분 2부작으로 방송했다. 연출을 맡은 이유황 PD는 “이 드라마는 단순히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지적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소재를 통해 국익에 관한한 기본적인 도덕성까지도 말살하고 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의 소중함을 그려보고자 한 것”⁵⁴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박수복이 책과 드라마를 통해 원폭 피해자의 현실과 핵전쟁의 위험성을 가시화할 때 국제사회도 급변하고 있었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등장해 군축을 주장하면서 1986년 10월 2차 정상회담에 이어 1987년 12월 워싱턴 3차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술 핵무기에 해당하는 중거리미사일(INF)협정(미소중거리미사일 폐기조약)에 서명하며 1989년 12월 3일 고르바초프와 조지 부시가 몰타에서 만나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⁵⁵

52 「해방후 민족의 아픔 밀도 있게 그려」, 『동아일보』, 1987.8.17, 12쪽.

53 「최우수 드라마엔 ‘사랑의 시작」, 『경향신문』, 1987.12.24, 12쪽.

54 「재일한인 원폭피해 본격 조명」, 『조선일보』, 1989.8.6, 9쪽.

55 정육식, 2012, 『핵의 세계사』, 아카이브, 297~298쪽.

국내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987년 9월 민주당의 비핵지대화안이 나와 미 정부의 반대를 불렀고,⁵⁶ 1988년 5월에는 핵전쟁방지구제의사회(IPPNW)의 한국지부(회장 김성진 전 보사부장관, 회원 60여 명)가 원로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졌다.⁵⁷ 또한 재한 원폭 피해자의 상황도 일부 바뀌었다. 1987년 11월 30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주한일본대사관에 재한 피폭자의 손해보상으로 23억 달러를 요구했다.⁵⁸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의 합의로 5년간 진행했던 도일치료의 연장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1986년 11월 2일 도일치료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⁵⁹ 협회가 23억 달러를 요구할 때 마침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일본과 전후처리가 외교현안이 되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일본 내 전후보상운동의 고조와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의 대두라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가이후 도시키 수상은 재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의료지원 명목으로 40억 엔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설치된 재한원폭피해자복지기금에 1991년 11월 1일 재한피폭자 지원을 위한 거출금 17억 엔, 1993년 2월 23억 엔이 지급되었다.⁶⁰

즉, <사랑의 시작> 3개월 후에 협회의 23억 달러 요구가 있었고, 일본 수상의 40억 엔 지원 약속 이후 1차 거출금 지급 이전 시점인 1991년 7월에 『핵의 아이들(核の子どもたち)』⁶¹이 일본에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일본 정부의 한국 지원에 의아한 일본 대중독자가 『핵의 아이들』을 읽었다면 반발심이 일부 누그러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박수복은 1977년부터 1990년대 초반

56 김승국, 1988, 앞의 책, 224쪽.

57 「가공스런 핵불감증 (1)」, 『한겨레』, 1988.8.3, 8쪽.

58 「피폭자 일에 23억 달러 보상 요구」, 『동아일보』, 1987.12.1, 11쪽.

59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앞의 책, 206쪽.

60 정재정, 2014,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문제연구소, 325~326쪽.

61 박秀馥 著, 曹亨均 譯, 1991, 『核の子どもたち: 韓國人被爆者二世達の現状』, 東京: 韓國キリスト教家庭生活社.

까지 한국에 평화의식과 반핵평화운동이 서서히 자리매김하는 국면에서 피폭자 지원 활동을 했다. 그녀는 재한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가족구술사의 방식으로 『핵의 아이들』을 구성했고 여러 드라마를 통해 피폭자의 참상을 한국 사회에 알렸다. 특히 드라마 <희망>은 영화화되어 각국에 소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도 서독에서는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핵의 무서움을 알리는 자료로 이 영화를 사용했다.⁶² 또한 일본에도 『핵의 아이들』이 번역 출간되어 일본인의 원폭 이해가 확장되었다. 이처럼 1967년 무렵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30여 년에 이르는 박수복의 노력과 공로는 1996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반핵 평화상으로 인정받았다.

IV. 맺음말: 수치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70만 명(히로시마 42만여 명, 나가사키 28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 10%인 7만여 명(히로시마 5만, 나가사키 2만)이 조선인이었다. 조선인 피폭자 중 사망자는 4만여 명(히로시마 3만, 나가사키 1만)이었고 생존자는 3만여 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2만 3,000여 명(히로시마 1만 5,000, 나가사키 8,000)이 1946년을 전후로 귀국했다. 북한으로 간 피폭자는 2,000여 명이었다. 일본에 잔류한 피폭자는 7,000여 명(히로시마 5,000, 나가사키 2,000)이었다.⁶³ 그렇다면 한국에 귀국한 피폭자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1965년 5월 22일 민단 히로시마현 본부가 재한피폭자 실태조사단을 파견하여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향해 피폭자조사와 의료구제를 호소하면서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7월 1일부터 피해자 등록을 실시했다. 적십자사에서 원

62 박수복, 1986, 앞의 책, 13쪽.

63 정재정, 2014, 앞의 책, 334쪽.

폭피해자 등록을 받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 조사를 통해 피폭자가 600명으로 확인되었다.⁶⁴ 1967년 7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가 등장하자 1968년 6월 등록회원은 1,790명(서울시 421명, 부산시 34명, 경상남도 284명, 경상북도 221명, 충청북도 170명의 분포)이었다. 1973년 12월 합천원폭진료소가 문을 열자 1974년 4월경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에 등록된 9,362명을 포함하여 약 2만 명의 피폭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⁶⁵ 1985년 8월 한국 정부가 도입 치료 중단을 앞두고 보사부가 치료비 부담을 위해 파악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수는 4,000여 명이었다.⁶⁶ 1990년 5월 일본 수상이 40억 엔 지원을 약속한 후 1991년 6월 9,241명 생존이 확인(등록자)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피폭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2000년 12월 말 재한 피폭자 등록자 수, 곧 의료비지원 대상자 수는 2,204명이었다.⁶⁷

이와 같이 재한 피폭자 인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65년 7월 피해자 등록도 일본 민단의 요청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등록자가 600명에 불과하듯 피폭자는 치료나 생활지원, 배상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피폭자라는 사실은 사회적 낙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가 생겨나자 지원을 기대하고 상당수가 등록했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합천원폭진료소가 설립되자 무료진료를 위해 등록하는 사람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해 진료소가 유명무실해지자 등록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도 많은 피폭자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가 1990년 5월 일본 수상의 40억 엔 지원으로 무료진료와 생활비 보조가 이루어지자 숨어 있던 많은 피폭자가 협회에 등록했다. 이미 많은 피폭1세가 사망한

64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앞의 책, 106쪽.

65 「원폭피해자들의 구호」, 『동아일보』, 1974.4.2, 2쪽.

66 「원폭피해자 국내서 무료치료 보사부(保社部), 내년부터」, 『매일경제』, 1985.8.7, 11쪽.

67 정재정, 2014, 앞의 책, 324~326쪽.

이후였다. 그리고 이 등록자에는 원폭유전을 인정받지 못한 피폭2·3세가 제외되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원호협회가 1971년 개칭)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피폭자의 등록을 도운 존재가 박수복과 같이 깨어 있는 시민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일본의 시민회 등 각종 시민단체였다. 피폭자는 협회의 존재를 통해 자신과 동일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안을 받고 자신의 질환이 원폭병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국내외에 요청하여 성금을 모으고 그 자금으로 피폭자 자녀 교육비와 피폭자 치료비 지원을 했다. 박수복은 1967년 협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1975년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를 출간할 때까지는 협회와만 교류를 했다. 책에도 협회의 도움에만 감사를 표하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74년에야 피폭자의 실상을 알고 실태조사 작업을 시작하고 있을 때였다. 이후 박수복이 1986년 『핵의 아이들』을 간행할 때는 머리말과 발간사를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관계자가 썼으며 출판비도 지원했다. 박수복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가정을 소개받아 구술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수복은 초기에는 개인 활동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자 피폭자를 돕는 단체와 협업하면서 활동을 확장했으며 방송작가인 자신의 직업을 활용해 단막 드라마로 일반 대중을 일깨우는 작업을 수행했던 것이다.

75년 7월에 필자의 줄재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피폭 30년의 기록을 펴낸 지 십 년이 된다. 그 흘러간 시간에 비해 주마간산적, 그야말로 스켓치식 2세 르포를 끝내면서 다시금 뜨거운 수치심 속에 빠진다.

그러나 이제 그 수치심은 바닥이 났다. 조심스러움, 사려지는 몸짓, 책임감, 눈치 보기, 어둡고 칙칙한 헤아림. 이제는 한 줌 남김없이 바닥이 나버렸다. 이제 불가분 밝고 환한 넓은 길로 올라서는 수밖에 없다. 필자는 기도하고 전할 것이다. 아침 저녁 인사로 대신할 것이다.

- 평화합시다. 평화합시다. 핵 자랑의 수치스러움을 아십시오. 평화를 지키기 위

한 핵의 경주란 어린이 불안난임을 깨달읍시다.

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원폭피해자의 40년, 구름 속에 안개처럼 괴이한 삶과 발자취를 직접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필자는 지구촌을 돌면서 이 인사를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다.

단 한 사람의 목숨, 황의태 하나조차 붙들지 못한 부끄러움을 씻기 위하여.⁶⁸

방송작가 박수복의 피폭자 지원 활동은 남겨진 기록으로만 1967년부터 1996년까지 30여 년에 달한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피폭자 구술사는 2000년대 초중반에야 이루어졌고 그 작업에 다수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박수복은 수십 년 전에 혼자 그 어려운 일을 했다. 동일한 피폭자를 세 번 이상 만난 경우도 있다. 이 쉽지 않은 활동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박수복은 1986년 『핵의 아이들』을 발간하면서 “수치심”, “부끄러움”을 토론했다. 피폭2세 황의태의 단식 자살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녀는 피폭자를 만나러 나섰는데 그 결과물을 내면서도 다시 “뜨거운 수치심”에 빠진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피폭자의 자살을 막지 못한 그녀의 “부끄러움”은 핵무기 경쟁을 하고 자랑하는 국제사회를 향해 “수치스러움”을 알라는 조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박수복의 〈후기〉를 읽는 독자라면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때 그녀는 이미 20여 년 동안 피폭자를 찾아다니고 구술 기록 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 세상에 피폭자를 대변하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수치심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시민활동가를 우리 사회는 현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소설 『복합오염』이 잊히면서 번역자이자 환경운동가인 권숙표와 최열의 작업도 사회적 기억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처럼, 역으로 박수복이 잊히면서 그가 작업한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핵의 아이들』,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녀가 대변한 피폭자도 공적 기억화되지 않고 있다. 박수복은 이미 누구보다도

68 박수복, 1986, 앞의 책, 239~240쪽.

먼저 피폭2·3세의 몸을 통해 원폭유전을 증명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피폭 1세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전히 현재형인 피폭2·3세의 원폭지옥은 박수복이 공식 기억에서 사라진 것처럼 사회화되지 않고 잊혀지고 있다. 기억해야 추모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이는 너무 뒤늦은 합리화다. 알아야 도와줄 수 있고 기억해야 치유할 수 있다. 이는 박수복이 했던 말이고 또 박수복이 이제라도 사회적 기억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창작과 비평』, 『한겨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단행본

강수원(姜壽元) 엮음, 1976, 『可憐 原子 爆彈 投下: 과연 人類는 全滅할것인가?』, 금강출판사.

곽귀훈, 2013,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수복(朴秀馥), 1975,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韓國原爆被害者 30年の 記録』, 創元社.

박수복, 1986, 『핵의 아이들: '86 한국 원폭피해자 2세의 현장』, 한국기독교교정생활사. 오오야기 준이치, 「김형률, 전태일의 또 다른 이름」, 전진성, 2008,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원폭2세 환우 김형률 평전』, 휴머니스트.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2005,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

이영희·임재경 편, 1988, 『반핵』, 창비.

이우정, 1975, 『한국원폭피해자 실태보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치바 준코 저, 이제수 역, 2003,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정근식 편, 진주 채록, 2005, 『고통의 역사-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정육식, 2012, 『핵의 세계사』, 아카이브.

정재정, 2014,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문제연구소.

존 루이스 게이디스 저, 정철·강규형 역, 2010, 『냉전의 역사』, 예코리브르.

표문태 편, 1987, 『버림받은 사람들』, 중원문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편, 1986,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朴秀馥·郭貴勳·辛泳洙 共著, 1975, 『被爆韓国人』, 東京: 朝日新聞社.
朴秀馥 著, 曹亨均 訳, 1991, 『核の子どもたち: 韓国人被爆者二世達の現状』, 東京:
韓国キリスト教家庭生活社.

논문

- 오은정, 2018,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기억과 전망』 39호.
이우정, 1975,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 『창작과 비평』 35호(봄호).
이행선, 2018,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증언의 서사, 원폭문학-김옥숙, 『홍터의 꽃』
(2017)」, 『기억과 전망』 3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_____, 2021, 「『핵전쟁』(랩, 랠프 E)의 번역(1970)과 문학자 표문태의 반핵 운동」, 『한
국학』 통권 164호.
이행선·양아람, 2017,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번역 수용과 한국 사회의 ‘복
합오염’-환경재난과 환경운동(권숙표, 최열)」, 『대동문화연구』 100집.

한국 핵 피폭자운동의 선구자 박수복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행선

이 글은 재한 원폭 피해자운동의 선구자격인 박수복의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1975)와 『핵의 아이들』(1986)을 중심으로 그의 피폭자 지원 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방송작가 박수복은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피폭자의 참상을 한국 사회에 전하는 노력을 했다. 또한 그녀는 피폭자를 찾아다니며 구술 작업을 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공적 기억화하며 반핵의식을 각성하게 했다. 그 결과 박수복은 1996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반핵평화인물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박수복은 한국피폭자운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수행한 구술증언집은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요컨대 구술증언집을 중심으로 박수복의 원폭지원활동의 고찰은, 피폭자와 관련 구호 단체의 움직임을 가시화하여 당대 피폭자와 국내운동을 재조명해 그 내력을 사회적 기억화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과정에서 박수복의 위상을 환기하는 가치가 있다.

주제어: 핵무기, 원폭유전, 피폭2세, 반핵운동, 평화운동

ABSTRACT

Pioneer of the Nuclear Victims Movement, Park Soo-bok, and South Korean Atomic Bomb Victims

Lee Haengseon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ivities of Park Soo-bok, a pioneer of the atomic bomb victim movement in Korea, focusing on activities to support the victims of the nuclear bomb and his books of *No Sound No Name* (1975) and *Children of the Nuclear Bomb* (1986). Broadcasting writer Park Soo-bok made efforts to convey the misery of the victims to Korean society through a number of dramas. She also searched for the victims and worked on their oral statements to record the victim's voice, make public memories, and awaken anti-nuclear consciousness. As a result, Park Soo-bok won the Korea Women's Association's Anti-nuclear Peace Prize in 1996. As such, Park Su-bok is an indispensable figur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movement. Above all, at a time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not properly conducting a national survey, a collection of oral

testimony conducted by an individual is of great value. In short, the consideration of Park Su-bok's atomic bomb support activities, centered on oral testimony, is worth recalling Park's status in the process by visualizing the movements of the victims and related relief groups and re-examining the domestic movements of the time.

Keywords: Nuclear Weapons, Atomic Bomb Hereditary, Exposure in Radi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 Anti-nuclear Movement, Peace Movement.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전시 일본의 프로파간다』 자료의 가치와 한계

김영숙 |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자료의 의의와 한계
- III. 아시아 해방과 대동아공영권 논리의 허구성
- IV.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
- V. 전쟁터에 동원된 식민지와 점령지의 청년들
- VI. 맺음말



I. 머리말

역사학 연구는 사료를 바탕으로 한다. 각종 공문서와 일기, 서간 등의 기록이 기본적인 문헌사료이고 최근에는 구술자료나 시각자료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각자료로는 그림이나 사진 등 외에 최근에는 영상도 자주 활용된다. 이 글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발행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전시 일본의 프로파간다』¹의 시각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전시 일본의 프로파간다』의 기획 의도는 첫째,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점령, 통치의 상황을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설명만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시각자료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다. 둘째,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자료들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국민들의 전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제작한 것이므로, 표면에 드러난 주장을 넘어 제작한 쪽의 의도와 논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정의는 ‘어떤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홍보하거나 설득’하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선전 및 선동’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전시 일본’이란 제2차 세계대전 또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과 동남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을 시작한 1941년 12월 8일에서 패전한 1945년 8월 15일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일본은 이른바 ‘귀축미영(鬼畜米英)’과 싸우는 한편, ‘아시아의 해방’을 부르짖고 있었다. 당시 보수정당에서 무산정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이 자발적으로 해산하여 결성한 정치결사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는,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미국과 영국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선언하였으며, 1942년 5월 23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기사는 ‘마귀와 짐

1 김영숙, 2021,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전시 일본의 프로파간다』, 동북아역사재단.

승 같은 미국' 또는 '마귀와 짐승 같은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켰다.

일본군의 남방작전 목표는 홍콩, 싱가포르, 마닐라 등 주요 군사거점을 장악하여 동아시아에서 영국과 미국 세력을 몰아냄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중요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전선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 알류산열도와 태평양의 섬들로 확장되었다.

일본이 이른바 '남진(南進)'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 침략을 감행한 것은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많은 인적·물적 희생을 치르면서도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의 목적은 첫째,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을 동남아시아에서 충당하려는 '자원약탈전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둘째, 중일전쟁 이후 동남아시아 루트를 통해 이뤄지던 서구 열강의 장제스(蔣介石) 원조를 차단하려는 데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일본은 자국 국민과 동남아시아 국민들에 대한 프로파간다로서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 구호 아래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도 징병제를 실시하여 식민지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였고,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통해 식민지인들에게 고통을 강요했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설득하면서 전의를 고양시키고자 했다. 이 책의 자료들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치러진 전투들과 일본 국민에 대한 프로파간다의 내용을 담은 사진과 그림들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당시 일본 정부와 군부가 국민들에게 선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II. 자료의 의의와 한계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전시 일본의 프로파간다』는 동아대학교 신동규 교수가 수집·소장하고 있는 엽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우표와 크리

스마스 썰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다는 신동규 교수는 일본 유학 시절에도 생활비를 아껴가며 사진자료와 엽서 등을 수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연구자료 수집으로 발전해서 근대 사진그림엽서, 사진첩, 일제강점기 한국에 대한 관광 안내 팸플릿 등을 소장하게 되었다. 신동규 교수는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활용하는 연구를 기획하여,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繪葉書)의 수집·분석·해제 및 DB 구축」(한국학중앙연구원 프로젝트, 2017.8.~2020.7.)을 수행했고, 2019년 5월 동아대학교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를 설립했다. 또한 평소 개인이 수집한 자료라도 객관적인 역사 복원과 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연구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으로 소장 자료 중 일본의 식민지 지배 관련 전시회도 여러 번 개최했다. 한편, 자신이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한 연구 성과로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와 식민지 표상』(민속원, 2019), 『일제강점기 해주 구세요양원의 결핵퇴치운동 연구-서우드 홀 박사와 결핵예방 홍보자료』(경인문화사, 2020), 『1910년 일본인이 본 한국병합: 조선사정과 조선사진첩』(경인문화사, 2020)이라는 연구서를 펴냈다.

이 책의 자료들은 신동규 교수의 소장 자료 중에서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는 모두 엽서이며, 그 내용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보도하는 사진과 그림들이다. ‘제1장 신문 보도로 보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은 당시 발행된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관련 기사를 10매의 엽서를 통해 보여준다. 신문의 한 면을 엽서로 제작한 것이다. 진주만 기습에서 홍콩, 싱가포르, 마닐라, 인도네시아 함락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보도한 내용이다.

제2장의 자료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의 보도사진으로서 1942년부터 1945년 일본 패전에 이르기까지 매주 2~3회씩 발행된 것이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전투의 전황을 보도하는 내용이며, 사진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발행일과 설명문을 적었다. 그런데 제공된 자료 중 설명문에 지명이나 인명이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인 전쟁 보도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투지역이나 전투명을 특

정할 수 없어서 아쉽게도 책에 수록하지 못했다. 총 94매의 사진을 사용했으며, 따로 지도를 제작하여 주요 전투지역과 전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그림을 통한 프로파간다로서 전쟁화를 소개했다. ‘전쟁화’란 이름 그대로 전쟁을 소재로 한 그림을 말한다. 전투 장면이나 전쟁터의 대치 상황, 군인들의 출정 또는 개선, 군부대의 이동 등 외에 전시하의 시민 생활이나 후방의 민간인 활동 등도 포함한다. 그림을 통해 아군의 활약을 알리고 국민들의 전의를 고양시킨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화의 경우 넓은 의미로는 일본을 상징하는 후지산이나 벚꽃 그림도 전쟁화에 포함된다. 전쟁화는 이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도 그려졌지만 이 책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발행한 총 10시리즈 69매의 엽서를 소개했다.

제1장은 신문기사, 제2장은 보도사진, 제3장은 전쟁화로 구성했지만, 배경이 되는 전투 지역과 전쟁의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겹치는 내용들이 있다. 특정 전투나 상황에 대해서 각 장별로 연관되는 내용들을 찾아서 비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각 장에서 소개하는 엽서들은 낱장이 아니라 시리즈로 발행되었다. 엽서는 한 세트를 봉투에 넣어서 판매했는데, 봉투의 정보를 통해 발행한 기관과 시리즈 제목, 총 매수, 엽서의 가격 등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엽서를 수집할 때 봉투에 들어 있는 상태로 구입한 경우라 해도 총 매수가 몇 매인지 적혀 있지 않거나 시리즈의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각 시리즈별로 엽서의 봉투 사진을 싣고, 시리즈 제목, 발행 기관, 가격 등을 설명하였고, 봉투가 없는 경우에는 각 시리즈별로 엽서에 대한 해설을 첨부했다.

제1장의 자료는 ‘미국과 영국 격멸 승리의 대기록’이라는 제목의 정가 2원, 10매 한 세트 시리즈이다. ‘황위선양(皇威宣揚)’과 ‘황군위문(皇軍慰問)’이라는 글씨가 옆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이 승리한 기사들을 모아 일본군을 위문하는 엽서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의 자료들은 대부분 내각인쇄국과 육군성이나 해군성의 홀병계(恤兵係)가 발행한 것이다. ‘홀병’이란 군대나 군인에 대한 헌금이나 기부, 또는 그것을 보내는 것을 뜻하므로, 홀병계는 학창 시절

한 번씩은 보내본 ‘위문대’나 ‘위문편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일본 육해군은 각각 홀병부를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기부받은 돈을 군수품 구입이나 설비 갱신, 위문단 경비와 병사의 복리후생 등에 충당했다. 그래서 홀병부는 군을 위문하고 기부해준 국민들에게 군의 업적이나 생활상을 홍보하기 위해 엽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사진과 그림들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일본의 한국과 중국 침략에 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의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며, 시각자료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엽서들의 자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 임팔 전투, 솔로몬제도와 길버트제도, 마셜제도, 마리아나제도에서의 전투, 필리핀 각지와 레이테만의 전투 등에 관한 보도사진과 전쟁화는 밀리터리 덕후가 아니더라도 매우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



그림 1 다카이 데이지(高井貞二) 작, 해군 낙하산부대의 메나도 공습

령하고 지배했던 구체적 내용과 ‘독립’이라는 이름의 친일정권 수립은 동남아시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옥쇄’라는 이름의 집단 사망과 살아



그림 2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험준한 계곡을 기어오르는 일본군

돌아올 길을 봉쇄하는 특공대 투입 등의 모순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메나도에 투입된 해군 낙하산부대의 활약을 그린 그림은 일본의 승리를 화려하게 묘사했지만, 물도 먹을 것도 없이 험준한 산을 기어오르는 병사들을 찍은 사진은 무모한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의 노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본적으로는 전쟁의 상황을 보도하면서도 당시 뉴스의 목적은 이미 패색이 짙은 전황(戰況)을 국민들에게 감추기 위해 승진보와 병사들의 활약으로 포장하는 한편,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구호로 일본의 전쟁 목적을 미화했다. 각 자료에는 발행 당시 엽서에 부가된 설명문을 번역하여 실었고, 이에 대한 전체 해제와 세부적인 설명을 수록했다. 그리고 각 자료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해설도 덧붙였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였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이 책이 제공받은 자료들을 전제로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즉, 주제와 문제의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자료를 정리, 분류하고 그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했다. 그래서 일본이 초기의 승리에서 패전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되는 과달카날전투에 대한 자료가 없다거나 전쟁화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유명한 작품 몇 점이 빠져 있는 등 가장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다.

둘째,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룬다면 진주만 기습에서 1945년 일본 패전까지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공받은 자료가 1944년 중반에서 그쳤기 때문에 해설 역시 그 후의 경과를 다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제공받은 자료 안에서 각 사진과 그림의 인물과 사건, 구체적 전투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하여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다으므로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Ⅲ. 아시아 해방과 대동아공영권 논리의 허구성

중국, 미국, 영국 등을 상대로 싸우고 있던 일본은 ‘아시아 민족의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19세기 초를 전후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는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었다. 인도와 홍콩, 버마(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고 불렸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였고 필리핀은 스페인에 이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서구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아시아 민족을 해방한다는 것이 일본의 전쟁 명분이었다.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기습하는 동시에, 미국 식민지인 필리핀의 마닐라와 루손섬의 미군 시설을 폭격하고 카가얀과 팡가시난 등에 상륙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보다 1시간 전에 영국령 말레이반도의 코타바루에 상륙했으며, 홍콩을 공격하여 5일 만에 주룽(九龍)반도를 점령하고 12월 25일에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일본군이 미국과의 전쟁에 앞서 영국에 먼저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은 헌병대를 내세운 폭압적인 통치를 행하여 ‘겐페이타이(憲兵隊)’라는 이름은 주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각지에서는 주민들이 굶어죽거나 학살당했고 노동자와 군인으로 동원되었다.

동남아 각지에는 일본에 의한 친일정권이 수립되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나 자와할랄 네루와 함께 추앙받는 독립 영웅인 수바스 찬드라 보스(Subhas Chandra Bose, 1897~1945)가 1943년 10월 21일 일본의 후원과 동남아시아 인도인들의 지지로 싱가포르에서 자유인도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한편, 일본은 반영운동으로 투옥되었던 바모(Ba Maw, 1893~1977)를 석방시켜 1942년 8월에 중앙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버마의 완전 독립을 약속했다. 1943년 8월 1일, 바모를 의장으로 하는 독립준비위원회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선언했고, 바모는 국가대표 겸 초대 총리로 취임했다. 또한 필리핀인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방책으로 일본은 1943년 10월

14일, 호세 라우렐(José Paciano Laurel, 1891~1959)을 수반으로 필리핀에 독립을 부여했지만 동맹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군사적 지배를 지속했다. 이처럼 일본의 지원으로 이름뿐인 독립을 얻은 동남아시아의 수반들은 일본이 대서양 회의에 대항하기 위해 1943년 11월에 개최한 대동아회의에 참석했다.

이 책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독립을 장면을 담은 사진과 그림이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일장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동남아시아 국민들과 일본과 동남아시아 정부 간의 교류, 일본인과 동남아시아인들 사이의 친밀한 모습 등이 강조되었다. 일본에 의한 ‘아시아의 해방’을 나타내는 장면들이다.

한편, 일본에 의해 독립한 동남아시아의 주민들은 일본을 지지하고 전쟁 수행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일본인과 동남아시아 국민들의 우호적인 장면이 뉴스로 보도되고 전쟁화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위해 각지에서 싸우는 일본군이 동남아시아



그림 3 버마 수도 랑군에서 거행된 버마 독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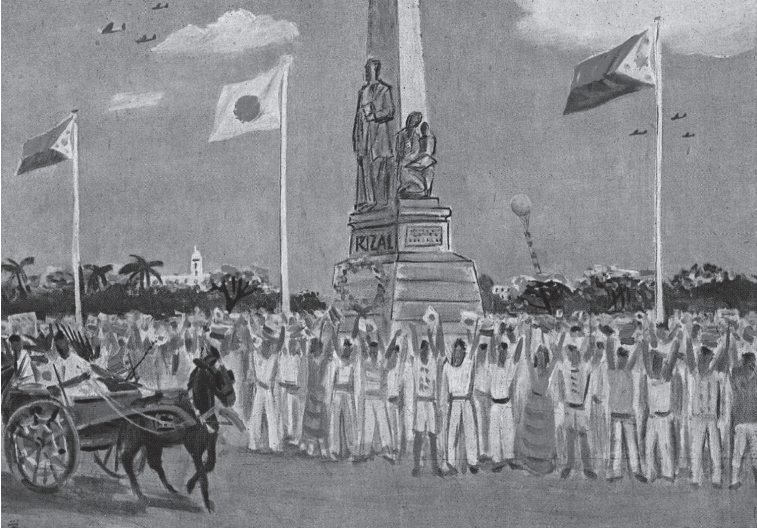


그림 4 스즈키 에이지로(鈴木榮二郎) 작, 필리핀의 독립을 맞아 일장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사람들



그림 5 스즈키 료조(鈴木良三) 작, 바마에서 활약하는 일본군 위생대와 그들에 대한 바마인들의 호의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았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당시 뉴스의 목적이었다.

IV.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

일본군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인명을 앗아갔지만, 이 책의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난 것은 일본군의 활약과 ‘고귀한 희생’이다.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전의를 고양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황군(皇軍)’, ‘신병(神兵)’으로 불린 병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전장에 투입되고 어떻게 죽어갔을까? 이 책에서는 집단으로서의 ‘일본군’보다 전쟁 속의 개인과 인간의 삶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물들의 죽음이 일본 국민들의 기쁨을 받고 전의 고양에 이용되었을까? 우선, 지휘관의 죽음을 들 수 있다. 1943년 솔로몬제도 시찰 중에 추락하여 전사한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1884~1943)나 사이판 전투에서 자결한 나구모 주이치(南雲忠一, 1887~1944) 중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한편, 군사작전에 투입되어 사망한 사람들에게 대한 신격화, 즉 ‘군신(軍神) 만들기’도 이어졌다. 진주만 기습에 투입된 소형 잠수함 5정에 탑승했던 승무원 10명 중 9명은 사망했지만 1명은 의식을 잃고 미군 포로가 되었다. 대본영은 3개월 후에 9명의 죽음을 발표하고 군신으로 추앙했다.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를 영웅화했다는 점, 전원 미혼인 그들의 어머니들을 ‘제국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조국에 바친 어머니’라는 이미지로 연출했다는 점은 전시기 새로운 ‘군신’의 탄생을 의미했다. 반면, 살아남아 포로가 된 1명의 존재는 철저히 감추고 무시했다는 점에 이 군신 만들기의 민낯이 드러난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러한 군신 만들기과 국민적 추앙이 계속되었다.

다음으로 특공대에서 활약한 사람들의 신격화이다. 흔히 ‘가미카제(神風)’

리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특공대는 병사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자살공격대를 의미하며, 일본의 패색이 짙어진 필리핀전투 이후 대거 투입되었다. 시키시마타이(敷島隊)를 이끌었던 세키 유키오(關行男, 1921~1944), 야스쿠니타이(靖國隊)를 이끌었던 데마루 가즈오(出丸一男), 특공대는 아니었지만 야간 전투기를 몰며 미군기 16대를 격추해 ‘격추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엔도 사치오(遠藤幸男) 등은 전사한 후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영웅들의 죽음은 본인의 의사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래는 가미카제 탑승원도 아니었지만 갑자기 작전에 투입된 세키, 출격 후 미군의 공격으로 불시착했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입원해 있는 사이에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다음 출격을 강요당한 데마루 등에 대한 상부의 잔혹한 결정이 있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지휘관들은 패전 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림 6 야간 전투기 겐코(月光) 앞을 걸어나오는 엔도 사치오(遠藤幸男, 앞줄 왼쪽)와 니시오히루(西尾治) 상비조(上飛曹)(앞줄 오른쪽).



그림 7 과잘레인섬에서 전사한 오토와 다다히코(音羽正彦) 후작의 유골함을 안고 가는 아버지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오(朝香宮鳩彦王)와 형 다카히코(亨彦)

한편, 전쟁에서의 죽음은 이름 없는 민중뿐 아니라 고귀한 신분인 황족들도 비켜가지 않았다. 군 통수자인 천황뿐 아니라 황족 남성들은 육군사관학교 또는 해군병학교를 거쳐 모두 군인의 길을 걸어야 했다. 과잘레인섬에서 전사한 오토와 다다히코(音羽正彦) 해군 소좌의 유골함을 인수한 아버지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오(朝香宮鳩彦王)와 그 형의 담담한 표정은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황족의 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옥쇄(玉碎)’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었던 집단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옥이 아름답게 부서지듯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싸우다 죽는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개인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집단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1943년 5월 애투섬 전투에서 “마지막에 이르면 깨끗하게 옥쇄하여 황국 군인정신을 발휘하기 바란다”는 사령관의 명령은 항복해서 포로가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으라는 뜻이었다. 그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전멸했고, 그 이후 옥쇄는 병사들의 ‘전원 전사’를 의미하게 되었다. 사

이판이나 오키나와에서는 민간인들에게도 ‘포로가 되어 미군들에게 능욕을 당하지 말고 깨끗하게 자결하라’며 옥쇄를 강요했다.

V. 전쟁터에 동원된 식민지와 점령지의 청년들

동남아시아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요한 전쟁기지가 되었고 국민들도 전쟁에 동원되었다. 일본군이 장제스 원조 루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아라칸산맥을 넘어 인도의 임팔로 진격했을 때 보스가 이끄는 인도독립군은 인도 독립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일본군과 더불어 영국군 및 영국령 인도군과 맞서 싸웠으며, 버마는 일본군의 군사기지로써 쌀과 면화, 광물자원을 징발당했다. 한편, 레이테해전과 필리핀 방어전 등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가장 큰 격전지였던 필리핀에서는 일본 지배에 저항하는 현지 주민들이 항일 게릴라로 일본군에 맞섰다. 게릴라부대를 포함하여 필리핀인 희생자는 100만 명을 추산한다.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는 지원병제와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이 책에서는 조선인 병사들에 대해 다루지 않았지만 데마루 가즈오가 이끄는 야스쿠니타이의 일원으로 조선 청년 인재응도 출격했으며 타이완군 유격 제1중대 소속의 가오루 공정대(薰空挺隊)에도 조선인 청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송기로 적이 점령한 비행기지에 착륙하여 비행기를 불태우고 활주로나 병사를 폭파하는 대담한 작전을 펴는 공정대를 타이완 고사족(高砂族)을 주축으로 편성한 것이 가오루 공정대이다. 병사들 대부분이 고사족 출신인 가오루 공정대를 일본이 ‘내(內)·대(臺)·선(鮮) 혼연일체 부대’라고 선전했던 것은 경북 상주 출신의 조선인 김정진(金庚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통로에 앉아 있는 소위의 이름만 판명된 이 사진 어딘가에 김정진의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

타이완총독부가 원주민들을 모아서 조직한 고산족의용대는 산지에서 습득한 기술과 사냥술로 기습공격을 펼치며 보급품을 조달했다. 타이완에 지원병제가



그림 8 더글라스 수송기에 타서 훈련하는 가오루 공정대



그림 9 쓰루타 고로(鶴田吾郎) 작, 뉴기니전투에서 오웬스텐레이산맥을 넘어 전진하는 고사의용대



그림 10 뉴기니 전투에서 밀령을 뚫고 일본군을 안내하며 물자를 보급하는 뉴기니 원주민들

실시된 후 약 4,000명의 고산족 의용대가 파병되었고 그중 3,000명은 최전선 뉴기니에서 목숨을 잃었다. 일본군은 특히 고사족(高砂族)의 용맹을 높이 샀다.

한편, 뉴기니전투에서는 원주민도 전쟁에 동원되었다. 일본군과 연합군 양쪽으로부터 물자수송과 길 안내, 부상자 간호 등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던 뉴기니 원주민들은 양쪽의 스파이나 민병으로 활약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면서 살아남으려는 원주민들의 안간힘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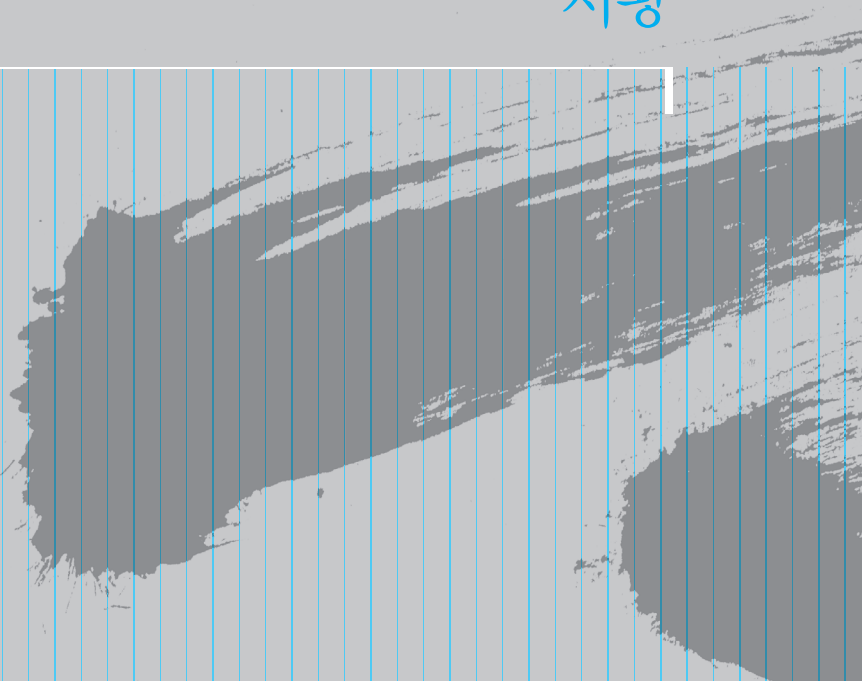
VI. 맺음말

전쟁은 민간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흔을 남긴다. 그런데도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면, 반드시 충분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대내외적 프로파간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설득시키는 책임은 당시의 신문과 잡지, 라디오가 수행했다. 언론은 일본이 연일 이기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보도사진에서는 무모한 작전에 투입되어 언덕을 기어오르거나 전인미답의 밀림을 통과하는 병사들의 사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리고 항상 이기고 있다면서도 전쟁 영웅들의 죽음과 각지에서 ‘전원 전사’를 의미하는 ‘옥쇄’가 이어지는 상황을 덮을 수는 없었다. 군신들에 대한 추모 열기와 옥쇄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는 희생자를 기리는 한편, 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켜 국민들의 전의를 끌어올렸다. 죽은 자들의 희생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을 일치단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일본이 발행한 사진과 그림 자료를 소개하면서 당시의 전쟁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그 안에서 일본 언론 보도의 모순이 잘 드러나도록 했다. 생생한 전쟁터의 사진과 사진으로는 충분히 묘사할 수 없는 감동을 표현한 전쟁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 군부는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국론을 통일하여 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순과 거짓, 왜곡된 논리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다.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 (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박선미 외 지음, 동북아역사
재단, 2021)의 서평

백종오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중원학연구소장

- I. 머리말
- II. 『통화만발발자유지고발굴보고(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의 발굴 경과와 내용
- III.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의 구성과 쟁점
- IV. 맺음말—몇 가지 단상(斷想)



I. 머리말

주지되듯이, 압록강의 주요 지류인 혼강 유역은 고구려의 발상지이다. 이곳은 천산산맥 동쪽에서 백두산 서쪽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험준한 지형의 산곡지대가 드넓게 펼쳐지지만 압록강과 혼강 수계를 비롯하여 합니하와 부이강 등 잘 발달된 지천 덕분에 고대로부터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선사시대 이래 이곳의 주민들이 독자적인 성격의 지역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으며, 역사 여명기인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져 우리나라 고대 문화권의 한 축을 견인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2004년에 발간된 환인 오녀산성의 발굴보고서¹를 통해 혼강유역 초기 고구려의 성립과 그 성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 철기시대 문화와 관련된 성과가 더해지면서 고구려의 기층문화와 고조선의 상관성을 탐구하는 시론적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² 이를 더욱 촉발시킨 계기가 1987년과 1997~1999년에 두 차례에 걸쳐 발굴된 통화 만발발자 유적이다.³ 조사 후 20여 년이 지난 2019년에 간행된 종합보고서⁴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

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北京: 文物出版社.

2 지병목, 2005, 「高句麗 成立期の 考古學的 背景」, 『고구려의 국가 형성』, 동북아역사재단; 하문식, 2010, 「渾江 유역의 적석형 고인돌 연구」, 『선사와 고대』 32: 2014, 「中國 遼北지역 고인돌의 성격」, 『先史와 古代』 40: 2019,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①: 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 『백산학보』 115: 2020a,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②: 신빈지역 동굴무덤의 신자료」, 『선사와 고대』 63.

3 오강원, 2004,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 文化의 形成 過程」, 『北方史論叢』 1; 하문식, 2020b,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③: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 『東洋學』 81.

승 관계를 밝혀줄 결정적인 고고학 자료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의 수록 내용이 우리 학계의 기대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계승 관계를 논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보고서 발간 이전의 간보나 개보 등 약보고문에 통해 고평가되었던 학계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발간 이듬해인 2020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사적 시각에서 만발발자 유적을 재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한 해당 전공자들이 발굴보고문의 유구와 유물들을 나누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 자료인 무덤, 주거지, 토기, 청동기, 철기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중 보수성이 강한 유구인 돌무덤, 토광묘, 집장묘(集葬墓) 등의 무덤과 그 출토유물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후 그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했다.⁵ 그리고 2021년에 『길림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⁶이라는 제하의 재단 연구총서로 발간 되기에 이르렀다. 책의 제목과 같이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은 통화 만발발자 유적에 대한 기존의 중국사적인 관점을 한국사적인 관점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⁷ 또한 한국사적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현재적

-
- 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 5 이 서평의 대상인 『길림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의 차례에 맞추어 게재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선미, 2021,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 관계 탐색 길림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19; 강인욱, 2021,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 『동북아역사논총』 71; 강현숙, 2021, 「만발발자 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동북아역사논총』 71; 이종수, 2021, 「통화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71; 이후석, 2021, 「훈강유역 세형동검문화의 특징과 네트워크의 변천」, 『고고학』 20-1; 김상민, 2021, 「통화 만발발자 유적 철기를 통해 본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상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71; 양시은, 2021,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동북아역사논총』 71.
- 6 동북아역사재단, 2021, 『길림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
-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조법중, 2005,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

상황에서 구현 가능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접목시킴으로써 향후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아울러 이 책은 그러한 성과를 모아 출간한 것으로 당시 유적의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고를 풀어써 설명한 점도 한 특징이다. 전문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각종 도면과 사진을 충분히 활용한 점도 돋보인다.

평자는 이 서평의 제목에 축자해석(逐字解釋)과 새로운 시도(a novel innovation)를 키워드로 넣었다. 축자해석은 원문의 글귀를 그대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고고학이라는 학문도 물질 자료를 다루는 만큼 유구와 유물에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돋보이는 새로운 시도를 강조했다. 고고학은 실증이다. 그 행간은 축자해석 후에 읽어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따라서 이 서평에서는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조사 경과와 현황, 그 주요 내용을 축약해서 소개한 후 이 책의 구성과 주요 쟁점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상고사의 근간인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조금 더 온축(蘊蓄)된 역사적 층위가 헤아려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군인식 연구-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3; 조법중, 2006,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송호정, 2007, 「고조선·고구려의 역사귀속성 논란에 대한 하나의 제안-조법중의 『고조선 고구려사연구』(신서원)를 읽고-」, 『한국고대사연구』 47; 박찬홍, 2011, 「고조선·부여·고구려의 역사적 계승관계 연구」, 『사총』 74; 김성환,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박선미, 2018, 「고조선의 정체성 탐색을 위한 초론-중국이라는 타자의 눈에 비친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 『동북아역사논총』 62.

II. 『통화만발발자유지고고발굴보고(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의 발굴 경과와 내용

1. 발굴 경과

유적은 中國 吉林省 通化市 金廠鎮 東昌區의 躍進村에 위치한다. 1956년에 처음 발견된 이래⁸ 1960년에 1차 기초조사를 거친후 1961년에 길림성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5년 진행된 2차 기초조사를 토대로 1987년에 1차 발굴조사⁹와 1997~1999년에 2차 발굴조사¹⁰가 연차적으로 실시되었다.

당초에는 ‘왕팔발자유적(王八脖子遺蹟)’으로 소개되었으나 1996년에 1차 발굴조사 보고 시 ‘만발발자유적(萬發撥子遺蹟)’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차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20기, 수혈유구(灰坑) 137기, 구상유구(灰溝) 9기 및 환호(環狀圍溝) 1기, 무덤 56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각종 토기류와 석기류, 골각기류, 청동기류, 철기류 등 다양한 기종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 수량은 6,942점 정도이다.¹¹

이와 같은 발굴 성과에 힘입어 만발발자 유적은 1999년 중국의 10대 발굴 목록에 선정되었고 2001년에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승격되었다. 이후 유적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거쳐 2016년 통화장백산 민속박물관이, 2017년에는 통화시박물관, 2018년에는 만발발자유적

8 康家興, 1956, 「渾江中游的考古調查」, 『考古通訊』 6.

9 吳華·志新, 1988, 「通化萬發撥子遺址復查報告」, 『博物館研究』 1988-3.

1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1997, 「通化市王八脖子遺址及附近幾處地占的調查與發掘」, 『博物館研究』 1997-2; 王綿厚, 2001, 「通化萬發撥子遺址에 관한考古學的觀察」, 『高句麗研究』 12.

11 통화 만발발자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가 간행된 후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보고서 원문과 함께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작성했음을 밝혀둔다. 하문식, 2020, 앞의 글; 이종수, 2020,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通化 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報告」, 『아외고고학』 37.



그림 1 통화 만발발자 유적 위치(동북아역사재단, 2021. 轉載)

민속공원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박물관과 역사공원 등은 장백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화지역의 변화 과정을 전시의 주요 콘셉트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테마는 고조선이나 고구려보다는 여진족과 만주족 중심의 의도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금번 서평의 기본 텍스트인 2019년에 발간한 『통화만발발자유지고고발굴 보고(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는 앞서 언급한 2차 발굴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¹² 2차 발굴조사 구역의 설정은 중앙부의 도로를 기준으

12 보고서의 후기에 의하면 발굴 종료 후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동북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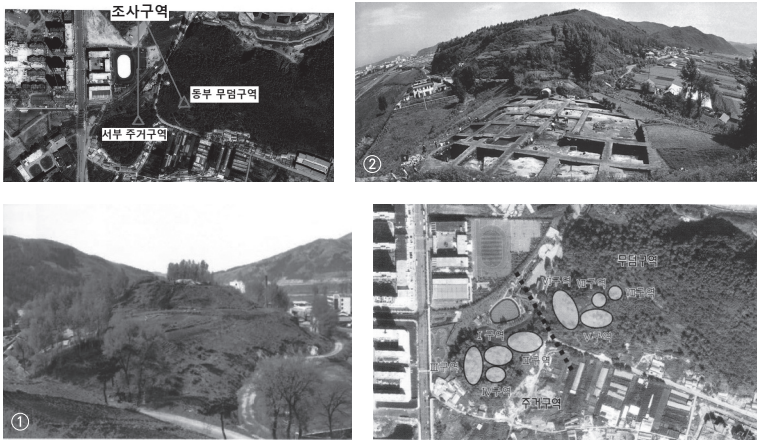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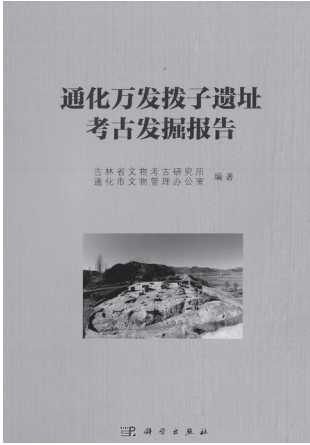
그림 2 만발발자 유적 전경과 발굴구역 현황(① 서부지역 주거 유구 전경, ② 동부지역 무덤유구 전경(동북아역사재단, 2021, 轉載))

로 크게 서부 구릉지대(I~Ⅳ 구역)와 동부 구릉지대(V~Ⅷ 구역)로 나누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구릉 정상부인 I구역과 구릉 동사면인 Ⅱ구역은 1997년도에 조사되었고 구릉 서사면인 Ⅲ구역과 구릉 정상부인 Ⅳ구역은 1998년에, V구역부터 Ⅷ구역까지는 1999년에 발굴되었다. V구역은 동부 구릉의 남사면과 서사면 일부에 걸쳐 있으며 Ⅵ구역은 동부 서사면에, Ⅶ·Ⅷ 구역은 동부의 정상부에 해당된다. 발굴 결과를 보면, 서부지역에서는 주로 주거 관련 유구들이, 동부지역에서는 무덤 유구들이 밀집되어 확인되었다.

각 구역별 퇴적층의 층위상은 서부 주거구역(I~Ⅳ 구역)의 경우 4~13층 정

대학 위징(余靜)이 발굴 자료를 정리했는데, 발굴 후 20여 년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조사 기록 중 일부가 소실되거나, 유물 등 다수가 부패하여 집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보다 안타까운 상황은 1985년의 2차 정밀조사와 1987년의 1차 발굴 조사 내용을 알 수 없게 된 점이다.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第一章 遗址概况及编写说明

- 第一節 地理環境及歷史沿革
- 第二節 工作概況
- 第三節 報告編寫說明

第二章 地層堆積與遗址分期

- 第一節 遗址分區及地層堆積
 - 一. 第Ⅰ區
 - 二. 第Ⅱ區
 - 三. 第Ⅲ區
 - 四. 第Ⅳ區
 - 五. 第Ⅴ區
 - 六. 第Ⅵ區
 - 七. 第Ⅶ區
 - 八. 第Ⅷ區

- 第二節 各區地層堆積的對應關係及遺存的分期與年代
- 第三節 遺迹概況
- 第四節 部分器物的類型劃分

第三章 各期遺存詳述

第一節 新石器時代遺存

- 一. 地層出土器物
- 二. 房址
- 三. 灰坑

第二節 晚商至西周時期遺存

- 一. 地層出土器物
- 二. 房址
- 三. 灰坑

第三節 春秋戰國時期遺存

- 一. 地層出土器物
- 二. 房址
- 三. 灰坑
- 四. 灰溝
- 五. 墓葬

第四節 西漢時期至兩漢之際遺存

- 一. 地層出土器物
- 二. 房址
- 三. 灰坑
- 四. 灰溝
- 五. 墓葬

第五節 魏晉時期遺存

- 一. 地層出土器物
- 二. 房址
- 三. 灰坑
- 四. 灰溝
- 五. 環山圍溝
- 五. 墓葬

第六節 明代遺存

第四章 其他遺存

- 第一節 未分期遺迹單位上述
- 第二節 採集品及耕土層出土器物上述

第五章 結語

- 第一節 各期文化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 一. 第一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 二. 第二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 三. 第三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 四. 第四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 五. 第五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 六. 第六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 第二節 其他遺存的年代
 - 一. 未分期遺迹單位的年代
 - 二. 採集品及耕土層出土器物的年代
- 第三節 第三期至第五期墓葬的討論
 - 一. 不同形制墓葬之間關係
 - 二. 墓葬的基本特徵
 - 三. 墓葬的喪葬習俗

附表

- 付祿一 通化萬發撥子墓葬顛骨人種的類型
- 付祿二 通化萬發撥子遗址春秋戰國時期叢葬墓出土顛骨的觀察與測量
- 付祿三 通化萬發撥子明代墓葬出土人骨研究
- 付祿四 通化萬發撥子聚落遗址動物遺存初步分析

Abstract

後記

그림 3 『通化萬發撥子遗址考古發掘報告』(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표지 및 목차)

도의 퇴적 양상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1층은 경작층이며, 2층은 위진시대 문화층, 3층은 한대, 4~8층은 청동기시대 후기, 9~10층은 청동기시대 전기, 11~13층은 신석기시대 문화층으로 대별된다.¹³ 이 중 Ⅲ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층까지만 확인되며, 구릉 정상부인 Ⅳ구역에서는 한대 문화층까지 확인되었다.

동부의 무덤구역(Ⅴ~Ⅷ 구역)은 대략 6~7개의 층위상을 보인다. 1~3층까지는 서부의 주거구역과 같고, 4~6층은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층 그리고 7층은 생토면이다. 이 외에 산 정상부의 Ⅷ구역과 Ⅷ구역에서는 지표면상으로 8기의 무덤이 노출된 상태였다.

〈표 1〉 만발발자 유적 구역별 지층퇴적 대응 관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轉載)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경작층
I구역	11~13층	9·10층	4~8층	3층	2층	—	1층
II구역	9~11층 98TWF15	8층	4~7층 98TWH115	3층	2층	—	1층
III구역	—	—	5·6층	4층	3층	98TWM5 ~ M16	1·2층
IV구역	98TWH146 98TWH148 98TWH149	—	—	3층	2층	—	1층
V구역	—	—	4·5층	—	—	—	1~3층
VI구역	—	—	4~6층	2·3층	—	—	1층

13 보고서에서는 유적 내 문화층을 총 6시기로 구분했다. 제1기는 신석기시대, 제2기는 청동기시대 전기, 제3기는 청동기시대 후기, 제4기는 한대(선고구려시기), 제5기는 위진시대(고구려시기), 제6기는 명대 문화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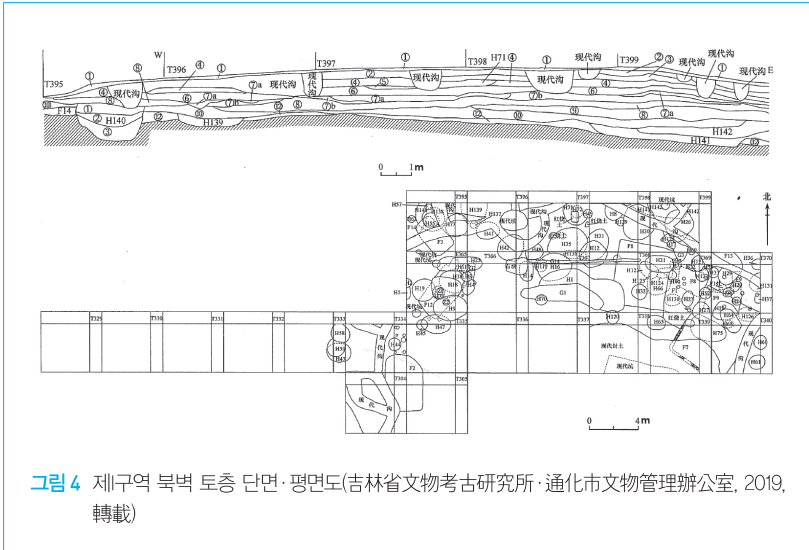


그림 4 제구역 북벽 토층 단면·평면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轉載)

다음으로 각 유구의 현황을 보면 주거지 20기, 수혈유구 137기, 구상유구 9기, 환호 1기, 무덤 56기 등이 발굴되었다. 주거지는 I구역에서 8기, II구역에서 6기, III구역에서 1기, IV구역에서 5기 등 모두 서부의 주거구역 내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혈과 구상유구 및 환호 등 생활유구 역시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서부구역에 집중되며, 무덤유구는 I구와 IV구를 제외한 전 구역에서 조사되었다.

〈표 2〉 만별발자 유적 구역별 유구 현황(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轉載)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환호	무덤
I 구역	8	80	5	—	—
II 구역	6	41	4	1	4
III 구역	1	2	—	—	12
IV 구역	5	4	—	—	—

V구역	-	2	-	-	9
VI구역	-	8	-	-	23
VII구역	-	-	-	-	3
VIII구역	-	-	-	-	5
합계	20	137	9	1	56

2. 발굴 내용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만발발자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유적 내 문화층을 총 6시기로 구분했는데 제1기는 신석기시대, 제2기는 청동기시대 전기, 제3기는 청동기시대 후기, 제4기는 한대(선고구려시기), 제5기는 위진시대(고구려시기), 제6기는 명대 문화층이다. 각 시기별 유구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만발발자 유적의 시기별 유구 현황(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轉載)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환호	무덤
제1기	1	6	-	-	-
제2기	2	3	-	-	-
제3기	11	70	5	-	33
제4기	3	32	2	-	7
제5기	3	16	2	1	1
제6기	-	-	-	-	12
시기 불명	-	10	-	-	-
합계	20	137	9	1	53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층차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먼저 제1기의 신석기시대 문화층은 서부의 주거구역(I·II·IV 구역)에서 확인되었다. I구역과 IV구역에서는 각각 수혈유구(灰坑) 3기씩이, II구역에서 제1기 주거지(15호:97ITWF15)가 조사되었고, 이 외에 관련 문화층에서 소량의 토기와 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편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소략하여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6,000년 전에서 5,000년 전 사이의 신석기시대 중후기층과 5,500년 전에서 5,000년 전 사이의 후기 문화층으로 구분되었다.

제2기의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층(기원전 13~8세기) 역시 생활유구가 중심이 되며 서부 구역에서만 확인된다. 다음 제3기의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층에서는 생활유구와 무덤 등이 함께 조사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시 춘추시기(기원전 7~6세기)의 유구와 전국시대(기원전 5~3세기)의 것으로 구분한다. 먼저 춘추시기의 유구는 I구역에서 조사된 140호 수혈(H140) 및 II구역의 수혈 2기

(H115·123)가 대표적이며, 출토유물로서 옹과 대부분, 삼릉형 석촉 등 및 다양한 형태의 파수부가 유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전국시기의 유구는 I·II·III·V·VI 구역 등에서 주거지 11기, 수혈유구 68기, 구상유구 5기, 무덤 33기가 발굴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지는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반지하식의 수혈 구조를 보이지만 새롭게凸자형 평면구조가 출현한다. 무덤은 토광묘 21기와 석관묘 8기, 대개석묘 4기 등이 공존하는데 이 중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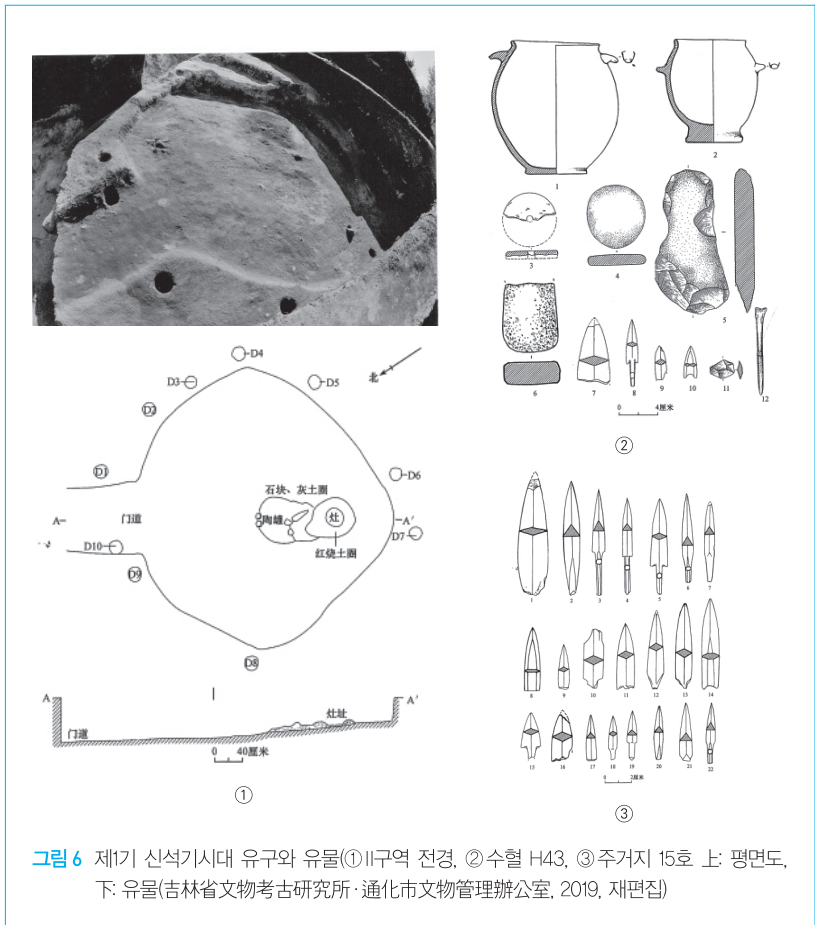


그림 6 제1기 신석기시대 유구와 유물(①II구역 전경, ②수혈 H43, ③주거지 15호 상: 평면도, 하: 유물(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재편집)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와 석관묘는 층위 및 공반유물의 차이를 근거로 각각 A·B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토광묘의 경우 A형과 B형 사이에 별다른 구조적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A형 석관묘가 소형의 할석재를 쌓아 만든 반면 B형 석관묘는 대형 석재로서 벽체를 구성하거나 개석을 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A형 토광묘에서는 삼각만입 석촉만 부장된 반면, B형 토광묘에서는 조금 늦은 시기의 유경식 석촉과 함께 A형 석관묘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수이호가 공반되어, A형 토광묘의 시간성이 가장 빠르고 B형 토광묘와 A·B형 석관묘가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편년되었다.



그림 7 청동기시대 후기(전국시대) 무덤 구조와 유물 비교(① A형 토광묘 20호, ② A형 석관묘 42호, ③ B형 토광묘 28호, ④ B형 석관묘 上: 55호·下: 56호, ⑤ 대석개묘 35호, ⑥ 석관석관묘 36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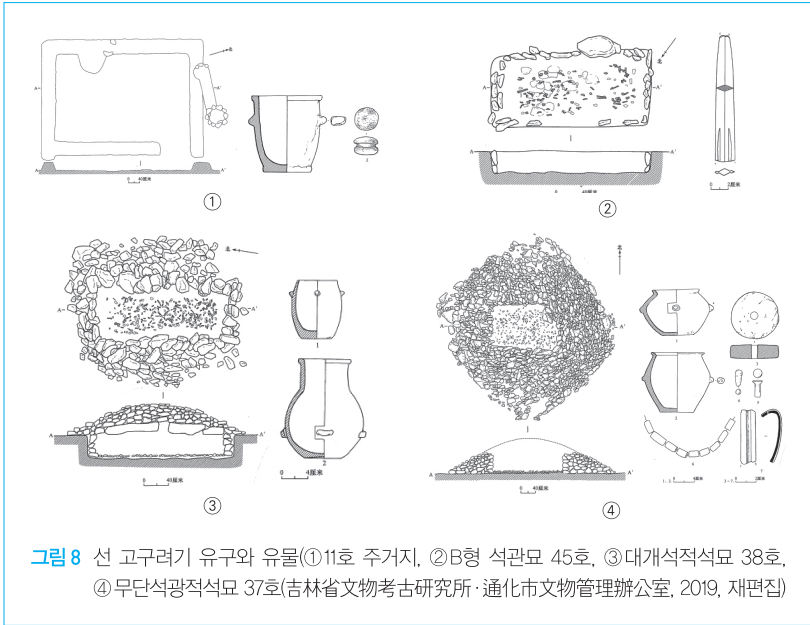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개석묘는 모두 동부 무덤구역의 구릉 정상부(Ⅶ·Ⅷ 구역)에 위치하며, 토광 내 할석재를 쌓아 묘실을 조성한 후, 상부에 대형 판석을 덮어놓은 구조이다. 위에서 살핀 B형 석관묘의 구조가 대개석묘와 유사한 점에서, 보고서에서는 A형 토광묘 - A·B형 석관묘 - 대개석묘 순으로의 발전 관계가 제시되었다.

제4기의 선 고구려시기(기원전 2세기~기원 전후) 유구는 서부의 전 구역 및 동부의 Ⅱ구역에서 주거지 3기, 수혈유구 32기, 무덤 7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지부터는 벽체를 석축이나 항축하여 세우기 시작하며, 노지 주변 벽면을 따라 구들이 설치된 변화상이 주목된다. 무덤은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석관묘와 대개석묘류가 중심이 되지만, 새롭게 석곽석관묘 1기와 대개석적석묘 2기, 무단석광적석묘 1기 등이 추가된다.

이 시기 석관묘(3기)의 구조는 A형 석관묘와 큰 차이가 없으나 2차장과 화장 등 장법의 변화와 세형동검계 유물의 공반 등 부장품 구성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석곽석관묘(1기: M36) 역시 기본적인 형태는 위의 석관묘와 유사하지만 할석을 쌓아 만든 벽체 내부로 다시 판석재를 세워 관시설을 두거나 모두 6구 정도의 인골이 3층으로 분층 매장된 다인·다차·화장의 방식을 보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조와 장법의 무덤은 기원전 4~3세기 무렵 길림시 일대 대개석묘류에서 보편적이다.¹⁴ 다만 만발발자 유적의 석곽석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류가 대체적으로 이 유적의 선고구려시기 출토품과 유사하여 길림시 일대 대개석묘류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성이 인정된다.

대개석적석묘는 얇게 판 토광 내부에 할석재로 벽체를 쌓은 후 그 주변과 대개석 상부로 적석을 한 점에서 역시 전 단계의 대개석묘와 차이를 보인다. 다음 무단석광적석묘는 토광 없이 지표상에 할석재로 벽체를 쌓은 후 그 주변과 봉분을 모두 적석을 한 구조이다. 이 시기 무덤의 시간적 순서는 앞 단계의 B형 석관묘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석관묘 3기가 가장 빠르며 이후 석곽석관묘를 거쳐

14 하문식, 2020, 앞의 글, 85쪽; 이종수, 2020, 앞의 글, 163쪽.



대개석적석묘와 무단석광적석묘로의 발전상이 제시되었다.

제5기는 고구려시기(기원후 3~5세기)로서 주거지 3기와 수혈 16기, 구상유구 2기, 환호 1기 등의 생활 유구는 서부의 I~IV 구역에 분포하며, 무덤은 동부의 VI구역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지는 모두 서부 주거구역 내 정상부에 입지하며 그 주변으로 환호가 둘러진 특징을 보인다.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얇은 수혈 내에 할석재로 벽체를 세웠지만 내부로 ‘C’자형의 온돌시설을 갖춘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덤의 구조는 3층 계단형의 방단적석묘로서 묘광 상부에 판석을 덮고 그 위에 적석을 한 형태이며, 묘실 북쪽으로 별도의 제단시설이 마련되었다. 번소의 흔적 없이 간골장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외에 제6기의 명대문화층에서는 서부의 III구역에서 무덤 12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순수 토광묘로서 철축과 철도, 동환과 골구 등 출토유물 양상으로 보아 당지의 건주 여진 집단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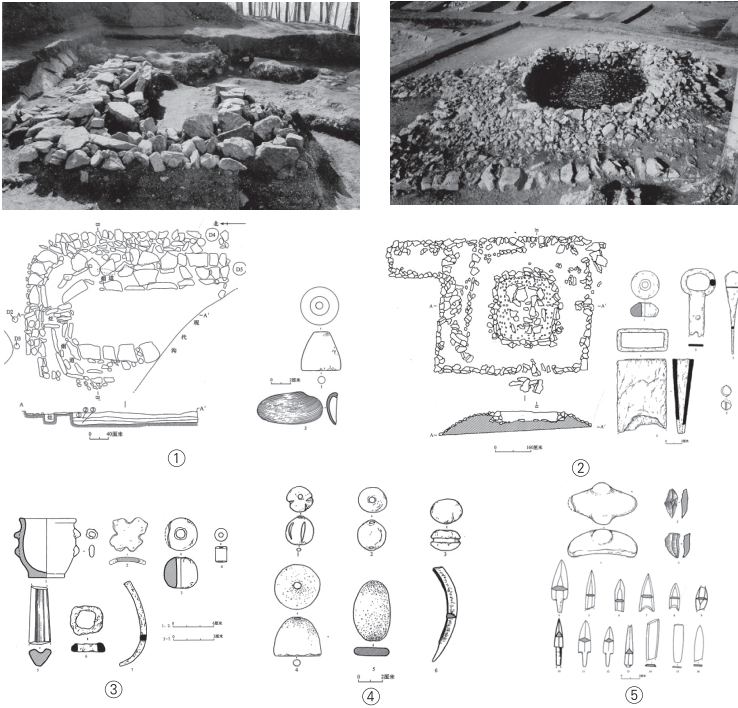


그림 9 고구려시기 유구와 유물(①2호 주거지, ②방단적석묘 29호, ③수혈 1호H, ④구상유구 G1, ⑤환호유구 G4(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재편집)

긴 소산으로 추정된다.¹⁵

이상과 같이 만발발자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형태의 생활유구와 무덤 자료가 조사되었다. 특히 층위상으로 연속되는 무덤 자료의 복합성과 구조적 유사성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 관계를 밝혀줄 좋은 대상이 될 것으로 한껏 기대를 모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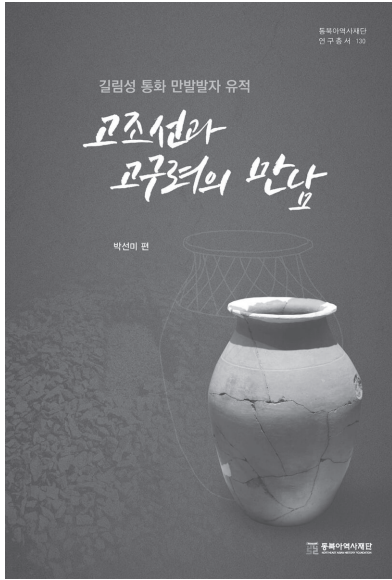
15 이종수, 2020, 위의 글, 164쪽.

보고서에서는 만발발자 유적의 무덤 종류를 토광묘, 석관묘, 석곽석관묘, 대개석묘, 대개석적석묘, 무단석광적석묘, 방단적석묘 등 모두 7종류로 구분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A형 토광묘(기원전 5세기 이전)이며 이후 B형 토광묘와 석관묘, 대개석묘 등이 유사한 시간성(기원전 4~3세기)을 가질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간성의 토광(목관)묘와 석관묘 그리고 지석묘의 한 종류로서 대개석묘 등은 그간 우리 학계에서 대부분 인정받아 온 바 고조선과 관계된 사람들의 무덤임이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벽체의 구성에 판석을 사용한 B형 석관묘와 석곽석관묘 등은 구조 및 장법적 측면에서 동유적 내 대개석묘와 유사하기에 이들 간의 문화적 연속성 역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석곽석관묘의 출현과 맞물려 조성되는 대개석적석묘의 존재성 역시 이후 무단석광적석묘를 거쳐 고구려의 방단적석묘로 발전되는 그 과도기적 형태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는 결국 고조선과 고구려의 전환기적 시점과 맞물려 전개되는 고고학 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물질 자료의 공간적 배경¹⁶을 고려할 때 만발발자 유적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중핵지대에 벗어나 있는 그 주변 집단의 소산일 수 있음도 유의된다. 아래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이 책의 구성과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살피고자 한다.

16 주지하다시피 만발발자 유적이 자리한 통화시의 훈강 상류지역은 고조선의 비핵심 지역이면서 초기 고구려사의 주변지역에 속할 수 있다.



**1장 고조선·고구려사 속의 통화 만발발자 유적
_박선미**

유적의 발견 경위와 의미
통화지역의 역사·지리적 환경
통화지역의 고고학적 배경
만발발자 유적 속의 고조선과 선(先)고구려 문화
고조선과 고구려의 접점 찾기
고조선 주민과 선고구려 주민의 연속

2장 통화지역 모피 생산 집단의 흥망으로 본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전환 과정 _강인옥

만발발자 유적과 고대 통화지역의 문화
통화지역 묘제의 구성과 변천
무덤으로 본 만발발자 사회의 특성
만발발자 집단의 성격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기대하며

**3장 만발발자 유적의 무덤과 고구려 형성기 적석총
_강현숙**

고구려 적석총의 연원은 어디에
고구려 형성기의 무덤
만발발자 유적 무덤의 총형 관계
만발발자 유적 무덤과 고구려 형성기 적석총의 관계
더 많은 고고학 자료를 기대하며

4장 토광묘와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_이중수
토광묘와 집장묘를 둘러싼 논의들
만발발자 유적에서 발견된 토광묘와 집장묘
토광묘가 만들어진 시기
심양 정가와자 유적 토광묘와의 관계
토광묘를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집장묘는 왜 만들었을까
탐색의 확장: 선고구려문화의 백제 계승 문제

6장 만발발자 유적 철기를 통해 본 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등장 배경 _김상민

후기 고조선과 초기 고구려의 철기문화는 같은 맥락 속에 이어지는가
만발발자 유적 철기의 출토 양상
만발발자 유적 철기문화의 시·공간적 변화
천산산맥 이동 지역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전개
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완성에 대하여

5장 혼강 유역의 세형동검문화와 만발발자 유적 _이후석

혼강 유역 세형동검문화의 주인공은
혼강 유역의 유적 분포와 만발발자 유적
청동유물 출토 유구와 주요 유물
세형동검문화의 특징과 네트워크의 변천
혼강 유역의 세형동검문화와 고조선-고구려

**7장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과 형성 양식은**

고구려 토기의 기원 문제
만발발자 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
압록강-환인 일대에서 출토된 토기와 비교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꾸준한 연구의 축적을 기대하며

그림 10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동북아역사재단, 2021) 표지 및 목차

III.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의 구성과 쟁점

1. 발간 경위 및 구성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고구려 시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양상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어 이 지역 고고 문화의 변천상과 함께 고구려 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밝혀줄 핵심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형동검과 선형동부 등 후기 고조선의 대표적인 물질문화로 알려진 청동무기류가 고구려 시기의 하층에서 검출됨에 따라 고조선 멸망 후 이 지역 토착문화의 변동상과 함께 고구려 건국 과정의 고고학적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로서 한껏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1956년 유적이 처음 발견된 이래 몇 차례에 걸친 발굴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나 약식 보고 등 단편적 자료의 소개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¹⁷ 따라서 우리

17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종합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의 참고 자료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康家興, 1956, 앞의 글;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 『通化市文物志』; 吳華·志新, 1988, 앞의 글;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1991, 『吉林省志』 43(文物志); 金旭東, 1991, 「1987年吉林東豐南部蓋石墓調查與清理」, 『遼海文物學刊』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1997, 앞의 글; 金旭東·安文榮·楊立新, 2000, 「探索高句麗早期遺存及通起源」, 『中國文物報』 2000年 3月 19日版; 國家文物局, 2000,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國家文物局 主編, 2001,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金旭東·安文榮·王志敏, 2001, 「高句麗早期遺存及起源-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發掘」,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王綿厚, 2001b, 「通化萬發撥子遺址的考古與民族學觀察」, 『北方文物』 2001-3; 王綿厚, 2001a, 앞의 글;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3, 「吉林通化市萬發撥子遺址二十一號墓的發掘」, 『考古』 8; 湯卓煒·金旭東·楊立新, 2004, 「吉林通化市萬發撥子遺址地學環境考古研究」, 『邊疆考古研究』 2; 通化市文管會協公室, 2006, 「通化江沿遺跡群調查」, 『東北史地』 2006-6; 王貴玉·王珺·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跡群所在地當即調卒本夫餘初居地」, 『東北史地』 2006-6; 賈瑩·朱泓·金旭東·趙殿坤, 2006, 「通化萬發撥子墓葬顛骨人種的類型」, 『社會科學

학계의 관련 연구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나 2019년에 종합보고서가 출판되면서 보고서의 개략적인 내용 분석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문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도 만발발자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으며, 학계의 전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2020년 11월에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고구려 계승 관계’를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시 학술대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만발발자 유적은 중국사적 시각에서 해석되었고, 보고서의 내용도 중국사 중심으로 구성된 한계를 지적했다. 비록 유물을 실견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유적에 대한 우리 학계의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한국사적 시각에서 유적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조선과 고구려의 전문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한 내용 7개 꼭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만발발자 유적의 내용뿐만 아니라 유적이 자리한 혼강 유역 일대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와 초기철기시대 자료를 아울러 검토함으로써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성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부각된다. 모두 7개로 구성된 주제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책의 편찬책임자로서 박선미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이 「고조선·고구려사 속의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주제로 집필했다. 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적이 위치한 통화지역의 역사지리적 배경과 고고학적 배경을 검토하고, 만발발자 유적이 고조선사와 고구려사에서 갖는 의미를 살폈다. 고조선과 고구려를 직접 연결시켜 서술한 문헌기록을 검토하고 유적에서 발견되는 고조선 및 고구려 문화 요소의 전반을 살폈다. 이를 통해 통화지역의 청동기시대 토착주민들이 고구려 초기 역사에 관계하면서 남긴 것이 만발발자 유적일 것으

戰線』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2008, 『田野考古集粹』, 北京: 文物出版社; 李新全, 2008, 『高句麗早期遺存及其起源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李新全, 2009,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2009-1.

로 추정했다.

두 번째 주제는 강인욱 교수(경희대)가 만발발자 유적의 무덤 자료를 살폈다. 그는 인근 지역의 석묘 유적과 비교해 기원전 4세기 동북아시아의 역동적인 문화 변동이라는 거시적인 맥락과 만발발자라는 지역사회의 변천을 비교 검토했다. 이를 통해 통화와 환인 일대가 후기 고조선의 영향을 벗어나 초기 고구려 세력에 편입되는 과정의 변화를 만발발자 유적이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 주제는 강현숙 교수(동국대)가 고구려 형성을 전후한 시기의 돌무덤을 검토해 고구려 적석총과의 관계를 탐색했다. 만발발자 유적에서 발견된 돌무덤 가운데 대개석적석묘는 고구려 적석총의 연원으로 지목되었으나 구조적으로 상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고구려 초기 적석총이 어느 특정한 무덤에서 연원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데에서 온 것으로 추정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종수 교수(단국대)가 유적에서 발견된 토광묘와 집장묘를 분석했다. 먼저 집장묘는 하나의 묘광에 35인이 매장되어 있는 무덤으로서 무덤의 구조와 장법 등을 비교해 만발발자 유적의 토광묘가 고조선의 지배층 무덤인 심양 정가와자 유적에서 기원했음을 논증했다. 또한 집장묘는 전염병 등 비정상적인 사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조영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이후석 연구교수(경희대)가 유적이 위치한 혼강 유역의 세형동검문화와 휘발하, 두만강, 길림 등에서 출토된 고고학 자료를 비교하여 세형동검문화에서 보이는 동검-동과-동모라는 청동무기류, 다뉴경류, 토기 그리고 이것들이 묻혀 있던 무덤과 주거지 등을 동시에 살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던 혼강 유역의 정치체가 기원전 2세기경 점차 이탈해 다변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한 역사상을 보여주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김상민 교수(목포대)가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인근 지역의 철기와 비교해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의 철기문화를 살폈다. 그는 재가공한 철제품과 버드나무잎 모양의 철제 화살촉이 만발발자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

의 특징으로 보았다. 이것이 고구려의 계승 발전하여 독특한 형태의 초기 고구려 철기문화를 형성했음을 밝혔다.

마지막 주제는 양시은 교수(충북대)가 유적에서 출토한 토기를 분석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문화적 계통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환인 오녀산성, 망강루 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토기를 비교했다. 그는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거주하던 집단이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이어진 토기 제작 전통을 일부 계승하면서 동시에 부여 등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 토기의 모습을 갖추어 발전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의 집필진들은 만발발자 유적의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초기 철기시대, 그리고 고구려까지 각 시기를 달리하는 문화층별 출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고조선 멸망 전후의 문화 변동과 고구려 국가 성립, 고구려 문화의 기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아마도 이 책의 집필진이 공통으로 삼은 대주제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 관계’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각 시기별 특징과 문화적 연속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유적 내 무덤 자료의 변화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는데, 그것을 대하는 집필진 간의 미묘한 시각차에 따라 그의 평가와 해석 역시 일정 부분 온도차를 보이는 점에서 흥미가 더해진다.

다음 절에서는 무덤 자료를 해석하는 집필진의 주요 논지를 점검하여 책의 전반부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쟁점 해부: 무덤 자료의 해석 문제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에서는 주로 유적 내 각 시기별 문화층에서 조사된 주거지와 무덤, 청동기와 철기, 토기 자료 등을 대상으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성 문제를 검토했다. 그중에서도 책의 제목인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을 상징하는 주요 쟁점은 결국 유적 내 무덤 자료의 변화상과 그 계기적 발전

상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는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층의 토광묘와 석관묘, 대개석묘 등을 고조선 사람들의 묘제로 전제했을 때, 선고구려시대의 대개석적석묘와 무단석광적석묘를 거쳐 고구려의 방단적석묘와 방단계단식적석묘 등으로 발전되는 문화적 연속성에 착안된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 입각한 논지 전개는 책의 서론적 성격을 보이는 「고조선·고구려사 속의 통화 만발발자 유적」(박선미)부터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통화 만발발자 유적과 왕의구 유적 등 최근의 발굴 사례를 예시하며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연결되는 문화적 상관성과 그 계승 관계를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이 지역 고조선 멸망 이전의 정황에 대하여 『後漢書』 東夷列傳 濊條의 기록 중 예·옥저·고구려가 모두 옛 조선이라고 기록된 점에 착안하여¹⁸ 통화지역을 예맥으로 대표되는 고대중족이 활동했던 지역이자 고조선과 고구려의 관할범위에 속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즉, 고구려 이전 통화지역은 고조선의 관할하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조선 멸망 이후의 정황은 조(朝)-한(漢) 전쟁이 종료된 이후 문헌에 기록된 한(漢) 정부의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했다. 특히 현도군의 영현 중에 고구려현이 속한다는 기사를 가지고 고조선과 고구려의 연결점을 찾으려고 천착하고 있다. 즉, 통화지역은 처음 고조선의 관할범위에 있다가 이후 현도군, 고구려, 공손씨 등의 주요 각축장이 되기에, 통화지역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대의 유적은 고조선 후기 주민의 향방에 대한 연구는 물론 선고구려 주민에 대한 연구, 현도군을 통한 대한 관계의 동향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상황이 압축적으로 기록된 단편적 기사를 토대로 이 지역 고고 자료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초기 철기시대 문화의 양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이 지역의 조사

18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 “濊及沃沮句驪本皆朝鮮之地也.”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결책으로서 만발발자 유적을 비롯한 통화 일대의 무덤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고조선과 고구려의 관계성 및 해당 주민들 간의 연속성 문제 역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논지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㉔ 보고서에서 설정한 제3기와 제4기는 초기 철기시대와 기원 전후한 시기의 문화층이다.

㉕ 이곳에서는 고조선의 묘제인 대개석묘(지석묘)와 초기 세형동검류, 점토 대토기류, 고구려 적석총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무단석광적석묘 등이 조사되었다.

㉖ 토기 역시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가 형성되기 직전의 것으로서 이 시기의 문화 내용을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 관계를 엿볼 수 있다.

㉗ 비록 통화지역은 고조선의 핵심지역에서 벗어나 있지만 초기 고구려 유적이 집중된 환인과 집안 등지에 근접하고 있다.

㉘ 고조선과 고구려의 문화 요소가 모두 확인되는데 특히 고조선의 대개석묘에서 고구려의 무단석광적석묘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유적의 5기층부터 고구려 문화 일색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후기 고조선(제3기)과 선고구려 문화층(제4기)의 주민들이 고구려 문화층(제5기)을 형성한 것이기에 양자의 계승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아마도 이 지역 청동기 시대 후기의 광역적 교역망은 고조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것이기에, 이러한 연맹체의 중심성은 연, 진, 한과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점차 세력을 잃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조선 외곽에 있던 지역 집단은 고조선의 광역망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그러한 중심성이 고구려를 통해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다만 이상의 논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논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선고구려의 중심지를 환인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과 함께 후기 고조선(위만조선)의 중심지와도 맞물려 패수의 위치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도군의 영현으로서 제2현도군에 대한 여러 의견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개석묘가 어떠한 맥락에서 고조선의 묘제로 특정될 수 있는지, 이를테면 대개석묘의 성격과 발생지 및 확산 과정, 나아가 동시기 병행되는 탁자식 지석묘나 석관묘 및 토광묘계 묘제와는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에 아쉬움을 남긴다. 최근 대개석묘나 석관묘 등은 고조선 주변세력의 묘제로서 고조선의 국가 성립 과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고조선의 중심묘제는 정가와자유형의 목곽묘나 토광묘를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마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4장 「토광묘와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이종수)을 다루는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에 이를 간소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책의 4장을 2장에 배치하여 글의 서문적인 1장과 연속되도록 구성하는 편이 다음 순서의 글들을 읽어나가는 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는 4장의 핵심 논지 중 하나인 집장묘의 성격과 그 등장 배경으로 제시된 ‘전염병 등 비정상적인 집단사망 사건의 발생 배경’을 책의 제2장 「통화 지역 모피 생산 집단의 흥망으로 본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전환 과정」(강인욱)에서 집중 조명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책의 4장인 「토광묘와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이종수)」의 주요 논지를 먼저 살핀 후, 유적의 무덤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2장과 3장의 내용을 한데 묶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책의 4장에서는 만발발자 유적의 다양한 무덤 자료 중 토광묘와 집장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했다. 먼저 토광묘 조성시점의 경우, 보고서에서 분석된 기원전 5세기 상한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당시의 정형상 통화지역 일대에서 기원전 5세기 이전에 토광묘제가 출현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인데, 주요

근거로서 이 지역 토광묘제의 시원을 기원전 6~4세기 무렵의 심양 정가와자 유적으로 파악하고 그 주변지역에서 토광묘제가 폭넓게 수용되는 시점은 적어도 기원전 4세기 이후부터임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논증한다.

다음으로 기원전 7~6세기 무렵 요동지역 일대 토착묘제(석축묘)와 구분되는 요서계 무덤으로서 기원전 6~4세기 무렵 정가와자유형계 토광묘제의 출현과 확산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만발발자 유적 토광묘제 무덤의 기원과 그것을 조영한 사람들의 성격을 살폈다. 결국 만발발자 유적의 토광묘제 무덤은 고조선과 관계된 정가와자유형의 영향 속에서 조영된 것이며, 이들의 체질적 특징은 무덤내 출토 인골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높은 두개골, 넓은 얼굴, 편평한 얼굴면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고동북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공유한 종족적 특징이기에, 만발발자 유적의 주민들 역시 요동과 장백산맥 일대에 거주하던 예맥계 종족으로서 이들은 요서-요동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요소인 토광묘제를 수용하게 된 고조선계 주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지는 만발발자 유적 토광묘의 부장유물이 당시 요서지역에서 유행한 청동무기류와 점토대토기류 등 정가와자유형계 유물과 공통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 다만 요동지역 일대 청동기시대 토광묘제의 출현은 사실상 기원전 16세기 무렵부터 시작되는 고대산문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원전 12~9세기의 신락상층문화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일대의 토착 묘제는 지석묘와 대석개묘, 석관묘 등 석축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동시기 요동지역과 유사한 문화상을 보이는 길림 서남부 송화강 유역에서는 그러한 석축묘와 토광묘제의 간헐적인 공반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의 길림 동남부지역 두만강 유역의 주요 묘제는 석관묘와 토광묘제로 볼 수 있다. 기원전 4~3세기 무렵 요동 북부와 길림 서남부의 접경지역에서는 이러한 두만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인 유정동 문화의 후기 요소가 복합적으로 출현한다. 특히 이러한 유정동문화 후기단계에는 만발발자 유적의

집장묘적 성격의 토광묘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다수 조사되는 정황으로 볼 때, 만발발자 유적 토광묘나 집장묘의 출현은 단순히 요서계 묘제의 영향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혼강 유역 일대에서 고구려의 기층문화를 일궈낸 사람들이 당지의 토착 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부여계인 길림 서남부지역의 주민들과 협력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그간의 인식과도 상당한 부분에서 맥락이 연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적 내 집장묘적 성격을 보이는 토광묘 20호와 21호 무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는 전염병 등 비정상적인 사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조영된 것으로 추정할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해석은 2장 「통화지역 모피 생산 집단의 흥망으로 본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전환 과정」(강인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 책이 가진 공동 연구로서의 효율성을 한층 배가시키고 있다.

이 책의 2장에서는 기원전 4세기 무렵 동북아시아의 역동적인 문화 변동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후기 고조선에서 초기 고구려로 전환되는 시점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인 변화를 주목했는데, 특히 유적 내 출토된 석제 가공 도구와 동물 뼈 등의 분석을 통해,¹⁹ 이 시기 통화지역 문화 변천의 동인을 모피 무역의 활성화로 풀이한 점, 나아가 그러한 모피류의 생산 과정 중 설치류와 동물을 매개로 확산되었던 전염병의 출몰을 유적 내 집장묘의 등장 배경으로 설명한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그리고 만발발자 유적의 기원전 3~2세기 무렵의 무덤 자료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후 당시 통화지역 후기 고조선 문화의 확산 과정을 다양한 묘제의 출현과 통합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했으며, 그 공반유물을 통한 생계경제와 네트워크의 복원을 겸하여 초기 고구려의 형성에 대한 새로운 시사를 주었다.

이 글에서는 앞선 두 글에서 세밀히 다루지 못한 고구려 적석묘제의 기원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먼저 유적 내 묘제의 축조는 토광묘-집단토광

19 유적 내 출토된 다양한 석기를 농경도구가 아닌 모피 생산을 위한 가공용 도구로 파악했다.

묘-대개석묘/석관묘-초기 고구려 적석묘(총) 등 총 네 시기의 변화상을 제시한다. 유적 내 가장 빠른 시간상을 보이는 토광묘 집단은 모피생산과 연관된 전염병의 발병으로 점차 소멸되는데 이러한 토광묘 집단의 위기가 대개석묘와 석관묘로 대표되는 새로운 집단의 유입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개석묘의 등장과 함께 사회 분화가 심화되어 독자적인 구역에서 별도의 무덤구역이 형성되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초기 고구려의 적석묘로 이어지게 된다.

즉, 고조선 후기의 토광묘는 곧바로 초기 고구려의 묘제로 연결되지는 못하며 그 중간에 대개석묘 계통의 문화가 강하게 개입되는데 당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적석총 집단이 통화지역으로 진출하여 대개석묘 집단과 공존하다가 점차 그 세력을 동화시킨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하지만 집필진 역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묘제의 기원 및 계통과 같은 문제를 단 1~2개의 유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자명하다. 무엇보다 정가와자계 토광묘를 고조선 후기의 묘제로 인식하는 최근의 경향을 심분 수용할지라도 그의 소멸 후 만발발자 유적의 새로운 주도권을 장악한 대개석묘 집단의 성격 문제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글 속에서의 대개석묘 집단은 후기 고조선의 묘제와 별개로 파악하는 점에서 앞서 검토한 1장의 논지와 조금 다른 시각을 견지하는 듯하다.

이러한 대개석묘 집단의 성격 문제는 3장의 「만발발자 유적의 무덤과 고구려 형성기 적석총」(강현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지만 자료의 해석 문제에서 역시 앞선 글들과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먼저 고구려 형성기 만발발자 유적의 무덤 자료는 구조와 장속 등 차이를 기준으로 토광묘계, 석관묘계, 대개석묘계, 적석분구계 등 4가지로 범주화시켰다. 다음으로 각 무덤별 분포상을 보면 토광묘계와 석관묘 A형과 B형이 무덤구역을 공유하며 번소가 행해지는 C형 석관묘는 대개석묘계나 적석분구계 무덤과 구역을 공유한다. 이 외에 적석분구계로서 무단석광적석묘는 대개석묘계와 구역을 공유하는데 이들은 비록 석관이 라는 공통 분모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상의 분구나 장속에서 정형성을 보이지 않으며 유사 속성의 무덤끼리 무덤구역을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무덤의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집단의 크기가 소규모였고 무덤 형식을 공유한 주민 간의 결속 역시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상 만발발자 유적의 무덤 자료는 크게 4단계의 변화상을 보이는데 먼저 토광묘에서 석관묘와 대개석묘로 변화하고, 그다음 대개석묘 단계에서 길림지역 서단산문화 요소가 결합된다. 이어 기원전 3세기 말을 경유하면서 변소 전통의 선택적 결합, 마지막으로 부여의 토기와 한계 부장품이 순차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즉, 이러한 단계적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무덤 구조나 장속, 부장품에서 정형성을 갖춘 무덤으로 통합되지 못한 점에서 유적의 주민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앞 장의 결론부에서 제시된 압록강 중상류 일대 적석총 집단과의 관련성을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구려 초기 적석총은 어느 특정한 무덤 형식에서 연원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현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보다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두 글 모두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 문제는 요남지역의 그것과 별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만은 공통된 시각을 보인다. 그렇다면 만발발자 유적의 적석묘제는 어떠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지 그 대안도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요남지역 청동기시대 적석묘의 가장 큰 특징은 묘실을 지상에 설치하는 지상무덤이라는 점과 실내 화장품습이 보편화되면서 집단묘의 성격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것은 묘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반면 만발발자 유적의 대개석묘와 같은 부류는 지하식 무덤이며 본계와 환인 등지의 요동 북부와 요원과 동풍 등 길림 서남부 일대에서 기원전 9세기부터 등장하여 기원전 2세기 무렵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만발발자 유적 외에 대개석묘와 대석개적석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본계 산용유적과 환인 풍가보자 유적 등이 있으며, 신빈 용두산 유적의 경우 묘실이 토광 형태인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규모의 적석시설이 부가된 점에서

만발발자 유적의 여러 형식과 비교된다. 이 외에 요원 고고촌 유적과 동풍 조추구 유적 등에서는 실내 화장과 함께 다인 다차장으로 매장된 집단묘적 성격의 대석개묘 다수가 조사되었다.

지상형 무덤으로서의 독특한 사후관과 번소적 특징, 그리고 집단묘제로서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풍조는 분명 고구려의 초기 적석총에서도 찾아지는 특징이기에 요남지역으로부터의 영향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요북과 길림 서남부지역의 대석개묘 전통 속에도 적석무지와 번소 및 집단매장 방식이 적용되는 점에서, 오히려 만발발자 유적, 산용 유적 등의 대개석적석묘와 무단석광적석묘 등은 이 지역 대석개묘적 전통에 근접하여 보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 그 이면에 숨겨진 초기 고구려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이해된다.

IV. 맺음말-몇 가지 단상(斷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의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논고를 돌아보면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자료 부족의 한계를 깊이 느끼게 한다.

특히 필자들도 공감한 유적 내 대개석묘와 대개석적석묘의 문화적 상관성의 규명을 위해 적석묘제와 대개석묘의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좀 더 의미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와 관련된 성과와 자료 소개는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 이 지역의 대개석묘의 발전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들 대개석묘라는 무덤의 명확한 개념 정의도 필요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대석개묘, 개석묘, 석개묘, 개석식 지석묘 등이다. 아울러 이들 석축묘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징을 가진다.

㉔ 대부분 지하에 석축 형태의 매장 주체부를 조성하는데 일부 토광 자체를 묘실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㉕ 묘광 상단부는 커다란 석재를 덮개로 삼았으며 1매인 경우와 2~3매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㉖ 묘광 주변의 적석을 넓게 시설한 것과 묘광의 한 면이나 두 면만 보축한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대개석묘는 요동과 길림, 서북한을 비롯하여 한반도 남부 각지에서 그 시간성을 달리하며 1,000여 년 이상의 공존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광범위한 시공간역의 대개석묘류를 모두 동일한 집단이 남긴 유산이거나 상호 문화적 계승관계를 논하는 것 자체는 그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만약 인접한 공간역에서 유사한 문화상을 보이는 지역별 묘제들의 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개별 집단들의 계기적 발전 과정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접근 방식 역시 요동반도 남부지역에서 대략 2,000여 년 동안 독자적 전통을 유지해온 청동기시대 적석묘의 문화적 연속성을 인정하는 부분과도 연동되고 있다. 이는 요서지역 신석기시대 후기의 적석총 문화나 고구려 전성기의 적석총과는 별개의 문화기반 속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는 시각과도 맞닿아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전역에 분포한 석관묘와 수만여 기의 지석묘를 모두 동일한 집단이 남긴 소산으로 보는 연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의 개별 공간역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속에서 해당 묘제의 출현과 변화상을 파악하고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의 비교를 통해 주변지역 석묘 전통과의 관계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유사한 묘제와 문화 양상을 보이는 서로 인접한 공간역의 주민들은 상호 간에 혈연적으로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 요소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원인 속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존재했던 집단들 간에 유사한 묘제적 전통이 공유되기도 한다. 예컨대 종교나 신앙적 측면에서의 교류와 확산은 반드시

시 대규모 인구집단의 이주나 혈연적 결합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신앙적 공감대의 확장성은 자연스럽게 당시의 생계 수단과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덤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생존을 위한 생계와 신앙적 활동이 결국 사후 세계로까지 확장된다는 추정도 가능케 한다. 대형 석재의 마련과 이동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반드시 그러한 묘제적 전통을 유지하고자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를 당시의 신앙관과 연관된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특한 묘제적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묘제로 전환될 시에는 해당 사회의 기본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고조선 사회의 해체 과정 중에는 그 구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원초적 신앙관 역시 그의 영험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결국 보다 영험한 신격에 의지하고자 했던 생존 본능이 작동되어 숭배 대상의 전이와 함께 새로운 묘제가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만발발자 유적의 경우 그러한 신격의 전이가 고조선 사회가 해체되는 시대적 정황과도 맞물려 있음에 주목된다.

고구려의 묘제가 무단석광적석묘에서 기단식적석총으로 변화되는 양상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만발발자 유적의 사례와 같이 대개석묘에서 대개석적석묘로의 과도기를 거쳐 계기적 발전상에 놓여 있는지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결국 적석묘제의 발전상을 탐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개석묘를 비롯한 유사한 성격의 묘제들과 종합적인 비교가 이루어졌을 때 보다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나름의 서평을 마무리하며 앞부분부터 차근히 되짚어보았다. 이 책의 집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필자들의 의도와 달리, 평자로서의 견해가 그 논지에 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서다. 그래도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을 위해서는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행간의 의미가 구체화된다면 보다 역사적 층위를 촘촘히 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참고문헌

단행본

- 백종오, 2018, 『요하 유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 지식산업사.
- 오대양, 2020, 『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 모제와 고조선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조법중, 2006,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 지병목, 2005, 「高句麗 成立期の 考古學的 背景」, 『고구려의 국가 형성』, 동북아역사재단.
- 하문식, 2016, 『고조선 사람들이 잠든 무덤』, 주류성.

- 國家文物局, 2000,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 國家文物局 主編, 2001,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協公室,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 『田野考古集粹』, 北京: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 『通化市文物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1991, 『吉林省志』 43(文物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金旭東·安文榮·王志敏, 2001, 「高句麗早期遺存及起源 -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發掘」, 『1999年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北京: 文物出版社.

논문

- 강인욱, 2021,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 『동북아역사논총』 71.
- 강현숙, 2021, 「만발발자 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동북아역사논총』 71.

- 김상민, 2021, 「통화 만발발자 유적 철기를 통해 본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상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71.
- 김성철, 2009, 「만발발자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 김성환,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 박선미, 2018, 「고조선의 정체성 탐색을 위한 초론-중국이라는 타자의 눈에 비친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 『동북아역사논총』 62.
- _____, 2021,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 관계 탐색 길림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19.
- 박찬홍, 2011, 「고조선·부여·고구려의 역사적 계승관계 연구」, 『사총』 74.
- 송호정, 2007, 「고조선·고구려의 역사구속성 논란에 대한 하나의 제안-조법종의 『고조선 고구려사연구』(신서원)를 읽고-」, 『한국고대사연구』 47.
- 양시은, 2021,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동북아역사논총』 71.
- 오강원, 2004,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文化의 形成 過程」, 『北方史論叢』 1.
- 오대양, 2016, 「대련지역 초기적석총유적의 현황과 특징」, 『백산학보』 115.
- _____, 2019,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전개양상 검토」, 『백산학보』 115.
- 王綿厚, 2001, 「通化 萬發撥子 遺址에 관한 考古學的 觀察」, 『高句麗研究』 12.
- 이종수, 2020,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 - 通化 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報告」, 『아외고고학』 37.
- _____, 2021, 「통화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71.
- 이후석, 2021, 「혼강유역 세형동검문화의 특징과 네트워크의 변천」, 『고고학』 20-1.
- 조법중, 2005,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3.
- 지건길, 1997, 「청동기시대의 유적: 무덤」,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 하문식, 2009, 「고조선 시기의 장제와 껌문거리 연구」, 『白山學報』 83.
- _____, 2010, 「渾江 유역의 적석형 고인돌 연구」, 『先史와 古代』 32.
- _____, 2014, 「中國 遼北지역 고인돌의 성격」, 『先史와 古代』 40.
- _____, 2019,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①: 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 『백산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학보』115.

_____, 2020a,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②: 신빈지역 동굴무덤의 신자료」, 『선사와 고대』 63.

_____, 2020b,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③: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 『東洋學』 81.

賈瑩·朱泓·金旭東·趙殿坤, 2006, 「通化萬發撥子墓葬顛骨人种的類型」, 『社會科學戰線』 2.

康家興, 1956, 「渾江中游의 考古調査」, 『考古通訊』 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1997, 「通化市王八脖子遺址及附近幾處地占의 調査與發掘」, 『博物館研究』 2.

_____, 2003, 「吉林通化市萬發撥子遺址二十一號墓의 發掘」, 『考古』 8.

金旭東, 1991, 「1987年吉林東豐南部盖石墓調査與清理」, 『遼海文物學刊』 2.

王貴玉·王珺·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跡群所在地當即調卒本夫餘初居地」, 『東北史地』 6.

王綿厚, 2001, 「通化萬發撥子遺址의 考古與民族學觀察」, 『北方文物』 3.

李新全, 2008, 「高句麗早期遺存及其起源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_____, 2009, 「遼東地區積石墓의 演變」, 『東北史地』 1.

湯卓煒·金旭東·楊立新, 2004, 「吉林通化市萬發撥子遺址地學環境考古研究」, 『邊疆考古研究』 2.

通化市文管會協公室, 2006, 「通化江沿遺跡群調査」, 『東北史地』 6.

吳華·志新, 1988, 「通化萬發撥子遺址復查報告」, 『博物館研究』 3.

기타 자료

金旭東·安文榮·楊立新, 「探索高句麗早期遺存及通起源」, 『中國文物報』, 2000. 3.19.

7~8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구도와 그 변화 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古代東アジア國際關係の
變化と再編—』(植田喜兵成智 著, 山川出版社, 2022)

안정준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주요 내용
- III. 총평과 과제
- IV. 맺음말



I. 머리말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植田喜兵成智) 교수(이하 우에다 교수)는 1986년생으로 일본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에서 동양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학습원대학(学習院大学) 동양문화연구소(東洋文化研究所)에 재직 중인 소장 학자이다. 그는 2015년에 일본 평화중도재단(平和中島財團)의 일본인 유학생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17년까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방문학생 자격으로 온 적이 있다. 한국어가 유창하였기에 국내의 고대사 연구자들과 많이 교류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들도 폭넓게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이 시기에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중국소재 한국고대금석문반’을 결성하여 여러 연구자와 함께 고구려·백제 유민일족의 묘지들을 역주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때 우에다 교수가 연구반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필자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가 우에다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 학계의 당대(唐代) 묘지 연구 동향을 자세히 소개받았던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우에다 교수는 연구 활동 이외에도 한국 문화와 음식·풍속 등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보였고, 여러 동년배 연구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한국인들의 정서와 사회상에 대해 많은 것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202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한국 연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가운데 일본에서 출간된 새로운 논저와 학계의 소식 등을 전달하는 등, 한일 학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우에다 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이하 본서)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본서에는 7~8세기에 벌어진 백제·고구려의 멸망과 당의 웅진도독부·안동도호부 설치, 그리고 나당전쟁 발발, 발해의 건국 등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급격한 정세 변화 과정을 어떤 구

도 속에서 바라볼 것인지, 또한 그 변화의 중요한 동인(動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저자의 오랜 고민이 담겨 있다. 또한 당대의 고구려·백제 유민 묘지 자료에 대한 치밀한 사료 분석을 통해 이를 사료로서 적극 활용한 하나의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온 한국 연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평소 연구해온 시대 범위가 본서의 범위와 크게 겹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서평을 쓸 만한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필자가 예전에 당대 고구려·백제 묘지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쓴 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에다 교수와 비슷한 연배로서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이 본서에 대한 비평을 권유받은 계기라고 생각된다. 능력에 부치는 면이 있지만 필자가 이해한 바에 입각하여 본서의 의도와 내용, 그리고 향후 보완했으면 하는 점 등에 대해 기탄없이 적어보겠다.

II. 주요 내용

본서는 서장(序章)과 종장(終章)을 제외하면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의 의도를 혹시라도 곡해(曲解)할까 하여 아래의 장 제목은 일본어 그대로 소개한다.

- 序章 新羅の国家統合過程に関する問題点と新たな視点
- 第1章 唐人郭行節墓誌からみえる六七一年の新羅征討軍
- 第2章 羅唐戦争終結期の新羅の対唐意識
- 第3章 黒齒常之・俊親子の事績とその墓誌の制作背景
- 第4章 在唐百濟遺民の存在様態と熊津都督府の建安移転
- 第5章 在唐高句麗遺民の存在様態
- 第6章 武周・開元期の王権と百濟・高句麗遺民

본서의 내용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만큼 본문 내용을 장별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뒤 비평을 하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당에서 함형(咸亨) 2년(671)에 계림도판관(雞林道判官) 겸 지자영관(知子營管)으로서 요천(遼川)에서 임무 수행 중에 사망한 무관(武官) 곽행절(郭行節)이라는 인물의 모지를 집중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삼국사기』 문무왕 11년 7월 26일조에 보이는 671년 당의 신라정토군(新羅征討軍)에 대한 기록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요동반도를 경유하여 한반도로 향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유민군의 토벌이라는 임무도 함께 수행했음을 논증했다.

또한 671년 신라정토군의 존재와 더불어 그 임무와 행군로를 살폈고, 전황을 검토한 결과 백제 고지의 확보 여부와 이 지역의 백제 유민의 동향이 나당전쟁의 추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나당전쟁의 국면에서 소홀히 해왔던 고구려·백제 유민의 비중과 역할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장에서는 『삼국사기』의 나당전쟁 관련 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사료의 원형과 가치를 밝히고자 했다. 『삼국사기』의 나당전쟁 관련 기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전후에 신라인들에 의해 취합·정리된 정보, 예컨대 『김유신행록(金庾信行錄)』, 신라 제장(諸將)의 군공(軍功)기록 등 다수의 군사 기록을 근거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중에는 신라본기 문무왕 15년조와 같이 중국 측 사료[『자치통감』 권202 당기 상원2(675)년 2월조]를 인용해 넣은 기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후대에 『삼국사기』 편찬자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문무왕 15년조는 신라 측 시각에 입각한 독자기사의 문맥 속에 중국 측의 시각이 혼재되어 있어서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중국 측의 인용기사를 제외한 가운데,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열전 등에 나오는 지방 성주들의 전사와 분전(奮戰)을 기록한 기사들을 통해 원래 기사 형태를 복원

해보았다. 그 결과, 서전인 칠중성(七重城)·석현성(石峴城) 등 한강·임진강 부근에서의 전투에서 신라군이 열세에 처하기도 했으나, 9월 천성(泉城)·매소성(買肖城)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중국에는 당군에 승리했다는 내용의 서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복원된 기사를 통해 살펴본 신라 측의 관점에는 당에 대한 강한 대립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3장에서는 백제 유민인 흑치상지(黑齒常之)와 아들 흑치준(黑齒俊)의 묘지가 제작된 정치적 배경에 대해 주목했다. 기존에 이들 부자의 묘지에 기록된 내용은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다. 예컨대 백제에서 흑치씨 가문의 분봉과 관력 등의 내용을 복원함으로써 백제사회의 실상에 접근하는 유용한 자료로도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자의 묘지를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들인 흑치준이 당에서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을 먼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 당시 당 조정에서 실권을 쥐고 있던 무삼사(武三思)와의 정치적 결탁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만세통천(萬歲通天) 원년(696) 무삼사가 관도안무대사(關道安撫大使)로서 추진했던 대외원정에 참여해 공을 세웠고, 연재(延載) 원년(694)에는 무삼사가 측천무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천추(天樞)의 기둥 건설을 상주하기도 했다. 그리고 689년의 모반 혐의로 처형당했던 흑치상지의 복권(復權)이 이루어진 것 역시 흑치준의 정치적 노력과 무삼사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때 복권된 후 작성되었을 흑치상지의 묘지 내용은 당시 흑치씨 가문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흑치상지의 입당(入唐) 과정과 관련하여 묘지에는 (열전에 기술된) 입존성에서의 당에 대한 저항 전력이 기술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또 흑치상지의 묘지에서 증조부의 이름이 당인풍(唐人風)인 덕현(德顯)으로 표현되는 등, 부친과 가문의 이미지를 한식(漢式)으로 윤색한 정황이 보인다. 이처럼 흑치상지의 묘지에 전략적 기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고구려·백제 유민의 묘지 역시 해당 묘주의 출사나 묘지가 작성됐을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면밀히 감안한 가운데 취신해야 하며, 온전히 유민이라는 속성에만 주목하여 고구려·백제의 사회상을 접근하는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4장에서는 재당(在唐) 백제 유민의 존재 양태와 웅진도독부의 건안(建安) 이전 배경을 살폈다. 660년 이후 단계적으로 입당한 1만 2,000명 이상의 백제 유민은 당 내지로 옮겨졌는데, 『자치통감』과 기타 유민 묘지들을 통해 이들이 서주(徐州)·연주(兗州), 그리고 676년 이전된 건안의 웅진도독부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으로 사민(徙民)된 기록들이 나타난다. 문헌 및 묘지 등의 출토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재당 백제유민의 책임관직은 부여융(扶餘隆) 등의 일부 왕족을 제외하면 대체로 무관직이 다수이며, 이들은 실제로 토변이나 돌궐과의 국경 혹은 기타 분쟁지에 군사적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당이 백제 출신 무관들을 이용해 내지의 백제 유민들을 군사적으로 동원한 것과 관련된 사례도 보인다. 경룡(景龍) 2년(708) 6월 서·연주 등 49주에 파견되어 존무(存撫)를 행했던 예소사(祿素士)의 경우 그 지역의 백제 유민에 대한 민정 시찰의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백제 유민 출신의 무관과 이들에 의해 동원된 백제 유민 집단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이 676년 웅진도독부를 건안으로 이전한 배경과 관련해서도 함께 이전된 백제 유민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중시하고 있다. 당시 신라와 당은 나당 전쟁 이래로 소원한 관계였으며, 당은 건안으로 웅진도독부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라의 백제고지 영유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적대세력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건안의 웅진도독부에는 사민된 백제 유민 집단이 있었고 이들은 일정한 군사적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당이 신라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의도와 관련 있다고 파악했다.

5장에서는 재당 고구려 유민의 존재양태와 당 사회로의 점진적인 ‘동화(同化)’ 과정(당인화 내지 현지화)을 살폈다. 이 장에서는 고구려 유민으로 ① 고구려에서 출생했던 자, ② 고구려에서 관직(작)을 받았던 자, 그리고 ①과 ②에 해당하는 인물의 후손인 자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판정된 총 26점의 고구려

유민 묘지와 각종 문헌 사료에 나오는 유민 관련 기록을 종합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구려 유민의 활동은 대략 640년경부터 770년경까지 나타나며,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당 내지로 사민된 고구려 유민들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점차 당 사회로 ‘동화’되었는데, 이를 묘지의 가계(家系) 기술과 유민 가문의 통혼(通婚) 양상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묘지에 보이는 가문의 선대에 대한 기술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고요묘묘지」·「고현묘지」·「고모묘지」·「고제석묘지」·「고을덕묘지」처럼 가문이 고구려에서 출자했음을 분명하게 제시한 ‘원초형(原初型)’, 그리고 「고족유묘지」·「고질묘지」와 같이 고구려의 시조신화를 기술하면서도 여기에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기반으로 한 기원의식을 드러내기도 한 ‘은인(殷人)·기자형(箕子型)’, 「고목로묘지」·「고덕묘지」·「고흠덕묘지」·「고진묘지」·「고씨부인묘지」처럼 한족 명문인 발해고씨(渤海高氏)와 같은 본관을 칭한 가운데 고구려 출자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발해고씨형(渤海高氏型)’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묘지의 본관과 자기 가문의 선대에 대한 각종 기술을 보면 고씨의 경우 초기에는 ‘원초형’에 해당하는 묘지들이 다수 보이나, 2~3세대로 가면서 한인 계보인 ‘발해고씨형’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연개소문 가문인 천씨(泉氏)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고구려에서 형성된 가문의 독자적인 시조전승을 내세우기도 하나, 천남생의 증손자인 천비(泉悲) 무렵에는 가문의 시조전설에 대한 기록은 없어지고, 자신의 본관을 경조(京兆)라 칭하는 등 고구려적 요소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고구려 유민 가문의 묘지에 보이는 계보의식을 추적해보면 이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고유성을 상실한 가운데 당 사회에 ‘동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고구려 유민의 통혼 사례를 ‘동화’의 또 다른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묘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고구려 유민 가문 간의 통혼이 분명한 것은 ‘고제석과 천씨(泉氏)의 혼인’, ‘천현은과 고씨(高氏)의 혼인’ 두 사례뿐이다. 하지만 이은지·고흠덕·이회·왕경요의 부인들도 고흠덕의 후처(後妻)로 보이는 하

남정씨(河南程氏)를 제외하면 모두 고구려 유민 가문에서 나타나는 유씨(劉氏)·왕씨(王氏)·고씨(高氏)·이씨(李氏)의 성씨를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이들도 고구려 유민 가문끼리의 혼인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구려 유민 간의 통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략 700년경까지이며, 그 이후에 성인이 된 입당 3세대 이후의 사례들을 보면 고구려 유민 가문끼리 혼인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천비의 한 사례뿐이다. 이처럼 700년경까지는 고구려 유민 사이에 주로 통혼권이 형성되었다가, 입당 3세대가 성인이 되는 720년경에 이르러 유민 간의 통혼권이 분해되고 주로 한인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는 양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고구려 유민들의 당 사회로의 ‘동화’ 과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라고 보았다.

한편 이미 알려져 있듯이 재당 고구려 유민은 당에 의해 군사적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했는데, 668년부터 677년 사이에는 고구려고지의 반란 진압에 동원되었으며, 이후 돌궐(천현성·고현)·거란(고질·고자·고원망·고흠덕)·토번(두선부·남단덕·고선지)의 전역에도 다수 동원되었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 출신의 번장들은 ‘성방(城傍)’, ‘단결병(團結兵)’ 등으로 불리며 당 내지와 변경 각지에서 집단적으로 사민된 고구려 유민들을 군사적으로 통솔하기도 했다.

이후 7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궁중의 정변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크게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710년경 왕모중·고선지·왕사례·고목로 등의 인물이 현종(玄宗)의 권력 장악을 가능케 한 위후(韋后) 세력 숙청에 참여한 기록이 보인다. 이들이 궁정 정변에 관련한 배경은 일찍이 고구려 유민 1~2세대가 금위(禁衛) 무관으로 임용된 이래 중앙의 위사(衛士)로 채용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고구려 유민은 당의 각지로 사민된 이후 거의 100여 년의 기간 동안 군사적·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면서 점진적으로 당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대략 700년경을 전후한 시기부터 활용되는 방식과 ‘동화’의 정도에 일정한 전환점이 나타난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6장에서는 무주기(武周期)나 개원(開元)연간에 활동한 백제·고구려 유민에

주목한다. 고구려 유민의 경우 대략 700~71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기존에 활동이 두드러졌던 왕족과 천씨(泉氏) 유민들에 대한 기록이 줄고, 이인덕·왕경요·고덕·이회 등 위황후 숙청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부각된 인물들, 그리고 두선부·고원망·고흠덕·남단덕·고선지 등 변경 전쟁에서 새롭게 출세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한편 개원 13년(725)의 태산봉선(泰山封禪)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옛 왕족으로 보이는 인물이 각각 ‘백제대방왕’과 ‘고려조선왕’이라는 내신(內臣)의 역할을 부여받아 참석했던 사실에 주목했다. 그들의 참석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무주기부터 개원기까지 장안·낙양에 살았던 백제·고구려의 옛 왕가와 유력 가문의 동향, 그리고 이들과 중앙 조정의 관계를 문헌과 묘지를 통해 검토했다.

여기서는 먼저 당 조정이 백제·고구려 왕족을 책봉한 행위를 주목한다. 예컨대 의봉(儀鳳) 2년(677)에 백제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용이 웅진도독·대방군왕으로 봉해졌고, 고구려의 고장(보장왕)도 요동도독·조선군왕으로 봉해졌다. 이것은 당이 나당전쟁 이후에도 신라의 백제고지·고구려고지의 영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고장의 손자 고보원(高寶元)이 수공(垂拱) 2년(686)에 조선군왕으로, 성력(聖曆) 원년(698)에 충성국왕(忠誠國王)으로 봉해진 것 역시 발해의 건국에 대응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명목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신라·발해에 대한 현실적인 견제 의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원 13년(725)에 현종이 행했던 태산에서의 봉선의식 역시 단순한 주술적 성격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외교 행위였다. 여기에 ‘조헌지국(朝獻之國)’으로서 신라와 발해의 사신이 참석했을 당시, ‘내신지번(內臣之番)’인 고구려왕의 후손(조선군왕)과 백제왕의 후손(대방군왕)이 참석했던 것은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신라와 발해에 대한 당의 견제 의도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당은 끊임없이 고구려·백제 유민을 포함한 내외의 이민족을 자기 질서 내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정책하에서 당

조정과 결합 및 ‘동화’되어 간 유민들은 결과적으로 당의 신라·발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파악했다.

7장에서는 신라가 당과의 전쟁 기간인 670년에 안승(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고 금마저(金馬渚: 현재의 전라북도 익산시)에 고구려 유민들의 국가를 세우게 한 일을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고구려국의 건국 과정과 674년 보덕국(報德國)으로의 국호 변경, 그리고 683년의 소멸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신라의 대당정책과 국내통치의 양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살피고자 했다.

나당전쟁 당시에 당은 고구려·백제 유민을 한반도에서의 세력 확대와 자국의 국제적 권위를 부여하는 데 활용해왔다. 또 신라 역시 당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 유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고구려 유민(부흥군)을 지원하는 신라, 그리고 고구려 유민(부흥군)과 신라를 동시에 정토하려는 당 사이의 대립 구도하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7월 26일조에 수록된 설인귀(薛仁貴)와 문무왕 사이의 서장(書狀)은 당시 양자의 입장 대립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설인귀는 서장에서 문무왕의 행위를 선왕인 무열왕과 대조하며 비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670년에 신라가 웅진도독부 지역으로 진공했던 것, 또 왕로서 부적격한 안승을 함부로 ‘고구려국’의 왕으로 앉힌 일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에 문무왕은 답서에서 백제고지에 대한 진공은 신라 정토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행위를 추진한 웅진도독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고구려 유민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도리어 자신들은 고구려 유민을 진압하려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 유민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당측과 굳이 쟁점화하려 하지 않았던 신라의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서, 이 문제가 양국 모두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670년부터 680년까지 이어진 신라의 고구려국(안승)에 대한 처우 역시 대당(對唐) 관계와 연관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책서(冊書)·교서(敎書)·표문(表文) 등을 통해 살펴본 신라왕과 고구려왕 안승과의 명분 관계는 당초에 명분상으로는 대등한 면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신라가 우위에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신라는 당에 대한 배려도 지속하여 ‘제후’로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676년에 신라와 당의 전쟁이 종결되었고, 고구려국 역시 당초의 한성(漢城)이 아닌, 금마저로 배치되면서 기존의 세력을 크게 상실했다. 이에 따라 신라의 고구려국에 대한 태도는 크게 전환되었다. 특히 680년에 신라가 안승을 신라 왕족 여성과 혼인시킨 시점에서 양자의 명분적 상하관계는 명료해졌다. 신라왕은 안승에게 교서를 내렸고, 안승도 칭신하며 상표문(上表文)을 받드는 등 군신관계가 성립했다. 이후 신라는 안승에게 소판(蘇判) 관등과 왕성(王姓)인 김씨(金氏)를 주어 왕경에 살게 하고 골품제에 편입시켰다. 즉, 고구려국(보덕국)의 국왕인 안승을 완전히 국내의 통치 질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유민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당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했던 것이다.

Ⅲ. 총평과 과제

7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당은 돌궐과 고창국을 제압하며 동아시아 최대의 국가가 되었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항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때 열세에 있던 신라가 당에 외교적으로 접근하여 군사적 원조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렇게 결성된 나당 연합군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다. 백제 멸망 후 나당연합군은 663년에 백강(백촌강)에서 백제·왜 연합군을 물리쳤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등 그 동맹 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나 670년에는 나당 관계가 파탄이 났으며, 신라는 발 빠르게 고구려 유민의 반당 저항운동을 원조하거나 웅진도독부가 관리했던 백제 고지에 침입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군사 행동을 전개해나갔다. 이에 당이 신라정토군을 파견하면서 본격화된 나당전쟁에서 중국에는 신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옛 백제 땅과 고구려 일부 지역을 확보한 가운데 전쟁이 종료되었다.

저자가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 나당전쟁의 발발과 그 이후의 동아시아사 전개에 대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7세기 후반에 크게 변화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신라와 당의 대립 구도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백제·고구려의 멸망으로 발생한 유민 집단의 동향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주목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칭해왔던 한반도에서의 국가통합 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다시 파악해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를 연구할 때 당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사료의 부족과 신빙성 논란이다. 특히 『신·구당서』 및 『자치통감』 등 중국 측 정사 자료와 『삼국사기』 등 한국 측 사료 간의 내용 차이에 대한 면밀한 사료 비판과 더불어, 새롭게 발견된 묘지 사료들을 보완자료로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왕에도 당대의 고구려·백제 유민 묘지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다. 묘지에 기록된 가문의 기원과 내력(官歷 등)에 대한 기술, 멸망 과정에 대한 언급 등은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본국의 정치·사회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였다. 또한 본국의 멸망을 전후로 당에 유입된 유민 1세대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묘지가 여럿 발견되면서 고구려·백제계 가문과 그 일원들이 당 사회에 점진적으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일부 유형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본국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유민 1세대의 경우 당의 조정에서 자기 가문의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했으며, 이민족 출신으로서 받은 대우와 이에 따른 생존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후(死後)에 세대를 내려가면서 후손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묘지에 기술된 가문의 기원과 내력 서술의 변화상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유민 제2세대 이후에 대해서는 특정 가문의 가계 전승에 대한 검토 및 묘지 기술의 정치·사회적 의도 등에 대한 일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당대의 이민족 정책에 대한 거시적 관점, 즉 당의 고구려·백제 유민에 대한 장기적

인 처우와 활용 방식 등을 통해 접근한 연구는 부족했다.

우에다 교수는 본서에서 고구려·백제 유민, 혹은 그 후손의 묘지 자료들을 이들의 당 사회에서의 활동과 변화 과정을 살피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적으로만 소개되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무주기·개원기에 이르는 8세기 당시의 유민 묘지까지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고구려·백제 유민이 당의 일관된 정책하에 점진적으로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시기별로 유형화하는 가운데 그 전환의 시점과 계기를 찾고자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주목하기도 했다. 첫째, 당대 묘지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 문헌자료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예컨대 1장에서 당의 무관인 광행절의 묘지를 통해 함형 2년(671)에 당의 신라정토군의 존재와 그 임무와 행군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묘지를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당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689년에 모반 혐의로 처형당했던 백제 유민 흑치상지의 묘지가 만들어진 정치적 배경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그의 아들인 흑치준이 당조정의 실권자였던 무삼사(武三思)와의 정치적 결합을 통해 부친의 복권을 이뤄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기술되었을 흑치상지의 묘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광범위한 시간과 지역적 범위에 걸쳐서 고구려·백제 유민 관련 기록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서에서는 640년경부터 770년경에 이르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가운데, 고구려·백제 유민의 묘지와 관련 문헌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또 묘지에 나타난 가계 기술의 유형과 통혼 관계를 분석했다. 또 본서에는 비교적 많은 지도와 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문헌사료에 나와 있는 나당전쟁 관련 기사 이외에도 다수의 묘지 기록에 보이는 재당 고구려·백제 유민의 관력과 활동상 등이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긴 세월 동안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과 경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본서는 7~8세기에 걸친 100여 년 이상의 재당 고구려·백제 유민의 동향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고구려·백제의 멸망과 그로 인한 동아시아 세계의 지각변동,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로 지칭되는 한반도의 역사적 변동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우에다 교수의 저서는 좀처럼 넓은 시기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를 꺼리는 최근 국내의 연구 경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7장에 이르는 여러 소주제를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엮는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설정도 보인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재당 고구려·백제 유민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과 이에 대한 논증들을 신라의 ‘삼국통일’, 즉 신라의 한반도에서의 세력 확대 및 중대왕권의 확립이라는 관점으로 묶어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예컨대 당에 의해 웅진도독부의 건안 이전 시 함께 옮겨진 백제 유민이나, 개원 연간에 현종이 행했던 태산봉선 의식에 참여한 고구려·백제의 왕족 등이 당의 대(對)신라 정책과 정치·군사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7세기 후반의 나당전쟁이 한반도와 옛 고구려 영역에서 진행된 혼란과 이를 자국 중심으로 수습하려는 양국의 거시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더 나아가 발해의 성립과 8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일부 고구려·백제의 유민(遺民) 동향과 관련해 엿볼 수 있다는 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당이 정관연간(貞觀年間)과 총장연간(總章年間), 그리고 의봉연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당 내지로 유민을 사민을 시킨 것과 이들이 안동도호부·웅진도독부를 비롯한 강남(江南)·회남(淮南)·산남(山南)·병주(并州)·양서(涼西)·농우(隴右)·하남(河南)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주된 것, 그리고 당이 유민들을 8세기까지 군사적·정치적 용도로 활용한 양상 등을 한반도에서의 전역 및 신라와의 대립 관계와 일관되게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7~8세기의 재당 고구려·백제 유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현상을 다루면서 굳이 나당전쟁과 삼국통일이라는 ‘한정된’ 틀을 서장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재당 고구려·백제 유민의 변동상을 당으로의 ‘동화’라는 관점으로 단순화해서 바라본 점이다. 우에다 교수는 7~8세기에 걸친 100여 년 이상의 재당 고구려·백제 유민의 다양한 동향과 특성을 살피면서 이를 당 사회로의 ‘동화’라는 결론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동화’라는 것은 곧 고구려·백제인으로서의 고유성(혹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당인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점진적인 변화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주로 묘지에 기록된 가계 의식 변화와 출신지 표기, 그리고 통혼 대상의 변화이다.

우선 고구려·백제 유민 일족의 묘지에서 세대를 내려갈수록 가계 기술에서 본국과 관련된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변화의 배경을 고유성(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동화’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당대 묘지의 가계 기술은 묘주의 정체성 등 자의식을 드러낸 자료라기보다는, 묘주 일족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외부의 시선을 고려해 전략적·선택적으로 기술된 공적 기록이라는 측면이 주목되고 있다.¹

예컨대 본서에서는 고씨 유민의 묘지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고구려 왕성인 고씨에 기원을 두었음에도, 한족 명문인 발해 고씨라고 칭한 사례들을 주목하면서 고씨의 계보의식이 점차 당에서 현지화·동화되어간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설령 2~3세대의 묘지명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체성(고유성)이 상실된 결과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엔가 고구려에서의 경력과 지위라는 것이 당 사회에서 갖는 이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일종의 ‘전략적 선택’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고구려·백제 유민의 경우에도 각 가문마다 묘주 혹은 그 선조가 본국에서 누렸던 정치적 지위의 고하나 당으로의 귀의(歸依) 방식(시기) 차이, 당에서 담당했던 직무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가계 기술이나 출신지 표기를 전

1 李成制, 2014,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75, 162~165쪽.

략적으로 다르게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각 유형별로 어떤 방식을 선호했는지, 그것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 ‘동화’라는 현상의 주요 근거로서 묘지의 가계 기술에 주목한 것은 당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서에서 ‘동화’의 또 다른 근거로서 고구려 유민 가문의 혼인 관계에 주목한 것 역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본서에서는 이은지·고흠덕·이회·왕경요의 집안과 혼인했다고 기록된 유씨·태원왕씨(太原王氏)·고씨(高氏)·이씨(李氏) 등을 고구려 유민 가문으로 추정하고, 이를 곧 고구려 유민 가문끼리의 혼인 사례로 파악했다. 그런데 입당 3세대 이후의 사례를 찾아보면 고구려 유민 가문끼리 혼인한 것은 천비의 한 사례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720년경에 이르러 고구려 유민 사이의 통혼은 거의 사라지고 당인 가문과의 혼인이 일반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당에 사민된 고구려 유민들의 고유성과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700년경 이후에 점차 사라지면서 당에 ‘동화’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700년경 이전에 고구려 유민과 혼인을 맺었다고 하는 유씨·태원왕씨·고씨·이씨 등을 고구려 유민으로 확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성씨는 고구려 유민 가문 중에도 있지만, 당 내의 한족 가문들 가운데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구려 유민들 가운데 서로 통혼 관계를 맺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고제석이 천씨와 혼인한 것, 그리고 2세대인 천현은이 고장(보장왕)의 딸인 고씨와 혼인한 사례 정도이다. 그리고 설령 본서에서 제시한 고구려 유민 가문 간의 혼인 사례를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700년경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5~6명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분명한 수치적 근거를 확보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당 내에서 고구려 유민들 간의 혼인이 유민들의 정체성 유지와 서로 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것인지, 혹은 폐쇄적인 당 사회 내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증된 것이 없다는 것도 문

제이다. 또 그와 비슷한 혼인 양상이 당에 사민된 백제 유민이나 돌궐·거란과 같은 다른 이민족 가문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구려·백제 유민의 묘지에 보이는 출자 관련 서술의 유형 분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본서에서는 고구려 유민의 묘지에 보이는 가문의 기원에 대한 기술을 통해 ‘원초형’ → ‘은인·기자형’ → ‘발해고씨형’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순서로 변화해가는 양상을 보면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중국을 기원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여러 묘지에 보이는 다양한 가계 기술을 유형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상을 살피기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생각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문학적 수사가 가득한 묘지의 의도를 곡해할 우려도 있다. 예컨대 본서에서는 「고족유묘지」·「고질묘지」와 같이 고구려의 시조신화를 기술하면서도 기자동래설을 기반으로 한 기원 의식을 함께 드러냈다고 본 사례들을 ‘은인·기자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는 고구려 기원만 기술한 ‘원초형’에 중국 기원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형태로 파악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은인·기자형’으로 분류된 「고질묘지」와는 달리 그의 아들인 고자의 묘지에는 고구려 시조신화의 내용은 있는 반면 기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인·기자형’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고자는 만세통천 2년(697) 5월에 마미성(磨米城)에서 부친인 고질과 함께 죽음을 맞았으며, 부자는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곳에 묻혔고, 심지어 공동의 묘지 찬자(韋承慶)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그리고 분명 「고자묘지」에도 기자라는 인명이 없을 뿐 “地蘊三韓 人承八教”와 같이 기자동래설과 관련된 문구(八教)가 있다. 그렇다면 「고자묘지」를 ‘은인·기자형’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閔庚三, 2009, 「中國 洛陽 新출토 古代 韓人 墓誌銘 연구」, 『新羅史學報』 15, 218~219쪽.

이러한 혼동은 본서에서 묘지의 ‘은인(殷人)’·‘은가(殷家)’ 혹은 ‘기자’ 관련 언급을 가문의 기원(先祖)에 대한 서술이라고 판단한 데 기인한 오류가 아닌가 한다. 분명 고질과 고족유의 묘지에는 각각 ‘箕子之苗裔’와 ‘族本殷家’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선진(先秦)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설 속의 인물이 당 사회 내에서 실제 가문의 선조로서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적고, 고사에서 동래했다고 전하는 기자는 위 묘주 일가와 성씨도 다르다. 이러한 선진시기의 기자 관련 기술은 그들의 출신인 요동(고구려) 지역 자체에 대한 미화, 즉 해당 지역이 과거 기자가 봉해졌던 땅이라는 수·당 조정 인사들의 역사 인식과 관련된 수사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³

예컨대 「이타인묘지」의 “採翫掇犀 頓綱八條之國”, 「고자묘지」의 “地蘊三韓 人承八教” 같은 문구들에서 ‘팔조’, ‘팔교’가 언급된 것도 ‘기자’라는 인명이 빠졌을 뿐, 모두 기자동래설과 관련된 것이며, 당인의 관점에서 요동(고구려)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유래를 언급한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묘지의 기자동래설 관련 기술을 단순히 특정 가문의 선조를 소개한 문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고구려 기원만 기재된 ‘원초형’과 ‘은인·기자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묘지의 문학적 수사와 비유를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부분이다.

다섯 번째로 신분의 차이와 출사 계기를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재당 유민의 동향을 파악한 문제에 대한 것이다. 본서에서는 고구려 유민 2~3세대인 고목로·이인덕·왕경요·고덕 등이 710년대에 이융기(훗날 현종)의 휘하에서 위황후 세력을 제거하는 궁중정변에 참여했던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이 궁중 정변에서 활동한 배경과 관련해 고구려 유민 제1~2세대가 금위의 무관으로서 임관된 사례에 주목한다. 이를 감안할 때 668년 이래 고구려 유민이 궁중의 위사나 장졸로도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과 710년경 이융기 휘하에 있었던

3 안정준, 2016, 「당대(唐代)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起源) 고구려 유민(遺民) 일족(一族)의 현황과 그 가계(家系) 기술」, 『역사와 현실』 101, 38~39쪽.

궁정 정변의 참여자들과의 연관성을 막연히 상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710년경 궁중정변에서 활약한 고덕·왕경요·왕모중·유원정 등의 고구려 유민 일족들은 대부분 ‘만기(萬騎)’ 소속이었다. 만기는 당태종 때부터 관호(官戶)와 번구(蕃口) 중에서 날래고 용맹한 사람을 뽑은 조직인 백기(百騎)가 천기(千騎)·만기 등으로 규모가 확대·개편된 것을 말한다.⁴ 여기서 활동했던 고덕·왕경요·왕모중 등은 당에서 매우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고, 딱히 지역적·혈연적 연고가 없었기에 당시 조정에서 견제를 받던 이용기가 경사에서 은밀히 포섭하기에 용이한 인물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임치왕(臨淄王)으로 있었던 이용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훗날 위항후 일파의 제거에 동원되기도 했던 것이다.

다만 본서와 같이 고덕·왕경요·왕모중·유원정 등을 8세기 초반 고구려 유민의 대표적 케이스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대인 고구려 유민 1~2세대가 ‘천기’·‘만기’, 혹은 궁중의 위사나 병졸로 선발되어 활용되었던 기록이 필요해 보인다. ‘만기’도 710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확대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 고구려 유민들이 선발되었다면 대략 어느 시기에 어떤 계기를 통해 선발되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증이 없는 상태에서 710년경의 궁중정변이라는 특수한 계기와 이들의 낮은 신분적 처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당 사회에서 활동했던 고구려·백제 유민의 시대별 추이나 ‘변화’, 혹은 ‘동화’의 한 양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4 안정준, 2019, 「唐代 高句麗 遺民 一族인 劉元貞과 그의 부인 王氏 墓誌銘」, 『목간과 문자』 23, 290~291쪽.

IV. 맺음말

필자는 앞에서 본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나, 주로 고구려 유민 묘지의 해석 및 분류에 대한 지적들이었다. 연구의 전체적인 시각과 접근 방법의 독창성, 그리고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 및 분석한 이 저서의 연구사적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연구자의 논의와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에다 교수는 1986년생의 신진연구자이다. 그는 일본학계의 동아시아사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와 관련한 여러 논문을 써왔고, 향후에도 본인의 연구 분야를 계속 확장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최근 수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 입국이 어려웠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세미나와 발표 등 한국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지속해왔고, 필자 역시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 우에다 교수가 앞으로도 한국의 여러 소장학자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가면서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곽승훈 외,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권덕영, 2021a,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역주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_____, 2021b,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자료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植田喜兵成智, 2022,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 古代東アジア國際關係の
変化と再編-』, 東京: 山川出版社

논문

- 권덕영, 2018, 「羅振玉의 금석학과 『唐代海東藩閩誌存』」, 『한국고대사연구』 91.
閔庚三, 2009, 「中國 洛陽 신출토 古代 韓人 墓誌銘 연구」, 『新羅史學報』 15.
바이건싱, 2008,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안정준, 2016, 「당대(唐代)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起源) 고구려 유민(遺民) 일족
(一族)의 현황과 그 가계(家系) 기술」, 『역사와 현실』 101.
_____, 2019, 「唐代 高句麗 遺民 一族인 劉元貞과 그의 부인 王氏 墓誌銘」, 『목간
과 문자』 23.
李成制, 2014,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75.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란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7호(2022. 9)

초판 1쇄 인쇄 2022년 9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9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6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